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 데이터 분석 세미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일시 \_ 2014년 7월 11일(금) 09:30 ~ 18:00

장소 \_ 엘 타워 라벤더 홀(B1)

주최 \_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본 세미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4년도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I'(연구책임자: 윤철경)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본 자료집은 추후 본원의 2014년도 연구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오니 무단전재 및 복제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부 일 정

시 간	진 행 내 용
9:30~10:00	등 록
10:00~10:10	사회: 서정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노 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b>▣ 개회사</b> <b>▣ 세션1.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b> 좌장: 조아미 (명지대학교 교수)
10:10~11:50	<b>발표1.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적·환경적 특성: 일반 청소년과의 비교</b> 김신영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b>발표2. 학업중단 후 만족하는 청소년과 불만족하는 청소년, 어떻게 다른가?</b> 조아미 (명지대학교 교수), 이진숙 (수원여자대학교 교수) <b>발표3. 학교에 복귀하는 청소년, 특성과 경험, 의식</b> 정경은 (초당대학교 교수) <b>발표4. 학업중단 사유와 청소년들의 특성, 그리고 중단 후 경로와의 관계성</b> 황지원 (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연구원)
	<b>▶ 토론 및 참관</b> 유순덕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채홍길 (대전 둔원중학교 교장) 주동범 (부경대학교 교수) 박성수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과장)
11:50~13:20	점심식사
	<b>▣ 세션2.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후 경로</b> 좌장: 이기종 (국민대학교 교수)
13:20~15:00	<b>발표1. 학업중단 후 학습을 지속하는 청소년들, 특성과 경험, 의식</b> 김성식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b>발표2. 학업중단 후 취업형 청소년들, 특성과 경험, 의식</b> 김강호 (한국고용정보원 생애진로개발센터 연구위원) <b>발표3. 학업중단 후 무업형 청소년들, 특성과 경험, 의식</b> 유성렬 (백석대학교 교수)
	<b>▶ 토론 및 참관</b>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이상균 (가톨릭대학교 교수) 채혜영 (인지어스 서울희망리본사업 본부장) 이금순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과장)

시 간	진 행 내 용
15:00~15:20	휴 식
	<p>▣ 세션3. 비행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생활</p> <p>좌장: 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p>
15:20~17:00	<p><b>발표1. 학업중단 이후 비행경로에 대한 일반학업중단 청소년과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비교</b> 박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전영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p> <p><b>발표2. 학업중단 전후의 문제행동 변화에 따른 유형분류와 특성</b> : 보호관찰 중인 학업중단 청소년을 중심으로 강지현 (울산대학교 교수)</p> <p><b>발표3. 비행청소년의 학업중단 전후 문제행동, 자기통제력, 비행친구</b> :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의 비교 민수홍 (경기대학교 교수)</p> <p>▶ 토론 및 참관 정혜원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황성현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용성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p>
	<p>▣ 종합논의</p> <p>좌장: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p>
17:00~18:00	<p><b>발표1. 조사패널 구축방법에 따른 결과 해석 및 한계</b> 이기재 (방송통신대학교 교수)</p> <p><b>발표2.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정책 현황 및 방향</b>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p>
18:00~	▣ 폐회사

# 목 차

## 세션 1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 1

- 발표 1    ❖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적·환경적 특성 : 일반 청소년과의 비교 ..... 3  
          김 신 영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 발표 2    ❖ 학업중단 후 만족하는 청소년과 불만족하는 청소년, 어떻게 다른가? ..... 31  
          조 아 미 (명지대학교 교수)  
          이 진 숙 (수원여자대학교 교수)
- 발표 3    ❖ 학교에 복귀하는 청소년, 특성과 경험, 의식 ..... 67  
          정 경 은 (초당대학교 교수)
- 발표 4    ❖ 학업중단 사유와 청소년들의 특성, 그리고 중단 후 경로와의 관계성 ..... 87  
          황 지 원 (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연구원)
- 토론 1    ❖ 유 순 덕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 131
- 토론 2    ❖ 채 홍 길 (대전둔원중학교 교장) ..... 135
- 토론 3    ❖ 주 동 범 (부경대학교 교수) ..... 139

**세션 2**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후 경로 / 143

- 발표 1**    **▶** 학업중단 후 학습을 지속하는 청소년들, 특성과 경험, 의식 ..... 145  
          김 성 식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 발표 2**    **▶** 학업중단 후 취업형 청소년들, 특성과 경험, 의식 ..... 163  
          김 강 호 (한국고용정보원 생애진로개발센터 연구위원)
- 발표 3**    **▶** 학업중단 후 무업형 청소년들, 특성과 경험, 의식 ..... 189  
          유 성 렬 (백석대학교 교수)
- 토론 1**    **▶** 김 성 기 (협성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223
- 토론 2**    **▶** 이 상 균 (가톨릭대학교 교수) ..... 227
- 토론 3**    **▶** 채 혜 영 (인지어스 서울희망리본사업 본부장) ..... 233

**세션 3**    비행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생활 / 239

- 발표 1**    **▶** 학업중단 이후 비행경로에 대한 일반학업중단 청소년과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비교 ..... 241  
          박 성 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전 영 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2	▶	학업중단 전후의 문제행동 변화에 따른 유형분류와 특성 : 보호관찰 중인 학업중단 청소년을 중심으로 .....	271
		강 지 현 (울산대학교 교수)	
발표 3	▶	비행청소년의 학업중단 전후 문제행동, 자기통제력, 비행친구 :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의 비교 .....	291
		민 수 홍 (경기대학교 교수)	
토론 1	▶	정 혜 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	311
토론 2	▶	황 성 현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	315
토론 3	▶	박 형 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319

#### 종합 논의

종합 논의	▶	조사패널 구축방법에 따른 결과 해석 및 한계 .....	325
		이 기 재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종합 논의	▶	학업중단(위기) 청소년을 위한 정책 현황 및 방향 .....	343
		윤 철 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션 1



#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좌장 : 조아미(명지대학교 교수)



## 발표 1

.....

#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적·환경적 특성 : 일반 청소년과의 비교

김 신 영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적·환경적 특성

## : 일반 청소년과의 비교

### 1. 서론

이 연구는 2013년 학업중단 청소년패널 1차년도 조사를 통해 밝혀진 응답자들의 개인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을 일반 학생 청소년들의 그것들과 비교해 보는 작업에 관한 것이다. 비교의 대상은 2013년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1차년도 조사 대상가운데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과 일반 학생 청소년들이며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1차년도 응답대상자 가운데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학업중단 청소년 집단과 비교에 활용된 일반 학생 청소년 집단은 201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조사 응답자,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1차 및 2차년도 응답자, 한국교육중단 연구 1 및 4차년도 조사 등을 통해 확보된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중단 1차 패널 조사 대상자는 중등학령기 청소년(13세-15세)과 고등학령기 청소년들(15세-18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조사 응답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일반계 및 전문계)들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1차 및 2차년도 응답자들은 각각 중1과 중2 학생들로, 201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는 중·고등학교 청소년, 한국교육중단연구 1 및 4차년도 조사는 중·고등 학령기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다<sup>1)</sup>.

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1차년도 조사대상 가운데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은 총 776명<sup>2)</sup>이며 주요 변수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52.2%)’이 ‘여성(42.8%)’ 비해 다소 많았으며, 현재 학업상태는 ‘학교를 그만둔 상태(94.8%)’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학업중단 이후 정규학교로 복귀한 상태(5.2%)’는 소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학업중단 시 학교급은 중학교가 22.8%, 일반계

1) 자료 확보의 한계로 인하여 학업중단 청소년 집단과 일반학생 청소년 집단의 연령대는 비교 항목별로 달라지게 된다. 2차 자료 분석의 한계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결과의 해석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가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어떠한 측면에서 일반 학생 청소년들과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이 연구가 갖는 의미를 감소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2) 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1차 자료는 2회 조사에 걸쳐 수집되었으며 최종 표본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776명과 보호관찰 청소년 220명으로 구성 되어있다.

고등학교가 43.2%,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가 340%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 재학시 학업을 중단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적으로 분류된 학업중단 형태를 살펴보면, ‘자발적 자퇴’가 81.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권고자퇴’가 6.8%, ‘징계로서 퇴학’이 3.5%로 나타났다<sup>3)</sup>. 응답자들의 학업 중단 기간은 1년 미만이 35.3%, 1년 이상 - 2년 미만이 50.4%, 2년 이상이 14.3%로 나타났으며 재학시 학교 성적은 상이 23.5%, 중이 21.6%, 하가 5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한 학교의 소재 지역 규모는 대도시가 50.7%, 중소도시가 28.2%, 그리고 읍면지역이 19.1%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들에 대한 일반학생 청소년들과의 비교 작업은 이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어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현 상황을 이해하는데 있어 준거점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반학생 청소년들이기 때문이다. 비교 대상으로서 일반 학생 청소년 자료를 선정하는데는 몇 가지 기준이 존재한다. 첫째, 비교 대상 자료는 방법론적으로 엄정한 과정을 거친 전국 단위 청소년 조사여야 한다. 방법론적으로 엄정하다라고 함은 공인된 기관을 통해 조사가 수행 및 감독되어야 하며 통계청의 공식적 승인을 받은 조사 자료여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조사 문항은 유사한 수준이 아닌 완벽하게 일치하는 문항이어야 한다. 셋째, 조사 대상 연령대는 가능한 일치하여야 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은 모든 비교 대상 자료들이 만족시키고 있으나 세 번째 기준은 완벽하게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비교 대상 집단의 연령불일치는 비교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를 요구케 하며 또한 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과 일반 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특성은 크게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개인적 특성은 주로 심리적 특성인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감, 그리고 문제행동 가해경험과 게임중독 성향 등이 있다. 환경적 특성으로는 부모의 정서적 및 경제적 지원,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습부적응 등이 있다. 비교의 순서는 먼저 문항별로 평균치 또는 각 항목의 빈도를 비교한 후<sup>4)</sup> 각 집단들의 요인별 신뢰도 수치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집단별 평균값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수행하고자 한다<sup>5)</sup>.

3) 낮은 응답 비율을 보이는 범주들은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 포기(3.7%), 유예(4.0%), 그리고 면제(0.1%) 등이 있다

4) 응답항목이 Likert-scale 형태의 등간척도일 경우 평균치를, 순위변수의 성격이 강할 경우(예를 들어, 규정 위반 경험 정도) 응답 빈도를 비교하도록 한다.

5) 두 독립표본 t-검정(two independent samples t-test)이란 각기 다른 두 모집단의 속성인 평균을 비교하기 위하여 두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들을 독립적으로 추출하여 표본 평균들의 비교를 통하여 모집단간의 유사성을 검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두 모집단의 분산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 독립표본 Z 검정과 유사하나 표준오차 계산 시 각 표본의 분산을 활용하여 그것들의 대푯값을 모집단 분산의 추정치로 사용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표준오차 및 통합분산의 계산공

## 2. 본론: 학업중단 청소년 vs 일반학생 청소년 집단

### 2-1. 자아 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총 다섯 개의 문항들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일반학생 청소년들의 경우 201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이하 2012 정신건강 연구) 조사 자료가 활용되었다. 두 조사에서 활용된 조사문항들은 ①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②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③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④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⑤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등이며 문항 간 일관성을 보여주는 Cronbach alpha 값은 각각 .841(학업중단)과 .920(2012 정신건강)으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먼저 문항별로 비교해 보면 모든 문항에서 일반학생 청소년들의 평균치가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①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mean = 3.11, sd = .851 vs mean = 3.03, sd = .685; ②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mean = 3.03, sd = .852 vs mean = 2.90, sd = .674; ③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mean = 3.22, sd = .789 vs mean = 3.12, sd = .619; ④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mean = 3.13, sd = .847 vs mean = 2.94, sd = .743; ⑤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mean = 3.16, sd = .848 vs mean = 2.87, sd = .775).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①번과 ③번 문항의 차이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문항들은 학업 중단 청소년 집단이 일반학생 청소년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섯 개의 문항을 합산하여 살펴 본 결과 역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비해 일반학생 청소년들의 자아 존중감 정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학업중단: mean = 14.87, sd = 2.74 vs 일반학생: mean = 15.66, sd = 3.64). 그러나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두 집단의 자아존중감 수준의 차이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자아존중감 측면에서 볼 때 일반학생 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은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타났다.

---

식은 각각 다음과 같다.

$$\sigma_{(\bar{Y}_1 - \bar{Y}_2)} = \sqrt{\frac{\Delta_1^2}{n_1} + \frac{\Delta_2^2}{n_2}} = \sqrt{\Delta_p^2 \left( \frac{1}{n_1} + \frac{1}{n_2} \right)} \quad \Delta_p^2 = \frac{n_1 \Delta_1^2 + n_2 \Delta_2^2}{n_1 + n_2}$$

표 1. 자아 존중감 집단 비교 결과: 문항별

문항	학업중단(N=776)		일반학생(N=8732)		t
	Mean	SD	Mean	SD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03	.685	3.11	.851	1.44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2.90	.674	3.03	.852	7.0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3.12	.619	3.22	.789	1.81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2.94	.743	3.13	.847	3.88*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2.87	.775	3.16	.848	4.28*

\* p < .05

표 2. 자아 존중감 집단 비교 결과: 요인

요인	학업중단(N=776)		일반학생(N=8732)		t값
	Mean	SD	Mean	SD	
자아존중감	14.87	2.74	15.56	3.64	1.22

## 2-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총 다섯 개의 문항들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일반학생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2차년도 조사 자료가(이하 아동청소년 2차 자료) 활용되었다<sup>6)</sup>. 두 조사에서 활용된 조사문항들은 ①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②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③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④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⑤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등이며 문항 간 일관성을 보여주는 Cronbach alpha 값은 각각 .743(학업중단)과 .732(아동청소년 2차 자료)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문항별로 비교해 보면 자아탄력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과 일반학생 청소년들의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①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 낸다: mean = 2.83, sd = .753 vs mean = 2.95, sd = .699; ②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mean = 2.97, sd = .796 vs mean =

6) 아동청소년 2차 자료의 경우 응답항목을 역순으로 리코드하여 학업중단 자료의 응답항목과 일치시켰다.

3.12, sd = .767; ③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mean = 2.59, sd = .841 vs mean = 2.55, sd = .824; ④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 mean = 3.05, sd = .746 vs mean = 2.93, sd = .804; ⑤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mean = 2.78, sd = .780 vs mean = 2.99, sd = .768).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모든 문항에서 두 집단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섯 개의 문항을 합산하여 살펴 본 결과 일반학생 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 정도가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학업중단:mean = 14.32, sd = 2.71 vs 일반학생: mean = 14.22 sd = 2.75). 그러나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두 집단의 자아탄력성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자아탄력성 측면에서 볼 때 학업중단 청소년 집단과 일반 학생 청소년 집단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자아 탄력성 집단 비교 결과: 문항별

문항	학업중단(N=776)		일반학생(N=2350)		t
	Mean	SD	Mean	SD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2.83	.753	2.95	.699	1.23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2.97	.796	3.12	.767	1.80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2.59	.841	2.55	.824	-.98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3.05	.746	2.93	.804	-1.27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2.78	.780	2.99	.768	1.44

\* p < .05

표 4. 자아 탄력성 집단 비교 결과: 요인

요인	학업중단(N=776)		일반학생(N=2350)		t
	Mean	SD	Mean	SD	
자아탄력성	14.22	2.75	14.57	2.68	.46

## 2-3 우울감

우울감은 총 열 개의 문항들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일반학생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차년도 조사자료가(이하 아동청소년 2차 자료) 활용되었다<sup>7)</sup>. 두 조사에서 활용된 조사문항들은 ①기운이 별로 없다, ②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③걱정이 많다, ④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⑤울기를 잘한다, ⑥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⑦ 외롭다, ⑧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⑨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⑩모든 일이 힘들다 등이며 문항 간 일관성을 보여주는 Cronbach alpha 값은 각각 .878(학업중단)과 .890(아동청소년 2차 자료)으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먼저 문항별로 비교해 보면 우울감을 측정하는 거의 문항에서(문항 ⑤ 제외)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평균치가 일반학생 청소년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①기운이 별로 없다 : mean = 2.16, sd = .802 vs mean = 1.99, sd = .784; ②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mean = 2.03, sd = .849 vs mean = 1.94, sd = .827; ③걱정이 많다.: mean = 2.64, sd = .873 vs mean = 2.27, sd = .923; ④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mean = 1.73, sd = .805 vs mean = 1.68, sd = .792; ⑤울기를 잘한다.: mean = 1.91, sd = .914 vs mean = 1.96, sd = .893; ⑥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 mean = 2.20, sd = .845 vs mean = 2.04, sd = .850. ⑦외롭다: mean = 2.16, sd = .967 vs mean = 1.92, sd = .899. ⑧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mean = 1.80, sd = .759 vs mean = 1.75, sd = .754; ⑨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mean = 1.95, sd = .877 vs mean = 1.87, sd = .847. ⑩모든 일이 힘들다mean = 2.03, sd = .833 vs mean = 1.83, sd = .815 ).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문항 ③번과 ⑩번 즉 ‘걱정이 많다’와 ‘모든 일이 힘들다’ 문항들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평균값이 일반학생 청소년들의 그것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문항들의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열 개의 문항을 합산하여 살펴 본 결과 역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우울감 정도가 일반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학업중단: mean = 20.63, sd = 5.89 vs 일반학생: mean = 19.30 sd = 6.15). 그러나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두 집단의 우울감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우울감 측면에서 볼 때 학업중단 청소년 집단과 일반 학생 청소년 집단은 다르지 않은 집단으로

7) 아동청소년 2차 자료의 경우 응답항목을 역순으로 리코드하여 학업중단 자료의 응답항목과 일치시켰다.

나타났다.

표 5. 우울 집단 비교 결과: 문항별

문항	학업중단(N=776)		일반학생(N=2280)		t
	Mean	SD	Mean	SD	
기운이 별로 없다.	2.16	.802	1.99	.784	-1.44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2.03	.849	1.94	.827	-1.01
걱정이 많다.	2.64	.873	2.27	.923	-3.39*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1.73	.805	1.68	.792	-0.33
울기를 잘한다.	1.91	.914	1.96	.893	-1.21
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2.20	.845	2.04	.850	-1.33
외롭다.	2.16	.967	1.92	.899	-1.21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1.80	.759	1.75	.754	-0.46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1.95	.877	1.87	.847	-0.91
모든 일이 힘들다	2.03	.833	1.83	.815	-3.01*

\* p < .05

표 6. 우울 집단 비교 결과: 요인

요인	학업중단(N=776)		일반학생(N=2280)		t
	Mean	SD	Mean	SD	
우울감	20.63	5.89	19.30	6.15	-1.34

## 2-4 문제행동 경험

문제행동 경험은 총 여덟 개의 문항을 통해 조사되었다. 일반학생 청소년들의 경우 2012 정신조사 자료가 활용되었다<sup>8)</sup>. 조사에 활용된 문제 행동들로는 ‘담배피우기’, ‘술 마시기’, ‘남의 물건이나 돈 훔치기’,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남의 물건이나 돈 뺏기기’, ‘음란물 보기’, ‘돈내기 도박하기’,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 파손’ 등이다. 각각의 문제행동은 명목척도로 응답항목이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평균치가 아닌 응답 빈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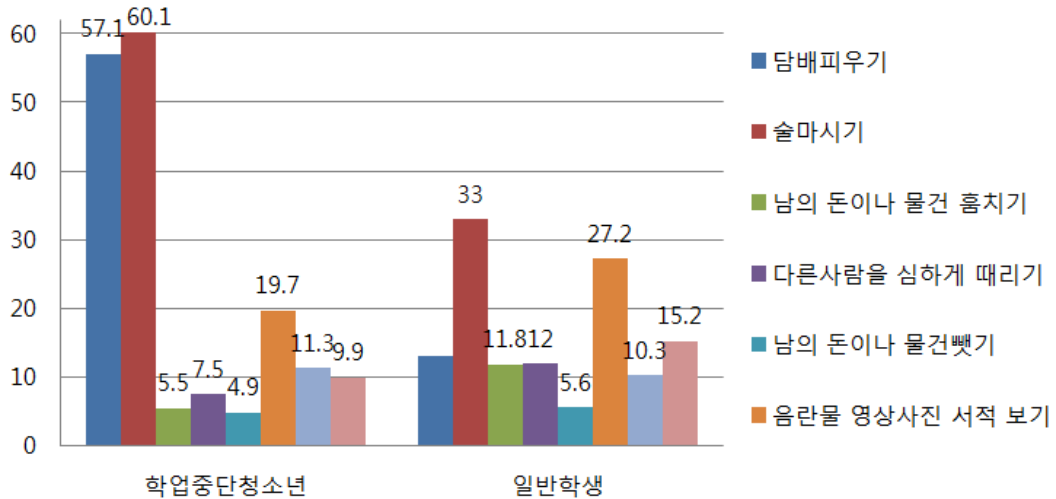
8) 학업중단 조사에는 ‘자살시도’가, 2012 정신건강 조사 자료에는 ‘학교 빼먹기’와 ‘가출’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비교가 불가능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2012 정신건강 조사는 응답항목이 순위척도로 되어 있어 비교를 위해 명목척도(‘있다’ vs ‘없다’)로 재구성하였다.

먼저 ‘담배피우기’는 일반학생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일반학생 청소년 13.0% vs 학업중단 청소년 57.1%). ‘술마시기’ 역시 일반학생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일반학생 청소년 33.0% vs 학업중단 청소년 60.1%). 다음으로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와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는 일반학생 청소년에서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일반학생 청소년 11.8% vs 학업중단 청소년 5.5%; 일반학생 청소년 12.0% vs 학업중단 청소년 7.5%). ‘남의 물건이나 돈 빼앗기’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일반학생 청소년 5.6% vs 학업중단 청소년 4.9%), 음란물(영상, 서적등) 보기는 일반학생 청소년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일반학생 청소년 27.2% vs 학업중단 청소년 19.7%). ‘돈내기 도박 경험’은 두 집단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일반학생 청소년 11.6% vs 학업중단 청소년 11.3%), 마지막으로 ‘공공기물 파손’은 일반학생 청소년 집단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일반학생 청소년 15.2% vs 학업중단 청소년 9.9%). 이상과 같은 결과는 몇 가지 흥미로운 가설을 제기한다. 먼저, 일반학생 청소년 집단에 비해 학업중단 청소년 집단에서 ‘흡연’의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이미 재학시부터 높은 흡연비율을 보인다고 보다는 학업중단 이후 흡연을 시작할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은 위와 같은 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비교적 상식적 수준의 가설에 반하는 결과라는 것이다<sup>9)</sup>. 또한 음주와 흡연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행동의 유형들은 학업중단 청소년과 일반학생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판별해내지 못한다는 보수적인 해석 또한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 물건 훔치기’,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음란물 보기’ 그리고 ‘공공기물 파손’등의 문제행동은 오히려 학교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문제행동일 것이라는 추측 역시 가능하다.

---

9) 물론 이러한 결과는 응답항목의 조정 과정에서 발생 한 것 일수도 있다.

### 비행경험 응답(%)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	음란물 영상 사진 서적 보기	돈내기 도박 해보기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
학업중단 청소년	57.1	60.1	5.5	7.5	4.9	19.7	11.3	9.9
일반학생	13	33	11.8	12	5.6	27.2	10.3	15.2

그림 1. 문제행동 경험

### 2-5 게임중독

자아존중감은 총 8개의 문항들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일반학생 청소년들의 경우 2012 정신건강 연구 조사 자료가 활용되었다. 두 조사에서 활용된 조사문항들은 ①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②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③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④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⑤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⑥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⑦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⑧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등이며 문항 간 일관성을 보여주는 Cronbach alpha 값은 각각 .935(학업중단)과 .899(일반학생)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먼저 문항별로 비교해 보면 게임 중독을 측정하는 모든 문항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평균치가 일반학생 청소년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①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 mean

= 1.67, sd = .847 vs mean = 1.20, sd = .516; ②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mean = 1.54, sd = .776 vs mean = 1.28, sd = .557; ③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mean = 1.47, sd = .812 vs mean = 1.24, sd = .551; ④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mean = 1.35, sd = .720 vs mean = 1.19, sd = .517; ⑤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mean = 1.40, sd = .731 vs mean = 1.26, sd = .568; ⑥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mean = 1.34, sd = .692 vs mean = 1.22, sd = .543. ⑦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mean = 1.49, sd = .782 vs mean = 1.28, sd = .600. ⑧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mean = 1.40, sd = .746 vs mean = 1.20, sd = .504 ).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대부분의 문항들은 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⑥번 문항은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0)</sup>. 다음으로 여덟 개의 문항을 합산하여 살펴 본 결과 역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정도가 일반학생들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학업중단:mean = 11.66, sd = 5.07 vs 일반학생: mean = 9.84 sd = 3.37).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수준은 일반학생 청소년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게임중독 측면에서 볼 때 학업중단 청소년 집단은 일반 청소년 집단과 질적으로 다른 집단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표 7. 게임중독 집단 비교 결과: 문항별

문항	학업중단(N=776)		일반학생(N=8703)		t
	Mean	SD	Mean	SD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1.67	.847	1.20	.516	-9.81*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1.54	.776	1.28	.557	-3.28*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1.47	.812	1.24	.551	-3.79*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1.35	.720	1.19	.517	-2.99*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1.40	.731	1.26	.568	-2.12*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1.34	.692	1.22	.543	-1.89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1.49	.782	1.28	.600	-3.58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1.40	.746	1.20	.504	-2.87*

\* p < .05

10) 보통의 경우 유의수준을 .05로 정하지만 이 경우 검정력(statistical power)을 높이기 위해 유의수준을 .1로 변경한다면 이 두 문항의 평균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으나 표본의 크기가 충분함을 고려할 때(n = 776), 유의수준의 변화를 주는 것은 타당치 않아 보인다.

표 8. 게임중독 집단 비교 결과: 요인

요인	학업중단(N=776)		일반학생(N=8703)		t
	Mean	SD	Mean	SD	
게임중독	11.66	5.07	9.84	3.37	-3.81*

\*p <.05

## 2-5 부모의 정서적 지원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총 다섯 개의 문항들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일반학생 청소년들의 경우 2012 정신건강 연구 조사 자료가 활용되었다. 두 조사에서 활용된 조사문항들은 ①부모님은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②부모님은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③부모님은 나의 고민을 들어 주신다, ④부모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⑤부모님은 내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등이며 문항 간 일관성을 보여주는 Cronbach alpha 값은 각각 .934(학업중단)과 .945(2012 정신건강)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먼저 문항별로 두 집단을 비교해 보면 모든 문항에서 일반학생 청소년들의 부모의 정서적 지원의 평균치가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① 부모님은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mean = 3.17, sd = .849 vs mean = 2.95, sd = .774; ②부모님은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mean = 3.32, sd = .754 vs mean = 3.05, sd = .758; ③부모님은 나의 고민을 들어 주신다: mean = 3.12, sd = .849 vs mean = 2.89, sd = .828; ④부모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mean = 3.28, sd = .799 vs mean = 3.02, sd = .786; ⑤부모님은 내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주신다: mean = 3.20, sd = .855 vs mean = 2.88, sd = .827). 그러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 검정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두 집단의 문항별 평균값 차이는 어느 문항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섯 개의 문항을 합산하여 살펴 본 결과 역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비해 일반학생 청소년들의 부모의 정서적 지원 정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학업중단: mean = 14.80, sd = 3.53 vs 일반학생: mean = 16.08, sd = 3.76). 그러나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두 집단의 부모의 정서적 지원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부모의 정서적 지원 측면에서 볼 때, 학업중단 청소년과 일반 학생 청소년 집단은 동질적 집단으로 나타났다.

표 9. 부모의 정서적 지원 집단 비교 결과: 문항별

문항	학업중단(N=776)		일반학생(N=8397)		t
	Mean	SD	Mean	SD	
부모님은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2.95	.774	3.17	.849	1.02
부모님은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3.05	.758	3.32	.754	1.23
부모님은 나의 고민을 들어 주신다.	2.89	.828	3.12	.849	1.19
부모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3.02	.786	3.28	.799	1.33
부모님은 내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2.88	.827	3.20	.855	1.87

\* p < .05

표 10. 부모의 정서적 지원 집단 비교 결과: 요인

요인	학업중단(N=776)		일반학생(N=8397)		t
	Mean	SD	Mean	SD	
부모의 정서적 지원	14.80	3.53	16.08	3.76	1.78

## 2-6. 부모의 경제적 지원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총 세 개의 문항들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일반학생 청소년들의 경우 2012 정신건강 연구 조사 자료가 활용되었다. 두 조사에서 활용된 조사문항들은 ①부모님은 나에게 용돈을 주신다, ②부모님은 내 공부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③부모님은 내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등이며 문항간 일관성을 보여주는 Cronbach alpha 값은 각각 .812(학업중단) 과 .694(2012 정신건강)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먼저 문항별로 두 집단을 비교해 보면 모든 문항에서 일반학생 청소년들의 부모의 경제적 지원의 평균치가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① 부모님은 나에게 용돈을 주신다: mean = 3.27, sd = .886 vs mean = 2.92, sd = .905; ②부모님은 내 공부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mean = 3.48, sd = .691 vs mean = 3.09, sd = .757; ③부모님은 내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mean = 3.33, sd = .799 vs mean = 2.85, sd = .920).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①번, ②번, 그리고 ③번 문항 모두 유의 수준 .05에서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세 개의 문항을 합산하여 살펴 본 결과 역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비해 일반학생 청소년들의 부모의 경제적 지원 정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학업중단: mean = 8.85, sd = 2.24 vs 일반학생: mean = 10.08, sd = 1.88).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일반학생 청소년들의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수준이 학업중단청소년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경제적 지원 측면에서 볼 때, 학업중단 청소년 집단은 일반 학생 청소년 집단에 비해 의미있는 수준에서 낮은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부모로부터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1. 부모의 경제적 지원 집단 비교 결과: 문항별

문항	학업중단(N=776)		일반학생(N=8385)		t
	Mean	SD	Mean	SD	
부모님은 나에게 용돈을 주신다.	2.92	.905	3.27	.866	2.36*
부모님은 내 공부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3.09	.802	3.48	.691	2.12*
부모님은 내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2.85	.920	3.33	.799	2.07*

\* p < .05

표 12. 부모의 경제적 지원 집단 비교 결과: 요인

요인	학업중단(N=776)		일반학생(N=8385)		t
	Mean	SD	Mean	SD	
부모의 경제적 지원	8.85	2.24	10.08	1.88	2.41*

\* p < .05

## 2-8. 친한 친구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친한 친구수는 2011년도에 수행된 한국청소년패널 5차년도 조사(이하 청소년패널 2차 자료)를 통해 수집된 당시 고3 청소년들의 친한 친구수와 비교되었다. 일반적으로 친한 친구수를 묻는 질문에는 진실되지 못한 답변으로 인해 이상치들이(outliers) 발생하곤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두 조사의 친한 친구수를 평균치와 5% 절삭 평균치(5% trimmed mean)<sup>11)</sup>를 통해 비교하고

11) 기술통계상의 평균치 분석시 이상치가 의심될 경우 양 극단 5%에 해당하는 값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을 통해 평균을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친한 친구수의 평균치를 비교하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친한 친구수가 일반 학생 청소년들의 친한 친구수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학업중단: mean = 10.55, sd = 10.23 vs 일반학생: mean = 6.69, sd = 5.35).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역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친구수가 일반 학생 청소년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 = 11.29, p = .000$ ). 이사치를 통제한 5% 절삭 평균 역시 일반학생 청소년에 비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학업중단: 10.32명 vs 일반학생: 6.01명)

### 친한친구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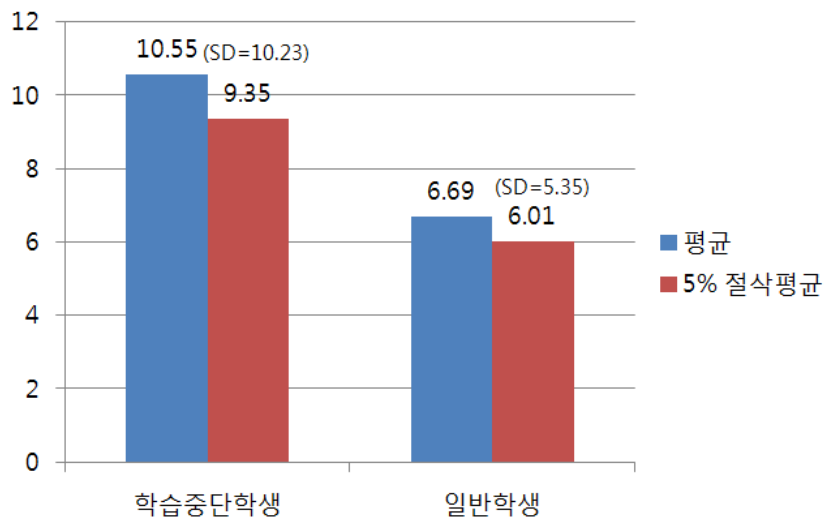


그림 2. 친한 친구수 집단 비교: 평균 및 5% 절삭 평균

## 2-9. 교사관계

교사와의 관계는 총 세 개의 문항들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일반학생 청소년들의 경우 2012 정신건강 연구 조사 자료가 활용되었다. 두 조사에서 활용된 조사문항들은 ①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었다, ②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었다, ③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었다이며 문항 간 일관성을 보여주는 Cronbach

---

구하는 것이다

alpha 값은 각각 .897(학업중단)과 .903(2012 정신건강)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먼저 문항별로 두 집단을 비교해 보면 모든 문항에서 일반학생 청소년들의 교사와의 관계 수준의 평균치가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①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었다: mean = 3.00, sd = .862 vs mean = 2.68, sd = .924; ②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었다: mean = 2.69, sd = .974 vs mean = 2.37, sd = .957; ③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었다: mean = 2.82, sd = .940 vs mean = 2.49, sd = .950).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②번과 ③번 문항만이 일반학생 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번과 ③번 문항은 학업중단 학생들이 학교 생활시 위기적 순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의할 수 있는 있는 교사의 존재여부를 묻고 있으며, 이 문항의 응답 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 집단이 일반학생 청소년 집단에 비해 도움이 필요한 또는 위기적 순간에 교사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세 개의 문항을 합산하여 살펴 본 결과 역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비해 일반학생 청소년들의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학업중단: mean = 7.54, sd = 2.57 vs 일반학생: mean = 8.51, sd = 2.54).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두 집단은 교사와의 관계 측면에서 서로 다른 집단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학생 청소년 집단에 비해 학업 중단 청소년 집단이 경험하고 있는 교사와의 관계가 질적으로 좋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교사와의 관계 집단 비교 결과: 문항별

문항	학업중단(N=776)		일반학생(N=8722)		t
	Mean	SD	Mean	SD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었다.	2.68	.924	3.00	.862	1.66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었다.	2.37	.957	2.69	.974	1.99*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었다	2.49	.950	2.82	.940	2.28*

\* p < .05

표 14. 교사와의 관계 집단 비교 결과: 요인

요인	학업중단(N=776)		일반학생(N=8722)		t
	Mean	SD	Mean	SD	
교사와의 관계	7.54	2.57	8.51	2.54	2.16*

\*  $p < .05$

## 2-10. 친구관계

응답자의 친구관계는 총 세 개의 문항들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일반학생 청소년들의 경우 2012 정신건강 연구 조사 자료가 활용되었다. 두 조사에서 활용된 조사문항들은 ①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었다, ②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했다, ③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냈다 등이며 문항 간 일관성을 보여주는 Cronbach alpha 값은 각각 .865(학업중단)와 .872(2012 정신건강)로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먼저 문항별로 두 집단을 비교해 보면 모든 문항에서 일반학생 청소년들의 친구관계의 평균치가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비해 높게, 즉 양호하게, 나타났다(①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었다 : mean = 3.37, sd = .748 vs mean = 3.14, sd = .827; ②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했다: mean = 3.32, sd = .757 vs mean = 2.92, sd = .909; ③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냈다: mean = 3.37, sd = .746 vs mean = 3.19, sd = .799). 그러나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는 ②번 문항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②번 문항의 경우 친구관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일어나는 전반적인 또래 관계에 대해 묻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응답 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교내에서 또래관계의 문제점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세 개의 문항을 합산하여 살펴 본 결과 역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비해 일반학생 청소년들의 친구관계의 긍정적 정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학업중단: mean = 9.24, sd = 2.25 vs 일반학생: mean = 10.05, sd = 2.00). 그러나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두 집단의 친구관계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15. 친구 관계 비교 결과: 문항별

문항	학업중단(N=776)		일반학생(N=8727)		t
	Mean	SD	Mean	SD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었다.	3.14	.827	3.37	.748	1.11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했다.	2.92	.909	3.32	.757	2.45*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냈다	3.19	.799	3.37	.746	1.31

\* p <.05

표 16. 친구 관계 비교 결과: 요인

요인	학업중단(N=776)		일반학생(N=8727)		t
	Mean	SD	Mean	SD	
친구관계	9.24	2.25	10.05	2.00	1.48

### 2-11. 학습부적응

학습부적응 정도의 경우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교할 수 있는 일반학생 청소년 조사 자료는 2008년에 수행된 한국교육중단연구 4차년도 조사자료(이하 교육중단 4차 자료)이다. 두 조사 모두 학습부적응을 조사하고는 있으나 조사 문항에 차이들이 존재하여<sup>12)</sup> 문항별 비교는 하지 않고 문항을 묶어 구성된 요인의 평균치만을 비교하도록 한다. 문항 간 일관성을 보여주는 Cronbach alpha 값은 각각 .753(학업중단)과 .824(교육중단 4차 자료)로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 개의 문항을 합산하여 살펴 본 결과 역시 일반학생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습부적응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학업중단: mean = 7.65, sd = 2.24 vs 일반학생: mean = 5.47, sd = 1.61).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습부적응 정도가 일반학생 청소년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학업중단 자료의 경우 “학교 수업내용은 내 관심, 흥미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학교 수업내용은 내 수준에 맞지 않았다”, “학교 수업을 알아듣는 것은 참 힘든 일 이었다” 등이 사용되었으며 교육중단 4차 자료의 경우 “수업내용은 나에게 무의미하다”, “학교 수업은 내가 따라잡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다”, “수업시간을 견디기 힘들다” 등이 사용되었다. 액면타당도 차원에서 중복되는 의미가 없지 않으나 엄밀한 비교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7. 학습 부적응 집단 비교 결과: 문항별 및 요인

요인	학업중단(N=776)		일반학생(N=3311)		t
	Mean	SD	Mean	SD	
학습부적응	7.65	2.24	5.47	1.61	-7.08*

\*  $p < .05$

## 2-12. 규정위반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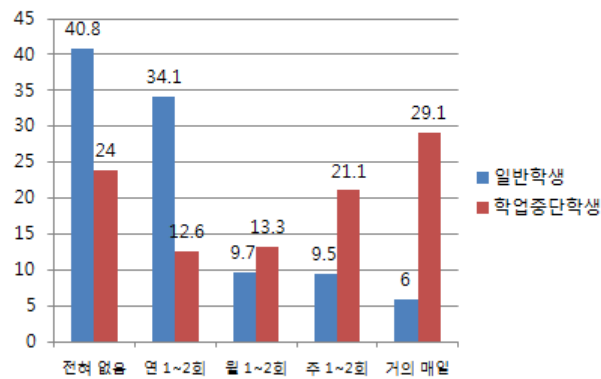
학업중단 청소년의 규정위반 경험은 2005년 수행된 한국교육중단연구 1차년도 조사자료(이하 교육중단 1차 자료)의 일반학생 청소년 집단과 비교되었다. 교육중단 1차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해 2005년도부터 수행된 패널자료이며 1차 년도는 중1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비교 대상으로서 일반학생 청소년들의 연령이 지나치게 제한적 일 수 있으나 조사문항 및 응답항목이 일치하기 때문에 비교를 수행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해석은 조심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비교가 이루어 질 규정위반 사항은 ‘지각’, ‘무단결석’, ‘두발 및 복장위반’, ‘숙제 안해움’, ‘수업 빼먹음’ 등이며 응답항목이 명백하게 순위척도임에 따라 위반내용별로는 응답빈도를 비교하고 이후 합산하여 평균치를 비교하도록 한다. 먼저 ‘지각’을 살펴보면,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거의 매일’과 ‘주 1-2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 반해 일반학생 청소년들은 약 15%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0.8%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전혀 없다’ 응답은 22.8%에 그쳤다. 무단결석의 경우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거의 매일’과 ‘주 1-2회’가 38.0%를 차지하고 있음에 반해 일반학생 청소년들은 0.3%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3.3%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전혀 없다’ 응답은 38.1%에 그쳤다. 두발 및 복장 위반의 경우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거의 매일’과 ‘주 1-2회’가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 반해 일반학생 청소년들은 4.6%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4.6%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전혀 없다’ 응답은 39.9%에 그쳤다. 다음으로 숙제안해움을 살펴보면,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거의 매일’과 ‘주 1-2회’가 44.0%를 차지하고 있음에 반해 일반학생 청소년들은 18.6%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오히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34.3%로 높게 나타났다<sup>13)</sup>. 마지막으로 수업을 몰래 빼먹은 비율을 살펴보면,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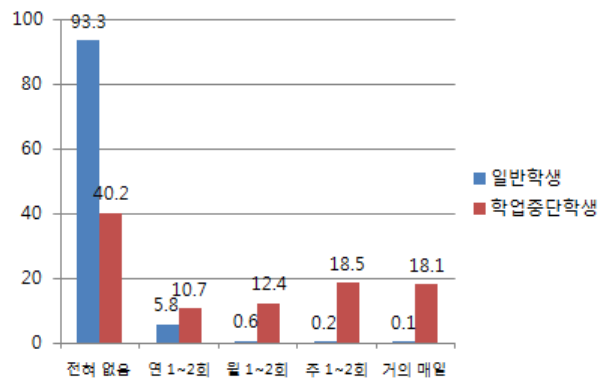
13) ‘숙제 안 해움’에 대한 이러한 응답 결과는 다소 상식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이미 학업을 중단을 학생 청소년들이 학교 숙제에 관한 질문에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매일'과 '주 1-2회'가 30.9%를 차지하고 있음에 반해 일반학생 청소년들은 0.6%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4.2%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전혀 없다' 응답은 48.5%에 그쳤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학교에서 규정위반 경험은 일반학생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에서 매우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은, 전술하였다시피, 두 집단의 연령적 차이까지를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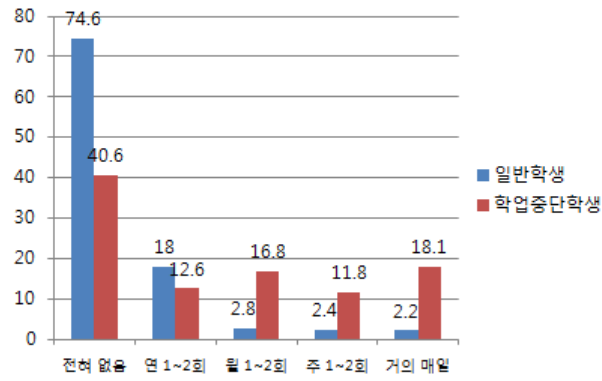
학교규정위반\_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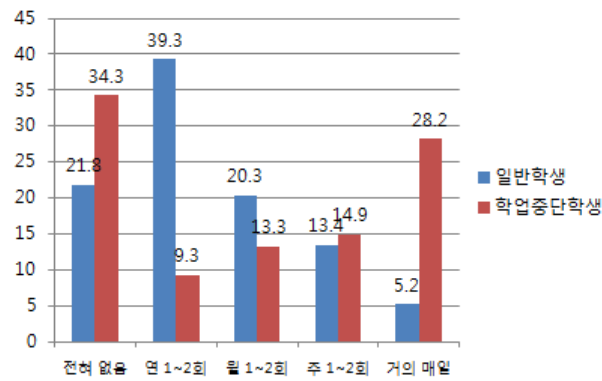
학교규정위반\_무단결석(%)



학교규정위반\_두발복장위반(%)



학교규정위반\_숙제 안 해옴(%)



학교규정위반\_수업 빼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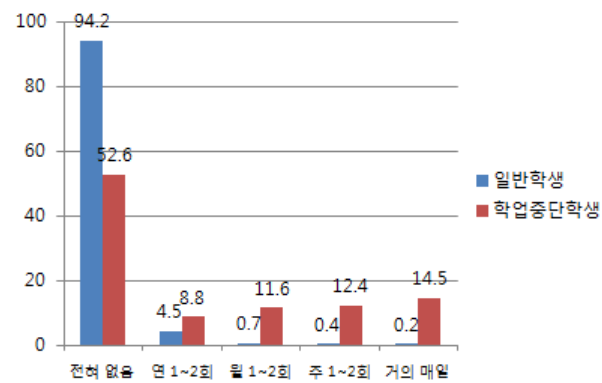


그림 3. 학교 규정 위반 경험 집단 비교

다섯 개의 규정위반 사항에 대한 경험 정도를 합산하여 살펴 본 결과 역시 일반학생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규정위반 경험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학업중단: mean = 13.57, sd = 5.97 vs 일반학생: mean = 8.01, sd = 2.45).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규정위반 정도가 일반학생 청소년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규정 위반 경험 집단 비교 결과: 문항별

응답	지각		무단결석		두발복장위반		숙제 안해옴		수업 빼먹음	
	일반	학업 중단	일반	학업 중단	일반	학업 중단	일반	학업 중단	일반	학업 중단
전혀 없음	40.8	22.8	93.3	38.1	74.6	39.9	21.8	33.6	94.2	48.5
연 또는 학기에 1~2회	34.1	11.5	5.8	10.8	18.0	12.4	39.3	10.7	4.5	9.4
월 1~2회	9.7	13.8	0.6	13.0	2.8	15.3	20.3	11.6	0.7	11.2
주 1~2회	9.5	23.2	0.2	21.0	2.4	14.0	13.4	15.3	0.4	14.9
거의 매일	6.0	28.7	0.1	17.0	2.2	18.3	5.2	28.7	0.2	16.0

표 19. 규정 위반 경험 집단 비교: 요인

요인	학업중단(N=776)		일반학생(N=6735)		t
	Mean	SD	Mean	SD	
규정위반경험	13.57	5.97	8.01	2.45	-14.75*

### 3. 소결

지금까지 2013 학업중단 청소년패널 1차년도 조사 자료를 비교 가능한 일반학생 청소년 집단들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비교하고자 하는 특성은 응답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들로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감, 그리고 문제행동경험, 게임중독정도, 부모의 정서적 및 경제적 지원,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습부적응 등이다. 분석 과정에서의 몇 가지 제한점, 예를 들면 비교 대상의 연령대 또는 조사 시점의 차이 등 에도 불구하고, 비교의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논의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자면, 먼저 응답자의 심리적 특성인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그리고 우울감 등은 학업중단 청소년들과 일반학생 청소년들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의 정서적 지원 역시 학업중단 청소년과 일반학생 청소년

두 집단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요인들은 주로 학교와 문제행동 관련 요인들로 나타났다. 학습부적응, 규정위반경험, 게임중독 등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예상했던 대로, 일반학생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문제성을 드러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대략 ‘정신 및 심리적으로 문제 상황에 직면해 있고,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집단’ 정도일 것이다. 범죄학 이론 가운데 낙인이론에 따르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위와 같은 일반적 정의내림은 그들을 보통의 청소년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보통의 청소년들로부터 분리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또래집단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부터의 낙인을 부여받게 되며 이러한 낙인화 과정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스스로의 자기규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문제행동 가능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학업 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의 기존 사고에 문제를 던짐에 부족함이 없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과연 보통의 청소년들과 다른 집단인가? 만약 다르다면 어떤 특성들이 다르게 나타나는가?’이다. 분석결과는 많은 측면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보통의 청소년들과 그리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감 등 많은 학자들이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기술하고 설명하는데 활용해온 심리적 특성은 일반 학생 청소년들과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의 분석결과들은 개인의 안정적 성향으로서 심리적 특성과 학업중단간의 관계에 대하여 보다 비판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일반학생 청소년들과 모든 측면에서 동일하지는 않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보통의 청소년들과 구별되는 지점은 문제행동 가운데 ‘술마시기’와 ‘담배피우기’, ‘친한 친구수’, ‘학교 규정 위반 경험’, ‘학습부적응’, ‘게임 중독’, ‘부모의 경제적 지원’ 등이었다. 핵심적 차이는 먼저 학교생활에서 발견 된다. 즉 학교에서의 부적응(학습을 포함한 학교생활 전반)은 학업의 중단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구별되는 지점은 비행을 포함한 문제행동이다. 게임중독 또한 넓은 의미에서 문제행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친한 친구수가 일반 학생 청소년들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은 범죄학 이론 가운데 차별적 교제이론의 적용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학업 중단 청소년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는 지점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상황 역시 학업중단이라는 선택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학업중단의 직접적 원인일수도 있지만 수많은 매개적 상황, 예컨대 부모와의 관계,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등, 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업중단을

일으키는 요인일수도 있을 것이다.

2차자료의 분석이 가지는 수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중 일부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고정관념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보다 체계적인 이후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 문제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

##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13). 2012학년도 초중고 학업중단 현황 조사결과 발표.
- 구본용, 유제민 (2003). 중퇴에 관한 위협 및 보호요인의 신경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133-146.
- 권해수, 서정아, 정찬석 (2007). 대안학교와 소년보호교육기관 청소년의 학교밖 경험 비교: 개념도 방법론을 통하여. 상담학연구, 8(2), 657-674.
- 금명자, 권해수, 이문희, 이자영, 이수림 (2004). 학교밖청소년 욕구조사, 학교밖청소년 길 찾기,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50, 21-44.
- 금명자, 주영아, 이자영, 김태성, 김상수, 신현수 (2005). 학교밖청소년 평가도구 개발, 청소년상담연구 111,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범구, 조아미 (2013).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한국청소년연구, 24(3), 5-31.
- 김상현, 양정호 (2013).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배경과 복교 후 학교생활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31(1), 81-113.
- 김해영 (2002). 학교중도탈락자의 사회적 맥락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9(3), 213-242.
- 남기곤 (2011). 고등학교 단계 학업 중단의 경제적 효과 추정. 시장경제연구, 40(3), 63-94.
- 박현선 (2003). 청소년의 학업중퇴 적응과정에 대한 현실기반이론적 접근. 한국사회복지학, 53, 75-104.
- 박현선 (2004). 학업중퇴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청소년상담연구, 12(2), 69-82.
- 배영태 (2003). 학교 중도탈락의 선행요인과 판별. 청소년상담연구, 11(2), 23-35.
- 성윤숙 (2005).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중퇴과정과 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16(2), 295-343.
- 손순용 (2005). 학교 밖 보호관찰 청소년 학력취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2, 73-96.

- 안현의, 이소영, 권해수 (2002). 학교 중도탈락 청소년의 욕구와 심리적 경험 조사,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양미진, 지승희, 이자영, 김태성 (2007).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캠프 프로그램 개발연구. 상담학연구, 8(4), 1657-1675.
- 오혜영, 지승희, 박현진 (2011).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까지의 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 연구, 19(2), 125-154.
- 윤철경 (2010). 학업중단 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전경숙 (2006). 10대 학업중단 청소년의 근로실태에 관한 실증적 고찰 연구 - 가출경험 학업중단 청소년을 중심으로 - 청소년상담연구, 14(1), 3-21.
- 전경숙 (2012). 청소년 학업중단 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수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정규석, Denise E. Bronson (2000). 미국 고등학생의 학교중퇴에 관한 다체계 모델: 모델 검증과 학교중퇴 예방프로그램에 주는 의미. 한국아동복지학, 9, 205-225.
- 조규필, 박현진, 김래선, 김범구, 양대희, 이현진, 황수진 (2011).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 재적응 과정 연구. 중등교육연구, 59(4), 969-1000.
- 조영승 (2001). 경기도지역 중퇴생 선도, 보호방안 프로그램 연구. 경기대사회과학연구소.
- 주영신 (2007). 보호관찰청소년의 재범 후 삶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동선, 이상준 (2009).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진로개발 지원 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홍나미, 신문희, 박은혜, 박지현 (2013).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복귀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접근. 청소년복지연구, 15(1), 121-153.

Adriana Lleras-Muney,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Adult Mortality in the Untided States," *Review of Economic Studies* 721 (2005): 189-221, 215.

Alexander, K. L., Entwisle, D. R., & Kabbani, N. S. (2001). The drop process in life course perspective: early risk factors at home and school. *Teachers College Record*, 103(5), 760-822.

- Eric D. Gould, Bruce A. Weinberg, and David B. Mustard, "Crime Rates and Local Labor Market Opportunities in the United States: 1979–1997,"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4 (2002): 45–61;
- Gary Sweeten, "Who Will Graduate? Disruption of High School; Education by Arrest and Court Involvement," *Justice Quarterly* 23 (2006): 462–480.
- Helen E. Garnier, Judith A. Stein, and Jennifer K. Jacobs, "The Process of Dropping Out of High School: A 19-Year Perspectiv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4 (1997): 395–419
- Jeffrey T. Grogger, "Market Wages and Youth Crime," *Journal of Labor Economics* 16 (1998): 756–791;
- Jennifer Manlove, "The Influence of High School Dropout and School Disengagement on the Risk of School-Age Pregnanc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8 (1998): 187–220, table 1.
- John M. Bridgeland, John J. Dilulio Jr., and Karen Burke Morison, *The Silent Epidemic: Perspectives on High School Dropouts*(Washington, DC: Civil Enterprises, 2006), 10.
- Julie A. Yates,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Education and Work Experiences", *Monthly Labor Review* 128 (2005): 21–32
- Kathryn Edin and Maria Kefalas, *Promises I Can Keep: Why Poor Women Put Motherhood before Marriage*(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5), 259–283
- Lauren, Rich, 이수연(2000). 미국 10대 미혼모의 학교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연구**, 16, 165–192.
- Lofstrom, M. (2007). Why are Hispanic and Africa–American dropout rates so high? *Williams Review*, 2, 91–121.
- Margaret E. Ensminger and Aniata L. Slusarcick, "Paths to High School Graduation or Dropout: A Longitudinal Study of a First-Graed Cohort," *Sociology of Education* 65 (1992): 95–113.
- Mitchell D. Wong et al., "Contribution of Major Diseases to Disparities in Mortality,"

-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47 (2002): 1585–1592.
- Robert J. Sampson and John H. Laub, "A Life-Course View of the Development of Crim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02 (2005): 16.
- Rumberger, R. W. (2011). *DROPPING OUT: Why students drop out of high school and what can be done about i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Zuzana Skodova et al., "Socioeconomic Differences in Psychosocial Factors Contributing to Coronary Heart Disease: A Review,"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in Medical Settings* 15 (2008): 204–213

## 발표 2

.....

# 학업중단 후 만족하는 청소년과 불만족하는 청소년, 어떻게 다른가?

조 아 미

(명지대학교 교수)

이 진 속

(수원여자대학교 교수)

# 학업중단 후 만족하는 청소년과 불만족하는 청소년, 어떻게 다른가?

## 1. 서론

학업중단은 청소년 개인에게는 물론 가정과 사회에 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기의 중요한 사건이다. 자신의 진로계획에 따라 학업을 중단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청소년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학업중단 청소년은 소속감을 잃고 방황하기도 하고 주위의 비판적인 시선에 좌절하기도 하면서 점차 자신의 꿈과 희망을 잃어가기도 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업중단 후 비행, 우울, 불안(오혜영, 박현진, 공윤정, 김범구, 2013), 진로를 잃고 은둔(금명자 외, 2004), 성매매 및 성폭력(성윤숙, 박병식, 2009), 가출(윤여각 외, 2002) 등의 문제행동을 한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은 생애근로소득이 낮고 따라서 세금도 적게 내게 된다(남기곤, 2011).

한편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2013)의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 결과,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였)다”라는 응답이 매우 그렇다 24.5%, 그렇다 49.8%로 나타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우울해 할 것이라고 예측되는데, 이 연구의 결과는 이것과 거리가 멀었다. 학업을 중단해서 행복하다는 청소년이 75%가량 된다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이다. “내가 선택한 결과이니 현재 생활에 만족한(했)다”라는 질문에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80%가 넘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업중단 후 만족하는 청소년과 만족하지 않는 청소년은 누구인가에 관한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한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적 정서 이해와 더 나아가서 이를 토대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의 2013년 자료를 토대로 학업중단 후 만족하는 청소년과 불만족하는 청소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도 조명하고자 한다.

## II. 학업중단 만족도

학업중단 만족도라는 용어는 학업중단과 만족도라는 어떤 측면에서는 서로 모순되는 의미를 가진 두 단어가 만나서 구성된 것이다. 이와 같은 용어를 구상한 것은 이론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윤철경 외(2013)의 연구결과에서 착안한 것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은 행복하거나 자신의 환경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현재 생활에 만족하거나 행복해 하는 청소년이 많아서였다. 학업중단 후 만족하는 청소년을 보면, 왜 이들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학업중단 후 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할까? 우리가 이들에 대해 간과한 부분은 무엇일까?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되는가? 등등의 질문이 계속해서 등장한다.

연구자가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의 자료를 분석해서 이에 대한 답을 부분적이거나 찾는 것이라고 본다. 윤철경 외(2013)에서는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질문을 다음과 같은 6 문항으로 하였다. 이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내용적으로 크게 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한 유형은 학업중단과 관련하여 주위의 시선을 인식하고 불편해 하는 것인데(문항 1,2,3), 이것은 학업중단과 관련하여 외재적 만족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유형은 학업중단과 관련하여 자신의 내면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데(문항 4,5,6), 이것은 내재적 만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문항 1,2,3,5를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외재적 만족과 내재적 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했다. 궁극적으로는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중단 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표 II-1>

개념	하위유형	문항
학업중단 만족도	외재적 만족	1.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2.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주위사람들이 문제아 취급을 하는 것 같았다.*
		3. 학교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으니 불안하였다.*
	내재적 만족	4. 내가 선택한 결과이니 현재 생활에 만족하였다.
		5.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하였다.*
		6.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였다.

\* 역채점

이를 토대로 보면, 학업중단 만족도는 학업중단의 결과로 나타나는 개인의 만족상태이고, 외재적

만족과 내재적 만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재적 만족은 학업중단이 부끄럽거나 숨기고 싶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나 주위 사람들에게도 당당하고 자신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내재적 만족은 학업중단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개인적인 측면에서 만족해하는 것이다. 결국 학업중단 만족도라는 것은 외재적으로나 내재적으로 모두 만족스러운 것이다. 또한 학업중단 만족도를 외재적 만족과 내재적 만족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 보면 이론적으로 네 가지 학업중단 만족 유형이 나타난다. 즉, 외재적 만족과 내재적 만족이 모두 높은 유형과 낮은 유형, 외재적 만족은 높으나 내재적 만족은 낮은 유형, 내재적 만족은 높으나 외재적 만족은 낮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을 각각 명명하면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불만족, 그리고 외재적 만족과 내재적 만족 유형이 될 수 있다.

<표 II-2>

완전한 불만족	외재적 만족
내재적 만족	완전한 만족

### III.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학업중단 청소년중단조사 및 지원방안 I’의 원자료이다. 이 자료는 2012년 7월 이후 정규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학업중단 경험(해당 기간에 중단했다가 복교한 청소년 포함)이 있거나 직업훈련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다. 원 자료에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본 연구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6월부터 11월에 실시되었고 일대일 대면면접과 집단면접 자기기입식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 2. 조사도구

### 1) 학업중단 만족도

원자료의 조사도구는 학업중단 현황, 학업중단 당시 학교생활 회고, 학업중단 이후 경험과 인식, 개인의 심리정서 상황, 부모·친구관계·동네주변 환경, 일상생활 및 가치관, 생애사건 경험, 문제행동 경험, 배경요인, 보호관찰 관련 사항 등 크게 10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이후 경험과 인식’영역 중 학업중단 후의 생각과 감정에 관한 6개 문항을 중심으로 학업중단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6개 문항을 중심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학업중단 만족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을 도출한 결과, 다음 표와 같이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1141.93( $p < .001$ )으로 각 문항들이 요인분석에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문항은 2가지의 요인으로 구성될 수 있고 각 요인을 외재적 만족과 내재적 만족으로 명명하였다.

**<표 III-1> 학업중단 만족도 조사에 활용된 문항**

문항	요인 1 (내재적 만족)	요인 2 (외재적 만족)
내가 선택한 결과이니 현재생활에 만족한(했)다	.867	-.008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였)다	.827	-.049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한(했)다	-.636	.325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주위사람들이 문제아 취급을 하는 것 같(았)다	.079	.849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166	.744
학교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으니 불안하(였)다	-.395	.519

### 2) 학업중단 만족도에 따른 차이

그 외 학업중단 만족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비교하기 위하여 ‘학업중단 현황, 학업중단

이후의 경험과 인식, 개인의 심리·정서 상황, 부모·친구관계·동네주변 환경, 일상생활 및 가치관, 생애사건 경험, 문제행동 경험’ 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Ⅲ-2>는 차이분석에 활용된 문항에 대한 설명이다.

**<표 Ⅲ-2> 학업중단 만족에 따른 차이 분석에 활용된 문항**

구분	세부내용	문항수
학업중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학교를 그만둔 학교급</li> <li>· 학교를 그만둔 이유</li> <li>·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 성적</li> <li>· 학업중단에 관한 의논 상대</li> <li>· 학업중단 시 학교에서 제공받은 정보</li> <li>·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여부 및 도움 여부 등</li> </ul>	7
학업중단 이후 경험과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중단 이후 진로 정보탐색 정도</li> <li>· 진로계획 달성에 대한 생각</li> </ul>	2
개인의 심리, 정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아존중감</li> <li>· 자아탄력성</li> <li>· 우울감</li> <li>· 충동성</li> <li>· 게임중독</li> </ul>	33
부모, 친구관계 및 주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지원 및 방임, 학대</li> <li>· 또래애착</li> <li>·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li> </ul>	33
일상생활 및 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면시간</li> <li>· 공부나 일하는 시간</li> <li>· 여가시간</li> <li>· 식생활</li> <li>· 미래관</li> </ul>	14
생애사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 사망</li> <li>· 부모님 별거 및 이혼, 재혼</li> <li>· 부모님 가출, 실직</li> <li>· 부모님 질병 및 교통사고</li> <li>· 부부싸움, 부부간 폭력</li> <li>· 부모 구타</li> <li>· 교사 구타</li> <li>· 전학</li> </ul>	20
문제행동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피해</li> <li>· 문제행동 참여(흡연, 음주 등)</li> </ul>	15

###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 만족도를 유형화하고, 각 집단별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chi^2$ 검정 및 일원배치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학업중단 만족도의 유형

학업중단 만족도를 구성하는 6개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외재적 만족과 내재적 만족의 총점은 각각 3-12점으로 분포된다. 이 연구에서는 내재적 만족과 외재적 만족의 총점을 각 '6점 이하: 낮은 집단, 7-8점: 중간집단, 9점 이상: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아래 <표 IV-1>과 같이 9개 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

<표 IV-1> 학업중단 만족도 유형화

1. 완전한 불만족 (내재적 만족 6점 이하 외재적 만족 6점 이하)	2	3. 외재적 만족 (내재적 만족 6점 이하 외재적 만족 9점 이상)
4	5	6
7. 내재적 만족 (내재적 만족 9점 이상 외재적 만족 6점 이하)	8	9. 완전한 만족 (내재적 만족 9점 이상 외재적 만족 9점 이상)

9개 집단의 실태를 살펴보면 <표 IV-2>와 같은데, 9번 유형이 212명(27.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8번 유형이 163명(21.0%)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인원이 가장 적게 나타난 집단은 3번 유형으로 20명(2.6%)으로 나타났다.

<표 IV-2> 학업중단 만족도 유형별 빈도

구분	빈도(명)	백분율(%)
1번 유형	59	7.6
2번 유형	39	5.0
3번 유형	20	2.6
4번 유형	65	8.4
5번 유형	99	12.8
6번 유형	62	8.0
7번 유형	57	7.3
8번 유형	163	21.0
9번 유형	212	27.3
합계	776	100.0

9개 집단 중 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집단은 1, 3, 7, 9번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학업중단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이 비교적 분명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회색으로 표시된 2, 4, 5, 6, 8번 유형은 학업중단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이 분명하지 않은 집단이다. 각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번 유형: 완전한 불만족 집단

1번 유형은 ‘완전한 불만족’집단으로써 이 유형에 속하는 응답자는 외재적, 내재적 만족이 모두 6점 이하로 낮은 응답자이다. 이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총 59명(7.6%)을 차지하고 있고,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40명(67.8%), 여자가 19명(32.2%)으로 확인된다. 이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를 살펴보면 ‘학교 교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가 12명(20.3%)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공부하기 싫어서’가 11명(18.6%),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느껴서’가 8명(13.6%)으로 나타났다.

<표 IV-3> 1번 유형의 성별 분포

성별	빈도(명)	백분율(%)
남자	40	67.8
여자	19	32.2
계	59	100.0

<표 IV-4> 1번 유형: 학교를 그만둔 이유

단위: 명(%)

구분	빈도(백분율)
건강상의 이유로	1(1.7)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6(10.2)
가정불화 때문에	1(1.7)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1(1.7)
공부하기 싫어서	11(18.6)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8(13.6)
친구들이 싫어서	4(6.8)
학교 규칙이 엄해서	2(3.4)
학교를 그만둔 친구 따라 놀고 싶어서	0(0)
선생님이 싫어서	7(11.9)
검정고시를 하려고	1(1.7)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	1(1.7)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12(20.3)
비행으로 보호처분(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서	0(0)
학교 가기가 귀찮아서, 잠을 자느라고, 출석이 안 좋아서	0(0)
거리, 내신성적, 종교, 학교 분위기 등이유가 있어서	1(1.7)
학교 부적응으로	1(1.7)
유학, 이민, 대안학교, 전학 등	1(1.7)
가출, 학교폭력, 임신, 여자친구 등 비행문제로	1(1.7)
전체	59(100.0)

2) 3번 유형: 외재적 만족 집단

3번 유형은 ‘외재적 만족’유형으로써 내재적 만족은 낮고, 외재적 만족은 높은 집단이다. 이들은 1번 유형과 같이 학업중단 이후에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번 유형과는 달리 주변사람들의 시선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소속된 곳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별다른 불안감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응답자는 총 20명(2.6%)로 나타났고,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11명(55%), 여자가 9명(45%)이다.

<표 IV-5> 3번 유형의 성별 분포

성별	빈도(명)	백분율(%)
남자	11	55.0
여자	9	45.0
계	20	100.0

<표 IV-6> 3번 유형: 학교를 그만둔 이유

단위: 명(%)

구분	빈도(백분율)
건강상의 이유로	1(5.0)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0(0)
가정불화 때문에	3(15.0)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0(0)
공부하기 싫어서	4(20.0)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0(0)
친구들이 싫어서	1(5.0)
학교 규칙이 엄해서	0(0)
학교를 그만둔 친구 따라 놀고 싶어서	1(5.0)
선생님이 싫어서	1(5.0)
검정고시를 하려고	0(0)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	0(0)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3(15.0)
비행으로 보호처분(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서	1(5.0)
학교 가기가 귀찮아서, 잠을 자느라고, 출석이 안 좋아서	0(0)

거리, 내신성적, 종교, 학교 분위기 등이유가 있어서	0(0)
학교 부적응으로	1(5.0)
유학, 이민, 대안학교, 전학 등	2(10.0)
가출, 학교폭력, 임신, 여자친구 등 비행문제로	2(10.0)
전체	20(100.0)

3) 7번 유형: 내재적 만족 집단

7번 유형은 ‘내재적 만족’유형으로써 이들은 외재적 만족은 낮고 내재적 만족은 높은 유형이다. 이들은 학업을 중단한 것에 대한 내재적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응답자는 총 57명(7.3%)로 나타났고,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35명(61.4%), 여자가 22명(38.6%)이다.

<표 IV-7> 7번 유형의 성별 분포

성별	빈도(명)	백분율(%)
남자	35	61.4
여자	22	38.6
계	57	100.0

<표 IV-8> 7번 유형: 학교를 그만둔 이유

단위: 명(%)

구분	빈도(백분율)
건강상의 이유로	5(8.8)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4(7.0)
가정불화 때문에	1(1.8)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2(3.5)
공부하기 싫어서	7(12.3)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10(17.5)
친구들이 싫어서	1(1.8)
학교 규칙이 엄해서	0(0)
학교를 그만둔 친구 따라 놀고 싶어서	1(1.8)

선생님이 싫어서	2(3.5)
검정고시를 하려고	11(19.3)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	8(14.0)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3(5.3)
비행으로 보호처분(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서	1(1.8)
학교 가기가 귀찮아서, 잠을 자느라고, 출석이 안 좋아서	0(0)
거리, 내신성적, 종교, 학교 분위기 등이유가 있어서	1(1.8)
학교 부적응으로	0(0)
유학, 이민, 대안학교, 전학 등	0(0)
가출, 학교폭력, 임신, 여자친구 등 비행문제로	0(0)
전체	57(100.0)

#### 4) 9번 유형: 완전한 만족 집단

9번 유형은 '완전한 만족'유형으로써 이들은 학업을 중단한 것에 대한 내재적 만족과 외재적 만족이 모두 높은 유형이다. 이들은 학업을 중단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집단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응답자는 212명 (27.3%)으로 기타유형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121명 (57.1%), 여자가 91명(42.9%)이다.

<표 IV-9> 9번 유형의 성별 분포

성별	빈도(명)	백분율(%)
남자	121	57.1
여자	91	42.9
계	212	100.0

<표 IV-10> 9번 유형: 학교를 그만둔 이유

단위: 명(%)

구분	빈도(백분율)
건강상의 이유로	10(4.7)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6(2.8)
가정불화 때문에	0(0)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3(1.4)
공부하기 싫어서	23(10.8)
학교에 가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49(23.1)
친구들이 싫어서	10(4.7)
학교 규칙이 엄해서	3(1.4)
학교를 그만둔 친구 따라 놀고 싶어서	2(0.9)
선생님이 싫어서	10(4.7)
검정고시를 하려고	22(10.4)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	35(16.5)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11(5.2)
비행으로 보호처분(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서	3(1.4)
학교 가기가 귀찮아서, 잠을 자느라고, 출석이 안 좋아서	3(1.4)
거리, 내신성적, 종교, 학교 분위기 등이유가 있어서	3(1.4)
학교 부적응으로	6(2.8)
유학, 이민, 대안학교, 전학 등	11(5.2)
가출, 학교폭력, 임신, 여자친구 등 비행문제로	2(0.9)
전체	212(100.0)

이들 4개 유형의 특성을 성별과 학교를 그만 둔 이유로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학업중단 만족도의 4개 유형 모두의 경우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완전한 불만족과 내재적 만족의 경우, 성차가 컸다. 학교를 그만 둔 이유도 4개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완전한 불만족과 외재적 만족 집단에서는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공부하기 싫어서 라는 응답이 많았고, 완전한 만족과 내재적 만족 집단에서는 학교에 가야 할 필요성을 못느껴서,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 라는 응답이 많은 편이었다. 특이한 점은 외재적 만족 집단에서 가정불화 때문에 학교를 그만 두었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라는 것과 내재적 만족 집단에서 검정고시를 하려고 학교를

그만 두었다는 응답이 높은 것이다.

<표 IV-11> 4개 학업중단 만족도 유형에 따른 성별과 학교를 그만 둔 이유

	1번 유형	3번 유형	7번 유형	9번 유형
성별	남(67.8%)>여(32.2%)	남(55%)>여(45%)	남(61.4%)>여(38.6%)	남(57.1%)>여(42.9%)
학교를 그만 둔 이유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공부하기 싫어서> 가정불화 때문에>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검정고시를 하려고>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 공부하기 싫어서

## 2. 4개 유형에 따른 변인의 차이

4개 유형별 변인의 차이를 학업중단 현황, 학업중단 이후 경험과 인식, 개인의 심리·정서적 상황, 부모·친구관계 및 동네주변 환경, 일상생활 및 가치관, 생애사건 경험, 문제행동 경험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1) 학업중단 현황의 차이

학업중단 만족도 유형별로 최근 학교를 그만둔 학교급, 학교를 그만둘 당시 성적 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최근 학교를 그만둔 학교급의 차이

학업중단 만족도 유형별로 최근 학교를 그만둔 학교급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1번 유형의 경우에는 일반계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둔 경우가 28명(47.5%)로 가장 많았고 3번 유형은 전문계 고등학교 때가 9명(45.0%), 7번과 9번 유형은 일반계 고등학교가 각각 32명(56.1%), 91명(42.9%)로 가장 많았다.

<표 IV-12> 학교를 그만둔 학교급의 차이

단위: 명(%)

구분	1번 유형 완전한 불만족	3번 유형 외재적 만족	7번 유형 내재적 만족	9번 유형 완전한 만족	전체
중학교 때	12(20.3)	7(35.0)	4(7.0)	58(27.4)	81(23.3)
일반계 고등학교 때	28(47.5)	4(20.0)	32(56.1)	91(42.9)	155(44.5)
전문계 고등학교 때	19(32.2)	9(45.0)	21(36.8)	63(29.7)	112(32.2)
전체	59(100.0)	20(100.0)	57(100.0)	212(100.0)	348(100.0)

$\chi^2=15.860$  (df=6, p=.015)

(2)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의 차이

각 유형별로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4개 유형 모두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이 하위권에서 중위권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13> 학교성적의 차이

단위: 명(%)

구분	1번 유형 완전한 불만족	3번 유형 외재적 만족	7번 유형 내재적 만족	9번 유형 완전한 만족	전체
최하위권	4(6.8)	5(25.0)	9(15.8)	26(12.3)	44(12.6)
하위권	17(28.8)	4(20.0)	11(19.3)	37(17.5)	69(19.8)
중하위권	20(33.9)	3(15.0)	9(15.8)	40(18.9)	72(20.7)
중위권	11(18.6)	2(10.0)	13(22.8)	47(22.2)	73(21.0)
중상위권	4(6.8)	1(5.0)	6(10.5)	31(14.6)	42(12.1)
상위권	1(1.7)	2(10.0)	6(10.5)	20(9.4)	29(8.3)
최상위권	2(3.4)	3(15.0)	3(5.3)	11(5.2)	19(5.5)
전체	59(100.0)	20(100.0)	57(100.0)	212(100.0)	348(100.0)

(3) 학교를 그만둘 당시 의논한 대상의 차이

각 유형별로 학교를 그만둘 당시 의논한 대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형제자매, 학교교사, 상담교사 및 상담기관, 친구나 선후배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부모님, 아무도 없었음’이라는 응답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우선 부모님에 대해서 살펴보면 1번과 3번 유형은 약 60%의 응답자가 부모님과 의논하였다고 응답하였고, 7번과 9번 유형은 80%의 응답자가 부모님과 의논하였다고 응답함으로써 7번과 9번 유형이 학교를 그만둘 당시 부모님과 더 많이 의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중단에 대한 의논 대상이 있었는지의 질문에서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1번과 3번 유형이 7번과 9번 유형보다 의논할 대상이 없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14> 학교를 그만둘 당시 의논한 대상의 차이(부모)

단위: 명(%)

구분	1번 유형 완전한 불만족	3번 유형 외재적 만족	7번 유형 내재적 만족	9번 유형 완전한 만족	전체
부모님과 의논하지 않음	20(33.9)	8(40.0)	10(17.5)	37(17.5)	75(21.6)
부모님과 의논함	39(66.1)	12(60.0)	47(82.5)	175(82.5)	273(78.4)
합계	59(100.0)	20(100.0)	57(100.0)	212(100.0)	348(100.0)

$\chi^2=11.994(df=3, p=.007)$

<표 IV-15> 학교를 그만둘 당시 의논한 대상의 차이(아무도 없었음)

단위:명(%)

구분	1번 유형 완전한 불만족	3번 유형 외재적 만족	7번 유형 내재적 만족	9번 유형 완전한 만족	전체
의논할 대상이 있었음	52(88.1)	14(70.0)	54(94.7)	199(93.9)	319(91.7)
아무도 없었음	7(11.9)	6(30.0)	3(5.3)	13(6.1)	29(8.3)
합계	59(100.0)	20(100.0)	57(100.0)	212(100.0)	348(100.0)

$\chi^2=15.302(df=3, p=.002)$

(4) 학업중단 시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차이(학업중단속려제)

각 유형별로 학업중단 시 학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것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본 결과 학업중단속려제에 대한 정보제공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만족도가 높은 유형과 낮은 유형 모두 학교에 복학하는 절차, 대안교육 기관, 검정고시 준비방법 및 청소년·진로 준비 관련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학업중단속려제에 대한 정보 제공에서만 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1번과 3번 유형은 약 10%의 응답자만이 학업중단속려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하였고, 7번과 9번 유형은 약 30%의 응답자가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chi^2$ 통계값은 18.166,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타났다.

<표 IV-16> 학업중단 시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차이(학업중단속려제)

단위: 명(%)

구분	1번 유형 완전한 불만족	3번 유형 외재적 만족	7번 유형 내재적 만족	9번 유형 완전한 만족	전체
학업중단속려제를 설명 받지 못함	52(88.1)	20(100.0)	39(68.4)	143(67.5)	254(73.0)
학업중단속려제를 설명 받음	7(11.9)	0(0)	18(31.6)	69(32.5)	94(27.0)
합계	59(100.0)	20(100.0)	57(100.0)	212(100.0)	348(100.0)

$\chi^2=18.116(df=3, p=.000)$

2) 학업중단 이후 경험과 인식의 차이

(1) 유형별 진로 정보탐색활동의 차이

유형별로 진로 정보탐색활동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본 결과 학업중단 만족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탐색을 위한 부모님과의 대화, 인터넷 검색, 공공기관 상담’ 등의 진로정보탐색이 가장 활발한 집단은 7번 유형이고, 가장 소극적인 집단은 3번 유형으로 나타났다.

<표 IV-17> 유형별 진로 정보탐색활동의 차이

구분	유형	평균	표준편차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 확률
진로정보 탐색	1번 유형	2.52	.58788	4.180	3	1.393	2.916	.034
	3번 유형	2.20	.81219					
	7번 유형	2.72	.64792					
	9번 유형	2.59	.71625					
	전체	2.58	.69687					

<표 IV-18> 유형별 진로 정보탐색활동의 차이 사후비교분석

구분	유형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진로정보탐색	3번 vs 7번	-.51930*	.17963	.021

(2) 진로계획 달성에 대한 예측 차이

각 유형별로 진로계획 달성에 대한 예측에 차이가 있는 지를 교차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진로계획이 달성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1번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이 9명(21.4%)으로 높은 편이고, 3번 유형은 부정적인 예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번과 9번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긍정적인 예측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chi^2$ 통계값은 21.772, 유의확률은 .010으로 나타났다.

<표 IV-19> 진로계획 달성에 대한 예측 차이

단위: 명(%)

구분	1번 유형 완전한불만족	3번 유형 외재적 만족	7번 유형 내재적 만족	9번 유형 완전한 만족	전체
진로계획이 전혀 달성될 수 없다	2(4.5)	0(0)	1(2.3)	0(0)	3(1.0)
진로계획이 달성될 수 없다	7(15.9)	0(0)	4(9.1)	10(5.5)	21(7.3)
진로계획이 달성될 수 있다	26(59.1)	11(64.7)	28(63.6)	97(53.0)	162(56.3)
진로계획이 반드시 달성될 수 있다	9(20.5)	6(35.3)	11(25.0)	76(41.5)	102(35.4)
합계	44(100.0)	17(100.0)	44(100.0)	183(100.0)	288(100.0)

$\chi^2=21.772(df=9, p=.010)$

3) 심리·정서적 상황의 차이

유형별로 심리·정서 상황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감 및 충동성에 대한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유형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은 9번 유형의 집단이 가장 높고 1번 유형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우울감, 충동성과 게임중독성은 1번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9번 유형이 가장 낮았다.

<표 IV-20> 유형별 심리·정서 상황의 차이

구분	유형	평균	표준편차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자아존중감	1번 유형	2.80	.61	5.630	3	1.877	5.86	.001
	3번 유형	2.92	.59					
	7번 유형	2.93	.69					
	9번 유형	3.12	.54					
	전체	3.02	.58					
자아탄력성	1번 유형	2.67	.55	4.497	3	1.649	5.40	.001
	3번 유형	2.86	.53					
	7번 유형	2.84	.57					
	9번 유형	2.98	.55					
	전체	2.90	.56					
우울감	1번 유형	2.51	.61	27.862	3	9.287	30.14	.000
	3번 유형	2.03	.46					
	7번 유형	2.10	.65					
	9번 유형	1.75	.52					
	전체	1.95	.62					
충동성	1번 유형	2.19	.56	9.665	3	3.222	10.24	.000
	3번 유형	1.89	.50					
	7번 유형	2.00	.56					
	9번 유형	1.76	.57					
	전체	1.88	.58					
게임중독	1번 유형	1.66	.75	8.37	3	40.72	6.54	.000
	3번 유형	1.48	.79					
	7번 유형	1.60	.76					
	9번 유형	1.30	.50					
	전체	1.42	.62					

심리·정서 상황의 차이에 대한 사후비교분석 결과, <표 IV-20>과 같이 1번과 9번 유형의 집단은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감은 1번 집단이 다른 3개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 유형별 심리정서 상황의 차이 사후비교분석

구분	유형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자아존중감	1번 vs 9번	-.32075*	.08333	.001
자아탄력성	1번 vs 9번	-.31617*	.08133	.001
우울감	1번 vs 3번	.48178*	.14364	.005
	1번 vs 7번	.40327*	.10311	.001
	1번 vs 9번	.75253*	.08172	.000
	7번 vs 9번	.34926*	.08283	.000
총동성	1번 vs 9번	.43134*	.08256	.000
	7번 vs 9번	.24502*	.08369	.019
게임중독	1번 vs 9번	.35996*	.08935	.000
	7번 vs 9번	.29975*	.09057	.006

#### 4) 부모·친구관계 및 동네주변 환경의 차이

##### (1) 부모 및 친구관계의 차이

유형별로 부모 및 친구관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부모의 정서적·경제적 지지, 부모 방임·학대, 또래 애착에 대한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또래 애착을 제외한 ‘부모의 정서적·경제적 지지와 부모 방임·학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정서적·경제적 지지는 9번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모방임 및 학대는 1번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래애착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22> 유형별 부모 및 친구관계의 차이

구분	유형	평균	표준편차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부모의 정서적·경제적 지지	1번 유형	2.77	.71738	7.450	3	2.483	5.547	.001
	3번 유형	2.95	.78995					
	7번 유형	2.95	.57270					
	9번 유형	3.15	.66714					
	전체	3.04	.68207					
부모 방임·학대	1번 유형	2.05	.64470	6.013	3	2.004	5.124	.002
	3번 유형	1.91	.69729					
	7번 유형	1.89	.64033					
	9번 유형	1.71	.60902					
	전체	1.81	.63650					
또래애착	1번 유형	2.40	.42775	.418	3	.139	.797	.496
	3번 유형	2.34	.61052					
	7번 유형	2.29	.41581					
	9번 유형	2.38	.39383					
	전체	2.37	.41762					

부모 및 친구관계의 차이에 대한 사후비교분석 결과, <표 IV-22>과 같이 1번과 9번 유형의 집단은 부모의 정서적·경제적 지지, 부모 방임·학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IV-23> 유형별 부모 및 친구관계의 차이 사후비교분석

구분	유형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부모의 정서적·경제적 지지	1번 vs 9번	-.37917*	.09848	.001
부모 방임·학대	1번 vs 9번	.33802*	.09206	.002

(2) 유형별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차이

유형별로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역사회 환경을 ‘지역사회 유대, 비공식통제, 사회적·물리적 무질서, 유익환경’으로 구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에서만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번 집단이 9번 집단에 비해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적 무질서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24> 유형별 지역사회 환경의 차이

구분	유형	평균	표준편차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지역사회 유대	1번 유형	2.17	.84389	.797	3	.266	.391	.760
	3번 유형	2.13	.84097					
	7번 유형	2.19	.77779					
	9번 유형	2.27	.82953					
	전체	2.23	.82226					
비공식 통제	1번 유형	2.25	.61849	.473	3	.158	.413	.744
	3번 유형	2.13	.75872					
	7번 유형	2.24	.60581					
	9번 유형	2.18	.60651					
	전체	2.20	.61622					
사회적 무질서	1번 유형	2.67	.88867	13.071	3	4.357	6.220	.000
	3번 유형	2.35	.74516					
	7번 유형	2.48	.89125					
	9번 유형	2.19	.81490					
	전체	2.32	.85561					
물리적 무질서	1번 유형	2.25	.87776	3.892	3	1.297	2.117	.098
	3번 유형	2.13	.50977					
	7번 유형	2.32	.79973					
	9번 유형	2.06	.77067					
	전체	2.14	.78651					
유익환경	1번 유형	2.38	.70307	2.100	3	.700	1.252	.291
	3번 유형	2.50	1.0000					
	7번 유형	2.53	.64380					
	9번 유형	2.59	.75870					
	전체	2.54	.74856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사후비교분석 결과, <표 IV-24>와 같이 1번과 9번 유형의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5> 유형별 지역사회 환경 인식 차이 사후비교분석

구분	유형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사회적 무질서	1번 vs 9번	.49260*	.12319	.000

5) 일상생활 및 가치관의 차이

(1) 일상생활의 차이

유형별로 일상생활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수면시간, 공부시간, 일하는 시간 등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수면시간, 친구와 노는시간에서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26> 유형별 일상생활의 차이

구분	유형	평균	표준편차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면시간	1번 유형	8.73	1.70121	26.005	3	8.668	3.213	.023
	3번 유형	8.25	1.56020					
	7번 유형	8.49	1.62154					
	9번 유형	8.04	1.63902					
	전체	8.25	1.65825					
기관에서의 공부시간	1번 유형	3.13	1.48084	8.126	3	2.709	.727	.537
	3번 유형	3.90	2.53789					
	7번 유형	2.98	1.76515					
	9번 유형	3.35	2.01581					
	전체	3.28	1.92518					
일하는 시간	1번 유형	5.21	2.97240	14.367	3	4.789	.674	.571
	3번 유형	6.92	2.83578					
	7번 유형	6.23	3.36412					

	9번 유형	5.83	2.39764					
	전체	5.87	2.65186					
개인공부 시간	1번 유형	2.51	2.47233	25.042	3	8.347	1.240	.296
	3번 유형	3.94	2.07773					
	7번 유형	3.47	2.77063					
	9번 유형	3.52	2.59853					
	전체	3.40	2.59891					
tv, 게임 시간	1번 유형	4.82	3.10886	20.955	3	6.985	.645	.586
	3번 유형	4.61	3.96513					
	7번 유형	3.98	2.37290					
	9번 유형	4.59	3.47214					
	전체	4.53	3.28426					
운동 취미시간	1번 유형	1.82	1.39340	8.315	3	2.772	1.007	.391
	3번 유형	1.83	1.03078					
	7번 유형	2.39	2.01764					
	9번 유형	2.39	1.65242					
	전체	2.29	1.65884					
친구와 노는 시간	1번 유형	5.33	2.87780	122.169	3	40.723	6.536	.000
	3번 유형	4.25	2.33494					
	7번 유형	4.45	2.46583					
	9번 유형	3.59	2.38622					
	전체	4.10	2.57280					

일상생활의 차이에 대한 사후비교분석 결과, <표 IV-26>과 같이 1번과 9번 유형의 집단에서 수면시간, 친구와 노는 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두 1번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27> 유형별 일상생활의 차이 사후비교분석

구분	유형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수면시간	1번 vs 9번	.68824*	.24178	.024
친구와 노는 시간	1번 vs 9번	1.73924*	.40533	.000

(2) 식생활의 차이

각 유형별로 식생활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번 유형이 아침, 점심, 저녁식사 빈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낮았고, 라면 및 컵라면 등의 섭취빈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IV-28> 식생활의 차이

단위: 명(%)

구분		1번 유형	3번 유형	7번 유형	9번 유형	전체
일주일간 아침식사를 많아야 2번 먹음	아니다	28(47.5)	16(80.0)	30(52.6)	141(66.5)	215(61.8)
	그렇다	31(52.5)	4(20.0)	27(47.4)	71(33.5)	133(38.2)
	계	59(100.0)	20(100.0)	57(100.0)	212(100.0)	348(100.0)
$\chi^2=11.966, df=3, p=.007$						
일주일간 점심식사를 많아야 2번 먹음	아니다	40(67.8)	16(80.0)	39(68.4)	180(84.9)	275(79.0)
	그렇다	19(32.2)	4(20.0)	18(31.6)	32(15.1)	73(21.0)
	계	59(100.0)	20(100.0)	57(100.0)	212(100.0)	348(100.0)
$\chi^2=12.788, df=3, p=.005$						
일주일간 저녁식사를 많아야 2번 먹음	아니다	44(74.6)	18(90.0)	43(75.4)	181(85.4)	286(82.2)
	그렇다	15(25.4)	2(10.0)	14(24.6)	31(14.6)	62(17.8)
	계	59(100.0)	20(100.0)	57(100.0)	212(100.0)	348(100.0)
$\chi^2=6.414, df=3, p=.093$						
일주일간 라면을 3회 이상 먹음	아니다	35(59.3)	13(65.0)	43(75.4)	164(77.4)	255(73.3)
	그렇다	24(40.7)	7(35.0)	14(24.6)	48(22.6)	93(26.7)
	계	59(100.0)	20(100.0)	57(100.0)	212(100.0)	348(100.0)
$\chi^2=8.507, df=3, p=.037$						

(3) 미래관의 차이

유형별로 '미래관을 희망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1번 유형과 9번 유형에 차이가 있었는데 9번 유형이 더 희망적인 미래관을 가지고 있었다.

<표 IV-29> 유형별 미래관의 차이

구분	유형	평균	표준편차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미래관	1번 유형	2.94	.69247	5.087	3	1.696	4.573	.004
	3번 유형	3.12	.44950					
	7번 유형	3.15	.69314					
	9번 유형	3.27	.57188					
	전체	3.19	.61829					

<표 IV30> 유형별 미래관의 차이 사후비교분석

구분	유형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미래관	1번 vs 9번	-.32537*	.08963	.002

6) 생애사건 경험의 차이

학업중단만족 유형별로 생애사건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부모님의 사망, 별거, 이혼, 재혼, 가출, 사업실패, 실직, 질병 및 교통사고, 부부싸움, 부모구타, 학교교사의 구타, 전학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부부싸움, 부모의 구타, 교사의 구타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1번과 3번 유형이 이러한 사건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 생애사건 경험의 차이

단위: 명(%)

구분		1번 유형	3번 유형	7번 유형	9번 유형	전체
기억에 남을만한 심한 친부모님의 부부싸움	없음	28(47.5)	13(65.0)	26(45.6)	135(63.7)	202(58.0)
	있음	31(52.5)	7(35.0)	31(54.4)	77(36.3)	146(42.0)
	계	59(100.0)	20(100.0)	57(100.0)	212(100.0)	348(100.0)

$\chi^2=9.493$ ,  $df=3$ ,  $p=.023$

구분		1번 유형	3번 유형	7번 유형	9번 유형	전체
친아버지가 친어머니를 심하게 때림	없음	41(69.5)	15(75.0)	45(78.9)	186(87.7)	287(82.5)
	있음	18(30.5)	5(25.0)	12(21.1)	26(12.3)	61(17.5)
	계	59(100.0)	20(100.0)	57(100.0)	212(100.0)	348(100.0)

$\chi^2=12.202$ ,  $df=3$ ,  $p=.007$

친아버지로부터 심하게 맞음	없음	34(57.6)	15(75.0)	41(71.9)	180(84.9)	270(77.6)
	있음	25(42.4)	5(25.0)	16(28.1)	32(15.1)	78(22.4)
	계	59(100.0)	20(100.0)	57(100.0)	212(100.0)	348(100.0)

$\chi^2=21.172$ ,  $df=3$ ,  $p=.000$

친어머니로부터 심하게 맞음	없음	48(81.4)	16(80.0)	54(94.7)	201(94.8)	319(91.7)
	있음	11(18.6)	4(20.0)	3(5.3)	11(5.2)	29(8.3)
	계	59(100.0)	20(100.0)	57(100.0)	212(100.0)	348(100.0)

$\chi^2=15.223$ ,  $df=3$ ,  $p=.002$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치욕적인 대우나 구타	없음	39(66.1)	18(90.0)	49(86.0)	184(86.8)	290(83.3)
	있음	20(33.9)	2(10.0)	8(14.0)	28(13.2)	58(16.7)
	계	59(100.0)	20(100.0)	57(100.0)	212(100.0)	348(100.0)

$\chi^2=15.364$ ,  $df=3$ ,  $p=.002$

#### 7) 문제행동 경험의 차이

학업중단만족 유형별로 문제행동 경험의 차이를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문제행동 참여경험(흡연, 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학교폭력 피해경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대해서는 ‘문자나 메신저로 음란물 받기, 심하게 언어맞기’등에서 유형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1번 유형이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2> 학교폭력 피해경험 차이**

단위: 명(%)

구분		1번 유형	3번 유형	7번 유형	9번 유형	전체
(학업중단이전) 문자, 메신저로 음란물 받기	없음	53(89.8)	19(95.0)	56(98.2)	208(98.1)	336(96.6)
	있음	6(10.2)	1(5.0)	1(1.8)	4(1.9)	12(3.4)
	계	59(100.0)	20(100.0)	57(100.0)	212(100.0)	348(100.0)

$\chi^2=10.194$ ,  $df=3$ ,  $p=.017$

(학업중단이후) 문자, 메신저로 음란물 받기	없음	53(89.8)	19(95.0)	55(96.5)	209(98.6)	336(96.6)
	있음	6(10.2)	1(5.0)	2(3.5)	3(1.4)	12(3.4)
	계	59(100.0)	20(100.0)	57(100.0)	212(100.0)	348(100.0)
$\chi^2=10.783, df=3, p=.013$						
(학업중단이전) 심하게 얻어맞기(폭행)	없음	51(86.4)	16(80.0)	53(93.0)	201(94.8)	321(92.2)
	있음	8(13.6)	4(20.0)	4(7.0)	11(5.2)	27(7.8)
	계	59(100.0)	20(100.0)	57(100.0)	212(100.0)	348(100.0)
$\chi^2=8.962, df=3, p=.030$						

(2) 문제행동 참여경험

흡연, 음주 등의 문제행동 참여경험에 유형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문제행동에서 1번 집단이 9번 집단에 비해 문제행동에 더 많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흡연, 음주, 돈내고 도박해보기’ 등의 문제행동은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에 다소 비슷한 빈도를 나타내고 있고 ‘돈이나 물건 훔치기, 다른 사람 때리기, 돈이나 물건 빼앗기, 공공장소 물건 파손’ 등의 행동은 학업중단 이후에 상당히 감소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IV-33> 문제행동 참여경험 차이

단위: 명(%)

구분	학업중단 전, 후		1번 유형	3번 유형	7번 유형	9번 유형	전체
흡연	학업 중단 이전	없음	15(25.4)	7(35.0)	22(38.6)	118(55.7)	162(46.6)
		있음	44(74.6)	13(65.0)	35(61.4)	94(44.3)	186(53.4)
		계	59(100.0)	20(100.0)	57(100.0)	212(100.0)	348(100.0)
	$\chi^2=20.177, df=3, p=.000$						
	학업 중단 이후	없음	18(30.5)	8(40.0)	23(40.4)	127(59.9)	176(50.6)
		있음	41(69.5)	12(60.0)	34(59.6)	85(40.1)	172(49.4)
계		59(100.0)	20(100.0)	57(100.0)	212(100.0)	348(100.0)	
$\chi^2=20.166, df=3, p=.000$							
음주	학업 중단 이전	없음	18(30.5)	8(40.0)	26(45.6)	114(53.8)	166(47.7)
		있음	41(69.5)	12(60.0)	31(54.4)	98(46.2)	182(52.3)
		계	59(100.0)	20(100.0)	57(100.0)	212(100.0)	348(100.0)
	$\chi^2=10.699, df=3, p=.013$						
학업	없음	15(25.4)	9(45.0)	24(42.1)	111(52.4)	159(45.7)	

	중단 이후	있음	44(74.6)	11(55.0)	33(57.9)	101(47.6)	189(54.3)	
		계	59(100.0)	20(100.0)	57(100.0)	212(100.0)	348(100.0)	
$\chi^2=13.864, df=3, p=.003$								
돈, 물건 훔치기	학업 중단 이전	없음	43(72.9)	19(95.0)	49(86.0)	187(88.2)	298(85.6)	
		있음	16(27.1)	1(5.0)	8(14.0)	25(11.8)	50(14.4)	
		계	59(100.0)	20(100.0)	57(100.0)	212(100.0)	348(100.0)	
	$\chi^2=10.371, df=3, p=.016$							
	학업 중단 이후	없음	55(93.2)	19(95.0)	56(98.2)	203(95.8)	333(95.7)	
		있음	4(6.8)	1(5.0)	1(1.8)	9(4.2)	15(4.3)	
계		59(100.0)	20(100.0)	57(100.0)	212(100.0)	348(100.0)		
$\chi^2=1.800, df=3, p=.615$								
다른 사람 때리기	학업 중단 이전	없음	38(64.4)	17(85.0)	45(78.9)	181(85.4)	281(80.7)	
		있음	21(35.6)	3(15.0)	12(21.1)	31(14.6)	67(19.3)	
		계	59(100.0)	20(100.0)	57(100.0)	212(100.0)	348(100.0)	
	$\chi^2=13.408, df=3, p=.004$							
	학업 중단 이후	없음	54(91.5)	18(90.0)	51(89.5)	203(95.8)	326(93.7)	
		있음	5(8.5)	2(10.0)	6(10.5)	9(4.2)	22(6.3)	
계		59(100.0)	20(100.0)	57(100.0)	212(100.0)	348(100.0)		
$\chi^2=4.164, df=3, p=.244$								
돈, 물건 빼앗기	학업 중단 이전	없음	36(61.0)	17(85.0)	47(82.5)	187(88.2)	287(82.5)	
		있음	23(39.0)	3(15.0)	10(17.5)	25(11.8)	61(17.5)	
		계	59(100.0)	20(100.0)	57(100.0)	212(100.0)	348(100.0)	
	$\chi^2=23.700, df=3, p=.000$							
	학업 중단 이후	없음	56(94.9)	19(95.0)	55(96.5)	206(97.2)	336(96.6)	
		있음	3(5.1)	1(5.0)	2(3.5)	6(2.8)	12(3.4)	
계		59(100.0)	20(100.0)	57(100.0)	212(100.0)	348(100.0)		
$\chi^2=.863, df=3, p=.834$								
음란물 보기	학업 중단 이전	없음	32(54.2)	13(65.0)	45(78.9)	168(79.2)	258(74.1)	
		있음	27(45.8)	7(35.0)	12(21.1)	44(20.8)	90(25.9)	
		계	59(100.0)	20(100.0)	57(100.0)	212(100.0)	348(100.0)	
	$\chi^2=16.629, df=3, p=.001$							
	학업 중단 이후	없음	45(76.3)	14(70.0)	47(82.5)	179(84.4)	285(81.9)	
		있음	14(23.7)	6(30.0)	10(17.5)	33(15.6)	63(18.1)	
계		59(100.0)	20(100.0)	57(100.0)	212(100.0)	348(100.0)		

		$\chi^2=4.101, df=3, p=.251$						
돈내기 도박 해보기	학업중 단 이전	없음	49(83.1)	16(80.0)	50(87.7)	182(85.8)	297(85.3)	
		있음	10(16.9)	4(20.0)	7(12.3)	30(14.2)	51(14.7)	
		계	59(100.0)	20(100.0)	57(100.0)	212(100.0)	348(100.0)	
			$\chi^2=1.005, df=3, p=.800$					
	학업중 단 이후	없음	47(79.7)	16(80.0)	52(91.2)	194(91.5)	309(88.8)	
		있음	12(20.3)	4(20.0)	5(8.8)	18(8.5)	39(11.2)	
계		59(100.0)	20(100.0)	57(100.0)	212(100.0)	348(100.0)		
		$\chi^2=8.410, df=3, p=.038$						
공공 장소 물건 파손	학업중 단 이전	없음	40(67.8)	14(70.0)	44(77.2)	184(86.8)	282(81.0)	
		있음	19(32.2)	6(30.0)	13(22.8)	28(13.2)	66(19.0)	
		계	59(100.0)	20(100.0)	57(100.0)	212(100.0)	348(100.0)	
			$\chi^2=13.433, df=3, p=.004$					
	학업중 단 이후	없음	49(83.1)	18(90.0)	54(94.7)	199(93.9)	320(92.0)	
		있음	10(16.9)	2(10.0)	3(5.3)	13(6.1)	28(8.0)	
계		59(100.0)	20(100.0)	57(100.0)	212(100.0)	348(100.0)		
		$\chi^2=8.071, df=3, p=.045$						

## V. 결론 및 제언

### 1. 논의 및 결론

학업중단 후 만족하는 청소년과 불만족하는 청소년에 대해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이 도출되었다.

- 1) 학업중단 만족도 관련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에는 네 가지가 있다.

이제까지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은 다양하게 구분된 바 있으나(학교를 중단한 이유나 학업중단 후 하는 일 등), 학업중단 만족도를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지는 않았다. 학업중단 만족도를 기준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을 구분하면, 학업중단 청소년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주어 이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학업중단 만족도에 의해 학업중단 청소년을 구분하면, 이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네 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그것은 완전한 불만족 유형, 외재적 만족 유형, 내재적 만족 유형, 완전한 만족 유형이다.

2) 네 가지 학업중단 유형 중에서 완전한 만족형이 가장 많다.

완전한 만족형의 학업중단 청소년은 전체 776명 중 212명(27.3%)을 차지한다. 전체 조사대상 중에서 일부는 4개 학업중단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4개 학업중단 유형에 속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면, 완전한 만족형의 학업중단 청소년은 전체 348명 중, 212명(60.9%)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업중단 후의 삶에 대해 만족해 하고 행복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학업을 중단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도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3) 학업중단 청소년의 4개 유형에 따라 다양한 특성이 나타난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4개 유형 중, 특히 완전한 불만족 유형과 완전한 만족 유형의 청소년의 특성이 차이가 있다. 완전한 불만족 유형의 학업중단 청소년은 완전한 만족 유형의 학업중단 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감, 충동성, 게임중독이 높다. 부모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은 낮고 부모의 방임과 학대는 높다. 수면시간과 친구와 노는 시간은 높고, 미래에 대한 희망은 낮으나 생애사건과 문제행동은 높은 편이다. 물론 큰 차이가 없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나 일상생활의 차이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제언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 만족도에 대한 본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의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학업중단 시에 청소년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본 조사에 따르면 학업중단 만족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학업 중단 시에 학교에 복학하는 절차, 대안교육 기관, 검정고시 준비방법 및 청소년·진로 준비 관련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학업을 중단할 때 학교로부터 벗어났다는 자유로움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소외감을 함께 가지게 된다(조아미·이진숙·김기남·김승태, 2013).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한 채 학교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불안과 소외감 등을 가질 수도 있고 진학 및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우울 등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최근 학업중단 의사를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서는 일부 청소년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번과 3번 집단은 약 10%가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하였고, 7번과 9번 유형은 약 30%가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함으로써 집단 간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1번과 3번 유형은 교칙위반으로 인한 징계차원이나 공부하기 싫다는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경우가 많고, 7번과 9번 유형은 학교에 갈 이유가 없다거나 검정고시 준비, 자신의 특기나 소질을 살리기 위한 목적성 학업중단이 많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즉 1번과 3번 유형은 학업중단 시에 학업중단숙려제를 권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반드시 학업중단 만족도를 높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학업을 중단하는 시점에서 숙려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학업중단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기회를 제공받는다라는 점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학업중단 만족도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이 이 부분에서 차이를 나타냈기 때문에 학업중단 의사를 보이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 2) 학업중단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도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 외에 학업중단 청소년의 일상생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식생활을 살펴보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대부분 급식을 먹기 때문에 규칙적인 점심식사를 하는 반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조사결과에서도 학업중단 청소년 중 21%의 응답자가 일주일간 점심식사를 많아야 2번 먹는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학업중단 만족도가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아침, 점심, 저녁식사 전부에서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빈도가 더욱 낮았고, 라면 및

컵라면 등의 섭취빈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업중단 만족도가 낮은 청소년들은 규칙적인 식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규칙적인 식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과제나 시험 등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서도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3.4시간으로 나타났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때우는 시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혼자지내는 시간은 4.5시간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보다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선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 3) 학업중단 만족도가 낮은 청소년에게 심리·정서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학업중단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지만 특히 학업중단 만족도가 낮은 청소년에게는 지원이 필수적이고 시급한 상황이다. 본 조사에 따르면 학업중단 내재적, 외재적 만족이 모두 높은 9번 집단의 경우에 부모님과 의논하였다는 응답은 약 80%를 차지했지만 내재적, 외재적 만족이 모두 낮은 1번 집단의 경우에는 66%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중단 시에 의논한 대상이 없었다는 응답도 9번 집단(11.9%)이 1번 집단(6.1%)에 비해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학업중단 만족도가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학업중단 시에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이 적고 학교와 가정으로부터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학업중단과 함께 사회의 관심 밖으로 벗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또한 학업중단 만족도가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자이존중감과 자이탄력성이 낮고, 우울감충동성 및 게임중독 경향은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만족도가 낮은 집단은 부모의 정서적·경제적 지지가 낮고 부모 방임이나 학대는 높았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에서도 사회적 무질서(술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 불량한 청소년들이 함께 몰려다니는 것)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이들이 경험한 생애사건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업중단 만족도가 낮은 집단은 성장과정에서 '부모님끼리의 심한 싸움, 부모님의 구타 및 교사로부터의 치욕적인 대우나 구타'를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 비해 많이 경험하였고 학교폭력의 피해와 문제행동에 참여한 경험도 더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학업중단 만족도가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도울 수 있는 지지체계는 빈약한 편이다. 따라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 4) 학업중단 만족도가 낮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본 조사에서는 학업중단 만족도가 낮은 청소년이 높은 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이나 자아탄력성이 낮고 우울감이나 충동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중단 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동네의 사회적 무질서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학업중단 만족도가 낮은 청소년은 높은 청소년보다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충동적인 문제해결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자연스럽게 청소년 문제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실제로 학업중단 만족도가 낮은 청소년은 높은 청소년보다 흡연, 음주, 폭행, 도박 등의 문제행동에 더 많이 연루되어 있고 이러한 특징은 학업중단 전과 후에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학업중단 전과 후를 문제행동별로 비교해보면 ‘돈이나 물건 훔치기와 빼앗기, 다른 사람 때리기’ 등의 문제행동은 학업중단 이후에 다소 감소한 경향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학업중단과 함께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가할 수 있는 또래들이 주변에서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진다. 반면 ‘흡연, 음주, 돈내기 도박’ 등은 증가하거나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금명자, 권해수, 이문희, 이자영, 이수림(2004). 학교밖청소년 욕구조사. 학교밖청소년 길찾기,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50.
- 남기곤(2011). 고등학교 단계 학업 중단의 경제적 효과 추정. 서강경제논총, 40(3), 63-94.
- 성윤숙, 박병식(2009).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 오혜영, 박현진, 공윤정, 김범구(2013). 현장상담자들이 인식한 학업중단청소년의 특성과 개입방향. 청소년학연구, 20(12), 153-179.
- 윤여각 외 (2002). 학업중단 청소년 및 대안교육 실태 조사. 한국교육개발원.
-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아미·이진숙·김기남·김승태(2013). 강동구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강동구청.



## 발표 3



# 학교에 복귀하는 청소년, 특성과 경험, 의식

정 경 은

(초당대학교 교수)

# 학교에 복귀하는 청소년, 특성과 경험, 의식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학업중단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0.9%인 학업중단율은 2009년 0.94%, 2013년 1.01%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3년 고등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은 1.7%에 달한다(교육통계, 2013). 초·중고 학령 인구를 감안할 때, 매년 약 7만여 명 정도의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이다.

학업중단의 문제는 단순히 학업을 그만두는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은 학교를 단순히 떠나는 의미 외에 학업중퇴자라는 낙인감과 비행이나 범죄로의 접촉 등을 경험하면서 사회 부적응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들은 공식적 교육체계를 통한 자원 축적 기회를 상실함에 따라 노동시장 진출 이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지게 되는 불리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 개인에게도 대단히 부정적인 결과이지만 사회적 측면에서도 큰 소실이 아닐 수 없다. 학업중단 이후 적절한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NEET족으로 전락하거나 교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회가 박탈되면서 취업 후에도 낮은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실례로 남기곤(2011)의 연구에서는 고졸 학력층과 고졸 이하의 학력층을 비교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시기의 40대 연령에 소득 격차는 2배로 벌어지고 있으며, 고졸 이하의 학력층은 추가적 교육에 따른 기회비용을 제외하고도 8,142만원의 생애 근로소득을 감소시키고 사회적으로 624만원의 소득세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중단이 지속되면 심리적 갈등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구본용, 신현숙, 유제민, 2002), 우울, 자살, 인터넷중독 등을 유발하며(안현의, 이소영, 권해수, 2002), 청소년 비행 및 범죄에 연류되는(금명자, 주영아, 이자영, 김태성, 김상수, 신현수, 2005; 금명자, 권해수, 이문희, 이자영, 이수림, 2004; 성운숙, 박병식, 2009) 등의 다양한 개인문제 등을 야기하며 점차 사회문제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학업중단 연구의 동향을 간단히 살펴보면, 연구의 내용적 측면에서 학업중단의 원인 규명 연구(구본영, 유제민, 2003; 금명자 외, 2004; 배영태, 2003; 성윤숙, 2005; 정규석, Bronson, 2000; 주영신, 2007; Alexander, Entwisle, & Kabbani, 2001; Lofstrom, 2007; Rumberger, 2011),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퇴과정 및 삶과 적응연구(박현선, 2004; 성윤숙, 2005; 오혜영 외, 2011; 조규필 외, 2011; 홍나미 외, 2013),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효과 연구(김혜영, 2002; 손순용, 2005; 양미진, 지승희, 이자영, 김태성, 2007), 유형화 연구(김범구, 조아미, 2013), 정책연구(윤철경, 2010) 등이 진행되었다. 그동안 학업중단 연구는 다른 청소년 연구에 비해 활발히 논의되지 않았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율이 전체 청소년 수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은데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접근성이 제약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향후 야기할 수 있는 사회부적응 및 다양한 사회문제 등을 생각할 때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많은 학업중단 잠재적 청소년을 위해 학업중단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접근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들이 학업중단을 경험하였고,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사회에서 방황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개입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학업중단청소년 가운데 학교로 복귀하는 청소년들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 학업중단 청소년들 중 학교복귀청소년과 미복귀청소년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경험과 생각을 지니고 있으며, 어떠한 요인들이 학교복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면 더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복귀에 성공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본 연구는 학교복귀청소년의 특징을 발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복귀경험청소년과 학교미복귀경험청소년 집단, 그리고 학교복귀경험자 중 학교등교집단과 미등교집단을 비교해보고 학교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중단 조사’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차년도 자료는 학업중단 청소년 총 996명의 데이터가 수집되었

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 220명을 제외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보호관찰 청소년을 제외한 총 776명의 데이터 가운데 총 40명이 현재 학교에 복귀하여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에 해당한다. 하지만 표본 수가 너무 작아 학교복귀경험이 있는 청소년 81명의 데이터까지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학교복귀경험 청소년은 총 121명, 이 가운데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은 40명, 학교복귀경험은 있으나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청소년은 81명에 해당한다. 776명의 데이터 중 정규분포상의 극단치 제거 이후 최종 분석에서는 학교복귀경험이 있는 청소년 116명, 학교복귀경험이 없는 청소년 655명, 총 771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연구에서 학업중단청소년의 하위부류로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먼저 ‘학교복귀경험청소년’은 학교복귀에 1회 이상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의미하며, 이 가운데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은 ‘학교복귀경험등교청소년(이하 등교청소년)’, 학교복귀 경험은 있으나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청소년은 ‘학교복귀경험미등교청소년(이하 미등교청소년)’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학업중단 청소년 가운데 학업중단 이후 학업에 복귀한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학교미복귀경험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2. 측정변인

변수는 학교복귀경험, 개인변인, 환경변인, 학업중단관련 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1) 학교복귀경험

학교복귀경험에 대한 측정은 학업을 중단한 이후 학교에 복귀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으로 현재 등교하고 있는 청소년과 현재 등교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 학교에 복귀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포함한다. 학교복귀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복귀경험(0점), 복귀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미복귀경험(1점)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학교복귀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추출하여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는 재학중(1점),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청소년은 미재학(0점)으로 측정하였다.

## 2) 개인 요인

학교복귀경험을 설명하는 개인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학업중단 전 비행경험 유무, 노동경험유무,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 충동성, 게임중독, 학력에 대한 인식, 미래전망 등을 선정하였다. 비행경험은 술, 담배를 제외한 비행경험(절도, 폭행, 갈취, 재물손괴, 공공기물파손 등)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있음(1점), 없으면 없음(0점)으로 더미변수화하였고, 노동경험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8시간이상 일을 하였으면 있음(1점), 일한 경험이 없으면 없음(0점)으로 재변수화하였다.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 충동성, 게임중독, 학력에 대한 인식, 미래전망은 윤철경 등(2013)의 학업중단 패널 조사에서 사용한 문항들의 각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 3) 환경 요인

환경요인은 부모 요인과 학교 요인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부모 요인 중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 어머니의 각각의 학력을 ‘학교 안다님’ 1점에서 ‘대학원 졸업’ 7점까지로 측정된 문항을 사용하였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매우 못산다’ 1점에서 ‘매우 잘산다’ 7점까지로 측정된 문항을 상중하로 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가족구조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복수응답 문항에 대해 양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1점, 양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경우(한부모, 조손가족 등) 0점으로 더미변수화하여 사용하였다. 가정폭력목격경험과 가정폭력피해경험에 있어서 경험이 있음 1점, 없음 0점으로 재코딩하였다. 부모의 정서적지지, 부모의 경제적지지, 부모방임, 부모학대는 학업중단 패널데이터에서 측정한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학교 요인은 학교성적은 ‘최하위권’ 1점부터 ‘최상위권’ 7점으로 측정된 문항을 상중하 세 집단으로 재구분하여 사용하였고,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수업부적응, 학교의 훈육적분위기는 학업중단 패널데이터에서 측정한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 4) 학업중단 관련 변인

학업중단 관련 변인은 학업중단 횟수, 학업중단기간, 학업중단 시 행정처리, 학업중단시점, 학업중단 인식으로 설정하였다. 학업중단 횟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측정 당시의 학업중단 횟수에 대한 오픈문항의 응답에 대해 1회, 2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고, 학업중단 기간은 1년 미만, 1~2년

미만, 2년 이상으로 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행정처리에 대한 문항은 자발적 자퇴, 권고자퇴, 퇴학, 상급학교진학포기, 유예 등의 문항에 대해 자발적 자퇴와 상급학교 진학포기는 자발로, 그 이외는 비자발로 재코딩하였다. 최초 학업중단시점은 응답자의 학교를 그만둔 교급과 학년에 대한 측정 문항에 대한 응답값을 사용하였고, 학업중단의식은 학업중단 패널데이터에서 측정한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IBM SPSS 21.0 버전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수별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경향성을 파악하고, 학교복귀경험 청소년 중 등교청소년과 미등교청소년, 그리고 학업복귀경험청소년과 미복귀경험청소년의 집단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검증과 독립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복귀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시에는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6 이상의 상관을 지니고 있는 독립변수들이 있을 경우 둘 중 하나를 삭제하였고, 회귀분석 시 극단값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를 제거하기 위해 표준화 잔차 .3 이상인 케이스를 삭제한 이후 로지스틱 회귀분석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응답자의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체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 771명이다. 이 가운데 학업중단 후 학교복귀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5.0%(116명), 학교복귀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85.0%(655명)으로 나타났다. 학교복귀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현재 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청소년이 30.2%(35명), 현재 학교에 등교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이 69.8%(81명)이었다.

**<표 1> 학업중단 청소년의 현황**

구분	총인원	학교복귀경험			학교미복귀경험
		계	학업청소년	미학업청소년	
전체	771(100.0)	116(15.0)	35(30.2)	81(69.8)	655(85.0)

**2. 학교복귀경험청소년과 학교미복귀경험청소년 비교**

1) 개인요인

학업중단청소년 가운데 학교복귀경험청소년과 학교미복귀경험청소년의 개인요인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학교복귀경험청소년의 성비는 남자 64.7%, 여자 35.3%이며, 학교미복귀경험청소년은 남자 55.9%, 여자 44.1%를 나타내고 있지만 성별에 따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연령대의 비교에 있어서도 두 집단 모두 중학교 연령대에 속한 청소년(약 88%)이 대부분이었다. 노동경험에 있어서는 학교미복귀청소년이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중단 전 비행경험은 학교복귀경험 청소년이 조금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게임중독의 경우 학교복귀경험청소년집단의 평균이 미복귀경험청소년집단의 평균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교복귀경험청소년 가운데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과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미등교청소년의 개인요인을 비교해 보면, 먼저 등교청소년은 남자 68.6%, 여자 31.4%, 미등교청소년 남자 63.0%, 여자 37.0%로 나타났다. 연령대의 비교에 있어서 고등학교 연령대의 청소년은 미등교청소년 집단(91.4%)이 등교청소년 집단(82.9%)보다 많았으며, 중학교 연령대의 청소년은 등교청소년집단(17.1%)이 미등교청소년(3.7%)보다 많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chi^2 = 7.617, p < .05$ ). 학업중단 전 비행경험(등교청소년 경험율 11.4%, 비등교청소년 경험율 50.6%), 우울(등교청소년 평균 1.77점, 비등교청소년 평균 2.17점), 충동성(등교청소년 평균 2.08점, 비등교청소년 평균 1.74점)에 있어서는 미등교청소년집단이 등교청소년집단보다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등교청소년집단이 평균 3.21점, 미등교청소년집단이 2.94점으로 등교청소년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 = -2.503, p < .05$ ). 학업중단 전 노동경험에 있어서는 미등교청소년집단의 노동경험율이 등교청소년집단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력에 대한 인식, 미래전망에 대한 평균점수는 등교청소년이 미등교청소년집단보다 평균점수가

다소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2>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요인 비교

		학교복귀경험청소년		x <sup>2</sup> /t	학업중단청소년		x <sup>2</sup> /t
		등교청소년 n=35	미등교청소년 n=81		복귀경험 청소년 n=116	미복귀경험 청소년 n=655	
성별	남	24(68.6)	51(63.0)	.336	75(64.7)	366(55.9)	3.101
	여	11(31.4)	30(37.0)		41(35.3)	289(44.1)	
연령대	13~15세	6(17.1)	3(3.7)	7.617*	9(7.8)	67(10.2)	2.617
	16~18세	29(82.9)	74(91.4)		103(88.8)	578(88.2)	
	19세	0(0.0)	4(4.9)		4(3.4)	10(1.5)	
노동경험유무	있음	12(34.3)	37(45.7)	1.300	49(42.2)	292(44.6)	.219
비행경험유무	있음	4(11.4)	41(50.6)	15.807***	45(38.8)	234(35.7)	.402
자아존중감		3.21(.52)	2.94(.54)	-2.503*	3.02(.55)	2.97(.55)	1.001
자아탄력성		2.97(.59)	2.85(.55)	-1.072	2.89(.56)	2.83(.54)	.977
우울		1.77(.51)	2.17(.57)	3.541**	2.05(.58)	2.07(.59)	-2.215
충동성		1.74(.52)	2.08(.63)	2.750**	1.98(.62)	1.98(.57)	-0.007
게임중독		1.48(.66)	1.48(.68)	-.012	1.49(.67)	1.45(.63)	.536
학력에 대한 인식		3.07(.51)	2.98(.83)	-.652	3.01(.75)	3.06(.66)	-.767
미래전망		3.11(.73)	3.05(.61)	-.429	3.07(.65)	3.10(.62)	-.412

\* p<.05, \*\* p<.01, \*\*\* p<.001

## 2) 환경요인(가족, 학교 요인)

학업중단청소년의 가족과 학교요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학교복귀경험청소년과 학교미복귀경험청소년 집단을 먼저 살펴보면,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 모두 고졸이하의 학력이 61~66%를 보이고 있다. 가정요인 중 경제적 수준(상중하의 고른 분포), 가족구조(양부모의 비중이 약간 높음)는 거의 유사하였으며, 가정폭력목격경험율은 학교미복귀경험청소년이 다소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부모의 정서적지지와 경제적지지 또한 학교미복귀경험청소년 집단의 평균점수가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방임, 학교수업부적응의

평균점수는 학교복귀경험청소년집단이 미복귀경험청소년집단보다 평균점수가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3> 학업중단 청소년의 환경요인(가족, 학교요인) 비교

구분		학교복귀경험청소년		x <sup>2</sup> /t	학업중단청소년		x <sup>2</sup> /t
		등교청소년 (n=35)	미등교청소년 (n=81)		복귀경험 전체 (n=116)	미복귀경험 청소년 (n=655)	
아버지의 학력	고졸이하	18(66.7)	48(67.6)	.008	66(67.3)	324(61.7)	1.119
	초대졸이상	9(33.3)	23(32.4)		32(32.7)	201(38.3)	
어머니의 학력	고졸이하	15(65.2)	43(66.2)	.103	58(65.2)	346(66.0)	.025
	초대졸이상	9(37.5)	22(33.8)		31(34.8)	178(34.0)	
경제적 수준	상	8(22.9)	18(22.2)	14.197**	26(22.4)	162(24.7)	.334
	중	22(62.9)	24(29.6)		46(39.7)	258(39.4)	
	하	5(14.3)	39(48.1)		44(37.9)	235(35.9)	
학업성적	상	6(17.1)	15(18.5)	.043	21(18.1)	160(24.4)	3.900
	중	10(28.6)	22(27.2)		32(27.6)	135(20.6)	
	하	19(54.3)	44(54.3)		63(54.3)	360(55.0)	
가족구조	양부모	11(31.4)	43(53.1)	4.607*	62(53.4)	375(57.3)	.581
	양부모 외	24(68.6)	38(46.9)		54(46.6)	280(42.7)	
가정폭력목격	있음	4(11.4)	40(49.4)	14.954** *	44(37.9)	305(46.6)	2.965
가정폭력피해	있음	6(17.1)	31(38.3)	5.023*	37(31.9)	179(27.3)	1.020
학업중단전 피해경험	있음	4(11.4)	21(25.9)	3.038	25(21.6)	182(27.8)	1.950
부모의 정서적지지		3.14(.63)	2.72(.77)	-2.784**	2.85(.77)	2.98(.73)	-1.826
부모의 경제적지지		3.14(.63)	2.74(.74)	-2.756**	2.86(.73)	2.96(.75)	-1.300
부모방임		1.69(.56)	2.03(.65)	2.650**	1.93(.65)	1.86(.59)	1.148
부모학대		1.87(.79)	2.15(.87)	1.594	2.06(.85)	1.77(.77)	3.646***
교사관계		2.41(.89)	2.55(.78)	.856	2.51(.82)	2.51(.87)	-.044
친구관계		3.16(.65)	3.13(.64)	-.230	3.14(.65)	3.16(.60)	-.262
학교수업부적응		2.85(.65)	2.58(.73)	-1.856	2.66(.72)	2.54(.75)	1.634
학교의 훈육적분위기		2.64(.82)	2.65(.80)	.070	2.65(.81)	2.48(.80)	2.126*

\*  $p < .05$ , \*\*  $p < .01$ , \*\*\*  $p < .001$

하지만 부모학대와 학교의 훈육적분위기의 경우 학교복귀경험청소년집단과 학교미복귀경험청소년 집단의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모학대의 경우 학교복귀경험청소년집단 평균 점수 2.06점, 학교미복귀경험청소년집단 평균점수 1.77점으로 학교복귀경험청소년집단의 부모 학대가 더 높았다( $t=3.646$ ,  $p<.001$ ).

학교복귀경험청소년 중 등교청소년과 미등교청소년 집단 간 환경요인을 비교해보면, 부모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약 65%로 나타났다. 가정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는 미등교청소년이 등교청소년에 비해 가정경제가 좋지 않다(하 수준)고 응답한 비율(등교청소년 14.3%, 미등교청소년 48.1%)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chi^2 =14.197$ ,  $p<.01$ ). 가족구조에 있어서도 양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미등교청소년집단(53.1%)이 등교청소년집단(31.4%)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정도로 높았다( $\chi^2 =4.607$ ,  $p<.05$ ). 가정폭력목격에 있어서는 미등교청소년집단의 가정폭력목격 비율(등교청소년 11.4%, 미등교청소년 49.4%)이 더 높았으며( $\chi^2 =14.954$ ,  $p<.001$ ), 또한 가정폭력 피해경험율(등교청소년 17.1%, 미등교청소년 38.3%)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chi^2 =5.021$ ,  $p<.05$ ).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등교청소년 평균점수 3.14점, 미등교청소년 평균점수 2.72점으로 등교청소년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t=-2.784$ ,  $p<.01$ ), 경제적 지지 또한 등교청소년집단(3.14점)이 미등교청소년집단(2.74점)보다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2.756$ ,  $p<.01$ ). 부모방임에 경우 미등교청소년집단(1.69점)이 등교청소년집단(2.03점)의 평균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2.650$ ,  $p<.01$ ).

학교요인 비교에 있어서는 먼저 학교성적은 두 집단 모두 성적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54% 정도로 유사했으며, 학교의 분위기 또한 유사한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학업중단 전 피해경험율은 미등교청소년의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친구관계, 학교수업부적응정도는 등교청소년이 미등교청소년집단의 평균보다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미등교청소년집단이 등교청소년집단보다 평균점수가 높았지만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 3) 학업중단관련 요인

학업중단청소년의 학업중단 횟수에 대해 학교복귀경험 청소년이 2회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70.7%인 반면, 학교미복귀경험청소년은 조사대상 전체가 학업중단 횟수가 1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chi^2 =518.122$ ,  $p<.001$ ). 학업중단 행정처리의 경우 자발적 중단은 학교미복귀경험청소년 79.1%인

반면, 미복귀경험청소년은 86.8%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x^2 = 4.724$ ,  $p < .05$ ). 학업중단 기간은 주 집단 모두 1~2년 미만의 기간이 가장 많았으며, 학업중단 시점 또한 고등학교 시기에 중단한 청소년이 77% 정도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인식에 있어서는 학교복귀경험청소년이 미복귀경험청소년에 비해 평균점수가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교복귀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관련 변수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등교청소년의 경우 1회 학업중단 횟수 응답율이 94.3%인 반면, 학교미등교청소년은 1.2%에 불과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x^2 = 102.132$ ,  $p < .001$ ). 학업중단 기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학교등교청소년은 1~2년의 학업중단 기간이 71.4%인 반면, 학교미등교청소년은 39.5%를 나타냈으며 1년 미만이 51.9%로 나타났다. 학교복귀경험청소년은 자발적 학업중단인 경우가 등교청소년과 미등교청소년 모두 약 76~80%에 해당하였고, 학업중단 시기 또한 고등학교 연령대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학업중단의식은 등교청소년의 평균이 2.39점으로 미등교청소년 평균 2.22점보다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업중단청소년의 학업중단 이유에 대해서 개인사정, 학교사유, 대안교육, 문제행동 4가지로 다시 범주화하여 구분해보면 학교복귀경험청소년은 학교사유가 57.9%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대안교육을 위해서 18.2%, 문제행동으로 16.5%, 개인사정이 7.4%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은 미복귀경험청소년과 차이를 보였는데 물론 학교사유와 대안교육의 사유가 높지만, 미복귀청소년의 경우 문제행동보다는 개인사유의 비율이 높았다( $x^2 = 9.084$ ,  $p < .05$ ).

학교복귀경험청소년 중 학업중단숙려제도를 이용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도움 여부에 대한 응답은 평균 2.29점(4점 만점)으로 나타나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57.25점에 해당하는 수치를 나타냈다. 이 문항에 대한 분석으로 학업중단숙려제도에 대한 정보 안내가 다른 기관 안내에 비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학업중단숙려제 이용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도움정도도 미미함으로써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관련 요인 비교**

구분		학교복귀경험청소년		$x^2 / t$	학업중단청소년		$x^2 / t$
		등교청소년 (n=35)	미등교청소년 (n=81)		복귀경험 전체 (n=116)	미복귀경험 청소년 (n=655)	
학업중단횟수	1회	33(94.3)	1(1.2)	102.132***	34(29.3)	655(100.0)	518.122***
	2회 이상	2(5.7)	80(98.8)		82(70.7)	0(0.0)	

학업중단기간	1년 미만	5(14.3)	42(51.9)	14.333**	47(40.5)	227(34.7)	2.307
	1~2년 미만	25(71.4)	32(39.5)		57(49.1)	332(50.7)	
	2년 이상	5(14.3)	7(8.6)		12(10.3)	96(14.7)	
행정처리	자발	26(76.5)	65(80.2)	.207	91(79.1)	567(86.8)	4.724*
	비자발	8(23.5)	16(19.8)		24(20.9)	86(13.2)	
학업중단시점	중학교	10(28.6)	14(17.3)	2.614	24(20.7)	119(18.2)	2.425
	고등학교	25(71.4)	65(80.2)		90(77.6)	505(77.1)	
	중학교 이후진학안함	0(0.0)	2(2.5)		29(1.7)	31(4.7)	
	학업중단인식	2.39(.52)	2.22(.62)		1.501	2.34(.56)	

\*  $p < .05$ , \*\*  $p < .01$ , \*\*\*  $p < .001$

### 3. 학교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학교복귀경험청소년의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학교복귀경험청소년과 학교미복귀경험청소년 간의 학교미복귀영향요인과 학교복귀경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해보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 1) 학교미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먼저 학업중단청소년의 학교미복귀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 학업중단관련요인 등의 주요 변수를 독립변수로, 학교복귀경험을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전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실시한 결과, 부의 학력과 모의 학력, 연령대와 학업중단 시점,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 지수가 높아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부의 학력, 연령대, 자아존중감 변수를 택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Model Chi-square=415.382, df=27,  $p < .001$ ).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연령대, 학업중단전 비행경험, 자아존중감, 게임중독, 아버지의 학력, 가정폭력목격, 부모방임, 부모학대, 학업중단전 피해경험, 수업학교부적응도가 학교복귀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교미복귀 가능성은 7.2배, 학업중단 전 비행경험은 18.2배, 게임중독증상이 높을수록 학교미복귀 가능성은 3.3배, 피해경험은 5.7배가 증가한다. 또한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교미복귀가능성은

1.6배, 부모방임수준이 높을수록 학교미복귀가능성은 6.6배 높아진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 미복귀가능성은 87% 감소하고, 학교수업부적응 정도가 높을수록 미복귀가능성은 70.8% 감소, 부모학대가 높을수록 미복귀가능성은 81.5% 감소한다. 노동경험유무, 성별, 가족구조, 경제적 수준, 교사폭력, 학교성적, 충동성,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업중단인식, 학력에 대한 인식, 부모의 경제적지 지, 학업중단횟수, 우울, 학교의 분위기, 미래전망 등은 학교복귀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학교미복귀 예측변수에 대한 로짓회귀분석(학교복귀경험 vs 학업미복귀경험)

구분	B	S.E.	Wals	Exp(B)
성별	.580	.594	.953	1.785
연령대	1.975	.743	7.070**	7.206
학업중단전 비행경험	2.902	.973	8.894**	18.212
노동경험유무	.725	.626	1.342	2.065
자아존중감	-2.109	.815	6.695*	.121
우울	-.336	.724	.216	.714
충동성	1.038	.617	2.827	2.824
게임중독	1.206	.575	4.397*	3.338
학력에 대한 인식	-.271	.449	.364	.762
미래전망	.481	.480	1.001	1.617
아버지의 학력	.497	.245	4.117*	1.644
경제적 수준	.512	.393	1.691	1.668
가족구조	-.432	.579	.557	.649
가정폭력목격	2.444	.938	6.791**	11.517
가정폭력피해	-.240	.988	.059	.786
부모경제적지 지	.493	.465	1.125	1.637
부모방임	1.887	.692	7.443**	6.602
부모학대	-1.686	.481	12.314***	.185
학업중단전 피해경험	1.746	.852	4.193*	5.729
학교성적	-.145	.405	.127	.865
교사관계	-.186	.330	.319	.830
친구관계	.727	.456	2.541	2.069
교사폭력	.361	.681	.280	1.434
학교수업부적응도	-1.231	.423	8.469**	.292
학교훈육적분위기	-.573	.361	2.525	.564

학업중단인식	-.698	.581	1.442	.498
학업중단횟수	-30.362	3727.423	.000	.000

Model Chi-square=415.382, df=27, p<.001

Nagelkerke R2=.837, 분류정확도 96.1%

\* p<.05, \*\* p<.01, \*\*\* p<.001

## 2) 학교등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음으로 학교복귀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 청소년의 학교미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개인요인, 가조요인, 학교요인, 학업중단관련요인 등의 주요 변수를 독립변수로, 학교복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 학교복귀경험자에 대한 학교복귀 예측변수에 대한 로짓회귀분석**

구분	B	S.E.	Wals	Exp(B)
성별	-1.780	1.339	1.767	.169
연령대	-.760	2.055	.137	.468
학업중단전 비행경험	-5.656	2.140	6.984**	.003
노동경험유무	-3.588	1.798	3.984*	.028
자아존중감	3.990	1.538	6.733**	54.035
충동성	-.314	1.357	.053	.731
게임중독	-.773	1.252	.381	.462
학력에 대한 인식	.525	.819	.411	1.690
아버지학력	.171	.502	.116	1.186
경제적 수준	-.130	.969	.018	.878
가족구조	3.363	1.819	3.416	28.862
가정폭력목격	-1.767	1.728	1.045	.171
가정폭력피해	2.354	2.192	1.154	10.531
학업중단전 피해경험	-1.393	1.930	.521	.248
부모경제적지지	-.390	.920	.180	.677
부모방임	.122	1.628	.006	1.130
성적	2.461	1.200	4.203*	11.715
교사관계	-.312	.912	.117	.732
친구관계	-1.990	1.125	3.131	.137
학교수업부적응도	2.785	1.338	4.336*	16.207

교사폭력	-5.178	2.300	5.067*	.006
학업중단인식	.853	1.216	.492	2.347
학교중단시기	2.969	1.335	4.950*	19.475

Model Chi-square=74.207, df=23, p<.001  
Nagelkerke R2=.767, 분류정확도 91.8%

\*  $p<.05$ , \*\*  $p<.01$ , \*\*\*  $p<.001$

회귀분석 전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실시한 결과, 부의 학력과 모의 학력, 연령대와 학업중단 시점,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경제적지지와 정서적지지, 학대와 방임, 우울과 충동성, 자아존중감과 미래시간전망의 상관관계 지수가 높아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부의 학력, 연령대, 자아존중감, 충동성, 방임, 경제적지지 변수를 택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Model Chi-square=74.2072, df=23, p<.001).

다중로지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업중단전 비행경험, 노동경험, 자아존중감, 성적, 교사폭력, 수업부적응도, 학업중단시기가 학교등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중단 전 비행경험이 있을수록 학교복귀가 99.7% 감소하고, 노동경험이 있을수록 학교복귀가 75.2% 감소한다. 교사폭력이 있을수록 학교복귀가 99.4% 감소한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복귀가 54.0배 증가하고,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학교복귀가 11.7배, 학교수업부적응도가 높을수록 학교복귀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성별, 연령대, 충동성, 게임중독, 학력에 대한인식, 아버지의 학력, 가족구조, 경제적 수준, 부모의 경제적지지, 부모의 방임, 가정폭력피해,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업중단 전 피해경험, 학업중단인식 등은 학교복귀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업중단 청소년 종단연구 1차년도 데이터 가운데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보호관찰청소년을 제외한 일반청소년 771명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교복귀경험과 미복귀경험자와의 비교, 학교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복귀경험청소년과 미복귀경험을 구분하는 변수는 개인요인은 발견되지 않았고, 가족요인에서는 부모의 학대, 학교요인에서는 학교의 훈육적 분위기, 학업중단관련요인에서는 학업중단횟수,

행정처리로 나타났다. 즉 학업미복귀경험청소년이 학업복귀경험청소년에 비해 부모의 학대가 적고, 학교의 훈육적 분위기를 덜 느끼며, 학업중단 횟수가 적고, 자발적 자퇴자인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학교복귀경험청소년 중 학교등교청소년과 미등교청소년을 구분하는 변수는 개인요인은 연령대, 학업중단전 비행경험, 자아존중감, 우울, 충동성으로 나타났고, 가족요인으로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 가족구조, 가정폭력목적, 가정폭력피해, 부모의 정서적지지, 부모의 경제적지지, 부모방임이었다. 학교요인에서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학업중단관련 요인에서는 학업중단횟수, 학업중단기간이 학교등교청소년과 미등교청소년을 구분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학교등교청소년이 미등교청소년에 비해 중학교 연령대가 더 많고 학업중단전 비행경험율이 적고, 자아존중감도 높으며, 우울과 충동성은 낮았다. 또한 학교등교청소년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더 나은 편이고 양부모와 거주하는 비율이 더 적으며, 가정폭력비율과 피해비율,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낮았다. 반면 학교등교청소년이 미등교청소년에 비해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경제적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었다.

다음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학업중단청소년의 학교복귀경험 가능성 예측변수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연령대, 학업중단 전 비행경험, 자아존중감, 게임중독, 가정폭력목적, 부모의 방임, 부모의 학대, 학교수업부적응도가 학업중단청소년의 학교복귀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학업중단 전 비행경험이 없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정폭력의 목적이 없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수업부적응도가 높을수록, 부모방임 정도가 낮을수록 학교복귀경험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학교복귀경험청소년의 등교가능성 예측변수는 학업중단전 비행경험, 노동경험, 자아존중감, 학교 성적, 학교수업부적응도, 교사폭력, 학교중단시기로 나타났다. 즉 학교복귀경험청소년 가운데 학업중단전 비행경험이 없고, 학업중단 후 노동경험과 교사폭력경험이 없으며, 자아존중감, 학교수업부적응도가 높으면 학교등교 가능성은 높아진다. 또한 학교성적이 좋으며 학업중단시기가 고등학교 연령대일수록 학교등교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학업중단청소년들의 학교복귀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과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학교복귀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학교복귀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비교에서도 현재 학업을 유지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학업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학업중단청소년에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또한 우울과 충동성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복학경험이 없는 청소년과 개인적 특성이 다르지 않지만, 학교복귀경험청

소년 집단 내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학교복귀경험이 있는 미등교청소년들에게 우울과 충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리라 본다. 따라서 학업중단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개입을 하고 있는 단체 및 기관에서는 학업중단 이후에 청소년들에게 오는 상실감과 학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잘 극복하고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기회 및 자아탄력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와 자기조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이 강조되어진다. 비행의 시작 연령이 저연령화되고 있고 상습적이며 흉포화되고 있는 최근 비행의 특성상, 청소년들이 비행에 노출되면 그 비행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본 연구의 학업중단 사유에서도 문제행동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16.5%에 해당하였다. 학업중단 전 비행경험은 학업중단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학교복귀경험 및 학교등교에도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비행경험은 사회에서의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을 지니며, 학업에 복귀할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비행예방을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어야 하겠다. 또한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폰이 대중화되면서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및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수준이다. 게임중독으로 인해 학교 등교거부로 학업중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게임중독이 학교미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게임의 폭력성이 청소년의 비행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청소년들에게 게임은 학교생활보다 화려한 색채감과 자극적인 동작 등으로 더욱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게임을 긍정적인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사용 교육과 더불어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에서 학업 수행 외에 청소년들에게 재미있는 활동의 요소들이 적절히 가미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현장과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학교복귀경험 청소년 가운데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 약 20% 청소년들만이 안내를 받았으며, 제도에 대한 도움 인지도 보통 수준(100점 만점에 약 57점)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 전문기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학업중단을 하게 하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낮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욕구에 기반한 제도로 시행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가정의 기능회복이 요구된다. 가족구조는 학업중단 청소년 간 차이는 있지만 학교복귀경험과 학교등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했다. 가족구조보다는 가족의 기능, 즉 부모의 방임이 청소년들을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규명되었다. 또한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청소년들을 집이나 학교 밖으로 내 쫓겨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학교복귀를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가족의 구조적 문제보다는 기능적 문제가 미학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부모교육 강화와 가정기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가족기능에서 독특한 결과는 부모학대 증가할 때, 학교복귀의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모학대는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결과이지만 본 연구는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단편적으로 해석될 상황은 아니며,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환경적인 맥락의 중요성과 함께 현재 학교미복귀경험청소년의 학업중단 횟수와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추측을 가능케 한다. 학업중단청소년 가운데, 학교를 복학한 경험은 있지만 현재 학교에 등교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의 부모학대의 평균치가 다른 집단(학교미복학경험청소년, 등교청소년)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이는 학업중단 이후 부모의 체벌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학교를 다시 복학하였지만 부모의 학대로 다시 학업중단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미복학경험 청소년들의 학교복학 이후 부모학대가 높은 집단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규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 학교수업부적응도와 학교복귀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학교수업부적응도가 높을수록 학교복귀경험 및 학교등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내는데, 학교수업부적응도와 학교복귀가능성과의 정적관계에 대한 해석은 다소 조심스럽다. 아마도 학력과 학업성적이 중시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학업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충분한 휴식과 더불어 학교를 벗어난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험으로 인해 학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로 복귀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추측일 뿐이다. 이에 대한 학교로 복귀한 청소년들의 학교수업 부적응도에 대한 변화 등을 측정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학업중단청소년 종단연구 1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기에 학교등교청소년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아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제한적이다. 또한 설문문항이 회고적 문항이 있어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좀 더 데이터가 축적된 이후에 다양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로모형을 제시하여 그에 따른 개입방법을 제안할 필요가 있겠다.

##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13). 2012학년도 초·중고 학업중단 현황 조사결과 발표.
- 구본용, 신현숙, 유제민 (2002).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중퇴 모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 연구, 10(2), 35-57.
- 구본용, 유제민 (2003). 중퇴에 관한 위험 및 보호요인의 신경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133-146.
- 금명자, 권해수, 이문희, 이자영, 이수림 (2004). 학교밖청소년 욕구조사, 학교밖청소년 길 찾기,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50, 21-44.
- 금명자, 주영아, 이자영, 김태성, 김상수, 신현수 (2005). 학교밖청소년 평가도구 개발, 청소년상담연구 111,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범구, 조아미 (2013).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한국청소년연구, 24(3), 5-31.
- 김해영 (2002). 학교중도탈락자의 사회적 맥락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9(3), 213-242.
- 남기곤 (2011). 고등학교 단계 학업 준단의 경제적 효과 추정. 시장경제연구, 40(3), 63-94.
- 박현선 (2004). 학업중퇴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청소년상담연구, 12(2), 69-82.
- 배영태 (2003). 학교 중도탈락의 선행요인과 판별. 청소년상담연구, 11(2), 23-35.
- 성윤숙 (2005).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중퇴과정과 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16(2), 295-343.
- 성윤숙, 박병식 (2009).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손순용 (2005). 학교 밖 보호관찰 청소년 학력취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2, 73-96.
- 안현의, 이소영, 권해수 (2002). 학교 중도탈락 청소년의 욕구와 심리적 경험 조사,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양미진, 지승희, 이자영, 김태성 (2007).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캠프 프로그램 개발연구. *상담학연구*, 8(4), 1657-1675.
- 오혜영, 지승희, 박현진 (2011).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까지의 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 연구*, 19(2), 125-154.
- 윤철경 (2010). 학업중단 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규석, Denise E. Bronson (2000). 미국 고등학생의 학교중퇴에 관한 다체계 모델: 모델 검증과 학교중퇴 예방프로그램에 주는 의미. *한국아동복지학*, 9, 205-225.
- 조규필, 박현진, 김래선, 김범구, 양대희, 이현진, 황수진 (2011).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 재적응 과정 연구. *중등교육연구*, 59(4), 969-1000.
- 주영신 (2007). 보호관찰청소년의 재범 후 삶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나미, 신문희, 박은혜, 박지현 (2013).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복귀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접근. *청소년복지연구*, 15(1), 121-153.
- Alexander, K. L., Entwisle, D. R., & Kabbani, N. S. (2001). The drop process in life course perspective: early risk factors at home and school. *Teachers College Record*, 103(5), 760-822.
- Lofstrom, M. (2007). Why are Hispanic and Africa-American dropout rates so high? *Williams Review*, 2, 91-121.
- Rumberger, R. W. (2011). *DROPPING OUT: Why students drop out of high school and what can be done about i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발표 4

.....

# 학업중단 사유와 청소년들의 특성, 그리고 중단 후 경로와의 관계성

황 지원

(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연구원)

# 학업중단 사유와 청소년들의 특성, 그리고 중단 후 경로와의 관계성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의 교육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학업중단자 수는 중학교에서 17,811명, 고등학교에서 37,391명이었으며, 이것을 재적학생수에 대비한 학업중단율로 계산해 보면 각각 0.9%와 1.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 정도의 비율은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사실 그리 높은 것은 아니지만<sup>1)</sup>,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은 2005년에 각각 0.7%, 1.4%였지만, 거의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현재의 학업중단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높은 비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는 이들이 향후 성인기로 이행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다양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김범구·조아미, 2013).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력이나 학업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졸업을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업중단 결정의 무게감이나 기회비용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성윤숙, 2005; 금명자, 2008).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학업중단이 가져오는 효과는 개인적으로 8천만원의 생애 근로소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6백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세를 감소시키며 범죄 증가로 인한 600만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 역시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남기곤, 2011).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학업중단과 관련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학업중단의 사유 및 영향 요인(김경식, 1997; 김민, 2001; 윤여각 외, 2002; 금명자, 2008), 사회부적응 실태(김종범, 2009; 김성기 외 2009), 학업중단 이후의

1) 미국의 경우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NCES)가 발표한 The Condition of Education 2009에 따르면 2007년을 기준으로 16~24세의 학업중단율이 9%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상근 외(2010)에서 재인용.

복교 및 재적응 과정(오혜영 외, 2011; 조규필 외, 2011), 학업중단 이후 삶의 경로(이경상·조혜영, 2005; 김범구·조아미, 2013),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책 및 개입 프로그램(최상근 외, 2010; 윤철경 외, 2013) 등 학업중단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학업중단의 각 국면에 대한 관심은 잘 드러냈지만,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학업중단의 사유에 대한 연구는 많았고, 학업중단 이후의 경로 유형에 대한 연구도 많았지만,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학업중단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사유나 배경 등의 사전 변인들과 이후 진행 경로 및 유형 등의 사후 변인들이 갖는 관련은, 학업중단을 포괄적인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sup>2)</sup>.

본 연구에서는 이 점에 착목하여 학업중단의 사유에 따라 학업중단 이후의 경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의 각 과정 간에 어떤 연관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정한 학업중단 사유가 있는 학생은 이후의 경로에서도 그 사유에 따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 문제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이후에 검정고시나 다른 학교로의 복교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며, 가정 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아르바이트나 취업준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리라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학업을 중단한 이유에 따라서 학업중단 이후의 경로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러 선행연구 중 윤여각 외(2002)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업중단 이유와 학업중단 이후의 가능한 선택지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경험적 자료를 활용하기 보다는 학교 및 기관 관계자와 몇몇 청소년들과의 면담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론을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단위 표집자료를 바탕으로 학업중단 청소년 개개인의 학업중단 사유와 이후 경로의 관계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학업중단 사유를 파악하는 일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근 10년 동안 이루어진 학업중단 청소년 연구에서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주제가 61.4%를 차지했다는 것이 이에 대한 방증이 될 수 있다(김범구, 2012). 왜 학업을 중단했는지를 파악해야만 이후의 경로를 예측할 수 있고 적절한 대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업중단의 사유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학업중단 이후의 학교 재적응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는

2) 여기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자료 부족의 문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대표성있는 표집을 통해 개별 학생을 추적한 자료로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훌륭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 방법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학업중단의 사유에 따라 학생의 재적응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으며(조규필 외, 2011), 학업중단 이후의 경로를 유형화한 연구에서도 학업중단의 사유가 함께 다루어질 때 청소년의 삶이 보다 풍부하게 다루어질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김범구·조아미, 2013). 만약 학업중단 사유와 이후 진행 경로 간의 관계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학업중단 사유에 따라 이후의 경로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개입을 시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혹시 그러한 경로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학업중단의 과정을 통해 다른 경험을 하게 되어 선택이 바뀐 것이므로 학업중단 경험의 영향을 보다 풍부히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업중단의 사유를 살펴보고 유형화하여 각각의 특성을 검토하며, 각 유형에 따라서 학업중단 이후의 경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추적하는 데에 있다. 학업중단 과정에서 어떤 사유가 중심이었던지에 따라 이후의 삶의 경로를 예측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업중단 사유에 따라 가능한 진행 경로를 사전에 예측하여 가장 적합한 형태의 정책적 개입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며,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학업중단의 사유와 관련 요인

청소년 학업중단의 원인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자리하고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학업중단의 사유는 개인 요인, 가정 요인, 학교 요인, 교우관계 요인, 지역 및 사회 요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서우석 외(2001)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드러난 중도탈락의 유발 요인을 개인적 요인, 학교체제 관련 요인, 사회체제 관련 요인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해영(2001)은 가정요인을 개인적 요인과 구분하여 학업중도탈락의 원인을 개인의 사회심리적 특성, 가정요인, 학교요인, 사회요인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김민(2001)은 학교중퇴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또래집단 요인, 학교 요인, 사회적 요인 등의 5가지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또래집단의 요인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성운숙(2005)의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정리하면서 중도탈락의 주요 요인을 대체로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교우관계요인, 지역사회요인으로 정리하였다. 연구에

따라서 개인요인과 가정요인을 합하기도 하고, 또래요인과 학교요인을 합하기도 하는 등의 기준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서우석 외, 2001; 이해영, 2001; 김민, 2001; 성운숙, 2005).

먼저 개인 요인으로는 낮은 자아존중감, 공격성, 건강문제, 학습장애, 학업동기 부족, 학교생활에서의 좌절감, 소외감, 학교 부적응 등이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가정적 요인으로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경제적 빈곤, 가정 불화, 전통적 가족의 해체, 결손 가정, 부모의 낮은 관심, 부모의 과도한 성취기대 등이 제시된다. 학교 요인으로는 경직된 학교교육, 학교 무관심,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학교 문화,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 엄격한 규율, 선생님의 차별 대우, 선생님의 낙인 등이 제시된다. 교우관계 요인으로는 비행청소년과의 유대, 폭력집단 가입 등이 제시되고 있다. 끝으로 지역 및 사회 요인으로는 학교밖 유해 환경, 사회적 불평등 구조, 상업주의적 소비문화, 지역 성인들과의 유대 관계, 우범지역 거주, 향락산업 팽배 등이 제시되고 있다(김민, 2001; 박창남 외, 2001; 서우석, 2001; 이해영, 2001; 윤여각 외, 2002; 이경상, 조혜영, 2005; 성운숙, 2005; 금명자, 2008; 최상근 외, 2010).

김민(2001)의 연구에서는 자발적 중도탈락 학생들이 전통적 중도탈락 학생들과 발생요인의 측면에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특성이 상이하다는 것을 밝혔다. 기존의 중도탈락자들에게 대한 견해는 이들이 성격장애, 사회에 대한 불만, 가정결손 등의 요인으로 중퇴를 결정한다는 것이었지만, 새롭게 생겨난 자발적 중도탈락 학생들은 이들과는 달리 공격성도 높지 않고 낙관적인 미래와 구체적인 직업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자발적 중도탈락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과 직업관에 비추어 학교교육을 불신하며 학력 자체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는 특징을 갖는다(김민, 2001).

윤여각 외(2002)의 연구에서는 학교, 기관(시설) 관계자와 기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과의 면담을 중심으로 학업중단의 이유를 크게 7가지의 유형으로 파악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가정에 대한 불만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유형으로 이 경우에는 대개 가출을 시도하게 되고 장기 결석으로 이어져 학업중단이 일어난다. 두 번째 유형은 가정에 대한 불만족보다는 집안 형편의 어려움에서 기인하는 경우로 집안 형편에 매몰되어 학업결손이 누적되면서 흥미를 잃고 불가피한 학업중단이 일어나는 경우로 보았다. 세 번째 유형은 학교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로, 다른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교사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며 불만이 자신의 인내를 넘어설 경우 학업중단을 결심하게 된다. 네 번째 유형은 학교에 대한 불만족보다 교과공부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 경우로 교과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아 학교를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유형은 공부보다는 비행에서 흥미를 느끼고 이러한 행동의 반복이 교칙위반으로 이어져 학업을

중단하는 유형이다. 여섯 번째 유형은 건강상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유형으로 사실 불가피한 중단에 해당한다. 일곱 번째 유형은 조기 유학이나 장기간의 외유로 인하여 중단하는 유형이다(윤여각 외, 2002).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유형화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특징과 대략적인 중단 후 경로를 추론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면담에 의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학업중단 청소년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 금명자(2008)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리뷰함으로써 2000년대를 전후하여 급격하게 늘어난 학업중단 학생들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학업중단의 용어 사용, 실태 및 현황, 원인과 과정, 학업중단 이후 과정 등으로 구분하여 기존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12가지에 이르는 청소년 학업중단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학업중단의 원인과 관련된 부분만 제시하면, 첫째, IMF 이후 경제적 여건의 악화로 가정의 심리적 지지와 경제적 지원이 약화되었고, 계층 갈등과 사회·역사적 환경의 변화로 교권 약화 및 학교에서의 인간관계 변화가 나타나는 등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학업중단이 증가하게 되었다. 둘째, 학업중단의 주요 원인군은 개인, 가정, 학교, 교우, 지역사회군으로 분류된다. 셋째, 개인적 원인에는 공격성, 무력감 등 정서적인 측면과 공부의 필요성 상실, 학업 흥미 상실과 같은 인지적인 면, 무단결석이나 나태한 생활태도 등 행동적인 면이 모두 포함된다. 넷째, 가정적 원인에는 가정의 결손, 경제적 어려움이 포함되고, 학교 원인에는 성적 저하, 규칙 부적응, 교사와의 갈등이 포함되며, 교우 원인에는 불량 친구, 부적절한 이성행동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 학업중단의 원인으로 분류된 변인들은 사실상 학업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위험요소로 이해되는 것이 합리적이다(금명자, 2008).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변화를 학업중단의 원인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조금 더 포괄적인 이해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양한 학업중단 원인을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학업중단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변인들이 실제 직접적인 학업중단의 계기라기보다는 학업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지적인 학업중단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최상근 외(2010)의 연구에서는 연구의 초점을 학업중단위기 학생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두고,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진은 학업중단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조사 설문지를 구성하고, 재학생과 학업중단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영역 및 항목은 학업중단자의 개인 특성(재학 당시 문제행동의 정도, 학습태도, 심리적 특성 등), 또래집단 특성(친구의 문제행동 정도), 가정 특성(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 학교 특성(학교생활 만족도, 교사와의 관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 특성에서는

학업중단자들의 문제행동 정도가 높고, 심리적 특성에서도 재학생보다 낮았다. 또래집단 특성에서는 친한 친구에게서 문제행동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특성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은 재학생보다 낮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은 재학생보다 높았다. 학교 특성에서는 학업중단자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고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도 낮았다(최상근 외, 2010). 이 연구는 위기수준에 있는 학생들을 판별하기 위한 실질적인 관심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주로 문제학생의 판별에 집중하고 있으며, 따라서 유학, 이민, 대안학교 등의 새로운 수요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 2. 학업중단 후 경로 유형

학업중단 후 경로에 대한 연구는 학업중단의 사유에 비해서는 연구가 덜 진행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 분야의 연구들은 학업중단이 일어난 시점 이후에 청소년들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경로를 유형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다. 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인 구분 방식은 학업형, 직업형, 니트형(무업형), 비행형의 4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다(이숙영, 남상인, 1997; 윤여각 외 2002; 이경상, 조혜영, 2005; 윤철경 외, 2010; 김범구, 조아미, 2013).

이숙영, 남상인(1997)의 연구에서는 중도탈락 학생들을 크게 사회에 적응하는 유형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에 적응하는 유형은 복학을 하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진학형,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하는 취업형, 취업준비형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고, 사회 부적응 유형은 보호 및 관리체제에 소속된 청소년과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으로 구분된다고 보았다(이숙영, 남상인, 1997). 이처럼 사회에 잘 적응하는가 혹은 그렇지 못한가의 기준을 가지고 학업중단 청소년을 분류하는 방법은 최근까지도 유용한 분류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큰 틀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윤여각 외(2002)의 연구에서는 앞 절에서 언급한 일곱 가지의 유형을 중심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의 선택지는 학교교육체제로 복귀하거나 학업을 포기하는 것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보았다. 이 중에서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회가 용인하는 직업을 갖는 것과 사회가 문제시하는 세계에 참여하는 것으로 경로가 구분된다고 보았다(윤여각 외, 2002). 학교교육체제로 복귀하는 것은 학업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학업을 포기하고 사회가 용인하는 직업을 갖는 것은 직업형, 학업을 포기하고 사회가 문제시하는 세계에 참여하는 것은 비행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자면 이 연구에서는 무업형이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후 연구에서 밝혀졌지만, 학교에 다니지도 않고 직업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행을 저지르지도 않는 니트형의 존재가 최근의 중단 후 경로를 파악하는 새로운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경상, 조혜영(2005)의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기관 소속 여부에 따라 비교적 다른 경로를 걷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먼저 기관 소속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 유형은 다시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중단된 학업을 마치고 정규직업을 가지려는 순수진학형, 학업을 마치지 않고 취업이나 창업에 나서려는 취업형,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딱히 학업을 마치려 하거나 취업할 생각도 갖지 않는 아르바이트형(방임형)으로 나누어진다고 보았다. 조사에 따르면 이 중에서 순수진학형이 45.3%, 취업형이 35.6%, 아르바이트형이 4.6%로 나타났으며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진로를 미결정한 청소년들도 7.5%나 된다고 보고하였다.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 유형은 면담을 통하여 진학형과 취업형, 불확실형으로 나누어진다고 제시하였다. 진학형은 학원 등을 다니며 자신의 적성에 맞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유형이며, 취업형은 직업교육센터 등을 찾아다니며 취업을 준비하는 유형이고, 불확실형은 가수가 되려고 노력하는 등 다양한 탐색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유형이다. 연구자들은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 유형은 시행착오가 많고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경상, 조혜영, 2005). 이 연구에서는 진로 미결정 상태의 학업중단 청소년이 많다는 점이 특이한 발견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해도 진학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점을 계량적인 연구로 밝혀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윤철경 외(2010)의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의 경로를 구분함에 있어서 현재 하고 있는 일(경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라 학업중단 학생들을 나누어 보면, 대안학교나 검정고시 등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는 학습지향형(41.5%),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는 취업/알바형(11.7%), 그리고 특별한 학습이나 준비없이 시간을 보내는 무업형(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46.9%)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무업형은 다시 세분화하여 은둔형(12.7%), 배회형(21.0%), 소일형(13.2%)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보호관찰이나 소년 교도소 경험자들은 비행형으로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였다(윤철경 외, 2010). 이 연구의 주요한 특징은 무업형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특정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는 점과, 비행형이라는 범주가 사실상 다른 집단과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 방법은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학업중단 이후 경로 유형과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으며, 비행형에 대한 별도 구분 개념 역시 본 연구의 유형 결정 과정에서 그대로 활용되었다.

김범구, 조아미(2013)의 연구에서는 잠재계층분석(LCA)방법을 활용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향후 계획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사용하여 잠재계층을 유형화한 결과, 미결정중심형, 미래준비형, 진학준비형의 세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미결정중심형(27.1%)은 특별한 계획이 없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질문에 응답할 확률이 높은 집단이며, 미래준비형(58.3%)은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이나 취업준비에 대한 응답 확률이 높은 집단이다. 진학준비형(14.6%)은 복학준비와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에 응답할 확률이 높은 집단으로서 특히 복학준비가 100%에 이르는 집단으로 분류되었다(김범구, 조아미, 2013). 이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집단 구분을 시도함으로써 기존의 연구가 이론적 배경에 근거한 유형 분류를 시도하였다는 점을 비판하고, 자료에 근거하여 응답자들의 반응을 토대로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했다는 새로운 시도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학생들의 향후 계획을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일정 부분 발생하는 비행형이 다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 Ⅲ. 연구 방법

####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 사용한 분석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1차년도 자료이다. 이 자료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중에서 학업중단 기간이 1년 미만인 학령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2011학년도 기준 학업중단자 48,394명 중 중학교와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600명을 목표 표본으로 삼아 수집된 자료이다<sup>3)</sup>. 학교를 통하여 개인명부 조사를 통해 목표 표본을 수집하고, 스노우볼링과 웹 홍보를 통하여 추가로 표본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상담복지센터, 직업훈련기관/자활지원관, 검정고시학원/대안교육기관 등의 기관 접촉을 통해 추가로 표본을 확보하였다. 이렇게 하여 총 776명의 사례가 수집되었으며, 이중 개인명부 조사에 의한 표본은 552명이고, 기관접촉 조사에 의한 표본은 224명이었다. 이 패널조사는 학업중단 학생들의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5년까지 3년 동안 이루어지며, 최종년도인 2015년에도 현재 표본수의 65%

3)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표집도 병행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 학업중단 학생의 자료만 활용하였기 때문에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였다.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윤철경 외, 2013).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 학업중단에 대한 연구의 경향을 보면, 특정한 측면을 해명하는 데에 집중하는 연구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업중단의 이유,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 및 학교 부적응 실태, 복교 및 재적응 과정, 중단 이후의 경로 등에 대하여 개별적인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차원의 연구는 다소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자료 부족의 문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쉽게 포착할 수 있는 연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인 자료가 없어서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본 연구에 사용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상태에서 활용 가능한 최선의 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대표성을 높였고, 또한 학생 개인의 학업중단 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의 양상을 유형화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 2. 변수 설명

이 연구에 활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초 통계값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각각의 변수의 구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표 2>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표 1> 주요 변수의 기초 통계값

대영역	변수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문항수
개인의 심리정서	자아존중감	776	1	4	2.97	.548	.841	5
	자아탄력성	776	1	4	2.85	.550	.743	5
	우울	776	1	4	2.06	.589	.878	10
	충동성	776	1	4	1.98	.579	.713	5
문제행동 경험	피해경험	776	0	6	.44	.889		
	가해경험	776	0	9	2.52	2.248		
부모관계	정서적 지지	776	1	4	2.96	.707	.934	5
	경제적 지지	776	1	4	2.95	.748	.812	3
	부모 방임	776	1	4	1.80	.643	.809	4
	부모 학대	776	1	4	1.82	.789	.883	4

친구관계	또래 애착	776	1	4	3.15	.603	.846	3
	친구 비행	776	1	4	1.63	.635	.869	3
생애사건		776	0	13	3.24	2.64		
학교생활	교사와 관계	776	1	4	2.51	.859	.897	3
	친구와 관계	776	1	4	3.06	.721	.879	4
	학습부적응	776	1	4	2.55	.748	.754	3
학교 분위기	훈육적 풍토	776	1	4	2.50	.806	.736	2
	참여적 풍토	776	1	4	2.37	.767	.789	2
학교규범 위반		776	1	5	2.49	1.067		
지역사회	사회통합	776	1	4	2.28	.667	.775	4
	무질서	776	1	4	2.24	.669	.757	4

위의 <표 1>에서 ‘문제행동 경험4’, ‘생애사건5), ‘학교규범 위반6)’ 등의 3가지 변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은 패널조사 구축시에 제작된 설문 영역에 근거하여 평균점을 계산하여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활용하였다. 실제 설문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신뢰도를 확인한 후 평균값을 계산하여 해당 특성에 대한 변수값으로 삼았다. 각 변수들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의 세부적인 목록은 다음의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 
- 4) ‘문제행동 경험’의 ‘피해경험’ 변수는 학업중단 이전에 ‘집단 따돌림(왕따) 당하기’, ‘성적인 놀림당하기’, ‘문자나 메신저로 일방적으로 음란물 받기’,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기기(상납)’, ‘심하게 얻어맞기(폭행)’, ‘성폭력 당하기’ 등 6가지 질문에 대하여 ‘있다’라고 응답한 수를 나타낸다. ‘가해경험’ 변수는 역시 학업중단 이전에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뺑 뜯기)’,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보기’, ‘돈내기 도박 해보기(인터넷 포함)’, ‘자살 시도’,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 등 9가지 질문에 대하여 ‘있다’라고 응답한 수를 나타낸다.
- 5) ‘생애사건’ 변수는 ‘친부/친모 돌아가심’, ‘친부모 별거’, ‘친부모 이혼’, ‘친부/친모 재혼’, ‘친부/친모 가출’, ‘친부/친모 사업 실패’, ‘친부/친모 실직’, ‘친부/친모의 오랜 병상생활’, ‘기억에 남은 심한 친부모님의 부부싸움’, ‘친아버지가 친어머니를 심하게 때림’, ‘친부/친모로부터 심하게 맞음’, ‘학교선생님으로부터의 치욕적인 대우나 구타’, ‘이사 등으로 전학함’ 등의 20가지 사건의 발생 여부를 각각 1로 하여 합산한 변수이다.
- 6) ‘학교규범 위반’ 변수는 ‘지각’, ‘무단결석’, ‘두발·복장 등 규정위반’, ‘숙제를 하지 않음’, ‘수업을 몰래 빼 먹음’, ‘선생님에게 대들었음’, ‘잘못된 행동을 하여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감’ 등 7개 문항에 대하여 각각 ‘전혀 없었다’, ‘연 1-2회’, ‘월 1-2회’, ‘주 1-2회’, ‘거의 매일’의 응답을 1에서 5로 범주화하여 계량화한 변수이다.

<표 2>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변수 목록

대영역	변수	문항	요인 부하량	신뢰도
개인의 심리정서	자아 존중감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817	.841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781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70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81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789	
	자아 탄력성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관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656	.743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720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734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672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726	
	우울	기운이 별로 없다.	.699	.878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833	
		걱정이 많다.	.676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770	
		울기를 잘한다.	.573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한다.	.645	
		외롭다.	.658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633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645	
	모든 일이 힘들다.	.792		
충동성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728	.713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522		
	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664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759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편이다.	.747		
부모관계	정서적 지지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870	.934
		나에게 따뜻하게 해주신다.	.881	
		고민을 들어 주신다.	.906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906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886	

	경제적 지지	부모님은 나에게 용돈을 주신다.	.818	.812	
		부모님은 내 공부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884		
		부모님은 내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862		
	부모 방임 <sup>7)</sup>	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으셨다.	.803	.809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셨다.	.820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았다.	.797		
		내가 아플 때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셨다.	.776		
	부모 학대	화를 낼 때는 주위에 아무거나 손에 닿는 대로 들고 때리셨다.	.886	.883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때리려고 하셨다.	.854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 (보호자)께서 나를 때린 적이 많다.	.868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 (예를 들어 멍청이, 개만도 못한 것, 나가 죽어라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등의 말)	.843		
친구관계	또래 애착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856	.846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894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878		
	친구 비행	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잘 괴롭힌다.	.890	.869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잘 때린다.	.931		
		내 친구들은 물건을 잘 훔친다.	.853		
학교생활	교사와의 관계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었다.	.895	.897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었다.	.913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었다.	.924		
	친구와의 관계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었다.	.868	.879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했다.	.884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냈다.	.857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친구들이 도와주었다.	.820	
	학습 부적응	학교 수업내용은 내 관심, 흥미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756	.754	
		학교 수업내용은 내 수준에 맞지 않았다.	.859		
학교 수업을 알아듣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다.		.840			
학교 분위기	훈육적 풍토	학교 규칙이 엄격했다.	.890	.736	
		잘못에 비해 벌을 심하게 줬다.	.890		
	참여적 풍토	학교에 문화예술행사나 동아리활동 등이 활발하였다.	.909	.789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자치활동이 활발하였다.	.909		
지역사회	사회통합	우리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알고 지냈다.	.737	.775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왔다.	.802		

		동네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면 우리 동네 어른들은 꾸짖었을 것이다.	.791	
		우리 동네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으면 혼내고 말렸을 것이다.	.765	
무질서		우리 동네는 관리하지 않는 빈집이나 공터가 많았다.	.743	.757
		우리 동네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았다.	.808	
		우리 동네는 밤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 다녔다.	.796	
		우리 동네는 불량한 청소년들이 함께 몰려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다.	.696	

### 3.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먼저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사유를 분석하였다. 학업중단 사유에 대한 순위별 응답 결과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개인사정, 학교사유, 대안교육, 문제행동의 4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비율을 빈도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1,2순위의 조합을 만들어 순위별 분석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행하였다. 다음으로는 학업중단 사유에 따른 청소년들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4가지의 학업중단 사유에 따라 청소년들의 배경변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교차분석을 통해 비교하고, 개인의 심리정서, 문제행동 경험,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생애사건 경험, 학교 생활, 학교의 분위기, 학교규범 위반, 지역사회 역할 등 다양한 변수를 생성하여 학업중단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특성을 분산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변수를 생성하는 과정에서는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이 활용되었다.

다음으로는 학업중단 이후의 경로를 분석하였다. 학업중단 이후의 경험을 근거로 청소년들의 유형을 구분하고, 경험이 조합되는 다양한 방식을 기준으로 학업중단 이후의 경로를 5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학업중단 이후의 경로를 학업형, 직업형, 니트형, 비행형, 혼합형의 5가지로 구분하고 배경변수별 차이를 교차분석을 통해 비교하고, 다른 특성 변수들의 차이를 분산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끝으로 학업중단 사유와 학업중단 이후 경로 간의 관계를 교차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두 변수간의 응답의 유사성을 확인하기 위한 대응분석을 시도하였다. 대응분석은 응답 패턴이 비슷한 응답자와 비슷하지 않은 응답자를 분류하기 위한 기법이며, 질문항목끼리의 관계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노형진, 2005).

7) ‘부모 방임’ 변수에는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다른 일(직장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문항도 있었지만, 이 문항을 포함할 경우의 알파계수는 .535로 비교적 낮았다. 하지만 신뢰도 분석 결과 이 문항을 제외할 경우 알파계수가 .809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 문항을 제외하고 변수를 구성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SPSS Statistics 21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들인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응답자 776명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sup>8)</sup>.

<표 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성별	남	444	57.2
	여	332	42.8
연령대	중학교 학령(만13-15세)	76	9.8
	고등학교 학령(만16-18세)	685	88.3
	학령기 이후(만19세)	15	1.9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399	51.4
	한부모가정	279	36.0
	부모 모두 안계심	98	12.6
가정경제수준	상	190	24.5
	중	307	39.6
	하	279	36.0
부모학력(부)*	고졸 이하	391	62.4
	초대졸 이상	236	37.6
부모학력(모)*	고졸 이하	405	65.7
	초대졸 이상	211	34.3
학업성적	상	182	23.5
	중	168	21.6
	하	426	54.9
중학교 입학 이후 이사 횟수	없음	147	18.9
	1~5회	574	74.0
	6회 이상	55	7.1
현재 신분	학교를 그만 둔 상태	736	94.8
	학교를 그만 두었다가 복학한 상태	40	5.2

\* 부모가 안 계신 경우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제외함

8) 일반적 특성 분석에서는 패널조사 기본보고서인 윤철경(2013)에서 활용한 변수들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이 패널조사에서는 연구패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2차례 실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1차조사의 일부 표본을 가지고 기본보고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1차조사에 미반영된 사례와 2차조사의 사례를 모두 포함한 이번 분석에서도 분포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1,2차조사의 시기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444명(57.2%), 여학생이 332명(42.8%)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89.1%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령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을 보면 양부모와 같이 사는 학생이 51.4%, 한부모가정은 36.0%, 부모 모두 안 계시는 경우는 12.6%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겠지만, 학업중단 현상이 한부모가정이나 부모가 모두 안계신 가정에서 주로 발생할 것이라는 통념과는 다소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가정의 경제 수준에 대해서는 ‘잘 산다’고 답한 경우가 24.5%, 중간 정도가 39.6%, ‘잘 살지 못한다’고 답한 경우가 36.0%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잘 살지 못한다는 응답이 조금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는 62.4%, 초대졸 이상인 경우는 37.6%였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는 65.7%, 초대졸 이상인 경우는 34.3%였다.

자신의 학업성적을 표시하게 한 질문에 대하여 상위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3.5%, 중간 정도라는 응답이 21.6%, 하위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4.9%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하위권의 성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위권의 성적을 가진 학생도 많기 때문에 성적이 낮은 학생들만 학업중단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중학교 입학 이후에 이사를 한 횟수에 대해서는 이사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18.9%, 1~5회라는 응답이 74.0%, 6회 이상이라는 응답도 7.1%였다.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의 신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학교를 그만둔 상태라는 응답이 94.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학교에 복학한 상태인 학생은 5.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학업성적 등이 반드시 낮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들어 나타난 학업중단 경향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꿈을 찾아가거나 대안적인 교육을 찾아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는 현상이 반영된 것일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학업중단 사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2. 학업중단 사유 분석

학업중단 사유에 대한 응답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이 문항은 학교를 그만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부터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고르도록 하였으며, 최소한 한 가지에는 응답을 하도록 제한하였기 때문에 1순위에는 무응답이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1순위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이 19.8%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공부하기 싫어서(14.4%)’,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10.6%)’, ‘검정고시를 하려고(9.1%)’,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였을 때의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사유가 52.8%로 가장 많았고, 대안교육이 23.1%, 개인사정/가정상황이 12.9%, 문제행동이 11.2%로 나타났다.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공부하기 싫다는 것이 학업을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였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2순위 응답을 비교해 보면, 2순위에서도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18.4%로 가장 많았고, ‘공부하기 싫어서(10.4%)’, ‘검정고시를 하려고(10.1%)’,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9.1%)’, ‘학교의 규칙이 엄해서(6.8%)’의 순서로 나타났다. 응답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였을 때 역시 학교사유가 50.4%로 가장 많았고, 대안교육이 19.8%, 개인사정/가정상황이 10.8%, 문제행동이 4.3%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 무응답은 14.7%였다.

3순위 응답을 비교해 보면, 3순위에서도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11.6%로 가장 많았고, ‘검정고시를 하려고(11.5%)’,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8.1%)’, ‘선생님이 싫어서(6.8%)’의 순서로 나타났다. 응답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였을 때 역시 학교사유가 34.1%로 가장 많았고, 대안교육이 19.7%, 개인사정/가정상황이 10.2%, 문제행동이 4.0%로 나타났다. 3순위에서 무응답은 32.0%였다.

위의 응답 결과를 분석해 보면,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순위별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각 순위별 응답자를 합한 387명(49.9%)이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응답을 3순위 안에 한번쯤은 응답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검정고시를 하려고’라는 응답이 238명(30.7%), ‘공부하기 싫어서’라는 응답 역시 234명(30.2%)이나 선택하였으며,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라는 응답에도 216명(27.8%), ‘선생님이 싫어서’라는 응답에도 146명(18.8%)이 선택하였다. ‘검정고시를 하려고’라는 응답이 높아진 것은 이 선택지의 특성에 기인한다. 검정고시를 하거나 유학, 이민, 대안학교 전학을 선택하는 것은 학업중단의 사유이기도 하지만, 학업중단을 극복하는 또다른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봐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고, 몸이 아프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로 대체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검정고시를 하겠다는 응답이 뒷순위로 갈수록 응답률이 높아지는 것은 이러한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표 4> 학업중단 사유 응답 결과

구분	응답유형	1순위		2순위		3순위	
		사례수 (명)	비율 (%)	사례수 (명)	비율 (%)	사례수 (명)	비율 (%)
개인사정 /가정상황	건강상의 이유로	41	5.3	13	1.7	11	1.4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32	4.1	37	4.8	34	4.4
	가정불화 때문에	17	2.2	15	1.9	19	2.4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10	1.3	19	2.4	15	1.9
	소계	100	12.9	84	10.8	79	10.2
학교사유	공부하기 싫어서	112	14.4	81	10.4	41	5.3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154	19.8	143	18.4	90	11.6
	친구들이 싫어서	37	4.8	32	4.1	23	3.0
	학교의 규칙이 엄해서	10	1.3	53	6.8	32	4.1
	학교를 그만둔 친구 따라 놀고 싶어서	17	2.2	24	3.1	19	2.4
	선생님이 싫어서	42	5.4	51	6.6	53	6.8
	귀찮아서, 잠이 많아서*	9	1.2	1	0.1	2	0.3
	거리, 내신성적, 종교, 분위기 때문에*	13	1.7	4	0.5	4	0.5
	학교 부적응*	16	2.1	2	0.3	1	0.1
소계	410	52.8	391	50.4	265	34.1	
대안교육	검정고시를 하려고	71	9.1	78	10.1	89	11.5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	82	10.6	71	9.1	63	8.1
	유학, 이민, 대안학교 전학을 위해*	26	3.4	5	0.6	1	0.1
	소계	179	23.1	154	19.8	153	19.7
문제행동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65	8.4	27	3.5	24	3.1
	비행으로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서	12	1.5	5	0.6	7	0.9
	가출, 학교폭력, 임신 등의 문제로*	10	1.3	1	0.1	-	-
	소계	87	11.2	33	4.3	31	4.0
	기타/모름/무응답			114	14.7	248	32.0

\* 애초에는 선택지에 없었지만, 기타 선택지에서 빈출한 사항을 별도 항목으로 재구성함

한편 이러한 결과가 전수조사에 해당하는 고등교육통계와는 어떻게 비교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 5>는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에서 나타난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중단 세부구분 내역표를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수정한 표이다. 여기에는 중학생의 자료가 빠져있기 때문에 동일한 비교는 어렵지만 개략적인 경향을 비교해 볼 수는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보면,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적응(43.9%)이었다. 다음으로는 기타 29.4%, 유학/이민 11.6%, 가사 8.0%, 질병 5.9%, 품행 1.2%로 나타났다. 부적응의 비율이 높은 것은 본 연구에서 학교 사유가 52.8%로 나타난 것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가사와 질병을 합한 13.9% 정도는 본 연구에서의 개인사정 12.9%와 거의 비슷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유학, 이민 사유의 학업중단자는 10% 정도로 나타나는데, 본 연구에서는 검정고시 등을 포함하여 23.1%로 나타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교육통계연보에서는 대안교육이나 검정고시 등이 기타 사유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품행 사유 역시 1.2%로 적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의 문제행동 사유가 11.2%로 나타난 것과 차이를 보인다. 이것 또한 교육통계연보에서는 엄격한 교칙이나 학교폭력 피해도 부적응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준이 달라서 엄밀한 비교는 어렵겠지만, 학교에 대한 부적응이 학업중단의 가장 큰 이유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표 5> 고등학교 학업중단자수 및 사유

연도	고등학교			고등학교 학업중단 세부 구분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률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유학,이민	기타
2012	1,943,798	37,391	1.9	2,210	16,419	452	2,976	4,334	11,000
				(5.9)	(43.9)	(1.2)	(8.0)	(11.6)	(29.4)
2011	1,962,356	38,887	2.0	2,239	17,548	483	4,526	4,796	9,295
				(5.8)	(45.1)	(1.2)	(11.6)	(12.3)	(23.9)

다음으로 <표 6>은 앞의 학업중단 사유에 대한 응답을 2순위까지 무순으로 조합하여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조합을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표이다. 이렇게 조합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면 윗 순위의 매력적인 선택지에 가려진 다른 응답의 존재를 확인할 수도 있고, 학생들의 선택 경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공부하기 싫어서라는 응답 조합이 9.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기 위한 다른 선택을 했다<sup>9)</sup>는 응답이 6.8%,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려 한다는 응답이 6.1%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공부하기 싫어진 학생들이 학업중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검정고시나 이민, 유학, 대안학교 등 학교 이외의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선택지가 자신에게 명확해질 경우 학업중단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청소년의 학업중단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지 학업 자체를 그만두는 것은 아니라는 금명자(2008)의 지적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표 6> 학업중단의 1,2순위 조합에 따른 응답 분포**

학업중단 이유 조합		응답수	비율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공부하기 싫어서	70	9.0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	53	6.8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검정고시를 하려고	47	6.1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	검정고시를 하려고	34	4.4
공부하기 싫어서	검정고시를 하려고	21	2.7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선생님이 싫어서	24	3.1

학업중단 이유를 영역별로 나누어 순위 조합을 구성해 보면 다음의 <표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결국은 학교사유와 대안교육 선택을 학업중단 이유로 응답한 청소년들이 427명(5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에서 음영). 2순위에만 존재하는 무응답의 경우 사실상 1순위 응답만 있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면(아래 표에서 굵은 글씨) 510명(65.7%)이 학교사유와 대안교육 선택을 학업중단 이유로 선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9) 원래 문항의 선택지 상에 '이민이나 유학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빠져 있었다. 따라서 이들 응답자 중 일부는 '기타'를 선택하고 내용을 직접 기재하여 별도의 선택지로 복원된 경우도 있겠지만, 또 일부는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라는 선택지를 골랐을 가능성이 높다.

<표 7> 학업중단 이유의 1-2순위 영역 분포(비율은 전체 대비로 나타냄)

		2순위 선택					
		개인사정	학교사유	대안교육	문제행동	무응답	계
1순위 선택	개인사정	23 (3.0)	40 (5.2)	21 (2.7)	2 (0.3)	14 (1.8)	100 (12.9)
	학교사유	42 (5.4)	224 (28.9)	78 (10.1)	17 (2.2)	49 (6.3)	410 (52.8)
	대안교육	13 (1.7)	78 (10.1)	47 (6.1)	7 (0.9)	34 (4.4)	179 (23.1)
	문제행동	6 (0.8)	49 (6.3)	8 (1.0)	7 (0.9)	17 (2.2)	87 (11.2)
	계	84 (10.8)	391 (50.4)	154 (19.8)	33 (4.3)	114 (14.7)	776 (100.0)

### 3. 학업중단 사유에 따른 청소년들의 특성 비교

다음으로는 학업중단 사유를 4개의 영역으로 나눈 것에 근거하여 각 사유별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의 <표 8>은 청소년들의 배경 변수에 따라 학업중단 사유의 1순위 선택지가 속하는 영역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교차분석을 통해 비교해 본 것이다.

<표 8> 학업중단 이유: 배경변수별 차이

		사례수 (명)	개인사정	학교사유	대안교육	문제행동	전체	$\chi^2$
전체		776	12.9	52.8	23.1	11.2	100.0	
성별	남	444	11.3	53.4	20.9	14.4	100.0	13.706**
	여	332	15.1	52.1	25.9	6.9	100.0	
연령대	중학교 학령(만13-15세)	76	13.2	55.3	26.3	5.3	100.0	3.226
	고등학교 학령(만16-18세)	685	12.8	52.6	22.8	11.8	100.0	
	학령기 이후 (만19세)	15	13.3	53.3	20.0	13.3	100.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399	11.5	51.4	25.8	11.3	100.0	7.173
	한부모가정	279	12.9	56.3	20.4	10.4	100.0	
	부모 모두 안계심	98	18.4	49.0	19.4	13.3	100.0	
가정경제 수준	상	190	11.6	47.9	28.9	11.6	100.0	7.752
	중	307	12.7	55.0	19.5	12.7	100.0	
	하	279	14.0	53.8	22.9	9.3	100.0	
부학력	고졸 이하	391	15.1	56.0	16.9	12.0	100.0	23.377***
	초대졸 이상	236	10.2	46.2	33.5	10.2	100.0	
모학력	고졸 이하	405	14.3	55.3	20.0	10.4	100.0	14.329**
	초대졸 이상	211	13.3	42.7	33.2	10.9	100.0	
학업성적	상	182	14.8	41.2	35.2	8.8	100.0	26.896***
	중	168	13.7	52.4	23.8	10.1	100.0	
	하	426	11.7	58.0	17.6	12.7	100.0	
중학교 입학이후 이사횟수	없음	147	10.9	59.2	17.7	12.2	100.0	4.450
	1~5회	574	13.4	51.4	24.2	11.0	100.0	
	6회 이상	55	12.7	50.9	25.5	10.9	100.0	
현재 신분	학교를 그만 둔 상태	736	13.2	52.3	23.4	11.1	100.0	2.324
	학교를 그만 두었 다가 복학한 상태	40	7.5	62.5	17.5	12.5	100.0	

결과를 보면, 배경변수 중 학업중단 이유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성별,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학업성적 등의 변수였다.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경우에 문제행동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14.4%로 높았던 반면 여학생은 6.9%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대신 여학생은 개인사정과 대안교육에 대한 응답이 남학생에 비해 조금 더 높았다.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은 모두 대안교육에 대한 선택 비율에서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가 고졸 이하인 경우 대안교육에 대한 응답은 16.9%였지만, 초대졸 이상인 경우에는 33.5%로 높아졌다.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고졸 이하인 경우 대안교육에 대한 응답은 20.0%였지만, 초대졸 이상인 경우에는 33.2%로 높아졌다. 결국 부모의 학력이 높아지면 자녀의 대안교육적 차원에서의 학업중단 선택 비율이 다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안교육을 선택한다는 것은 비교적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확신을 갖고 있는 대졸 부모들의 선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학생의 학업성적에 따라서도 나타나는데,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대안교육 이유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학업성적이 상위권인 집단에서는 35.2%, 보통 수준인 집단에서는 23.8%, 하위권인 집단에서는 17.6%가 대안교육 이유를 학업중단의 이유로 선택하였다.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대안교육이나 개인사정의 선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반대로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일수록 학교사유나 문제행동의 선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김민(2001)의 연구에서 지적된 것처럼 개인의 자발적 선택 동기에 의한 학업중단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연구에서도 이들을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변수 이외에 연령대, 가족구성, 가정 경제 수준, 중학교 입학 이후 이사 횟수, 현재 신분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배경변수 뿐만 아니라 학업중단의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여러 가지 특성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본 조사내용 중에서 배경변수를 제외하고 학업중단 당시 혹은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하여 질문한 문항의 영역을 살펴보면, 개인의 심리정서(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 충동성 등)<sup>10)</sup>, 문제행동 경험(피해경험, 가해경험 등), 부모관계(부모의 정서적, 경제적 지지, 부모 애착, 부모의 방임, 부모의 학대 등), 친구관계(또래 애착, 친구의 비행 성향 등), 생애사건(부모 사별, 이혼, 사업실패, 가정폭력 등), 학교생활(선생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학습부적응 등), 학교 분위기(훈육적 풍토, 참여적 풍토 등), 학교규범 위반(무단결석, 규정위반, 대들기 등), 지역사회(사회통합, 무질서 등)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학업중단의 유형에 따라 각 설문영역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유형별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업중단 유형에 따른 청소년들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개인의 심리정서 영역에서 자아존중감을 보면, 대안교육을 위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다른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에서도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우울에 대해 살펴보면, 개인사정에 의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다른 유형의 학생들에 비해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학업중단한 학생들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충동성에서는 대안교육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충동성이 낮은 반면, 당연하게도 문제행동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충동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 경험 영역에서 먼저 피해경험을 보면, 개인사정에 의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대안교육을

10) 이 중에서 개인의 심리정서, 부모의 정서적, 경제적 지지 등은 학업중단 당시에 대하여 응답하라는 단서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학업중단에 따른 이후의 변화가 반영된 응답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이외에 관련된 응답을 얻어낼 문항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을 유념하고 사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개인의 심리정서의 하위 항목 중에서 게임중독에 관련된 내용은 비교적 최근의 경험을 특정하여 묻고 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위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비해 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심리적인 문제가 있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경우 다른 학생들에 비해 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가해경험에 있어서는 개인사정이나 대안교육을 위한 학업중단 청소년에 비해 학교사유에 의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경험이 많았고, 역시 그보다는 문제행동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경험이 더 많았다.

부모관계 영역에서 먼저 정서적 지지를 보면, 학교사유에 의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비해 대안교육을 위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지지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경제적 지지에 있어서도 학교사유에 의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비해 대안교육을 위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지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방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학업중단 유형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 학대에 대해서는 대안교육을 위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다른 유형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 학대의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학업중단 유형에 따른 청소년 특성 비교**

		(A) 개인사정	(B) 학교사유	(C) 대안교육	(D) 문제행동	전체	F	사후검정
개인의 심리정서	자아존중감	2.89(0.56)	2.93(0.51)	3.12(0.59)	2.99(0.55)	2.97(0.55)	6.420***	A,B<C
	자아탄력성	2.67(0.65)	2.81(0.50)	3.02(0.57)	2.86(0.52)	2.85(0.55)	10.188***	A,B<C
	우울	2.26(0.60)	2.07(0.59)	1.93(0.54)	2.08(0.60)	2.06(0.59)	6.860***	B,C<A
	충동성	1.99(0.54)	2.00(0.59)	1.83(0.54)	2.15(0.61)	1.98(0.58)	6.831***	C<B,D
문제행동 경험	피해경험	0.69(1.17)	0.42(0.84)	0.34(0.76)	0.45(0.92)	0.44(0.89)	3.555*	C<A
	가해경험	1.92(1.87)	2.76(2.29)	1.79(2.10)	3.59(2.13)	2.52(2.25)	17.721***	A,C<B<D
부모관계	정서적 지지	2.91(0.74)	2.92(0.70)	3.10(0.70)	2.95(0.67)	2.96(0.71)	2.852*	B<C
	경제적 지지	2.88(0.83)	2.92(0.74)	3.10(0.72)	2.89(0.72)	2.95(0.75)	3.186*	B<C
	부모 방임	1.88(0.69)	1.82(0.63)	1.70(0.63)	1.80(0.64)	1.80(0.64)	2.191	
	부모 학대	1.95(0.88)	1.85(0.76)	1.62(0.71)	1.92(0.90)	1.82(0.79)	5.521**	C<A,B,D
친구관계	도래 애착	3.04(0.63)	3.12(0.61)	3.29(0.53)	3.15(0.63)	3.15(0.60)	4.669**	A,B<C
	친구 비행	1.54(0.59)	1.68(0.66)	1.51(0.56)	1.78(0.69)	1.63(0.63)	5.364**	C<B,D
	생애사건	4.16(2.87)	3.12(2.49)	3.00(2.68)	3.24(2.82)	3.24(2.64)	4.860**	B,C<A

학교생활	선생님 관계	2.65(0.83)	2.42(0.83)	2.68(0.90)	2.48(0.87)	2.51(0.86)	5.008**	B<C
	친구 관계	2.80(0.80)	3.01(0.70)	3.27(0.68)	3.19(0.67)	3.06(0.72)	11.899***	A<C,D/B<C
	학습부적응	2.44(0.85)	2.68(0.71)	2.35(0.69)	2.50(0.80)	2.55(0.75)	9.491***	A,C<B
학교 분위기	훈육적 풍토	2.29(0.73)	2.51(0.80)	2.44(0.80)	2.86(0.84)	2.50(0.81)	8.650***	A,B,C<D
	참여적 풍토	2.41(0.82)	2.32(0.74)	2.54(0.79)	2.24(0.73)	2.37(0.77)	4.429**	B,D<C
학교규범 위반		2.07(0.98)	2.69(1.06)	2.04(0.91)	2.92(1.01)	2.49(1.07)	28.224***	A,C<B,D
지역사회	사회통합	2.14(0.68)	2.29(0.67)	2.30(0.66)	2.34(0.64)	2.28(0.67)	1.817	
	무질서	2.34(0.71)	2.22(0.64)	2.18(0.70)	2.32(0.69)	2.24(0.67)	1.776	

친구관계 영역에서 또래에 대한 애착을 보면, 대안교육을 위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개인사정이나 학교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 비해 친구와의 관계가 더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는 아니지만, 문제행동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개인사정이나 학교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 비해 친구와의 관계가 더 좋았던 것으로 나타난 점이 특이하다.

생애사건의 경우는 부모의 사망 등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들을 경험한 횟수를 합산하였다. 그 결과, 개인사정에 의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에 다른 유형의 청소년들보다 생애사건의 경험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영역에서 선생님과의 관계를 보면, 학교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 비해 대안교육을 목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선생님과의 관계가 더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 관계를 보면, 개인사정이나 학교사유에 의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보다 대안교육 목적이나 문제행동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친구와의 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부적응에 대해서는 학교사유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개인사정이나 대안교육 목적의 학업중단 청소년에 비해 부적응 정도가 확실히 높았다.

학교분위기 영역에서 훈육적 풍토를 보면, 문제행동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의 훈육적 풍토가 강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학교의 규율이 그러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 학생들이 그렇게 느낀 인식의 차이인 것인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교의 참여적 풍토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목적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사유나 문제행동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비해서 학교의 참여적 풍토를 높게 판단하고 있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의 풍토가 실제로 차이나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인식의 수준이

다른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데이터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다른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교규범 위반의 경우는 개인사정이나 대안교육 목적의 학업중단 청소년에 비해 학교사유나 문제행동에 의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교규범 위반 횟수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지역사회 영역에서 살펴본 사회통합(지역내 유대관계)이나 무질서(지역내 유해환경)의 경우에 학업중단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결과를 다시 학업중단 유형별로 요약해보면, 개인사정에 의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이 나 자아탄력성이 낮고 우울 정도가 비교적 높은 학생들이었으며, 문제행동의 피해경험이 비교적 많은 학생들이었다. 부모의 학대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또래에 대한 애착이 낮고 친구관계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다. 가정 형편 때문에 생애사건의 경험 횟수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었다. 학교규범 위반 횟수는 많지 않았다. 이들은 어렵고 평탄하지 않은 가정 환경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교 생활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비교적 수동적인 유형의 학생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학교사유에 의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이나 자아탄력성이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충동성이 높았으며 문제 행동의 가해 경험도 비교적 높았다. 부모관계에서의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경제적 지지를 받는 비율이 비교적 낮았다는 특징이 있으며, 부모 학대의 경험도 상대적으로 있는 편이었다. 또래에 대한 애착이 낮고 주변 친구들이 비행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다른 집단에 비해 생애사건을 그리 많이 겪은 편은 아니었다.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는 것과 학습부적응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학교의 참여적 풍토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교에서의 규범 위반 정도 역시 높았다.

대안교육 목적에 의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높았고 우울과 충동성의 정도가 비교적 낮았다. 문제행동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고, 부모의 정서적, 경제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부모 학대에 관련한 경험도 드물었다. 또래에 대한 애착이 강하며 주변에 비행을 저지르는 친구도 적었다. 생애사건을 경험한 횟수도 가장 적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 및 친구와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부적응 문제도 없었다. 학교의 풍토를 훈육적이라기보다는 참여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규범을 위반한 정도 역시 낮았다.

문제행동에 의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충동성이 가장 높았고 가해경험이 가장 많은 학생들이었다. 부모 학대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고, 주변의 친구들 역시 비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강했다. 학교에 다니던 중의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고 있었지만, 학교의 훈육적인 풍토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학교규범을 위반하는 정도 역시 높았다.

#### 4. 학업중단 이후 경로 분석

이번에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이후 경로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학생들이 학업중단 기간 동안 경험한 일들을 기반으로 하여 경험을 유형화하고, 경험의 조합에 따라 중단 이후 경로를 유형화하였다<sup>11)</sup>. 윤철경 외(2013)에서 활용한 방식과 동일하게 학업중단 이후의 경험을 크게 학업형과 직업형, 니트형(NEET)과 비행형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의 <표 10>은 학생들의 응답에서 각각의 경험 유형이 나타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학생들의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개별 경험으로는 검정고시 공부를 했다는 응답이 60.7%로 가장 많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았다는 응답도 59.8%로 많았다. 이 두 가지 활동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경험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가 41.5%로 나타났고, 복학하여 학교에 다닌 경우가 19.2%, 직업기술을 배운 경우가 18.0%로 나타났다.

<표 10> 학업중단 이후 경험

해당 문항		해당 경험		해당 경험	
		사례수 (명)	비율 (%)	사례수 (명)	비율 (%)
학업형	복학하여 학교에 다님	149	19.2	555	71.5
	대안학교에 다님	60	7.7		
	검정고시 공부를 함(검정고시 학원 등)	471	60.7		
직업형	직업기술을 배움(직업학교나 학원,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	140	18.0	404	52.1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322	41.5		

11) 이러한 방식은 윤철경 외(2013)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학업중단 이후의 경로를 학업형, 직업형, 니트형(NEET), 비행형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학업중단 이후 13개월간의 경험 여부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였다. 먼저 한 달이라도 경험이 있는 응답을 확인하여 각 경험 사례에 대한 실제 경험 여부를 분석하고, 다음으로는 중단 이후 경험 중에서 1/20이상의 기간이 투입된 경험을 검토하여 학생의 유형을 학업형/비학업형, 직업형/비직업형, 니트형/비니트형, 비행형/일반형으로 재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분류된 유형의 조합에 따라 다시 5가지의 경로유형을 확정하였다. 각 유형 중 한가지의 경험만 있는 경우는 해당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학업형과 직업형 또는 학업형과 니트형이 동반되면 학업형으로 구분하였다. 직업형과 니트형이 함께 나타나면 직업형으로 구분하였고, 비행형은 다른 유형의 동반과 무관하게 비행형으로 구분하였다. 4가지 유형 모두 나타나지 않거나 학업형, 직업형, 니트형이 모두 나타나는 경우에는 혼합형으로 구분하였다.

니트형 (NEET)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464	59.8	464	59.8
비행형	가출하여 친구집이나 PC방 같은 데서 지내거나 가출팜과 함께 생활함	78	10.1	159	20.5
	보호시설(자립생활관, 청소년쉼터 등)에서 지냄	28	3.6		
	보호관찰을 받음	78	10.1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함	20	2.6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경험들을 그 특성을 중심으로 분류해보면 학업형, 직업형, 니트형, 비행형의 네 가지 경험 유형으로 묶어볼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한 경험 유형별로 각 유형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 있는 청소년들을 검토해 본 결과, 학업형이 71.5%로 가장 많았고, 니트형이 59.8%, 직업형이 52.1%, 비행형이 20.5%의 순서로 나타났다. 3/4에 해당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복학하거나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검정고시 공부를 한 것으로 나타나 학업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검정고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력(學歷) 구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트형의 경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경우가 1개월이라도 있다면 니트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유형의 경험이 학업중단 기간의 1/2이상 투입된 경우만을 해당 유형을 경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험 유형을 재정리하면, 다음의 <표 1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11> 경험 기간을 고려한 학생 경험 유형 분류**

해당 문항		해당 경험	
		사례수(명)	비율(%)
학업형	학업형	416	53.6
	비학업형	360	46.4
직업형	직업형	273	35.2
	비직업형	503	64.8
니트형	니트형	301	38.8
	비니트형	475	61.2
비행형	비행형	92	11.9
	일반형	684	88.1

이처럼 경험 기간을 고려한 기준에 따르면, 학업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학생들이 53.6%, 직업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학생들이 35.2%, 니트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학생들이 38.8%, 비행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학생들이 11.9%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니트형이 38.8%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보낸 달이 전체 학업중단 기간의 1/2을 넘어서는 학생이 38.8%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험 기간을 고려한 이후에도 과반수의 학생들이 학업형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니트형도 38.8%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경험에 기반한 유형은 한 청소년에게서 중복하여 나타날 수 있다. 특정한 달에 둘 이상의 경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검정고시를 준비하여 학업형으로 분류되면서도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직업형으로 분류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경험 유형이 어떻게 조합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실제적인 의미가 있다. 각 유형 중 한가지의 경험만 있는 경우는 해당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학업형과 직업형 또는 학업형과 니트형이 동반되면 학업형으로 구분하였다. 직업형과 니트형이 함께 나타나면 직업형으로 구분하였고, 비행형은 다른 유형의 동반과 무관하게 비행형으로 구분하였다. 4가지 유형 모두 나타나지 않거나 학업형, 직업형, 니트형이 모두 나타나는 경우에는 혼합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이후 경로를 유형화하면 다음의 <표 1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2> 학업중단 이후 경로 유형**

구분		해당 경험		해당 경험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학업형	학업형	216	27.8	343	44.2
	학업형 + 직업형	63	8.1		
	학업형 + 니트형	64	8.2		
직업형	직업형	100	12.9	147	18.9
	직업형 + 니트형	47	6.1		
니트형	니트형	117	15.1	117	15.1
비행형	비행형	2	0.3	92	11.9
	비행형과 다른 하나의 유형	51	6.6		
	비행형과 다른 두 개의 유형	37	4.8		
	비행형과 다른 세 개의 유형	2	0.3		
혼합형	4개 유형 모두 해당 없음	51	6.6	77	9.9
	학업형 + 직업형 + 니트형	26	3.4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이후 경로에 따라 구분해 본 결과를 살펴보면, 학업형이 44.2%, 직업형이 18.9%, 니트형이 15.1%, 비행형이 11.9%, 혼합형이 9.9%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이후에도 학교에 복교하거나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를 하거나 실제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출한 청소년의 비율도 18.9%로 나타났다. 문제는 니트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업중단 이후에 절반 이상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보낸 학생들이 15.1%나 된다는 것이다. 이들 청소년들에게는 학업을 준비하거나 직업을 준비하는 등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행형은 학업중단 이후 가출을 하거나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청소년을 의미하는데 이들의 비율도 11.9%로 나타나 학업중단 이후에 비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혼합형은 특정한 유형이 중심이 되지 않거나, 모든 유형을 적극적으로 경험한 청소년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탐색을 계속하고 있어서 어느 특정 유형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진로 지도 등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이들의 탐색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5. 학업중단 이후 경로에 따른 청소년들의 특성 비교

다음으로는 학업중단 이후 경로 유형을 바탕으로 각 경로별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의 <표 13>은 먼저 청소년들의 배경 변수에 따라 학업중단 이후 경로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비교해 본 것이다.

결과를 보면, 배경변수 중 학업중단 이후 경로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성별, 연령대, 가족구성,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학업성적, 현재신분 등의 변수였다.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경우에 직업형(21.2%)과 비행형(14.6%)이 비교적 많고 여학생의 경우는 학업형(48.2%), 혼합형(13.0%)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중학교 학령기의 청소년들에게서는 학업형이 57.9%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고등학교 학령기의 청소년들에게서는 직업형(20.3%)과 혼합형(10.4%)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령기 이후의 청소년들은 니트형(33.3%)이나 비행형(26.7%)이 비교적 많았다. 학령기 이후의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시기에 학업을 중단한 이후에 연령이 넘어간 사례가 되는데, 이처럼 학령기를 지나는 경우에 니트형이나 비행형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구성에 따라서는 양부모가정의 청소년에게서 학업형이 51.4%로 나타나 한부모가정의 39.8%, 부모 모두 안계신 가정의 27.6%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모두 계시지 않은 경우는 직업형

(30.6%)과 비행형(24.5%)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혼합형이 비교적 높았다.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는데, 아버지가 고졸 이하인 경우 직업형(21.7%)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반면 아버지가 초대졸 이상인 경우에는 학업형(58.5%)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학업성적이 상위권이 나 중간 정도인 경우에는 학업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각각 56.0%, 54.2%로 높았던 반면, 학업성적이 하위권인 경우에는 직업형, 니트형, 비행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현재 신분에 따라서는 당연하게도 복학한 상태인 학생들에게서 학업형이 높게 나타났다.

가정경제 수준과 중학교 입학 이후 이사 횟수는 학업중단 이후의 경로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학업중단 이후 경로: 배경변수별 차이

		사례수 (명)	학업형	직업형	니트형	비행형	혼합형	$\chi^2$
전체		776	44.2	18.9	15.1	11.9	9.9	
성별	남	444	41.2	21.2	15.3	14.6	7.7	17.000**
	여	332	48.2	16.0	14.8	8.1	13.0	
연령대	중학교 학령 (만13-15세)	76	57.9	6.6	21.1	6.6	7.9	24.330**
	고등학교 학령 (만16-18세)	685	43.2	20.3	14.0	12.1	10.4	
	학령기 이후 (만19세)	15	20.0	20.0	33.3	26.7	0.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399	51.4	15.0	15.0	9.0	9.5	44.211***
	한부모가정	279	39.8	20.4	15.8	11.5	12.5	
	부모 모두 안계심	98	27.6	30.6	13.3	24.5	4.1	
가정경제 수준	상	190	53.7	14.7	12.6	11.6	7.4	13.500
	중	307	42.3	21.2	14.3	10.4	11.7	
	하	279	39.8	19.4	17.6	13.6	9.7	
부학력	고졸 이하	391	39.4	21.7	15.1	13.6	10.2	22.851***
	초대졸 이상	236	58.5	13.1	12.3	8.1	8.1	
모학력	고졸 이하	405	43.0	20.5	15.6	10.1	10.9	16.998**
	초대졸 이상	211	57.8	10.9	11.4	11.8	8.1	

학업성적	상	182	56.0	19.8	8.2	3.8	12.1	52.442***
	중	168	54.2	14.9	11.9	8.3	10.7	
	하	426	35.2	20.2	19.2	16.7	8.7	
중학교 입학 이후 이사 횟수	없음	147	38.1	18.4	19.0	16.3	8.2	13.685
	1~5회	574	44.9	19.3	15.2	10.6	9.9	
	6회 이상	55	52.7	16.4	3.6	12.7	14.5	
현재 신분	학교를 그만 둔 상태	736	42.7	19.8	15.8	11.8	9.9	18.100**
	학교를 그만 두었다가 복학한 상태	40	72.5	2.5	2.5	12.5	10.0	

다음으로는 학업중단 이후의 경로를 기준으로 배경변수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여러 가지 특성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용된 조사내용 항목은 앞의 학업중단 이유에 대한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와 동일하다. 다음의 <표 14>는 학업중단 이후의 경로에 따른 청소년의 다양한 특성 변수를 검토한 결과이다.

**<표 14> 학업중단 이후 경로에 따른 청소년 특성 비교**

		(A) 학업형	(B) 직업형	(C) 니트형	(D) 비행형	(E) 혼합형	전체	F	사후 검정
개인의 심리정서	자아존중감	3.05(0.55)	2.95(0.54)	2.86(0.56)	2.88(0.52)	2.95(0.53)	2.97(0.55)	3.872**	C(A
	자아탄력성	2.89(0.56)	2.84(0.53)	2.70(0.55)	2.87(0.53)	2.88(0.54)	2.85(0.55)	2.768*	C(A
	우울	2.02(0.57)	2.00(0.58)	2.17(0.62)	2.08(0.60)	2.19(0.59)	2.06(0.59)	2.880*	
	충동성	1.85(0.54)	2.03(0.64)	2.09(0.52)	2.14(0.63)	2.08(0.50)	1.98(0.58)	8.558***	A(B,C,D,E
문제행동 경험	피해경험	0.51(0.94)	0.35(0.87)	0.32(0.75)	0.40(0.84)	0.52(0.95)	0.44(0.89)	1.526	
	가해경험	1.96(2.07)	2.85(2.22)	2.50(2.16)	4.12(2.17)	2.48(2.30)	2.52(2.25)	19.416***	A(B,C,E(D
부모관계	정서적 지지	3.11(0.61)	2.90(0.74)	2.88(0.62)	2.64(0.88)	2.92(0.77)	2.96(0.71)	10.102***	B,C,D(A
	경제적 지지	3.14(0.65)	2.72(0.79)	2.93(0.68)	2.65(0.83)	2.93(0.82)	2.95(0.75)	13.775***	B,D(A
	부모 방임	1.66(0.58)	1.93(0.68)	1.90(0.53)	1.97(0.81)	1.77(0.67)	1.80(0.64)	7.956***	A(B,C,D
	부모 학대	1.65(0.70)	1.89(0.82)	1.87(0.67)	2.28(1.01)	1.78(0.73)	1.82(0.79)	13.351***	A(B,C(D
친구관계	또래 애착	3.14(0.61)	3.28(0.55)	3.06(0.56)	3.15(0.60)	3.10(0.71)	3.15(0.60)	2.534*	C(B

	친구 비행	1.53(0.59)	1.67(0.61)	1.69(0.63)	1.79(0.74)	1.76(0.68)	1.63(0.63)	5.093***	A<D
생애사건		2.86(2.46)	3.70(2.83)	2.97(2.38)	3.77(2.81)	3.86(2.92)	3.24(2.64)	5.302***	A<B
학교생활	선생님 관계	2.54(0.91)	2.57(0.82)	2.42(0.80)	2.40(0.80)	2.55(0.86)	2.51(0.86)	1.057	
	친구 관계	3.03(0.74)	3.19(0.65)	3.04(0.74)	3.05(0.69)	3.01(0.76)	3.06(0.72)	1.372	
	학습부적응	2.39(0.74)	2.67(0.68)	2.73(0.78)	2.74(0.72)	2.58(0.77)	2.55(0.75)	8.199***	A<B,C,D
학교 분위기	훈육적 풍토	2.43(0.82)	2.58(0.80)	2.49(0.74)	2.56(0.82)	2.64(0.80)	2.50(0.81)	1.800	
	참여적 풍토	2.4(0.79)	2.42(0.83)	2.35(0.69)	2.24(0.73)	2.34(0.70)	2.37(0.77)	1.019	
학교규범 위반		2.20(1.00)	2.56(1.04)	2.67(1.07)	3.17(1.00)	2.54(1.04)	2.49(1.07)	18.247***	A<B,C,E<D
지역사회	사회통합	2.25(0.63)	2.30(0.77)	2.26(0.66)	2.41(0.68)	2.22(0.60)	2.28(0.67)	1.265	
	무질서	2.17(0.68)	2.34(0.67)	2.17(0.62)	2.35(0.59)	2.30(0.74)	2.24(0.67)	2.786*	

유형별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업중단 이후 경로 유형에 따른 청소년들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개인의 심리정서 영역에서 자아존중감을 보면, 학업형이 니트형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에서도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우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후검정 결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없었다. 다만, 혼합형이나 니트형에서 우울 정도가 약간 높은 경향이 발견된다. 충동성에서는 학업형이 다른 모든 경로 유형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 경험 영역에서 피해경험에는 경로 유형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해경험에 있어서는 학업형에 비해서 비행형의 가해경험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관계 영역에서 먼저 정서적 지지를 보면, 학업형이 다른 모든 경로 유형에 비해 높았고, 경제적 지지에서도 학업형이 직업형이나 비행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방임에 대해서는 역시 학업형이 다른 모든 경로 유형에 비해 낮았으며, 부모의 학대는 비행형에서 학업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 영역에서 또래에 대한 애착을 보면, 니트형에 비해 직업형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의 비행 경향에 있어서는 학업형에 비해 비행형이 더 높게 나타났다.

생애사건의 경우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을 경험한 횟수를 합산한 것이다. 그

결과, 직업형의 경우에 학업형보다 생애사건의 경험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영역에서 선생님과의 관계나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학업중단 이후 경로 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학습부적응에 대해서는 학업형이 다른 모든 경로 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분위기 영역에서는 훈육적 풍토와 참여적 풍토 모두 학업중단 이후 경로 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학교규범 위반에 대해서는 비행형이 학업형에 비하여 학교규범 위반 횟수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사회 영역에서는 사회통합(지역내 유대관계)이나 무질서(지역내 유해환경)의 경우에 학업중단 이후 경로 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결과를 학업중단 이후 경로 유형별로 요약해보면, 학업형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자아탄력성이 높으며, 충동성도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을 일으킨 경험도 적고, 부모로부터 충분한 정서적, 경제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방임이나 학대의 경험도 드물다. 주변 친구 중에 비행을 저지르는 친구도 적고, 특별한 생애 사건을 많이 겪지 않았다. 학습부적응 현상도 다른 유형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직업형 청소년들은 충동성이 학업형에 비해 높으며, 부모의 정서적, 경제적 지지가 약한 경우가 많았으며 부모가 방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니트형에 비해 또래 친구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강하며, 성장 과정에서 영향을 받았을 생애 사건이 가장 많은 집단이었다. 그리고 학습부적응의 측면에서는 학업형에 비해 다소 부적응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니트형 청소년들은 학업형 학생들에 비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낮다는 특징을 보이며 충동성이 학업형에 비해 높았다.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다소 약하고 방임하는 측면이 강했다. 또래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애착이 낮으며, 학습부적응의 경향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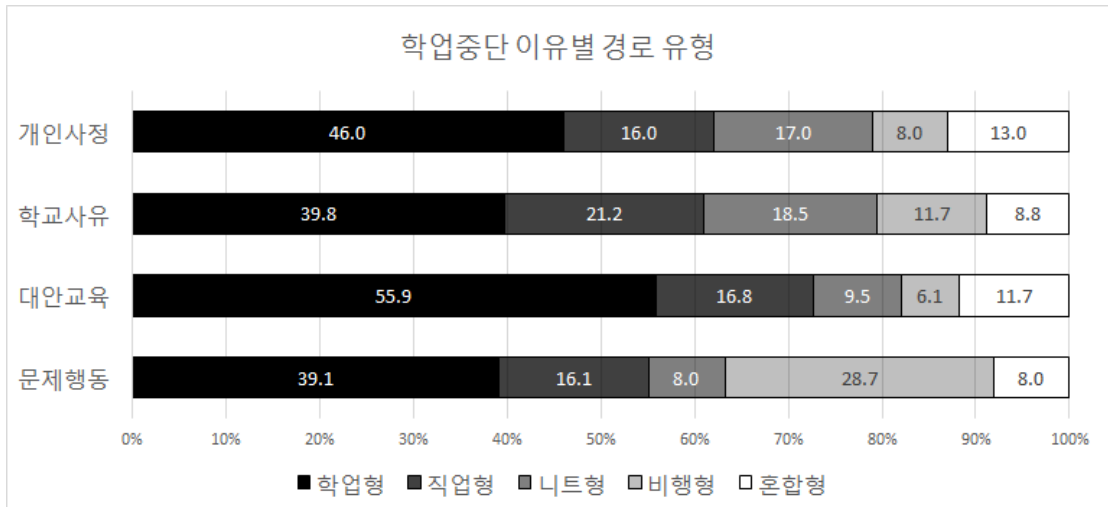
비행형 청소년들은 충동성이 학업형에 비해 높고, 가해경험이 많았다. 부모의 정서적, 경제적 지지가 약하고, 방임이나 학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변 친구의 비행 경향이 학업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학습부적응 현상도 보인다. 학교규범을 위반하는 측면에서도 학업형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혼합형 청소년들은 그리 눈에 띄는 특징을 보이지 않았고, 우울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약간 높게 나타났다.

## 6. 학업중단 사유의 유형과 학업중단 이후 경로의 관계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인 학업중단 사유와 학업중단 이후의 경로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표 15>는 두 변수의 관계를 교차분석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이다.

<표 15> 학업중단 이유와 학업중단 이후 경로 유형의 교차분석 결과

		학업중단 이후 경로 유형						$\chi^2$
		학업형	직업형	니트형	비행형	혼합형	계	
학업 중단 이유	개인사정	46 (46.0)	16 (16.0)	17 (17.0)	8 (8.0)	13 (13.0)	100 (100.0)	49.870***
	학교사유	163 (39.8)	87 (21.2)	76 (18.5)	48 (11.7)	36 (8.8)	410 (100.0)	
	대안교육	100 (55.9)	30 (16.8)	17 (9.5)	11 (6.1)	21 (11.7)	179 (100.0)	
	문제행동	34 (39.1)	14 (16.1)	7 (8.0)	25 (28.7)	7 (8.0)	87 (100.0)	
	계	343 (44.2)	147 (18.9)	117 (15.1)	92 (11.9)	77 (9.9)	77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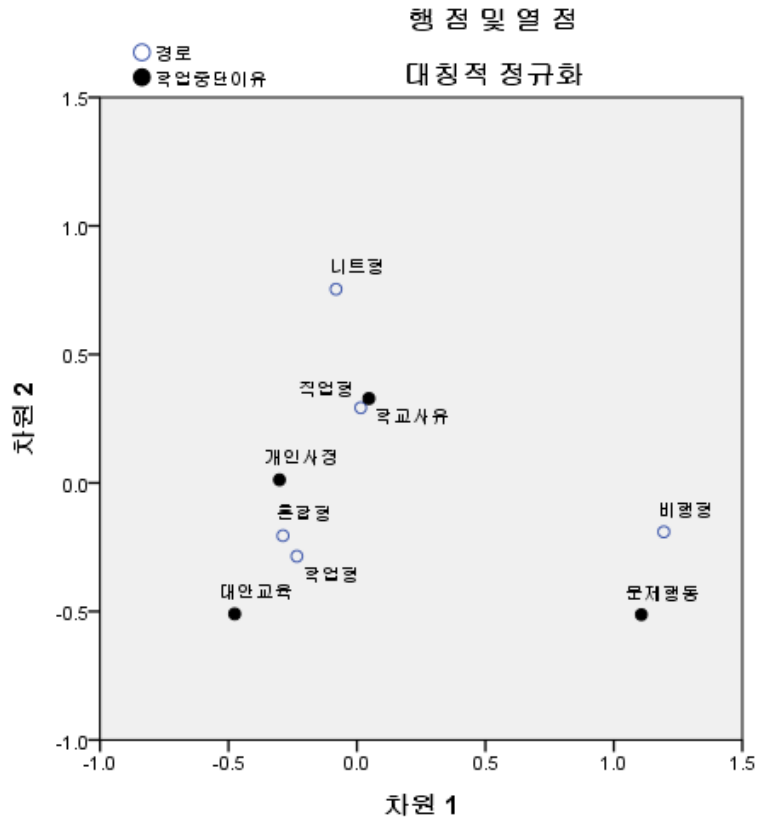


[그림 1] 학업중단 이유별 경로 유형

〈표 15〉와 [그림 1]의 분석 결과를 보면, 학업중단 이유에 따라서 이후의 경로 유형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사정에 의한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업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46.0%로 가장 많았고, 니트형 17.0%, 직업형 16.0%, 혼합형 13.0%, 비행형 8.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사유에 의한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업형이 39.8%로 가장 많았고, 직업형 21.2%, 니트형 18.5%, 비행형 11.7%, 혼합형 8.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사유에 의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형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다소 낮고, 직업형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비행형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대안교육에 의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형이 55.9%로 가장 많았고 다른 학업중단 사유에 비해서도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직업형 16.8%, 혼합형 11.7%, 니트형 9.5%, 비행형 6.1%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에 의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형이 39.1%로 가장 많았지만 다른 학업중단 유형에 비해 높은 비중은 아니었다. 다음으로 비행형이 28.7%로 많은 것이 특징적이다. 그 뒤로는 직업형 16.1%, 니트형 8.0%, 혼합형 8.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사유와 학업중단 이후 경로 간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두 변수를 대상으로 한 대응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이 방법은 교차분석을 통해 나타난 응답분포를 그래프로 시각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자주 활용된다. 비슷한 열의 구성이 되는 행끼리는 가깝게 배치되고 비슷하지 않은 열의 구성이 되는 행끼리는 멀리 배치되어 좌표의 수치를 산출하게 된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대응분석 그래프에서는 가까이 붙어있는 경우에 응답의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학업중단 사유가 문제행동인 경우 비행형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대안교육 이유인 경우는 학업형이나 혼합형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개인사정으로 학업중단한 청소년도 대안교육 이유와 마찬가지로 혼합형이나 학업형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학교사유로 인해 학업중단한 청소년은 직업형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단, 학업중단 이후 경로 중에서 니트형은 다른 요인보다는 거리가 가장 가까운 학교사유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비교적 높지만, 비교적 약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즉, 니트형의 경로는 학업중단 사유와는 비교적 관련이 낮은 경로라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림 2] 학업중단 사유와 학업중단 이후 경로의 대응분석 결과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집된 대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학업중단의 이유를 찾아보고 유형화하여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학업중단 이후의 경로를 유형화하여 마찬가지로 각각의 특성을 살펴본 이후, 최종적으로는 학업중단의 이유와 이후 경로 간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먼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학교사유로 인한 학업중단이 52.8%, 대안교육을 위한 학업중단이 23.1%, 개인사정/가정상황에 의한 학업중단이 12.9%, 문제행동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11.2%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사유에서 가장 큰 부분은 학교에 대한 불만족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한 것은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이었다. 1순위 응답과 2순위 응답을 조합하여 분석해 보아도,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은 상위 3개의 응답 조합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공부하기 싫어서’,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 ‘검정고시를 하려고’라는 응답과의 조합이 가장 많았다. 이 결과는 학교에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학생들이 학업중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검정고시나 이민, 유학, 대안학교 등 학교 이외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명확한 경우 학업중단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업중단 사유에 따라 청소년들의 배경변수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면, 성별, 부모의 학력, 학업성적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문제행동으로 인한 학업중단의 비율이 14.4%로 여학생의 6.9%에 비해 높았다. 아버지의 학력이 초대졸 이상인 경우 대안교육을 위한 학업중단의 비율이 33.5%로 고졸 이하의 16.9%에 비해 높았다. 학생의 성적이 상위권이면 대안교육을 위한 학업중단의 비율이 35.2%로 높게 나타났다(중간 성적 23.8%, 하위권 성적 17.6%). 대안교육을 선택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가 더 많은 대졸부모의 자녀에게서 대안교육 선택을 위한 학업중단이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졸부모들의 자율적인 양육태도가 학교 제도의 폐쇄성과 마주치면서 대안교육에 대한 선택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학업중단 사유에 따라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면, 개인사정에 의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인해 자아존중감 등 심리적 안정감이 떨어지고, 문제 행동에 대한 피해경험이 많고 또래 친구에 대한 애착이 낮은 학생들이었다. 학교사유에 의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충동성이 강해 문제행동 가해경험 및 규범 위반 경험이 많으며 학습에 대한 부적응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대안교육 목적을 위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부모, 교사,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져 있는 학생들이며, 학교의 분위기를 훈육적 풍토 보다는 참여적인 풍토로 인식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학교를 그만둔 것만 제외한다면 소위 ‘모범생’에 준하는 특성을 보여주는 청소년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행동에 의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실제 비행 및 규정위반 경험이 가장 많았고 학교의 분위기가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다고 느끼지만, 비행을 함께하는 친구에 대한 신뢰는 높은 학생들이었다.

학업중단 이후의 경로를 정리해보면, 학업형이 44.2%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직업형 18.9%, 니트형 15.1%, 비행형 11.9%, 혼합형 9.9%의 순서로 나타났다. 개별 경험으로 보자면 71.5%의 청소년들이 복학하여 학교에 다니거나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의 학업형 활동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된 취업을 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더 대우받는다고 여긴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는 것은 그만두지만, 학업 자체를 그만두지는 않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러 유형 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니트형과 아직 진로를 구체화하지 못한 혼합형의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것은 이들의 진로 계획을 위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행형이 11.9%인 것은 학업중단이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업중단 이후 경로에 따라 청소년들의 배경변수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면, 성별, 연령대, 가족구성, 부모의 학력, 학업성적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비행형의 청소년이 14.6%로 여학생의 8.1%에 비해 높았고, 여학생은 학업형의 비율이 48.2%로 남학생의 41.2%에 비해 높았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학업형의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직업형이나 비행형의 비율이 높았다. 양부모가정의 청소년일수록 부모가 모두 안계신 청소년에 비해 학업형의 비율이 높았고(51.4% > 27.6%), 직업형의 비율은 낮았다(15.0% < 30.6%). 아버지의 학력이 초대졸 이상인 경우 학업형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58.5%로 고졸 이하의 39.4%에 비해 높았고,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형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높았다. 가정의 경제 수준이나 이사 횟수 등 가정 경제적인 요인은 이미 학업중단이 일어난 이후의 경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업중단 이후 경로에 따라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면, 학업형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부모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학습부적응도 다른 유형에 비해 적은 경우가 많았다. 직업형 청소년들은 성장과정에서 생애사건이 많았고, 부모의 정서적, 경제적 지지가 약하고 방임형인 경우가 많았다. 학업형에 비해서는 학습부적응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니트형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낮고 충동성은 높은 편이었다. 또래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애착이 낮고 학습부적응 역시 수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부족한 것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형태로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행형 청소년들은 충동성이 높고 가해경험 및 학교규범의 위반 경험이 많은 학생들이며 부모님과 관계가 특히 좋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 혼합형은 비교적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유형으로, 아직 자신이 무엇을 해야할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니트형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닌 ‘미결정형’에 가까운 청소년들로 볼 수 있다.

학업중단 사유와 중단 후 경로와의 관계를 보면, 대안교육 사유의 학업중단자에게서 학업형의 출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문제행동 사유의 학업중단자에게서 비행형의 출현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사유 학업중단자에게서는 직업형의 출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앞에서 살펴본 청소년들의 특성 변수를 함께 고려해 보면 학업중단 사유와 중단 후 경로와의

관계에서 몇 가지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적인 경로에 기반하여 활용가능한 정책적 개입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먼저 개인사정에 의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우울 정도가 높고, 문제행동의 피해경험이나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비교적 많으며, 가정사에 의한 생애사건을 많이 겪은 학생들로서, 직업형이나 혼합형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서둘러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취업·진로지도를 강화하면서 이들의 중단 이후 경로가 혼합형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학교사유에 의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충동성이나 문제행동 등에서 비행형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친구 관계가 좋지 않고 학습부적응의 경우가 더 많다는 특징을 보이는 집단으로, 이후에 직업형이나 니트형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학교에 대한 불만이 많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학업중단 이후에 니트형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집단이기도 하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반학교적인 감성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냉소로 바뀌지 않도록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대안교육을 목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높으며 부모와의 정서적, 경제적 지지가 탄탄하고 학교에서 별다른 문제행동을 일으키지 않는 청소년들로, 이들은 나중에도 학업형으로의 진로를 밟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정적인 맥락에서 학교를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교육을 위해 ‘현재’의 학교를 탈피하려는 것이므로 대안적 선택이 가능한 다양한 교육제도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이런 학생들을 위한 대안적 교육제도가 잘 갖추어진다면, 학업중단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에 일차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공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행동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충동성이 높고 학교에서의 문제행동 경험이 많으며,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주변 친구들의 비행 가담 여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은 나중에도 비행형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학업중단 이후 비행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어떤 사유로 학업을 중단했든 간에 학업형의 경로를 보이는 학생이 44.2%에 이른다는 사실은 학업을 마치는 것이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과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꼭 정규학교가 아니더라도 이들이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노동시장을 비롯한 이후의 삶의 과정에서 차별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비용의 발생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드러낸 바와 같이 학업중단 사유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니트형과 혼합형, 비행형을 가능한 한 감소시키고 학업형이나 직업형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학업형으로 진행할 빈도가 높다는 것에 근거하여 학업중단의 초기에 적절히 개입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진로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학업중단 이후의 경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싶다. 본 연구에 활용된 것과 같은 패널조사 자료의 백미는 대상자의 변화의 양상을 포착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학업중단 이후 1년 동안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험을 탐구하였다면, 이 청소년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1년 후, 2년 후에는 각각 어떠한 경로를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또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지 밝혀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2012.9.11.). 201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 금명자(2008). 우리나라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299-317.
- 김경식(1997). 중고교 중퇴생과 재학생의 교내외 생활 비교를 통한 중퇴요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7(3), 115-138.
- 김민(2001).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현상 발생 요인에 대한 분석 연구(01-R23).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범구(2012). 청소년 학업중단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19(4), 315-337.
- 김범구, 조아미(2013).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한국청소년연구**, 24(3), 5-31.
- 김선아(2012). 학업중단청소년 중 비행과 일반청소년의 개인사회적요인과 중단후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0), 216-226.
- 김성기, 조동섭, 전제상(2009). 학업중단 청소년 실태 분석. 부산광역시 교육청.
- 김종범(2009).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6(2), 25-48.
- 남기곤(2011). 고등학교 단계 학업 중단의 경제적 효과 추정. **시장경제연구**, 40(3), 63-94.
- 노형진(2005). EXCEL 및 SPSS를 활용한 다변량분석 이론과 실제. 서울: 형설출판사.
- 류경희(2003).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41(12), 147-168.
- 박창남 외(2001). 중도탈락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서우석 외(2001). 경기도 실업계 고교 학생 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 활성화 방안. 경기도 교육청.

- 성운숙(2005).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중퇴과정과 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16(2), 295-343.
- 오혜영, 지승희, 박현진(2011).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까지의 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 연구**, 19(2), 125-154.
- 윤여각, 박창남, 전병유, 진미석(2002). 학업중단 청소년 및 대안교육 실태조사(CR 2002-9).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윤철경, 류방란, 김선아(2010).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연구보고 10-R33).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연구 보고 13-R18).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 박창남(2004).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시간제 취업의 참여실태-기관소속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2004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545-552.
- 이경상, 조혜영(2005).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설정 및 준비실태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18(2), 41-64.
- 이숙영, 남상인(1997).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이현주, 김용남(2012). 고등학교 학업중단을 변화의 지역별, 학교유형별 현황 및 학교 관련 요인 탐색. **아시아교육연구**, 13(1), 149-185.
- 이혜영(2001). 학업중도탈락의 실태와 학교에서의 대처방안,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01년 추계학술대회. 7-23.
- 조규필, 박현진, 김래선, 김범구, 양대회, 이현진, 황수진(2011).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 재적응 과정 연구. **중등교육연구**, 59(4), 969-1000.
- 조아미(2002). 청소년의 학교중퇴 의도 결정요인. **청소년학연구**, 9(2), 1-22.
- 최상근, 양수경, 남기곤(2010). 학업중단위기 학생의 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연구보고 RR 2010-12).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토론 1



유 순 덕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토론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를 통해 학업중단 현황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후 경로유형 및 생활실태와 의식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유익할 것으로 보여진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학업중단’이라는 용어보다는 ‘학교 밖’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후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1. 본 연구 결과는 그동안 사회에서 흔히 가지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현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보고, 또 이전의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개선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과 차별대우, 낙인이었다.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하면, 성격과 가정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서만 부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어디에서도 부적응할 것이며, 문제행동을 보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는 것이 아직도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보면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감, 부모의 정서적 지원 등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일반 학생 청소년과는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문제행동에 있어서도 모든 문제행동영역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반학생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문제를 더 보여주는 행동이 있었다면, 일반학생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비해 더 문제를 보여주는 행동들도 있다는 점은 우리들이 현재 학교를 다니느냐 안다니느냐로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평가해서는 특히 부정적으로 낙인찍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침 올해 5월 28일에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 제5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인식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2. 경기도는 여느 지역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만큼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학업을 중단한 이후 만족하고 행복해 하는 청소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이 있다. 과연 이러한 차이들이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나름 생각해보기도 하였는데, 조아미 교수와 이진숙교수의 “학업중단 후 만족하는 청소년과 불만족하는 청소년, 어떻게 다른가?”라는 연구는 그런 차원에서 흥미로운 연구였다. 게다가 학업중단 만족도에 따라 9개 집단으로 유형화하였고, 유형에 따른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장에서는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서 반가운 소식이었다.

무엇보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소위 “잘린 아이” vs. “때려친 아이” 구분처럼, 주체적으로 자신의 필요에 의해 다양한 정보를 찾고 숙고하여 자퇴를 「선택」한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의 학업중단 만족도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가 싫어서 아니면 징계로 어쩔 수 없거나” 등의 회피와 같은 수동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과 “~를 하기 위해서”와 같이 적극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과는 만족도에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유형에 따라 맞춤형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유형과 3유형의 청소년들은 학업을 중단했을 경우 지지체계가 부재하고 정서적 어려움, 게임중독, 식사 및 생활관리 조절의 부재, 부모의 방임 및 학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실적으로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청소년의 경우는 학교가 오히려 마지막 울타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학업중단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업을 중단하게 되더라도 상담 및 생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반면 7유형과 9유형의 청소년들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자퇴를 선택한 경우이며 부모님과 더 많이 의논하고, 정서적·경제적 지지를 받았으며, 숙려제 안내를 받은 비율도 높다. 이 유형의 청소년은 스스로 원하는 활동을 찾고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직업 체험활동/인턴십 지원이나 청소년 커뮤니티의 거점 역할 제공 등 욕구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네 가지 유형 모두 정보 제공은 핵심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업중단 숙려제가 정보 제공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한 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완벽한 1유형인데, 계부의 학대, 친모 방임, 교사의 무관심 등으로 자퇴한 친구이다. 근데 학업중단 숙려상담에 대한 권유도 받은 적이 없고, 자퇴를 말리거나 정보를 주는 사람조차도 없었다고 한다. 어떤 누구도 자신의 자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것이 너무 서러웠는데, 만약 숙려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청소년은 자퇴한 이후 자퇴한 것에 대해 후회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부모는 진로정보를 알아봐주거나 같이 고민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아무 것도 하는 게 없다는 핀잔만 줄 뿐이었다. 자퇴후 저희 센터에 연결이 되어 진로상담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학교를 다시 다니는 것이라는 걸 확인하고 현재 학교복귀하여 잘 다니고 있다.

3. 본 패널조사의 대상자는 학업중단 후 1년 미만의 청소년들이다. 학업중단 후 초기에는 학교를 벗어났다는 해방감 등으로 학업중단에 대한 만족감이 높지만, 점차 시간이 흘러가서 6개월~1년이 지나가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주변사람들의 시선, 소속감이 없는 것,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학업중단을 후회하거나 비행에 연루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연구들이 있다. 따라서 학업을 중단해서 행복하다는 청소년이 75% 가량되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속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지속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더욱 더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4. 경기도의 경우에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고, 이를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Wee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전담 상담자를 배치하고, 특히 1유형의 청소년들이 상담을 통해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동기를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해밀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대안학교나 직업훈련 등 분명한 자기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 토론 2



채 흥 길  
(대전둔원중학교 교장)

# 학교에 복귀하는 청소년, 특성과 경험, 의식

## 1. 연구결과의 의의

학업 중단 이후 학교에 복귀한 청소년들의 특성과 경험 및 의식을 연구한 결과는 가정, 학교, 국가가 수행해야 할 학업 중단 예방책과 학업 중단 이후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궁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학업 복귀 청소년과 학업 미복귀 청소년의 다양한 변인을 분석함으로써 미복귀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다음과 같은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학업 중단 학생 중 학력 수준이 중위권 이하인 학생이 81.8%로 나타나 학업 성취 수준이 미흡한 학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과 충동성향이 낮을수록, 학업 중단 전에 비행이 없을수록, 학업 중단 이후의 기간이 길수록 학업 복귀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아 존중감 향상을 비롯한 심성 계발과 비행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자아 존중감과 비행 경험은 학업 복귀 여부에 7배 정도 영향을 주는 주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셋째, 가정의 경제적·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업 복귀 비율이 높으므로 부모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

넷째, 학업 복귀 학생들 중 20%의 학생들만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학업중단숙려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 2. 연구내용 보완 의견

본 연구가 위와 같은 유의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학업 중단을 예방하거나, 학업 중단 후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학업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구분하는 변수로 제시한 가정 경제적 수준, 자아 존중감, 우울, 충동, 부모의 정서적 지지 등은 해당 청소년이 학업 중단 시점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것이므로 학업 복귀를 결정한 변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것들은 주된 학업 중단 변인임이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학업에 복귀하게 된 동기나 계기, 학업 복귀 후 재중단 사유, 학업에 복귀하지 않는 이유, 학업 복귀 지원 요구 사항 등을 추가적으로 분석한다면 학업 복귀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실질 학업 중단 다수 발생 시기를 보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나타난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의 학업 중단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 학업 중단을 하였다 해서 학업 중단 사유가 고등학교 때 발생한 것만은 아니다. 현장 교사들의 상담 및 관찰 의견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미 학업 중단 징후를 보인 학생들이 대다수이다. 그 사유도 생물학적 요인에서부터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복잡하다. 학업 중단 사유는 개인적 특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축적된 요인에 의한 것이 다수이므로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서는 학업 거부감을 인지한 시점과 사유를 정확히 분석해야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다. 학업 중단 발생 시점에서 학업 중단 예방 노력을 하거나 학업 중단 이후 학업 복귀를 지원하는 일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 3. 연구성과 적용 방안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물질 만능주의에서 기인한 사회의 교육적 기능 상실, 가정교육 붕괴, 편협한 학력관에 매몰된 교육의 역기능 등이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 학업 중단 예방이나 학업 복귀 대책을 전담하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예방 노력은 학교의 책무가 크다 하겠지만, 학업 중단 후의 대책은 학교가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첫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체제를 보다 유연하게 하여 학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지원이 필요한데 현재의 교육과정 체제나 교원 조직으로는 이를 만족시키기가 어렵다. 따라서 국가나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급 단위로 심성계발 위탁교육기관, 진로적성별 직업 위탁교육 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학교장이 이를 활용하여 교육과정 이수 인정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학교와 학교 밖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초중학교의 의무교육 과정에서 가정교육이 회복되도록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학교생활 부적응 징후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예컨대 ‘가족상담의무이수제’를 운영한다거나, 가정 여건상 부모가 교육적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학생을 위한 돌봄 지원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학교 단계의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국가 수준의 직업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자의에 의해 학업 복귀를 한 학생조차도 공교육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소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학업 미복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력 인정이 가능하고, 개인의 진로 적성을 반영하여 진로 발달을 지속할 수 있는 취업처 연계형 직업교육 전문학교 설치가 매우 필요하다.

끝으로 학업중단숙려제 활성화 의견에는 적극 동감하지만, 현재의 숙려제 운영 시기와 방법을 보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숙려제에 대한 안내를 받은 학생이 20%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학교 현장의 상황을 보면 이는 결코 낮은 비율이 아니다. 진로 변경이 없이 학업 중단을 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장기간 무단결석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숙려제 적용은 물론이거니와 안내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많다. 따라서 학업중단숙려제보다는 이른바 ‘학업지속집중지원제’를 도입하여 관심 학생에 대해 무단결석이 발생하기 전에 적응 교육이나 진로 전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토론 3



주 동 범

(부경대학교 교수)

## 학업중단 사유와 청소년들의 특성, 그리고 중단 후 경로와의 관계성

- 데이터수집이 매우 어려운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패널 구축에 노력하시는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그 결과를 발표해주신 황지원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서구, 특히 미국의 경우 School Dropout 현상으로 표현되는 학교중도탈락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이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발표자께서도 언급하였지만 패널데이터와 같은 national large data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패널데이터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향후 이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 저는 본 토론에서 황지원 선생님이 발표하신 연구결과의 상세한 부분에 대한 토론보다는 다소 큰 틀에서 School Dropout 현상에 대해 토론을 할까 합니다. 먼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개념의 사용문제입니다. 영어로 School Dropout은 통상 학교중도탈락을 언급합니다. 발표 원고에서도 지적되었지만 학교중도탈락의 개념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 학업중단입니다. 그런데 과연 학교를 그만둔 것이 학업중단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저의 견해로는 학교중도탈락 개념과 학업중단 개념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중도탈락은 학교를 그만두고 더 이상 학교에 다시 다니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학업중단은 학교는 다니지 않으나 학업을 일시 중단할 수도 있고 완전히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념의 사용에서 학교중도탈락과 학업중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황지원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 다음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황지원 선생님의 연구결과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전의 많은 국내외 연구들이 학교중도탈락이든 학업중단이든 그 원인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겠지만 표본의 확보 어려움과 추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지원

- 선생님의 연구는 원인, 특성, 중단 후 경로까지 분석이 이루어져서 다양한 형태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 및 지원방안을 구상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황지원 선생님의 연구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이유가 과거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경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배경이 가정, 학교, 개인 등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는 청소년들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으나 황지원 선생님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흔히 정상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도 학업중단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과거와는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의 연구에서도 나타납니다. 미국의 경우 과거의 연구는 학교중도탈락 학생들의 배경이 비백인(nonwhite), 저소득계층(low income)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를 보면 학교중도탈락 학생들이 백인, 중상류계층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대책 및 지원방안 등 그 정책적 틀을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음으로 향후 이 분야의 연구를 위한 제언입니다. 우선 황지원 선생님의 연구에서 국내 선행연구만을 고찰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국외(특히 미국)의 선행연구 고찰이 없어서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미국의 경우 School Dropout에 대한 national data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런 관계로 School Dropout에 대한 연구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구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결과와 비교도 가능하리라 보여 집니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의 선행연구 고찰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 그리고 학업중단 청소년들과 비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분석도 좋지만 비학업중단 청소년들 중 잠재적으로(potentially) 학업중단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들이 비학업중단 청소년들을 학업중단으로 이끌게 할 가능성이 많은지를 분석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학업중단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을 분석하여 그 원인, 과정, 경로 등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업중단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비학업중단 청소년들 중 잠재적으로 학업중단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고려라고 생각합니다.
  - 끝으로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발표해주신 황지원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가 잘 구축되어 School Dropout에 대한 많은 연구가 산출되기를 기대합니다.



## 세션 2

.....

#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후 경로

좌장 : 이기종(국민대학교 교수)



## 발표 1

---

# 학업중단 후 학습을 지속하는 청소년들, 특성과 경험, 의식

김 성 식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 학업중단 후 학습을 지속하는 청소년들, 특성과 경험, 의식

## I. 서론

이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 중 학습을 지속하는 청소년의 특성, 경험, 가치 인식을 분석하였다.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의 삶과 경험은 다양하다. 이 중에서 이 연구는 다시 학습을 지속하는 유형에 초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유형의 학업중단 청소년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그동안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적 관심도 적었다. 2012년 현재 학업중단율은 중학교 0.9%, 고등학교 1.8%에 불과하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3:45). 이러한 학업중단율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교해도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학업중단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의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윤철경 외, 2013:19). 이런 점은 앞으로 점점 더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학업중단 연구는 연구 대상으로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학업중단자를 교육하거나 수용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나 소수 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면담조사가 이루어졌다(김상현·양정호, 2013, 홍나미 외, 2013, 이자영 외, 2010, 오혜영 외, 2011; 홍임숙, 2004 등).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구체적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연구대상이 소수 특정 범위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탐구 주제의 측면에서 이들 연구들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실태나 현황을 보여주는 데에는 큰 강점이 있었지만, 학업중단 청소년의 이후 경로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고 있지 못하였다. 학업중단 청소년 연구동향을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그동안 분석된 연구주제는 학업중단 관련 요인, 지원 및 예방대책, 접근방안, 학업중단의 유형 및 특성, 진로의 순서로 나타났다(김영희·허철수, 2012). 이처럼 그동안 연구들이 학업중단 요인이나 예방에 초점을 두었고, 학업중단 이후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탐구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이후 다양한 삶의 경로를 밟는다. 경우에 따라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범죄나 비행 등 일탈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업중단 청소년 연구들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를 진학지향, 취업지향, 방임형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이경상·조혜영, 2005), 학습지향, 취업·알바형, 무업형, 비행형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윤철경 외, 2010). 이런 경향은 대체로 학습이나 진학으로 이동해 가는 적응의 과정과 아무런 목표도 없이 무기력하게 생활하거나 비행·일탈행동에 동조하게 되는 부적응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학업을 다시 지속하는 유형은 최종 목표가 진학이든 취업이든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나름대로 적응해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무업형이나 비행형으로 빠지지 않고 학업을 지속하여 자신의 역할을 찾고 사회에 통합되어 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이 학업중단 청소년으로 하여금 학업을 지속하여 적응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 중 이후 학업을 지속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학업지속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개인적 특성, 환경적 특성, 이후 경험과 가치 인식 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 관련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들 특성 및 요인들이 학업 중단 이후 청소년들로 하여금 다시 학업에 참여하게 할 가능성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 II. 연구 방법

### 1. 데이터

이 연구에서 분석한 데이터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윤철경 외, 2013)의 1차년도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는 학교를 통한 개인명부 조사, 보호관찰소를 통한 조사, 웹 홍보 및 학교 밖 기관을 통한 조사 등 여러 통로를 활용하여 수집되었다(윤철경 외, 2013: 92). 이 데이터의 최종 표본수는 총 996명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종 분석 대상으로 보호관찰 청소년 220명은 제외되었다. 그 이유는 이 연구가 학업을 지속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분석하는 것인데, 보호관찰 청소년은 학업 지속과 관련하여

제약이 있어 다른 청소년과 함께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변인에서 구분이 명확치 않은 사례가 있어 15명이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서 최종 분석에 포함된 사례수는 761명이다.

## 2. 변인 구성

### 가. 학업중단 이후 경로 구분

이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이후 학업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학업중단 이후 생활과 관련된 문항을 활용하였다. 생활 경험에 대해서는 ‘복학하여 학교에 다님’, ‘대안학교에 다님’, ‘검정고시 공부를 함’, ‘직업기술을 배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가출하여 친구집이나 pc방과 같은 곳에 지내거나 가출팸과 함께 생활함’, ‘보호시설에서 지냄’, ‘보호관찰을 받음’,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함’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문항에 대해서 가장 최근 학업중단 이후 매달 경험한 여부를 표시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이 중에서 학습 지속은 복학, 대안학교, 검정고시 등 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취업형은 직업기술을 배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등의 2개 문항을 사용하였고, 무업형(니트형)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노는 정도 1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비행형은 나머지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업중단 시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학업중단 이후 기간 중 해당 경로 경험에 참여한 비율이 절반(5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해당 경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이후 경로 유형을 분류한 것이 <표 1>이다.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후 경로 유형이 배타적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업지속 집단 중 취업형인 경우가 25.7%, 무업형인 경우가 25.5%, 비행형의 경우가 11.3% 정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업지속 유형을 다른 유형과 배타적이지 않은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즉, 상호 배타적으로 재조정하지 않고 학업지속형이 취업형, 무업형, 비행형 등 다른 유형과 중복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학업지속이 복학, 대안학교, 검정고시 공부 등으로 조사되었는데, 어렵기는 하겠지만 이런 경험을 하면서 직업기술을 배우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가출, 보호관찰 등 비행 행동을 동시에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무업형은 학업지속과 개념상 모순될 수 있다. 그렇지만 무업형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한 문항이 보기에 따라서는 복학, 대안학교, 검정고시 등 학습지속의 활동과 완전히 병행하기 어렵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이런 점은 분석 모형에서 무업형 여부를 통제 변인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표 1> 학업중단 이후 경로유형별 사례 분포**

	비학업		학업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비취업 취업 합계	194	53.9	309	74.3	503	64.8
	166	46.1	107	25.7	273	35.2
	360	100.0	416	100.0	776	100.0
비무업 무업 합계	165	45.8	310	74.5	475	61.2
	195	54.2	106	25.5	301	38.8
	360	100.0	416	100.0	776	100.0
무비행 비행 합계	315	87.5	369	88.7	684	88.1
	45	12.5	47	11.3	92	11.9
	360	100.0	416	100.0	776	100.0

#### 나. 학업중단 이후 학업지속 경로 관련 변인

그동안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이후 학업지속을 설명하는 이론적 논의는 뚜렷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대부분 학업중단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후 경로를 설명하는 경향이 강했다. 예컨대, 학교 부적응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 대안학교나 다른 교육기관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크고, 비행이나 일탈 등 문제 행동으로 학교를 그만둔 경우는 비행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업중단 원인이 이후 경로를 반드시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학업중단 청소년이 원인과는 다른 경로로 이동해갈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 학교, 사회 환경, 중퇴의 자발성, 적응유연성 등과 같은 변인들이 제시되기도 하며(홍임숙, 2004), 개인, 가족, 학교, 또래, 지역사회 등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윤여각 외, 2002). 이 밖에도 학력에 대한 인식, 부모, 또래와 같은 유의미한 타자의 지지와 지원, 정보탐색 노력 등이 보고되기도 한다(오혜영 외, 2011). 이들 요인들은

개인적 수준, 환경적 수준, 제도적 수준으로 모형화될 수 있다(윤철경 외, 2013: 41).

여기에서는 윤철경 외(2013)의 연구 모형에 기반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지속 경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환경적 특성, 학업중단 이후 경험과 인식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 변인들은 모두 4점 척도로 측정된 문항들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개인적 특성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 충동성, 게임중독 등 5개의 변인을 포함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능력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받는 심리적 특성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사용된 문항은 ‘나는 내가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변인의 문항 내적 합치도(Cronbach  $\alpha$  계수: 이하 신뢰도)는 .848이었다.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와 역경에 직면했을 때 적절하게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변인은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관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내가 의자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등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변인의 신뢰도는 .747로 나타났다.

우울은 청소년들의 우울 증상 정도를 의미한다. 이 변인은 평소 기분을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여기에 포함된 문항은 ‘기운이 별로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걱정이 많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울기를 잘 한다’ 등으로 측정되었으며, 신뢰도는 .886이었다.

충동성은 조급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결정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이 변인은 자기 자신을 묻는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편이다’ 등이다. 이 변인의 신뢰도는 .732로 나타났다.

게임 중독은 게임에 대한 자동화된 의존 성향으로 일상적 생활에 대한 장애가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밤늦게 게임을 하느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등으로 구성된 8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변인의 신뢰도는 .936으로 나타났다.

## 2) 환경적 특성

학업중단 청소년의 환경적 특성은 부모관계, 친구관계, 지역사회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영역에는 1-2개의 세부적인 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관계는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정서적 지원은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고민을 들어주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변인의 신뢰도는 .938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은 ‘부모님은 나에게 용돈을 주신다’, ‘부모님은 내 공부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부모님은 내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변인의 신뢰도는 .879로 나타났다.

친구관계는 또래 애착과 친구의 비행성향 등의 두 측면으로 살펴보았다. 또래 애착은 친구에 대한 믿음과 애착 정도로서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등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849이었다.

친구의 비행성향은 ‘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잘 괴롭힌다’,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잘 때린다’, ‘내 친구들은 물건을 잘 훔친다’ 등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변인의 신뢰도는 .860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는 거주 지역 구성원들의 상호 통합정도와 유대감 정도를 의미한다. 이 변인을 구성하는 문항은 ‘우리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알고 지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왔다’, ‘동네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면 우리 동네 어른들은 꾸짖었을 것이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으면 혼내고 말렸을 것이다’ 등이다. 이 변인의 신뢰도는 .784이었다.

### 3) 학업 중단 이후 경험과 인식

학업 중단 이후 경험과 인식으로는 진로탐색, 학력에 대한 인식, 자기 미래에 대한 낙관성 등을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진로탐색은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진로를 찾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진로에 대해 부모님(또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인터넷을 검색하였다’, ‘공공기관(교육, 복지, 고용관련 기관)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등이 포함되었다. 이 변인의 신뢰도는 .403으로 높지 않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탐색의 노력이 있는 경우 이 세 측면이 일관되게 증가하기 보다는 다른 차원처럼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변인의 결과는 해석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학력에 대한 인식은 우리 사회에서 학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우리 사회는 학력이 높을수록 대우를 받는다’, ‘우리사회에서는 대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심하게 차별을 받는다’, ‘우리 사회에서 중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는 취업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 변인의 신뢰도는 .731로 나타났다.

자기 미래에 대한 낙관성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나는 내가 원하면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 등의 3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 변인의 신뢰도는 .799이었다.

### 다. 학생 배경

학업중단 이후 학업지속에 대한 배경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학생 배경 변인을 포함하였다. 배경 변인으로는 거주지의 지역 규모, 부모 학력수준, 성별, 성취수준 등이 투입되었다.

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으로 나누고, 읍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대도시, 중소도시를 더미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부모 학력수준은 부모의 최종 졸업학교를 교육연한으로 전환한 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부모 학력수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모르겠다는 0, 알고 있다는 1의 값을 갖는 별도의 더미 변인으로 나타낸 후, 부모 학력수준 변인에서는 0의 값을 갖도록 하였다. 성별은 여학생을 기준으로 하고 남학생을 1의 값을 갖도록 하는 더미 변인으로 하였다. 성취수준은 학교를 그만둘 당시 자신의 학업성적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서 최하위권(1)부터 최상위권(7)까지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다음은 분석에 사용한 변인들의 기술통계이다.

<표 2> 사용변인의 기술통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학업지속	761	0.54	0.50	0.00	1.00
무업형	761	0.39	0.49	0.00	1.00
대도시	761	0.57	0.50	0.00	1.00
중소도시	761	0.30	0.46	0.00	1.00
부모학력인지	761	0.88	0.32	0.00	1.00
부모학력수준	761	10.31	5.13	0.00	19.00
학업성취	761	3.35	1.61	1.00	7.00
남학생	761	0.58	0.49	0.00	1.00
자기존중감	761	2.98	0.55	1.00	4.00
자아탄력성	761	2.85	0.55	1.00	4.00
우울	761	2.06	0.59	1.00	4.00
충동성	761	1.98	0.58	1.00	4.00
게임중독	761	1.46	0.63	1.00	4.00
정서적지원	761	2.97	0.71	1.00	4.00
경제적지원	761	2.95	0.75	1.00	4.00
도래애착	761	3.16	0.60	1.00	4.00
친구폭력성향	761	1.64	0.64	1.00	4.00
지역유대감	761	2.28	0.67	1.00	4.00
정보탐색	761	2.58	0.65	1.00	4.00
학력주의	761	3.06	0.68	1.00	4.00
낙관성	761	3.10	0.63	1.00	4.00

### 3. 분석 방법

이 연구는 학업지속에 따른 청소년의 특성 차이, 학업지속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등 2개의 연구 문제를 다루고 있다. 먼저, 첫 번째 연구 문제인 학업중단 이후 학업지속 여부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특성, 환경, 경험 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집단 간 평균 차이 검증(t-검증)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학업중단 이후 학업지속 가능성에 상대적으로 큰 관련성을 갖는 변인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학업지속 여부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관련 청소년 특성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은 상호 간에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개별 변인들의

영향력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개인적 특성, 환경적 특성, 경험 및 가치 인식 등 유사한 변인들을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하위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모형1: 학업지속 = 배경변인 + 개인적 특성 변인

모형2: 학업지속 = 배경변인 + 개인적 특성 변인 + 환경적 특성 변인

모형3: 학업지속 = 배경변인 + 개인적 특성 변인 + 환경적 특성 변인  
+ 경험 및 가치 인식 변인

### Ⅲ. 분석 결과

#### 1. 학업지속 집단의 특성

이 절에서는 학업지속 여부에 따른 청소년 특성의 차이 분석 결과를 개인적 특성, 환경적 특성, 경험 및 가치 인식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 가. 개인적 특성

〈표 3〉은 학업지속 여부에 따른 개인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개인적 특성으로는 자기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 충동, 게임중독 등 심리 정서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우울을 제외한 자기존중감, 자아탄력성, 충동, 게임중독 변인에서 일관되게 학업지속 집단이 비학업 집단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우울 정도는 비학업 집단에서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런 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에 긍정적이고 건강한 자아가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표 3> 학업지속 여부별 개인 특성의 차이

변인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자기존중감	비학업	360	2.91	0.55	8.902	**
	학업지속	416	3.03	0.54		
	합계	776	2.97	0.55		
자아탄력성	비학업	360	2.80	0.55	4.930	*
	학업지속	416	2.89	0.55		
	합계	776	2.85	0.55		
우울	비학업	360	2.10	0.59	2.302	
	학업지속	416	2.03	0.58		
	합계	776	2.06	0.59		
충동	비학업	360	2.07	0.59	16.259	***
	학업지속	416	1.90	0.56		
	합계	776	1.98	0.58		
게임중독	비학업	360	1.56	0.71	18.814	***
	학업지속	416	1.37	0.55		
	합계	776	1.46	0.63		

\*:  $p < .05$ , \*\*:  $p < .01$ , \*\*\*:  $p < .001$

#### 나. 환경적 특성

환경적 특성으로는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또래애착, 친구의 폭력성향 정도, 지역사회 유대감 등 청소년을 둘러싼 관계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4>는 이러한 환경적 특성이 학업 지속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지속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다. 학업 지속 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의 수준이 높았다.

친구 관계 측면에서는 친구의 폭력적 성향에서 차이가 나타났지만, 또래 애착에 대해서는 학업 지속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래 애착의 경우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오히려 비학업 집단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사회의 유대 정도는 학업지속 집단보다는 비학업 집단에서 조금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이 이후 다시 학업 경험을 하는 데에는 부모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친구 관계의 밀착성과 폭력성향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다시 학업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지역적 통합성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 지속에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4> 학업지속 여부별 환경적 특성의 차이**

변인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정서적지원	비학업	360	2.84	0.74	18.681	***
	학업지속	416	3.06	0.67		
	합계	776	2.96	0.71		
경제적지원	비학업	360	2.81	0.77	26.070	***
	학업지속	416	3.08	0.70		
	합계	776	2.95	0.75		
또래애착	비학업	360	3.16	0.59	0.222	
	학업지속	416	3.14	0.62		
	합계	776	3.15	0.60		
친구의 폭력성향	비학업	360	1.71	0.64	8.839	**
	학업지속	416	1.57	0.62		
	합계	776	1.63	0.63		
지역사회 유대	비학업	360	2.29	0.70	0.178	
	학업지속	416	2.27	0.64		
	합계	776	2.28	0.67		

\*:  $p < .05$ , \*\*:  $p < .01$ , \*\*\*:  $p < .001$

#### 다. 학업중단 이후 경험 및 가치 인식

학업중단 이후 경험과 가치 인식으로는 진로탐색, 학력주의 인식, 자기 미래에 대한 낙관성 등을 살펴보았다. 학력주의 인식과 자기 미래에 대한 낙관성은 반드시 학업중단 이후의 인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표 5>는 이러한 경험과 가치 인식이 학업 지속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학업지속 집단에게서 진로탐색과 낙관성 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주의에 대한 인식정도는 학업지속 집단이 좀 더 높게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는 자기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과 희망을 갖고 진로탐색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청소년들이 학업도 다시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학업지속 여부별 경험 및 인식의 차이**

변인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진로탐색	비학업	360	2.47	0.66	19.730	***
	학업지속	416	2.68	0.63		
	합계	776	2.58	0.65		
학력주의 인식	비학업	360	3.02	0.73	1.404	
	학업지속	416	3.08	0.63		
	합계	776	3.05	0.68		
자기미래의 낙관성	비학업	360	2.97	0.63	29.697	***
	학업지속	416	3.21	0.60		
	합계	776	3.10	0.63		

\*:  $p < .05$ , \*\*:  $p < .01$ , \*\*\*:  $p < .001$

## 2. 학업 지속에 대한 변인들의 관련성

이 절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업 지속 경험을 하는 데 어떤 변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가를 분석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학업지속과 무업형(NEET)이 배타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데이터의 제한점을 고려하기 위하여 무업형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모형1은 청소년 배경 변인과 개인적 특성 변인을 투입한 모형이다. 분석 결과, 배경 변인에서는 지역과 부모 학력 수준이 학업지속 여부에 의미 있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에 비해서 대도시 지역에서, 그리고 부모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학업 지속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심리 정서 특성 변인에서는 충동성과 게임중독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충동성과 게임중독이 심할수록 학업지속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학업중단 이후 다시 다른 유형이기는

하지만 학업을 지속하게 되는 학생들은 심리 정서적 측면에서 특히 충동성과 게임중독의 성향이 낮다는 것이다. 이는 충동성과 게임중독이 학업중단 지속에 다른 요인보다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표 6> 학업지속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 분석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B	S.E.		B	S.E.		B	S.E.	
상수	-0.269	0.921		-0.623	1.094		-1.306	1.139	
무업형	-1.073	0.164	***	-1.095	0.167	***	-1.065	0.170	***
대도시	0.413	0.242	†	0.337	0.249		0.332	0.252	
중소도시	0.310	0.261		0.267	0.266		0.243	0.270	
부모학력인지	-0.695	0.367	†	-0.601	0.372		-0.576	0.373	
부모학력	0.094	0.024	***	0.080	0.024	**	0.074	0.025	**
남학생	-0.038	0.175		-0.052	0.178		-0.039	0.180	
성취수준	0.065	0.052		0.073	0.053		0.057	0.054	
자기존중	0.316	0.199		0.299	0.206		0.183	0.214	
자아탄력	-0.125	0.183		-0.030	0.188		-0.096	0.191	
우울	0.204	0.180		0.213	0.183		0.168	0.189	
충동성	-0.333	0.159	*	-0.210	0.168		-0.216	0.169	
게임중독	-0.263	0.141	†	-0.274	0.145	†	-0.257	0.146	†
정서지원				0.098	0.151		0.095	0.153	
경제지원				0.338	0.136	*	0.302	0.138	*
또래애착				-0.289	0.151	†	-0.318	0.154	*
친구폭력성향				-0.071	0.139		-0.054	0.140	
지역사회				-0.114	0.124		-0.107	0.125	
진로탐색							0.085	0.138	
학력주의							0.144	0.123	
낙관성							0.285	0.158	†
-2Log우도	938.648			922.164			916.621		
Cox&Snell R2	0.137			0.156			0.162		
Nagelkerke R2	0.183			0.208			0.216		
분류정확%	66.0			67.4			68.9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모형2는 모형1에 환경적 특성 변인을 투입한 결과이다. 추가적으로 투입된 환경적 특성 변인 중에서 학업지속과 관련성을 보이는 변인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또래 애착으로 나타났다.

부모 관계를 나타내는 변인 중 부모의 정서적 지원보다는 경제적 지원이 좀 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정서적 지원이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정서적 지원은

앞서 심리 정서적 측면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결과는 학업중단 학생들 가운데 다시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그 중에서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경우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몰라도 비교적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중단하고 다른 유형의 학업을 시도하는 경향이 좀 더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친구 관계에서는 또래 애착이 학업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 애착이 높은 학생들이 학업지속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집단 간 차이 검증에서는 별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런 결과는 당초 예상했던 결과는 아니다. 이는 다른 변인들을 함께 고려했을 경우, 친구들간의 친밀함이 오히려 학업중단 상황을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것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또래 친구들이 학업중단이라는 비슷한 경험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래 관계의 영향력이 일반적인 상황과는 반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환경적 특성 변인이 투입될 경우, 모형1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던 충동성 변인의 계수 크기가 감소하여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충동성이 부모 관계나 친구 관계와 관련되어 있고, 이들 작용과 연계되어 학업 지속 가능성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충동성이 높은 청소년은 동시에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또래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학업지속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모형3은 모형2에 학업중단 이후 경험과 가치 인식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것이다. 분석 결과는 낙관성이 높을수록 학업지속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탐색과 학력주의 인식도 학업지속과 정적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이 있는 청소년들은 비록 학교에서의 학업은 중단하였지만 다른 유형의 학업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함의한다.

####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 중 학업을 지속하는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학업중단 청소년 중 학업지속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 간에 개인적 특성, 환경적 특성,

이후 경험과 가치 인식 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 이들 청소년 특성 및 요인들이 학업 중단 이후 청소년들로 하여금 다시 학업에 참여하게 할 가능성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가를 종합하여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학업지속 청소년이 자기존중감, 자아탄력성, 충동성, 게임중독, 부모의 정서적 지원, 부모의 경제적 지원, 친구의 폭력성향, 진로탐색, 낙관성 등에서 좀 더 긍정적인 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게임중독, 부모의 경제적 지원, 친구의 폭력성향 정도, 낙관성 등이 독립적으로 관련성을 갖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학업지속 유형이 다른 유형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비해서 개인적 특성, 환경적 특성, 경험과 가치 인식 등에서 좀 더 긍정적인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복학이든, 대안학교이든, 검정고시이든 다시 학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교육이 아닌 어떤 유형의 형태로라도 다시 학업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점은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서는 취업과 같은 다른 경로가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학업중단을 경험한 학생들은 보통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와 관련하여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2.6%(2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졸이상의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학업중단 상태이기는 하지만 마음 속으로는 학업을 지속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본다면, 학업중단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여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지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선행연구에서 학업중단과 이후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된 자기존중감, 자아탄력성 등 심리 정서적 변인들이 뚜렷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은 점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다시 학업에 참여하는 데에 있어서 심리 정서적 측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 특성 변인들의 영향력이 작은 이유는 유의미한 타자와의 관계 측면을 나타내는 환경적 특성이나 낙관성과 같은 가치관이 또 다른 변인으로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청소년 개인의 심리 정서적 변인들은 개별적으로 볼 때는 학업지속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나 다른 변인들과 함께 투입될 때는 그 영향력이 감소하거나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측면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가치 인식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 결과의 해석에서 유의할 또 다른 점은 이런 경향이 표집의 제한점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표집 과정에서 검정고시 학원 등에서 표본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 이미 다른 유형의 학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은 당연히 학업 지속 유형으로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편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학업을 학교를 그만둔 이유 중 검정고시를 하려고(문항 4의 11번)에 응답한 청소년을 제외하고 분석하여도 대부분 분석 결과가 동일하게 산출된다는 점에서 표집에 의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의 분석이 학업지속에 대한 인과 관계를 명확히 분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업지속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변인들도 역시 어떤 원인에 의해 동시에 나타나는 결과적 측면일 가능성을 확실하게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체로 투입된 변인들이 학업지속보다는 변화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다른 변인들의 선후관계나 인과관계는 패널조사 연구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종단적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학업지속 청소년들은 비록 학업중단 상태이기는 하지만 취업형, 무업형, 비행형 등 다른 학업중단 청소년들보다는 개인적 특성, 환경적 특성, 경험과 가치 인식 등에서 좀 더 긍정적인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비록 학교교육이 아니더라도 어떤 유형이든 학업에 다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심리 정서적 특성, 환경적 특성을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시사점이 좀 더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에서 변인들 간 구조적 관계가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좀 더 탐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좀 더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 정책 개입이 가능한 측면들을 나타내는 문항과 변인들의 발굴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교육통계분석자료집-유·초·중등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 김상현·양정호(2013).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배경과 복교 후 학교생활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31(1): 81-113.
- 김영희·허철수(2012). 중·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1991년-2011년. 상담학연구, 13(2):1013-1028.
- 오혜영·지승희·박현진(2011).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까지의 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9(2):125-154.
- 윤여각·박창남·전병유·진미석(2002). 학업중단 청소년 및 대안교육 실태조사. 한국교육개발원.
-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류방란·김선아(2010).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조혜영(2005).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설정 및 준비실태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18(2):41-64.
- 이숙영·남상인(1997).
- 이자영·강석영·김한주·이유영·양은주(2010).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중단의 위험 및 보호요인 탐색:개념도 연구법의 활용. 청소년상담연구, 18(2): 225-241.
- 홍나미·신문희·박은혜·박지현(2013).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복귀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접근. 청소년복지연구, 15(1): 121-153.
- 홍임숙(2004). 학교를 떠난 아이들의 세계: 학교중퇴자에 대한 사례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발표 2

.....

**학업중단 후 취업형 청소년들,  
특성과 경험, 의식**

김 강 호

(한국고용정보원 생애진로개발센터 연구위원)

# 학업중단 후 취업형 청소년들, 특성과 경험, 의식

## I. 서론

학업중단 청소년은 매년 7만 여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의무교육 시기가 끝나는 중학교 졸업 직후 혹은 고교 1학년 시기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고교 단계 시기에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은 2012년 기준으로 33,057명으로 재적학생의 1.70%에 달하며, 이 중 유학이민을 포함하면 그 수는 1.92%로 올라간다. 학업중단율을 살펴보면 중학교 1~3학년 시기에는 학업중단율이 1% 안팎을 보이나,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는 3.4%로 급증하고,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도 1.8%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성인기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청소년기에 학업을 중단함으로써 정규교육을 통해 이뤄지는 진로지도 등의 교육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 과도기로서 개인적·가정적·사회적·환경적 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거나, 충분한 진로지도 지원이 없을 경우 진로발달과업 달성이 이뤄지지 않아 사회일원으로서의 성공적인 역할수행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조규필·권해수·김범구·박가열, 2008).

최근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추진되어 왔으나, 학교 밖으로 이미 정규 학교 시스템을 이탈한 학생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이 미흡할뿐더러 학업중단숙려제 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과는 달리 학업중단 이후 취업경로를 위한 지원서비스는 많지 않다. 올해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취약계층 청소년 진로·경력관리 시스템(CollA: Collaboration Aid)’ 구축에 대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학업중단 청소년의 다양한 경로에 부합하는 정책적 지원은 부처별로 분절되어 운영되고 있고, 제공되는 프로그램 역시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한계가 노정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여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학업중단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사업에 자립이나 직업훈련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고는 있지만, 학업중단청소년에 특성화되거나 단계적·심층적

사업운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여성가족부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두드림·해밀’ 사업을 통해 검정고시 지원 등 학업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CYS-Net을 구축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치료와 상담, 자립을 지원하고 있고, 전국에 설치된 쉼터를 통해 가출·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와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에도 2011년부터 취업사관학교 선정·지원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고, 이 외에도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역량강화프로그램(allA), 한국잡월드 등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진로교육과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프로그램들은 학업중단청소년의 위기요인과 진로개발 욕구에 기반한 지원보다는 정형화된 시스템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한계는 학업중단청소년이 왜 학업중단이 발생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향후 진로에 대한 바람과 도움은 무엇인지에 대한 진단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를 통해 조사한 1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학업중단 후 취업경로를 선택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들의 특성과 진로관련 경험, 그리고 향후 진로계획과 그에 대한 인식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II. 분석자료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2013년에 학업중단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 중 취업형 청소년에 관한 자료이다. 취업형 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 이후 직업기술을 배우거나, 아르바이트 또는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에만 속하는 ‘순수 취업형’과 아무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았던 니트형이 포함된 ‘취업형+니트형’이 있다. 이 외에 ‘취업형+학업형’ 혹은 ‘취업형+학업형+니트형’이 혼재된 사례가 있으나, 이들은 학업형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151명이었으며 이 중 순수 취업형은 103명(68.2%)이었고, 취업형+니트형은 48명(31.8%)이었다<sup>1)</sup>.

---

1) 조사 자료는 수집방법에 따라 크게 세 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학교를 통해 수집한 개인자료와 기관(상담복지센터, 검정고시 학원, 기타 직업훈련기관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 그리고 보호관찰소를 통해 수집한 자료로 구분되어 있다. 아울러 학업중단 이후의 경로에 따라 네 개의 더미변수(study, work, neet, devi)가 새롭게 생성되어 있다. 네 개의 더미변수는 각각 독립된 변수가 아니라 표본에 따라 네 개 변수에 중복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취업형 학생의 분류를 단순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는 많은 비중을 보였고, 연령대는 고등학교 학령기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가구구성을 보면 양부모(새아버지, 새어머니 포함)가 모두 있는 경우가 48.3%이었으며, 편부모 역시 31.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구의 경제수준은 대체로 중, 하 수준이 많았으며, 부모의 학력수준은 고졸 이하가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학업중단 학교에서의 성적은 하 수준이 58.3%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상인 경우도 23.8%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사 표본의 학업중단 기간은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이 40.4%, 1년 이상 2년 미만이 46.4%로 대다수가 2년 미만의 학업중단 기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첫 번째 학업중단 사유는 학교의 이유, 즉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에 갈 필요성을 못 느껴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싫어서, 학교규칙이 엄해서 등의 이유가 60.3%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자발적 자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이후 학업중단 횟수는 대다수(84.1%)가 최근 학업중단 경험이 첫 번째라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학업중단 시 진로나 직업교육훈련 시설에 관한 정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23.8%에 그치고 있었다<sup>2)</sup>. 향후 진로 계획에서는 취업형 학업중단청소년 역시 진학이나 학업을 지속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4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취업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25.9%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진로계획의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8% 가량이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히 '취업형(work)' 더미변수만 고려할 경우 취업형과 학업형 또는 비행형이 동시에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윤철경 외 (2013: p.206)에서는 이 경우 학업형(학업형이 포함된 경우)와 비행형(비행형이 포함된 경우)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취업형을 나타내는 'work'에 해당(=1)되고 '학업형(study)'와 '비행형(devt)'에 해당되지 않는(=0) 표본만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이 경우 4명의 자료가 보호관찰소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해당되었음을 밝힌다. 자료분석에 있어 일반형(학업형, 취업형, 무업형) 학생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소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제외한 표본에 대해서만 분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보호관찰소를 통해 수집되지 않은 표본 중에도 비행형(devt)에 포함되는 표본이 다수(92명) 존재하고 있고, 반대로 보호관찰소를 통해 수집된 자료 중에도 일부(20명)가 일반형에 속하는 표본인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소를 통해 수집된 4명의 자료도 포함하였다.

2) 여기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학업중단 시 '학교복학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는 전체 151명 중 31.8%(48명),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은 19.2%(29명), '검정고시 준비'는 37.8%(57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시설'의 경우는 24.5%(37명)으로 대다수 취업형 학업중단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시점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취업형 학업중단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범주형 변수)

		N	%	결측치(명)
성별	남자	98	64.9	
	여자	53	35.1	
연령	중학교 학령기(만13~15세)	5	3.3	
	고등학교 학령기(만16~18세)	143	94.7	
	학령기 이후	3	2.0	
가구구성	양부모	73	48.3	
	한부모	48	31.8	
	부모 모두 안계심	30	19.9	
가정경제수준	상	29	19.2	
	중	67	44.4	
	하	55	36.4	
아버지학력*	고졸이하	87	72.5	31
	초대졸 이상	33	27.5	
어머니학력*	고졸이하	85	77.3	41
	초대졸 이상	25	22.7	
학업성적	상	36	23.8	
	중	27	17.9	
	하	88	58.3	
최근 학업중단 시기*	중등 1학년	3	2.0	
	중등 2학년	4	2.6	
	중등 3학년	3	2.0	
	고등 1학년	69	45.7	
	고등 2학년	54	35.8	
	고등 3학년	5	3.3	
	중학교 졸업이후 진학하지 않음	13	8.6	
학업중단 기간('13.12 기준)	1년 미만	61	40.4	
	1년 이상 -2년 미만	70	46.4	
	2년 이상	20	13.2	
학업중단 사유	개인사정으로	16	10.6	
	학교사유	91	60.3	
	대안교육을 위해서	30	19.9	
	문제행동으로	14	9.3	
	자발적 자퇴	127	84.1	
학업중단 행정처리 형태*	권고 자퇴	10	6.6	
	징계로서의 퇴학	2	1.3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포기	9	6.0	
	유예	3	2.0	
	1회	135	89.4	
학업중단 회수(중1이후)	2회 이상	16	10.6	

학업중단 시 진로·직업교육훈련 시설 정보 제공	없다	115	76.2		
	있다	36	23.8		
향후 진로계획	진로 미결정	31	21.1	4	
	진학·학업	60	40.8		
	취업	38	25.9		
	취업과 진학 병행	11	7.5		
	진학이나 취업하지 않고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	5	3.4		
	무보수 가업 도을 예정	2	1.4		
아르바이트 경험	없다	86	57.0		
	있다	65	43.0		
진로탐색경험	부모(주의 사람)와의 대화	전혀 그렇지 않다	13	8.6	
		그렇지 않다	19	12.6	
		그렇다	77	51.0	
		매우 그렇다	42	27.8	
	인터넷 검색	전혀 그렇지 않다	31	20.5	
		그렇지 않다	23	15.2	
		그렇다	67	44.4	
		매우 그렇다	30	19.9	
	공공기관 방문·상담	전혀 그렇지 않다	72	47.7	
		그렇지 않다	30	19.9	
		그렇다	34	22.5	
		매우 그렇다	15	9.9	
미래 계획의 실현가능성	전혀 그렇지 않다	2	1.7	35 (진로미결정 31 포함)	
	그렇지 않다	11	9.5		
	그렇다	73	62.9		
	매우 그렇다	30	25.9		
계		151	100.0		

주1) \*표시된 변수는 최종분석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변수이다. 부모학력의 경우 분석모형에 투입시 양부모가 있는 경우만 분석에 활용되는 문제로 인해 최종 분석에서는 활용하지 않았으며, 학업중단 시기는 학업중단 기간 및 연령과의 관련성이 높아 활용하지 않았다. 또한 학업중단 행정처리 형태는 많은 수가 자발적 자퇴로 나타나고 있고, 학교현장에서도 학생의 미래를 위해 어느정도 자퇴를 유도하는 관례를 고려하여 분석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주2) 연령의 경우 최종분석에서는 연속변수로 투입하였다.

연속형 변수로 투입한 연령을 비롯하여 학업중단 당시 학교생활, 개인의 심리정서, 부모 및 친구 관계 관련 변수는 <표 2>와 같다. 취업형 학업중단청소년의 연령은 최소 만14세부터 19세까지 분포하고 있었으며, 평균 연령은 17세 정도였다. 나머지 변수들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의 4단계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업형 학업중단청소년의 인식을 살펴보면 학업중단 당시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친구와의 관계는 대체로

좋게 인식하는 반면,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또한 학습부적응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성향으로 나타났다. 학교규범에서도 훈육적 규범(엄격한 학교규칙, 잘못에 대한 심한 벌)과 참여적 규범(활발한 문화예술행사나 동아리활동과 학생 자치활동)에서도 ‘그렇지 않다’라는 인식성향이 더 많았다.

개인의 심리정서 상태에서는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였으며, 우울감, 충동성, 게임중독 상태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보호자)와의 관계에서는 정서적 지원이나 경제적 지원은 보통수준보다 약간 낮은 상태였고, 방임과 학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또래 친구들에 대한 애착수준은 다른 심리적 변수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고, 또래 친구들의 비행성향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취업형 학업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연속형 변수)**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연령		151	14	19	17.0861	0.9161
학업중단 당시 학교생활	교사관계	151	1.00	4.00	2.5629	0.83992
	친구관계	151	1.00	4.00	3.1722	0.66281
	학습부적응	151	1.00	4.00	2.6733	0.67272
	훈육적 학교규범	147	1.00	4.00	2.5816	0.80034
	참여적 학교규범	147	1.00	4.00	2.4218	0.83112
개인의 심리·정서 상태	자아존중감	151	1.00	4.00	2.9457	0.55326
	자아탄력성	151	1.00	4.00	2.8411	0.52931
	우울감	151	1.00	4.00	2.0126	0.57808
	충동성	151	1.00	4.00	2.0384	0.64155
	게임중독	151	1.00	4.00	1.5348	0.70787
부모(보호자)와의 관계	부모의 정서적 지원	151	1.00	4.00	2.9007	0.73571
	부모의 경제적 지원	151	1.00	4.00	2.7263	0.78418
	부모의 방임	151	1.00	3.40	2.0689	0.49641
	부모의 학대	151	1.00	4.00	1.8742	0.81745
친구관계	또래애착	151	1.00	4.00	3.2649	0.54748
	또래비행	151	1.00	4.00	1.6932	0.62482

### III. 분석결과

#### 1. 취업형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징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학업중단 청소년 집단 중 취업형과 비행형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학업형, 무업형, 혼합형)에 대해 비교한 로짓모형과 취업형과 학업형<sup>3)</sup>만을 비교한 로짓모형을 분석하였다. 로짓분석이 비선형 확률모형인 점을 고려하여 한계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취업형과 그 외 일반학생을 비교한 결과에서 취업형에 속할 조건부 확률은 21.5%로 나타났다. 관련 변수로는 나이가 분석대상의 평균보다 1세 높아질 경우 취업형에 속할 확률이 5.1%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부모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부모가 모두 없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취업형에 속할 확률이 17.0%p 높아져 가구구성 요인이 상당히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업성적의 경우에는 상위 집단에 비해 중간 집단이 취업형에 속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 제도권에서의 학업부진을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기 위한 욕구, 즉 학업에 대한 지속 욕구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상위 집단과 하위집단의 경우에는 학업요인 외의 개인 혹은 환경적 요인에 따라 취업형 경로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우울감이 낮을수록 취업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학업중단 기간이 1년 미만에 비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청소년 집단이 취업형에 속할 확률이 낮아졌다. 이는 학업중단 이후 당분간은 취업을 통해 경제적 욕구를 해소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으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경험을 통해 학업이나 무업형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학업중단 당시 진로나 직업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학생들은 취업형에 속할 확률이 15.0%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중단 시점에서의 정보제공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학업형과 비교한 결과에서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낮은 청소년이 취업형에 속할 확률이 11.9%로 높아졌다. 또한 학업중단 기간이 1년 미만에 비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청소년은 취업형에 속할 확률이 2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중단 이후 어느 정도

3) 여기서 학업형이란 학업중단 이후 학업관련 경로에만 속한 '순수 학업형'과 학업과 취업형 경로가 혼재된 경우, 그리고 학업과 니트가 혼재된 경우가 포함된다. 단, 학업+취업+니트형 경로가 혼재된 경우는 혼합형으로 보고 학업형 집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아울러 혼합형에는 세 개 유형(학업, 취업, 니트) 모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분류방식은 윤철경 외(2013: p.206)에 따랐다.

기간이 지난 후에는 취업보다는 학업지속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3> 취업형 학업중단청소년 결정요인

		취업형 vs 그 외 학업중단 청소년		취업형 vs 학업형	
		추정계수	한계효과	추정계수	한계효과
상수		-8.052** (2.625)	0.215*** (.0145)	-6.463* (2.953)	0.300*** (.018)
성별[남자]	여자	-0.204 (0.222)	-0.030 (0.032)	-0.313 (0.251)	-0.054 (0.043)
연령		0.353** (0.120)	0.051** (0.017)	0.333* (0.136)	0.058* (0.023)
가구구성 [양부모]	한부모	0.147 (0.234)	0.020 (0.033)	0.233 (0.261)	0.040 (0.045)
	부모 모두 안계심	0.985** (0.317)	0.170** (0.062)	0.982** (0.368)	0.189* (0.076)
가구경제수준 [상]	중	0.360 (0.290)	0.055 (0.043)	0.563 † (0.330)	0.100 † (0.057)
	하	-0.141 (0.317)	-0.019 (0.042)	-0.010 (0.353)	-0.002 (0.056)
학교성적[상]	중	-0.652* (0.327)	-0.089* (0.045)	-0.667 † (0.359)	-0.106 † (0.057)
	하	-0.153 (0.283)	-0.024 (0.045)	0.114 (0.314)	0.021 (0.058)
학업중단 사유 [개인사정]	학교사유	0.447 (0.347)	0.063 (0.045)	0.323 (0.393)	0.057 (0.067)
	대안교육을 원해서	0.138 (0.393)	0.018 (0.050)	-0.114 (0.437)	-0.019 (0.072)
	문제행동으로	0.038 (0.472)	0.005 (0.059)	-0.280 (0.531)	-0.044 (0.083)
교사관계		-0.011 (0.140)	-0.002 (0.020)	-0.038 (0.156)	-0.007 (0.027)
친구관계		0.183 (0.177)	0.027 (0.026)	0.283 (0.207)	0.049 (0.036)
학습부적응		0.134 (0.160)	0.019 (0.023)	0.183 (0.184)	0.032 (0.032)
훈육적 학교규범		0.136 (0.134)	0.020 (0.020)	0.170 (0.148)	0.030 (0.026)
참여적 학교규범		0.176 (0.149)	0.026 (0.022)	0.202 (0.165)	0.035 (0.029)
부모의 정서적 지원		0.135 (0.202)	0.020 (0.029)	0.016 (0.231)	0.003 (0.040)
부모의 경제적 지원		-0.532** (0.177)	-0.077** (0.026)	-0.682** (0.208)	-0.119** (0.036)

부모의 방임		0.159 (0.250)	0.023 (0.036)	0.053 (0.284)	0.009 (0.049)
부모의 학대		0.234 (0.160)	0.034 (0.023)	0.224 (0.181)	0.039 (0.032)
또래 애착		0.518* (0.222)	0.075** (0.032)	0.508 † (0.260)	0.089* (0.045)
또래 비행		0.005 (0.183)	0.001 (0.027)	0.246 (0.230)	0.043 (0.040)
자아존중감		-0.394 (0.262)	-0.057 (0.038)	-0.395 (0.294)	-0.069 (0.051)
자아탄력성		-0.157 (0.254)	-0.023 (0.037)	-0.228 (0.293)	-0.040 (0.051)
우울감		-0.478* (0.244)	-0.069* (0.035)	-0.640* (0.294)	-0.112* (0.051)
총동성		0.190 (0.215)	0.028 (0.031)	0.337 (0.252)	0.059 (0.044)
학업중단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0.553* (0.236)	-0.084* (0.036)	-1.122*** (0.278)	-0.217*** (0.055)
	2년 이상	-0.518 (0.368)	-0.079 (0.052)	-1.113** (0.408)	-0.216** (0.073)
진로·직업교육훈련시설 정보		0.882* (0.260)	0.150** (0.050)	0.629* (0.291)	0.118* (0.058)
연속변수의 조건부 평균치	연령		16.808		16.867
	교사관계		2.530		2.552
	친구관계		3.064		3.079
	학습부적응		2.529		2.473
	훈육적 학교규범		2.493		2.472
	참여적 학교규범		2.390		2.407
	부모의 정서적 지원		3.005		3.049
	부모의 경제적 지원		2.992		3.018
	부모의 방임		1.987		1.958
	부모의 학대		1.752		1.719
	또래 애착		3.153		3.184
	또래 비행		1.613		1.571
	자아존중감		2.987		3.022
	자아탄력성		2.842		2.871
우울감		2.060		2.013	
총동성		1.954		1.900	
Log likelihood		-306.353		-238.2013	
관측수			684		490

주: [ ]는 기준범주를 ( )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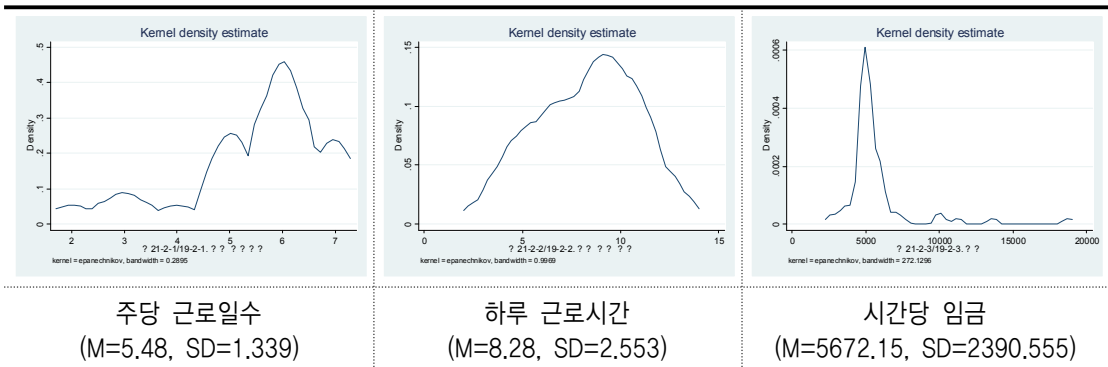
† p<0.1, \*p<0.05, \*\*p<0.01, \*\*\*p<0.001

## 2. 학업중단학생의 일경험 및 적극적 진로탐색 경험

### 가. 일경험: 아르바이트

취업형 학업중단청소년 중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는 43.1%(65명)이었다. 이들의 일주간 평균 근로일수는 5.5일이었고,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3시간, 그리고 시간당 임금은 5,672원 정도였다. 커널 밀도 추정을 통해 살펴보면 주당 근로일수는 6일, 하루 근로시간은 10시간, 그리고 시간당 임금은 5,000원 정도에서 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취업형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경제적 욕구 충족을 위해 상당부분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시간당 임금은 일부 높은 수준을 받는 경우(최대 18,750원)도 있었으나, 최저 임금(2013년 기준 4,86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아르바이트 근로 환경



한편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확률(43.0%)에 대해 부모의 경제적 지원만이 유의수준 0.05에서 관련성이 있었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취업형 학업중단청소년 집단평균보다 1수준 낮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확률은 14.2%p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유의수준 0.1에서 부모가 모두 있는 청소년에 비해 모두 안 계신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확률이 21.2%p 높았다. 결국 취업형 학업중단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결정요인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아르바이트 경험

		추정계수	한계효과
	상수	-3.003 (5.438)	0.430*** (0.036)
성별[남자]	여자	0.319 (0.453)	0.071 (0.101)
	연령	0.235 (0.256)	0.052 (0.056)
가구구성 [양부모]	한부모	-0.273 (0.456)	-0.059 (0.098)
	부모 모두 안계심	0.934 (0.579)	0.212 † (0.127)
가구경제수준 [상]	중	0.133 (0.567)	0.029 (0.124)
	하	0.070 (0.597)	0.015 (0.131)
학교성적[상]	중	0.723 (0.645)	0.163 (0.144)
	하	0.088 (0.495)	0.019 (0.108)
학업중단 사유 [개인사정]	학교사유	0.484 (0.712)	0.110 (0.156)
	대안교육을 위해서	-0.732 (0.844)	-0.143 (0.169)
	문제행동으로	0.410 (0.894)	0.092 (0.200)
	부모의 정서적 지원	0.065 (0.387)	0.014 (0.085)
	부모의 경제적 지원	-0.645* (0.317)	-0.142* (0.070)
	부모의 방임	0.654 (0.479)	0.144 (0.105)
	부모의 학대	-0.448 (0.314)	-0.098 (0.069)
	또래 애착	-0.265 (0.383)	-0.058 (0.084)
	또래 비행	0.525 (0.378)	0.116 (0.082)
	자아존중감	0.125 (0.465)	0.027 (0.102)
	자아탄력성	0.182 (0.502)	0.040 (0.110)

	우울감	-0.364 (0.495)	-0.080 (0.109)
	충동성	-0.514 (0.445)	-0.113 (0.097)
학업중단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0.258 (0.460)	-0.057 (0.102)
	2년 이상	-0.535 (0.680)	-0.116 (0.143)
진로·직업교육훈련시설 정보		0.422 (0.451)	0.094 (0.101)
연속변수의 조건부 평균치	연령		17.086
	부모의 정서적 지원		2.901
	부모의 경제적 지원		2.726
	부모의 방임		2.069
	부모의 학대		1.874
	또래 애착		3.265
	또래 비행		1.693
	자아존중감		2.946
	자아탄력성		2.841
	우울감		2.013
	충동성		2.038
Log likelihood		-86.936	
관측수			151

주: [ ]는 기준범주를 ( )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p<0.1, \*p<0.05, \*\*p<0.01, \*\*\*p<0.001

## 나. 진로탐색 경험

학업중단 당시 취업형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도움은 진로상담에 대한 것이었다. 이는 학업중단 당시 학업중단 이후의 진로탐색과 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학업중단 당시 필요했던 도움

	없다		있다	
	N	%	N	%
학업중단이후 생활	101	66.9	50	33.1
심리상담	120	79.5	31	20.5
진로상담	88	58.3	63	41.7

대안교육	145	96.0	6	4.0
직업기술훈련	108	71.5	43	28.5
일자리소개	99	65.6	52	34.4
또래와의 활동	128	84.8	23	15.2
경제적 지원	122	80.8	29	19.2
Total	151	100.0		

그렇다면, 학업중단 이후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한 활동(부모님과의 대화, 인터넷 검색, 공공기관 방문상담)에 대해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님(주의사람)과의 대화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는 78.8%, 인터넷 검색은 64.3%, 공공기관 방문상담은 32.4%로 주로 주변 사람과의 대화를 통한 진로정보 탐색이 가장 많이 이뤄진 반면, 전문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를 얻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들 세 가지 진로탐색 활동과 관련한 취업형 학업중단청소년의 특성변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부모님(주의 사람)과의 대화 경험은 가구 경제수준이 상위인 경우보다는 중·하위 집단 청소년이 더 많은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상당부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 비행과의 관련성 역시 정(+)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또래 친구나 선·후배의 비행행동이 많은 경우 부모나 주의 사람과의 대화가 더 많이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 검색의 경우에는 학업성적이 높은 집단이 더 많은 활동을 하였고, 이 역시 또래 비행이 많은 청소년이 인터넷 검색을 통한 진로탐색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진로관련 정보와 관련하여 주변 친구나 선·후배와의 정보공유에 있어 주변 또래들의 행동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공공기관(교육, 복지, 고용관련 기관 등)에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경우는 앞서 두 가지 유형의 진로정보탐색활동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변수에서도 다른 두 유형과는 다른 특징이 나타났는데, 학업중단 사유가 개인사유(건강, 심리·정신, 가정불화, 집안 경제사정)에 의한 경우 다른 경우에 비해 공공기관의 상담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으며, 학업중단 당시 진로·직업교육훈련 시설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받은 경우에 공공기관의 상담을 받을 확률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진로정보 탐색 경험

		부모님(주의 사람)과의 대화	인터넷 검색	공공기관 방문·상담
성별[남자]	여자	-0.008 (0.395)	0.936* (0.377)	1.176** (0.399)
	연령	-0.185 (0.232)	-0.269 (0.225)	-0.235 (0.225)
가구구성 [양부모]	한부모	-0.612 (0.424)	-0.145 (0.397)	-0.633 (0.426)
	부모 모두 안계심	-0.336 (0.496)	0.332 (0.483)	-0.042 (0.481)
가구경제수준 [상]	중	1.268* (0.531)	-0.714 (0.481)	0.014 (0.510)
	하	1.235* (0.546)	-0.262 (0.505)	0.632 (0.517)
학교성적[상]	중	-0.478 (0.571)	-1.278* (0.534)	0.946 † (0.561)
	하	-0.511 (0.438)	-1.526*** (0.431)	0.352 (0.449)
학업중단 사유 [개인사정]	학교사유	-1.018 (0.629)	-0.732 (0.598)	-1.798** (0.596)
	대안교육을 위해서	-0.118 (0.727)	-1.476* (0.700)	-1.967** (0.695)
	문제행동으로	-0.535 (0.787)	-0.662 (0.758)	-2.618** (0.806)
	부모의 정서적 지원	1.464*** (0.364)	0.515 (0.331)	0.657 † (0.359)
	부모의 경제적 지원	0.319 (0.278)	0.373 (0.265)	0.169 (0.263)
	부모의 방임	-0.475 (0.437)	-0.159 (0.399)	0.450 (0.417)
	부모의 학대	-0.196 (0.264)	-0.315 (0.253)	-0.178 (0.272)
	또래 애착	0.324 (0.344)	-0.318 (0.316)	-0.355 (0.343)
	또래 비행	0.747* (0.342)	0.875** (0.321)	0.345 (0.337)
	자아존중감	0.456 (0.418)	0.363 (0.396)	0.642 (0.412)
	자아탄력성	0.268 (0.435)	0.330 (0.419)	-0.614 (0.430)
	우울감	0.957 † (0.494)	0.395 (0.455)	0.449 (0.458)

	총동성	-0.019 (0.409)	-0.693 † (0.376)	-0.180 (0.382)
학업중단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0.037 (0.408)	0.348 (0.383)	0.119 (0.397)
	2년 이상	0.391 (0.601)	0.643 (0.587)	0.506 (0.588)
진로·직업교육훈련시설 정보		0.484 (0.416)	0.043 (0.392)	1.515*** (0.399)
k1		3.590 (4.736)	-4.613 (4.683)	-1.453 (4.707)
k2		4.861 (4.734)	-3.688 (4.675)	-0.414 (4.702)
k3		8.087 (4.765)	-1.214 (4.674)	1.365 (4.712)
Log likelihood		-143.431	-172.753	-164.333
관측수		151		

주: [ ]는 기준범주를 ( )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p<0.1, \*p<0.05, \*\*p<0.01, \*\*\*p<0.001

공공기관의 상담을 통한 진로정보탐색활동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한계효과를 분석하였다. 학업중단 사유가 개인적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학교, 대안교육, 문제행동)에 의한 경우 공공기관의 상담을 통한 진로정보탐색 활동 참여 확률은 14.1%p ~ 26.0%p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중단 당시 진로나 직업교육훈련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는 평균에서 1단위 높아질 때 참여확률이 약 14%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진로정보 탐색을 위한 공공기관(교육, 복지, 고용관련) 방문·상담 경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arginal effect after ologit		0.484*** (0.036)	0.195*** (0.032)	0.223*** (0.032)	0.099*** (0.023)
성별[남자]	여자	-0.238** (0.076)	0.026* (0.013)	0.113** (0.041)	0.099* (0.039)
연령		0.047 (0.044)	-0.006 (0.007)	-0.022 (0.021)	-0.018 (0.017)
가구구성 [양부모]	한부모	0.126 (0.082)	-0.021 (0.016)	-0.061 (0.040)	-0.044 (0.030)
	부모 모두 안계심	0.008 (0.096)	-0.001 (0.009)	-0.004 (0.046)	-0.004 (0.040)
가구경제수준 [상]	중	-0.003 (0.101)	0.001 (0.019)	0.001 (0.049)	0.001 (0.032)
	하	-0.126 (0.101)	0.015 (0.016)	0.061 (0.050)	0.050 (0.039)

학교성적[상]	중	-0.188 † (0.108)	0.023 (0.018)	0.091 † (0.053)	0.075 (0.047)
	하	-0.070 (0.089)	0.013 (0.019)	0.034 (0.043)	0.023 (0.028)
학업중단 사유 [개인사정]	학교사유	0.326*** (0.086)	0.033 (0.035)	-0.141** (0.041)	-0.218* (0.095)
	대안교육을 원해서	0.361** (0.110)	0.027 (0.037)	-0.159** (0.053)	-0.229* (0.098)
	문제행동으로	0.491*** (0.130)	-0.008 (0.052)	-0.223** (0.068)	-0.260** (0.095)
부모의 정서적 지원		-0.130 † (0.069)	0.018 (0.012)	0.063 † (0.034)	0.049 † (0.028)
부모의 경제적 지원		-0.034 (0.052)	0.005 (0.007)	0.016 (0.025)	0.013 (0.020)
부모의 방임		-0.089 (0.082)	0.012 (0.012)	0.043 (0.040)	0.034 (0.032)
부모의 학대		0.035 (0.054)	-0.005 (0.008)	-0.017 (0.026)	-0.013 (0.020)
또래 애착		0.070 (0.068)	-0.010 (0.010)	-0.034 (0.033)	-0.027 (0.026)
또래 비행		-0.068 (0.067)	0.010 (0.010)	0.033 (0.032)	0.026 (0.026)
자아존중감		-0.127 (0.081)	0.018 (0.013)	0.061 (0.040)	0.048 (0.032)
자아탄력성		0.122 (0.085)	-0.017 (0.014)	-0.059 (0.042)	-0.046 (0.033)
우울감		-0.089 (0.091)	0.012 (0.014)	0.043 (0.045)	0.034 (0.035)
충동성		0.036 (0.076)	-0.005 (0.011)	-0.017 (0.037)	-0.013 (0.029)
학업중단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0.024 (0.078)	0.004 (0.012)	0.012 (0.038)	0.009 (0.029)
	2년 이상	-0.100 (0.115)	0.010 (0.011)	0.048 (0.055)	0.041 (0.052)
진로·직업교육훈련시설 정보		-0.301*** (0.071)	0.014 (0.017)	0.145** (0.042)	0.143** (0.048)
연속변수의 조건부 평균치	연령			17.086	
	부모의 정서적 지원			2,901	
	부모의 경제적 지원			2,726	
	부모의 방임			2,069	
	부모의 학대			1,874	
	또래 애착			3,265	
	또래 비행			1,693	
	자아존중감			2,946	
	자아탄력성			2,841	
	우울감			2,013	
	충동성			2,038	

주: [ ]는 기준범주를 ( )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p<0.1, \*p<0.05, \*\*p<0.01, \*\*\*p<0.001

### 3. 학업중단청소년의 미래 인식

〈표 1〉에서 보면 취업형 학업중단청소년 중 취업을 향후 진로계획으로 설정한 경우는 25.9%이며, 진학과 학업은 40.8%로 취업형 학업중단청소년이라 하더라도 향후 진로로는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향후 진로를 취업으로 결정한 청소년과 진학·학업, 그리고 취업과 진학을 병행하고자 하는 청소년들 간의 특성을 비교해 보았다<sup>4)</sup>. 기준 집단을 진학·학업을 계획한 청소년 집단으로 하여 취업을 계획하는 집단과 취업 및 진학 병행 계획 집단에 대해 다항로지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를 보면 한부모가정 청소년이 양부모가정 청소년에 비해 진학·학업보다는 취업을 결정할 확률이 29.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가 모두 안 계신 청소년과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낮은 청소년, 학업중단 당시 진로·직업교육훈련 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청소년이 진학·학업보다는 취업을 계획할 확률이 높았다. 한편, 취업과 진학을 병행하고 싶은 청소년의 경우는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높은 청소년, 그리고 학업중단 당시 진로·직업교육훈련 시설에 관한 정보를 덜 제공받은 청소년일수록 취업과 진학 병행을 계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취업형 학업중단청소년의 향후 취업계획 결정요인

		진학·학업	취업 vs 진학·학업		취업+진학 vs 진학·학업	
		한계효과	추정계수	한계효과	추정계수	한계효과
상수		0.550*** (0.038)	-1.129 † (0.660)	0.349*** (0.039)	-3.257 † (1.903)	0.101*** (0.023)
성별[남자]	여자	0.261* (0.109)	0.285 (0.412)	-0.135 (0.103)	-0.689 (0.901)	-0.126 † (0.071)
연령		-0.026 (0.073)	1.541* (0.764)	0.069 (0.071)	-0.211 (1.456)	-0.042 (0.047)
가구구성 [양부모]	한부모	-0.239 † (0.126)	-0.267 (0.777)	0.298* (0.130)	-1.717 (1.809)	-0.059 (0.074)
	부모 모두 안계심	0.088 (0.128)	-0.946 (0.889)	-0.009 (0.120)	0.997 (1.754)	-0.079 (0.075)
가구경제수준 [상]	중	0.124 (0.158)	-0.274 (0.905)	-0.195 (0.155)	-0.017 (1.859)	0.071 (0.070)
	하	0.047 (0.165)	-0.307 (1.044)	-0.053 (0.170)	4.792 † (2.658)	0.005 (0.067)
학교성적[상]	중	-0.089 (0.167)	0.589 (0.743)	-0.126 (0.149)	3.610 † (1.890)	0.215 † (0.121)

4) 취업을 계획한 청소년과 그 밖의 청소년(학업, 무업, 혼합형)을 비교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취업 계획 집단에 속할 확률에 관련이 있는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업중단사유 [개인사정]	하	-0.154 (0.128)	-2.065 (1.259)	0.052 (0.127)	-5.242* (2.242)	0.102 † (0.052)
	학교사유	0.437** (0.143)	-1.621 (1.335)	-0.114 (0.178)	-3.186 (2.000)	-0.323 † (0.168)
	대안교육을 원해서	0.303 † (0.164)	-2.794 † (1.460)	-0.086 (0.200)	-23.230 (1137.815)	-0.217 (0.186)
	문제행동으로	0.593*** (0.169)	1.512* (0.647)	-0.213 (0.204)	4.010* (1.649)	-0.380* (0.155)
부모의 정서적 지원		-0.338** (0.114)	-0.521 (0.456)	0.172 (0.107)	-1.620 † (0.941)	0.166** (0.061)
부모의 경제적 지원		0.123 (0.079)	1.387* (0.690)	-0.053 (0.077)	1.936 (1.583)	-0.069 (0.045)
부모의 방임		-0.265* (0.120)	-0.405 (0.398)	0.201 † (0.118)	0.989 (0.813)	0.064 (0.074)
부모의 학대		0.037 (0.069)	-0.398 (0.611)	-0.098 (0.066)	-0.056 (0.899)	0.060 (0.037)
또래 애착		0.063 (0.105)	-0.792 (0.571)	-0.070 (0.103)	0.695 (1.141)	0.007 (0.043)
또래 비행		0.105 (0.097)	-0.289 (0.650)	-0.160 † (0.094)	0.402 (1.486)	0.055 (0.052)
자아존중감		0.034 (0.117)	-2.102* (0.852)	-0.062 (0.112)	-2.814 † (1.446)	0.028 (0.071)
자아탄력성		0.399** (0.137)	-0.087 (0.819)	-0.308* (0.133)	1.218 (1.659)	-0.091 (0.059)
우울감		-0.018 (0.146)	0.634 (0.636)	-0.046 (0.138)	-0.572 (1.088)	0.064 (0.077)
충동성		-0.083 (0.110)	0.786 (0.658)	0.128 (0.103)	2.269 (1.441)	-0.045 (0.050)
학업중단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0.172 (0.116)	-0.792 (1.068)	0.101 (0.113)	2.534 (2.485)	0.071 (0.051)
	2년 이상	0.024 (0.180)	1.095 (0.699)	-0.155 (0.137)	-3.283 (2.279)	0.131 (0.141)
진로·직업교육훈련시설 정보		-0.141 (0.125)	1.004 † (0.541)	0.259* (0.123)	1.457 (1.029)	-0.118** (0.041)
학습부적응		-0.193* (0.095)	-3.133 (7.714)	0.144 (0.092)	-2.153 (20.608)	0.049 (0.047)
연속변수의 조건부 평균치	연령	17.055		17.055		17.055
	부모의 정서적 지원	2.842		2.842		2.842
	부모의 경제적 지원	2.755		2.755		2.755
	부모의 방임	2.062		2.062		2.062
	부모의 학대	1.917		1.917		1.917
	또래 애착	3.330		3.330		3.330
	또래 비행	1.706		1.706		1.706
	자아존중감	2.950		2.950		2.950
	자아탄력성	2.833		2.833		2.833
	우울감	1.988		1.988		1.988
충동성	2.022		2.022		2.022	
학습부적응	2.676		2.676		2.676	
Log likelihood				-67.108		
관측수				109		

주: [ ]는 기준범주를 ( )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p(0.1, \*p(0.05, \*\*p(0.01, \*\*\*p(0.001

〈표 9〉에서 분석한 청소년(학업·진학 계획, 취업 계획, 취업+진학 계획)향후 진로계획의 달성 가능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동일한 진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남자보다는 여자가 달성 가능성을 더 높게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부모 방임의 경우에는 보통수준 내외(그렇지 않다. 그렇다)에서는 부모방임 수준이 평균보다 높을수록 응답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달성 가능성에 대해 강한 긍정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방임 수준이 낮을수록 그 응답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소 해석에 어려움이 있으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부모방임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경우 미래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불확실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계획의 달성 가능성에 대한 강한 긍정에는 부모의 관심이 크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학대 변수에서도 해석상의 모호함이 나타났다.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학대 수준이 높을수록 미래 계획의 달성 가능성을 강하게 긍정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역시 가정의 부정적인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미래 계획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보다 반드시 달성해야 하겠다는 의지로 표명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또래 애착과 비행 수준의 경우에는 달성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 일관성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두 변수 모두 그 수준이 높을수록 미래 계획의 달성가능성에 대한 강한 긍정의 응답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학업중단 이후 주변 친구들의 행동이나 관계형성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향후 진로계획의 유형(진학·학업, 취업, 취업+진학)은 다른 개인특성이 동일한 수준에서는 달성 가능성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다.

〈표 10〉 미래 진로계획의 실현 가능성

		추정계수	한계효과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arginal effect after ologit			0.021 (0.012)	0.090*** (0.026)	0.620*** (0.043)	0.268*** (0.036)
성별[남자]	여자	1.343* (0.559)	-0.008 (0.008)	-0.070* (0.033)	-0.147* (0.071)	0.225* (0.093)
	연령	0.154 (0.303)	-0.001 (0.003)	-0.009 (0.018)	-0.014 (0.028)	0.024 (0.048)
가구구성 [양부모]	한부모	-0.747 (0.579)	0.006 (0.007)	0.043 (0.037)	0.067 (0.052)	-0.116 (0.087)
	부모 모두 안계심	-0.559 (0.624)	0.004 (0.006)	0.030 (0.037)	0.056 (0.059)	-0.091 (0.097)
가구경제수준 [상]	중	0.442 (0.770)	-0.004 (0.007)	-0.027 (0.051)	-0.038 (0.058)	0.068 (0.113)
	하	0.107 (0.762)	-0.001 (0.007)	-0.007 (0.052)	-0.007 (0.049)	0.015 (0.108)
학교성적[상]	중	-0.795 (0.788)	0.006 (0.008)	0.045 (0.050)	0.073 (0.071)	-0.124 (0.119)

학업중단 사유 [개인사정]	하	-0.544 (0.583)	0.004 (0.005)	0.028 (0.029)	0.058 (0.069)	-0.089 (0.098)
	학교사유	-1.135 (0.913)	0.006 (0.006)	0.049 (0.032)	0.150 (0.154)	-0.205 (0.182)
	대안교육을 원해서	-1.070 (1.013)	0.005 (0.007)	0.045 (0.040)	0.145 (0.158)	-0.195 (0.194)
	문제행동으로	-0.971 (1.185)	0.005 (0.007)	0.039 (0.052)	0.136 (0.172)	-0.180 (0.220)
부모의 정서적 지원		0.140 (0.470)	-0.001 (0.004)	-0.008 (0.028)	-0.013 (0.042)	0.022 (0.073)
부모의 경제적 지원		-0.332 (0.368)	0.003 (0.004)	0.019 (0.022)	0.030 (0.034)	-0.052 (0.057)
부모의 방임		-2.370*** (0.662)	0.019 (0.016)	0.138** (0.049)	0.212* (0.086)	-0.369*** (0.102)
부모의 학대		0.815* (0.345)	-0.006 (0.006)	-0.048* (0.023)	-0.073 † (0.037)	0.127* (0.054)
또래 애착		1.537** (0.561)	-0.012 (0.011)	-0.090* (0.039)	-0.138* (0.064)	0.239** (0.086)
또래 비행		1.228* (0.476)	-0.010 (0.009)	-0.072* (0.033)	-0.110* (0.051)	0.191** (0.072)
자아존중감		0.845 (0.605)	-0.007 (0.007)	-0.049 (0.037)	-0.076 (0.059)	0.132 (0.095)
자아탄력성		0.917 (0.618)	-0.007 (0.008)	-0.054 (0.038)	-0.082 (0.060)	0.143 (0.096)
우울감		-0.660 (0.653)	0.005 (0.007)	0.039 (0.039)	0.059 (0.061)	-0.103 (0.102)
충동성		-0.931 † (0.530)	0.007 (0.007)	0.054 (0.034)	0.083 (0.051)	-0.145 † (0.082)
학업중단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0.003 (0.540)	0.000 (0.004)	0.000 (0.030)	0.000 (0.052)	0.000 (0.086)
	2년 이상	-0.834 (0.882)	0.008 (0.013)	0.061 (0.077)	0.041 (0.040)	-0.111 (0.106)
진로·직업교육훈련시설 정보		-0.749 (0.553)	0.007 (0.008)	0.050 (0.043)	0.049 (0.031)	-0.106 (0.072)
진로계획 [친학·학업]	취업	1.108 † (0.570)	-0.007 (0.007)	-0.061 † (0.034)	-0.111 † (0.066)	0.179 † (0.093)
	취업+진학	0.455 (0.818)	-0.004 (0.007)	-0.031 (0.051)	-0.030 (0.068)	0.065 (0.124)
k1		1.640 (5.954)				
k2		4.171 (5.898)				
k3		8.439 (5.968)				
연속변수의 조건부 평균치	연령	17.055				
	부모의 정서적 지원	2.842				
	부모의 경제적 지원	2.755				
	부모의 방임	2.062				
	부모의 학대	1.917				
	또래 애착	3.330				
	또래 비행	1.706				
	자아존중감	2.950				
	자아탄력성	2.833				
	우울감	1.988				
충동성	2.022					
Log likelihood		-78.065				
관측수				109		

주: | |는 기준범주를 ( )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p<0.1, \*p<0.05, \*\*p<0.01, \*\*\*p<0.001

#### IV.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중 학업중단 이후 취업형 경로를 선택한 청소년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특성과 진로 관련 경험, 그리고 미래 계획과 인식에 대한 관련 특성변수가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취업형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은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학업중단 사유에 대해 대다수 학교에 대한 부적응이나 불필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응답한 반면, 교사나 친구, 학교규칙에 대해서는 강한 부정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학업중단의 위기요인을 하나의 차원에서 해석하기 보다는 복합적 요인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형 학업중단청소년의 특성은 다른 유형의 청소년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을 발견하였다. 그 중 괄목할 부분이 가정환경과 학업중단 당시 진로나 직업에 대한 정보제공이다. 대체로 양부모가정보다는 부모가 안계시는 가정의 청소년이, 그리고 부모님을 비롯한 보호자의 경제적 지원이 적은 청소년들이 취업형 경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학업중단 기간이 1년 미만인 집단에 비해 더 긴 집단의 경우 취업형 경로를 선택할 확률은 낮아진다는 점이다. 학업중단 원인을 학교의 불필요성, 또는 학교규칙이나 학습에 대한 부적응, 교사나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당분간의 시기에는 취업에 관심이 높아지나, 시간이 지나면 학업보완이나 지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연령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취업형 경로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이 동일한 집단에 대해 학업중단 기간이 긴 집단이 반대로 취업형 경로 선택확률이 낮아진다는 점은 결국 우리나라 사회에 존재하는 학력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도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형 경로를 선택하였더라도 취업에 국한된 지원을 넘어 어느 시점에서는 학력보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진로정보 탐색은 학업중단청소년들이 학업중단 당시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복합절차, 대안교육기관 정보, 검정고시방법, 청소년시설 및 진로·직업교육훈련 시설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학업중단 당시 제공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모든 항목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보부족은 학업중단 이후의 진로탐색이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업중단 이후에라도 학교가 아닌 다른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취업형 학업중단 청소년의 상당수는 부모님이나 주의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진로와 관련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기관 등 전문기관에 방문하여 정보를 얻는 경우는 30%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물론 인터넷 검색을 통한 정보탐색도 상당수(약 64%) 있었지만, 인터넷을 통한 정보습득에는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부정확하거나 비전문적인 진로정보가 많다는 것이다. 충분한 비판능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있어 이러한 정보는 왜곡된 진로결정을 야기하는 문제를 낳게 된다. 물론 전문적인 공공기관이 무료로 제공하는 정보 웹사이트가 있으나, 이 역시 학업중단청소년들이 그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한 접근성에 제약이 많고, 여러 정보에 대한 선별과 탐색은 여전히 전문적인 도움 없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얻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국 학업중단청소년이 최소한 학교에서 제공되는 진로정보 또는 그 이상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분석결과에서 보면 청소년 개인의 자발성에 크게 의존되어 있거나, 학업중단 시점에서의 관련 정보를 얻은 경우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학업중단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진로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경우이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교 혹은 중단 전후에 얻은 관련 정보에 더해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에 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중단 시점에서 보다 풍부하고 구체적인 정보제공과 청소년들의 자기이해, 특히 학업중단 요인 탐색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또한 학업중단 이후의 청소년들이 전문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콘텐츠나 프로그램 등을 홍보함과 동시에 학업중단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취업형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향후 진로계획에 대해 취업보다는 진학학업을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력보완에 대한 욕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다만 취업을 진로계획으로 결정한 청소년들의 특성에서는 여전히 가구의 구성형태 및 학업중단 당시 관련 정보 습득과 높은 관련성이 나타났다. 특히 취업형 경로를 선택한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위기요인과 매칭된 취업관련 정보제공은 그들이 학업중단 이후 안정적인 체계적인 취업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선행연구(김강호 외, 2013; 최동선 외, 2009)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진로계획의 모호함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상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부 변수에서 취업형 학업중단청소년들의 모호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본 연구의 분석결과 상의 제한점으로 밝히고자 한다. 학업중단 사유와 학업중단 당시 학교에 대한 인식 차이와 더불어 미래 진로 인식에서도 몇 가지 환경적 요인들(부모의 방임과 학대, 또래 애착과

비행 등)의 관계에서 일관적인 관련성을 띠지 않는 부분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모형 설정과 관계 분석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취업형 학업중단청소년 표본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과 학업중단요인이 편중되어 나타나고 있어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가 단년도 조사가 아닌 패널조사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향후 후속적인 패널분석을 통해 여러 변수간의 정확한 관계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윤철경 외(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동선 외(2009).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진로개발 지원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강호 외(2013). 학업중단 청소년 진로지도 실태조사. 한국고용정보원.
- 박창남 외(2001). 중도탈락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윤철경 외(2010).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이숙영·남상인(1997).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 연구. 청소년 대화의 광장.
- 배주미 외(2010). 취약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개발. 한국청소년상담원.
- 서정아 외(2006). 학교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경상·조혜영(2005).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설정 및 준비실태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18(2), 41-64.
- 정해숙 외(2011).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표 3

.....

**학업중단 후 무업형 청소년들,  
특성과 경험, 의식**

유 성 렬  
(백석대학교 교수)

# 학업중단 후 무업형 청소년들, 특성과 경험, 의식

## 1. 서론

최근 정부는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을 골자로 하는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교육부·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3. 11. 28). 이에 따르면, 2012학년도에 학교를 떠난 학생은 약 6.8만명으로 학업중단율이 1.0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이나 독일 등의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학업중단이 지니는 학업 중단 당사자 개인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상당히 중요한 생애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생애 과정(life course)의 관점에서 볼 때, 학업중단은 향후 전개되는 삶의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학교 교육이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청소년이 성장하여 사회에서 성인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형성하게 해 준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 졸업장으로 대변되는 자격(credential)의 획득은 노동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인적 자본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잣대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 사회처럼 개인의 소유하고 있는 인적 자본의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학벌과 같은 잣대로 대변되는 질적인 측면까지 강조하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80%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사회에서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학업을 중단하는 것은 이러한 인적 자본 형성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

물론 학교를 떠나는 모든 청소년들이 학업을 완전히 등지는 것은 아니며, 검정고시 등을 통하여 비록 정규학교는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인적 자본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인적 자본의 가치를 입증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으며, 이것이 정규학교 졸업과 동등한 효과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윤철경 외, 2013).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학업중단은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기곤(2011)의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학업 중단은 개인적으로는 8,142만원의 생애 근로소득을 감소시키는 것과 더불어 624만원의 근로소득세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게다가 범죄 증가로 인한 600만원 수준의 사회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재산소득이나 소비세, 개인의 건강이나 사회적 생산성 등의 측면까지 고려할 경우 학업중단으로 인해 야기되는 경제적 손실은 앞에 제시된 금액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업중단은 단순히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행위라는 차원을 넘어서 학업중단 당사자는 물론 그가 속해 있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학업중단을 예방함과 동시에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왜 학업중단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업중단과 관련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학업중단의 원인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어 왔다(김지혜·안치민, 2006; 문용린 외, 2009; 손충기 외, 2012; 이자영, 2010 등). 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학업중단의 원인들은 크게 개인적 요인, 가정 내 요인, 학교 요인, 사회 제도적 요인 등으로 구별될 수 있으며, 각각의 요인들이 학업중단 결정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업중단 요인에 대한 탐색 및 학업중단 청소년 자신이 제시한 학업중단 사유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업중단을 예방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학업중단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이미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김선아, 2012; 윤철경 외, 2013; 오혜영 외, 2011; 조규필 외, 2011 등). 이러한 연구들은 학업중단 이후 삶에 적응하는 과정을 밝히는데 초점을 둔 연구들로서, 학업중단으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게 어떤 종류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연구들은 학업중단에 관한 연구들 가운데 그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로는 우선적으로 연구 대상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학업중단의 원인 혹은 학업중단 위기요인들을 밝히는 연구의 경우 연구대상은 학교로부터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반면, 학업중단 이후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연구대상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특히 이들을 대상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며,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들은 학원이나 가출청소년 관련 시설 등 특정 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학업중단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학업중단이 갖는 두 가지 맥락 가운데 하나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다. 학업중단의 또 다른 측면은 이미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 자신 뿐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실태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 따라서 그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으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이후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의 삶은 다양한 방식으로 영위되고 있다. 대안학교나 학원 등을 통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혹은 전일제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성인들이 염려하듯이 비행 청소년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집단은 앞서 언급한 생활 유형과는 달리, 학업중단 이후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흔히 무업형(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라 불리는 집단이다. 본 연구에서 이 집단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집단이 학업중단 청소년들 가운데 가장 문제시 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업중단 이후 학업을 지속하거나 취업하기 위한 준비 혹은 취업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다르더라도 일정한 목표를 갖고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방치가 의도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이들을 대상으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 가운데 소위 무업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유형의 학업중단 청소년들과 달리 그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특성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무업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선행 연구 고찰

학업중단 이후 삶의 유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학업중단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정 시점 혹은 기준 시점에서 학업중단자 수를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강태훈·박주호(2013)의 연구에 따르면, 2012학년도에 초·중·고 학생 가운데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수는 68,138명으로 전체 재적생 6,721,176명의 1.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0.57%, 중학생은 0.89%, 고등학생은 1.82%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업중단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한 해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의 수만을 집계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초·중·고등학교 학령기에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의 수, 즉 전체 학업중단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2년에 걸친 학업중단자 현황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윤철경 외(2013)의 연구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령인구<sup>1)</sup>는 모두 7,128,098명이며, 이 가운데 2012년에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학생 수는 6,721,176명으로 조사되었다. 이 두 수치의 차이에 해당하는 404,922명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해당 12년의 기간 동안 중도입국이나 외국인 가정의 자녀의 학생 수는 6,914명이고, 소위 정규학교가 아닌 기타 학제 학교<sup>2)</sup>의 학생 수는 50,231명이며, 그 외 평생교육시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유학/이민자, 해외이주/파견동행자, 직업훈련기관 재학자, 보호관찰, 소년원, 소년교도소, 장기입원 등으로 인해 83,345명의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를 모두 감안할 때, 278,600명의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파악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수가 36.2만 명 정도이며, 이 가운데 학업중단 이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청소년의 수는 약 17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3. 11. 28).

윤철경 외(2013)의 연구와 정부 보도자료에 나타난 실태 미확인 청소년의 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주요 원인으로서는 학업 중단 이후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비교적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수치도 상당 부분 추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매년 약 7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고 학교에 다녀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수가 약 40만 명 정도이므로, 이 가운데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청소년들의 수가 적게는 17만 명에서 많게는 약 28만 명 정도에 달하고 있지만, 이 수치도 정확한 집계 결과라기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에 바탕을 두고

1) 2012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연령의 출생인구에서 사망자 및 이민자를 제외한 인구

2) 특수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산업체부설학교, 산업체특별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등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학령기 청소년 현황(2012년 기준)

(단위 : 만명)

학령인구 (중도입국 포함)	구 성					
	학생	각종 교육시설, 유학, 보호관찰 등	기타(약 28만명)			
			취업자	청소년쉼터 아동복지시설	검정고시 준비	실태 미확인
713.3	677.1	8.3	5.1	2.5	3.3	17

출처 : 교육부·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참고자료(2013. 11. 28), 2쪽

그렇다면 왜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두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학업중단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은 학업중단을 가져오는 원인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김범구(2012)는 2012년 이후 학업중단 청소년과 관련하여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44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기존의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학업중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표 2〉 참고). 학업중단과 관련이 있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은 개인적 특성, 가정 환경적 특성, 학교 생활 관련 요인, 또래 관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개인적 특성으로는 자기조절동기, 유능감, 무기력함 등이 학업중단을 부추기는 반면, 하고 싶은 일을 찾거나 자신에 대한 이해 정도가 높을 경우에는 학업중단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기존 연구들이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 가정 내 갈등 등이 학업중단과 관련이 있는 반면,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교 환경의 경우에는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가가 학업중단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그 외 졸업의 중요성이나 학업중단이 갖는 낙인 효과 등에 대한 인식 등도 학업중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인	위험요인	보호요인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안정한 정서상태</li> <li>· 낮은 자기조절동기</li> <li>· 낮은 유능감</li> <li>· 무기력함</li> <li>· 은둔형 외톨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고 싶은 일의 발견</li> <li>· 문제해결능력 증진</li> <li>· 높은 자기이해와 수용</li> <li>· 자신의 가능성 발견</li> </ul>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낮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li> <li>· 가정 내 갈등</li> <li>· 낮은 부모의 자율성 지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의 지지</li> <li>· 적극적인 부모 협조</li> <li>· 자녀에 대한 높은 이해</li> </ul>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내용 불만</li> <li>· 문제아로의 낙인</li> <li>· 높은 결석빈도</li> <li>· 학교유형(인문계, 전문계)</li> <li>· 교사에 대한 적대감</li> <li>· 낮은 학업성취 수준</li> <li>· 학교규칙에 대한 적대감</li> <li>· 학교 및 학업에 대한 거부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리 활동</li> <li>· 교사의 적극적-협조적 태도</li> <li>· 학업에 대한 흥미</li> </ul>
또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래의 괴롭힘</li> <li>· 자퇴친구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친구관계 형성</li> <li>· 친구의 관심, 조언</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과다 사용</li> <li>·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졸업장의 필요성 인식</li> <li>· 학업중단 결과 예상</li> <li>· 사회적 평가에 대한 우려</li> </ul>

출처 : 김범구(2012) 325쪽에서 인용

이와 유사하게 문용린 외(2009)의 연구도 학업중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 학교 체제 측면, 사회 체제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적 요인은 가정배경, 교내 행동 및 태도, 교외 행동 및 태도, 개인의 심리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김범구(2012)의 연구에 나타난 대부분의 요인들과 중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용린 외(2009)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 수나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제적 수준 등의 구조적 특성, 교칙 운영의 엄격성, 경직된 교육과정 운영, 형식적인 수준에서의 학교 분위기 등의 학교 체제 요인들이 학업중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끌어내는 사회적 요인으로 향락산업의 범람과 이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향락산업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의 증대, 지역사회 내에 학업중단에 우호적인 집단과의 접촉과 상담기관 등과 같은 청소년 지원 체계의 부재 등을 들고 있다.

문용린 외(2009)의 연구가 지니는 중요한 시사점은 학업중단을 이해하는 데 있어 주변 환경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업중단의 문제는 단순히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즉 가정, 학교, 또래와의 관계, 지역사회의 특성 등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학업중단 이후의 삶의 양상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학업중단 청소년을 유목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 둔 이후의 생활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던 학교를 벗어남으로써 자신의 일과를 스스로 구성하여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삶의 양식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이후 삶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학업중단자의 유형을 구성하는데 우선적인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이숙영·남상인(1997)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사회 적응형과 부적응형으로 구분하고, 사회 적응형은 진학형, 취업형, 취업준비형으로, 부적응형은 보호 및 관리체계에 소속된 청소년(소년원, 보호관찰, 요양 등)과 이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비행청소년, 유흥업소 취업청소년, 가출 청소년, 방치된 정신질환 청소년)으로 세분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이경상·조혜영(2005)은 학업중단자들의 진로 설정 유형을 중단된 학업을 마치고 난 뒤 정규직업을 가지려는 진학지향형, 중단된 학업을 마치지 않은 채로 취업이나 창업에 나서는 취업지향형, 아르바이트를 갖고 생활비와 용돈을 충당하는 방임형으로 분류하였다(이경상·조혜영, 2005: 47-48).

또한 윤철경 외(2010)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어 분류를 시도하였는데, 무엇인가 배우고 있는 학습지향형, 어떤 형태로든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취업/알바형,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무업(NEET)형, 보호관찰 및 소년 교도소 경험자를 비행형으로 구분하였다. 윤철경 외(2010)의 분류가 갖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업형을 별도의 유형으로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학교를 그만 두는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직후에 특정한 일을 할 가능성은 학업중단 이후의 삶에서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이외에 학교 부적응이나 가정 상황의 문제 등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학업 중단 이후 특정한 목표 없이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업형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삶을 유목화하는 과정에서 징검다리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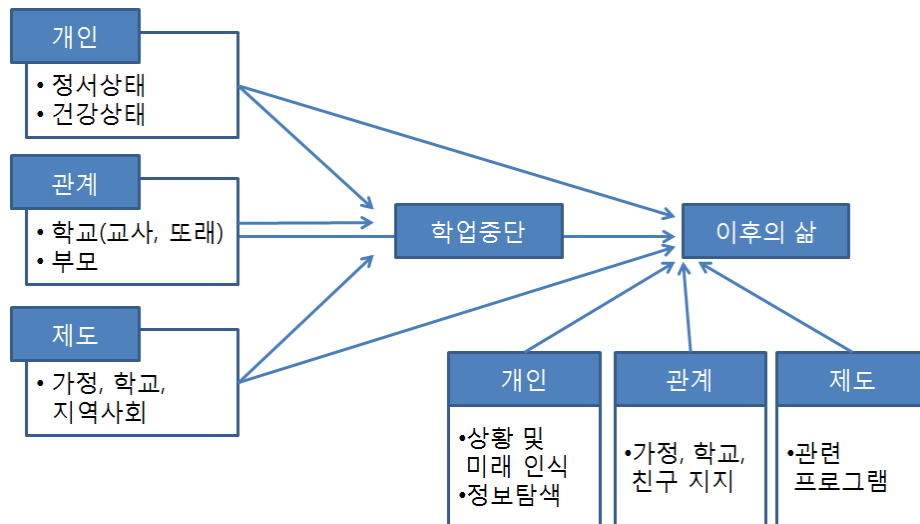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목화 노력은 김범구(2013)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범구

(2013)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을 설정하고자 한 기존의 연구들은 “소수의 사례 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유형과 함께 특성을 제시하거나, 연구자가 유형을 정해놓고 그 유형에 따른 응답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12쪽), 이보다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다양한 응답에 따른 반응을 토대로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학업중단 이후 향후 계획을 묻는 7개의 문항을 토대로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실시하여, 특별한 계획이 없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미결정중심형, 취업, 직업 훈련 준비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준비형, 복학준비나 검정고시 준비 등 진학준비형의 3개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우선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유형을 학업중단 이후 실제 행동 유형이 아닌 학업중단 이후의 계획을 중심으로 유형을 구분함으로써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실제 생활양식과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연구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유형 구분이 이론적 근거가 아닌 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유형을 구분하는 노력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특성 가운데 어떤 요인들이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 유형에 영향을 주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혜영 외(2011)는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까지의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학업을 지속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의 노력과 변화와 주변의 정서적 지지와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학력이나 졸업장에 대한 인식 변화, 주변 사람들의 권유, 자신의 결심과 정보탐색 노력, 가족의 권유, 상담자의 지지적 역할 등이 학교 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학업중단 관련 연구들을 분석한 김범구(2012)의 연구에서도 앞서 언급한 요인들과 더불어 교사의 지원, 학교 복귀하는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 등도 학업중단 이후 적응을 살펴보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학업중단 이후의 경로를 이해하는데 있어 윤철경 외(2013)의 연구는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윤철경 외(2013)는 학업중단 이후의 유형을 결정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생애과정접근(life course perspective)을 활용하고 있다. 생애과정접근은 “발달의 과정이나 결과는 개인이 취해 온 삶의 축적된 궤적에 의해 설명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윤철경 외, 2013: 39), 개인이 삶에서 경험하는 중요한 결과물은 삶의 어느 순간 발생한 특정 사건이라기보다는 과거 축적된 경험들로부터 나타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학업중단도 장기간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온 “학교로부터의 유리(disengagement) 과정”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업중단 이후의 삶의 유형 혹은 경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학업중단 자체를 설명하는 요인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은 학업중단의 유형을 결정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들의 경로, 적응 및 부적응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윤철경 외, 2013: 39)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철경 외(2013)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난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학업중단 이후의 삶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1】 생애과정 관점에 근거한 학업중단 청소년 전환 및 적응 모형  
(출처 : 윤철경 외(2013), 41쪽)

본 연구에서는 윤철경 외(2013)에서 제시된 생애과정 관점에 근거하여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 후 생활 양상을 유형화하고, 어떤 특성을 가진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이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등의 무업(NEET)형 양상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이후의 경로를 설정함에 있어 기존의 연구와 달리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생활 양상을 유목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양상들 가운데 가장 문제시 될 수 있는 무업형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앞서 언급한 생애과정적 관점에 기초하여 탐색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적 개입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3. 연구 방법

####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3년에 실시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의 1차년도 자료이다<sup>3)</sup>.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학업중단이 1년 미만인 중고등학교 학령기의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이다.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은 시도 교육청별로 학업중단자 명부를 받아 조사를 실시하였나, 당초 계획한 목표 표본 수를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스노우볼링, 웹 홍보, 상담지원센터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표본을 확보하였으며, 이 외에도 직업훈련기관, 자활지원관, 검정고시학원, 대안교육기관에 일정 쿼터를 배분하여 조사 대상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보호관찰 청소년은 전국 56개 보호관찰소 가운데 10개를 선정하여 각 보호관찰소 별로 20명씩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의 현황은 <표 3>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자 996명 가운데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을 제외한 776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분석 대상 자료의 경로별 응답자 수(부적격 응답자 삭제 기준)

구 분		1차조사 데이터 처리분석 표본 수	1차조사 데이터 미포함 표본 수	2차조사 추가 표본 수	최종 조사완료 패널 수	
개별 명단	정규학교	192	50	107	349	
	스노우볼링	19	14	16	49	
	상담복지센터	60	94	-	154	
기관 접촉	직업	직업훈련기관	33	17	-	50
		자활지원관	4	3	-	7
	학업	검정고시학원	148	-	-	148
		대안교육기관	18	1	-	19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소계		474	179	123	<b>776</b>	
기관	보호관찰소	190	30	-	2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소계		190	30	-	22	
전 체		664	209	123	996	

출처 : 윤철경 외(2013), 114쪽

3) 표본설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윤철경 외(2013) 참조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주요 연구문제는 학업중단 이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소일하고 있는 무업(NEET)형 청소년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학업중단 이후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생활 유형 가운데 무업형이라는 방식을 갖게 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 패턴, 혹은 학업중단 이후의 삶의 경로를 측정하고 이로부터 무업형 청소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sup>4)</sup>.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에서는 가장 최근의 학업을 중단한 경험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시점부터 1년 전까지 복학하여 학교에 다니는 경우, 대안학교에 다니는 경우, 검정고시공부(학원)를 하는 경우, 직업기술을 배우는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한 한 경우,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논 경우, 가출을 하거나 비행한 경우 등에 대하여 월별로 해당 활동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동일한 시기에 중복하여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표에 주어진 13개월의 기간 동안 특정 달에 특정 활동을 한 것은 모두 표시하도록 하였다.

조사 설문지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3개월 동안 학업중단 이후 경험을 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지만, 최근 학업중단 시점이 응답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표시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합산하여 사용하기 보다는 학업중단 시점을 감안하여 경험 기간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응답자별로 가장 최근의 학업중단 시점을 산출하고 이로부터 조사 시점까지의 기간을 학업중단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설문지에 주어진 여러 경험들을 범주화하여 복학, 대안학교, 검정고시 공부의 경우는 학업형, 직업기술을 배우거나 아르바이트 또는 취업하여 일하는 경우는 직업형,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경우는 니트형, 가출을 하거나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는 비행형으로 묶어 각각의 유형별로 가출이후 조사시점까지 한 달이라도 해당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한 사례를 계수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체 776명의 학업중단 청소년 가운데 71.3%인 553명은 학업중단 이후 조사 시점까지 적어도 1달 이상 복학하여 학교에 다니거나 대안학교 또는 검정고시 공부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유형의 경험보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직업학교에 다니거나 아르바이트 등의 일을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8%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소일하며 지냈다고 응답한 비율도 59.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최근의 학업중단 이후

4) 학업중단 이후 삶의 유형을 측정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는 윤철경 외(2013)의 203~206쪽에서 발췌함

조사시점까지 적어도 한 달 이상 가출, 청소년 시설에 거주, 보호관찰,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9.8%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표 4 학업중단 이후 경험 분포**

(N=776)

해당 문항		해당 경험	
		사례수(명)	비율(%)
학업형	복학하여 학교에 다님	553	71.3
	대안학교에 다님		
	검정고시 공부를 함(검정고시 학원 등)		
직업형	직업기술을 배움(직업학교나 학원,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	402	51.8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무업형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460	59.3
비행형	가출하여 친구집이나 PC방 같은 데서 지내거나 가출팸과 함께 생활함	154	19.8
	보호시설(자립생활관, 청소년쉼터 등)에서 지냄		
	보호관찰을 받음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함		

최근의 학업중단 이후 조사시점까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생활이 〈표 4〉에 제시된 특정 구분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같은 기간 동안에 검정고시 공부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위의 4가지 유형이 중복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표4〉에 제시된 수치는 학업중단 이후 현재까지 적어도 한 달 이상 해당 경험을 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7월에 학교를 그만 둔 이후 2013년 7월까지 한 달만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구분에서는 직업형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학업중단 이후의 경험을 보다 의미있게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조사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위의 유형들이 발생한 비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학업중단 이후 조사 시점까지 각각의 유형을 경험한 개월 수를 동일한 기간 동안의 개월 수로 나누어 학업중단 이후 기간 동안 각 유형을 경험한 비율을 산출하고, 그 비율값을 0.5를 기준으로 하여 집단을 다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2013년 1월에 학교를 그만 둔 학생이 조사 시점까지 검정고시 공부를 한 개월 수가 4개월이라면, 그 비율이 0.5를 초과하므로 이 학생을

학업형으로 분류하였다.

표 5 학업중단 이후 생활 유형 구분

(N=776)

구 분		해당 경험	
		사례수(명)	비율(%)
학업	학업형	416	53.6
	비학업형	360	46.4
직업형	직업형	273	35.2
	비직업형	503	64.8
무업(NEET)형	무업형	301	38.8
	비무업형	475	61.2
비행형	비행형	92	11.9
	일반형	684	88.1

이와 같은 방식을 앞의 4개의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분류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업중단 이후 조사 시점까지의 기간 중 절반 이상의 기간을 학업과 관련한 경험에 투자한 청소년의 비율은 46.4%로 나타났다(〈표 5〉 참조).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간 동안 절반 이상의 기간에서 직업기술을 배우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일을 한 청소년의 비율은 35.2%였고, 학업중단 이후 절반 이상의 기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경우는 36.1%, 비행과 관련한 경험을 한 비율은 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 4가지 유형 가운데 무업(NEET)형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무업형 청소년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패널조사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 가운데 〈그림 1〉에 제시된 관점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우선 배경 변수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성별, 부모의 교육정도, 가정의 경제적 배경, 양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사용하였고, 학업 중단 당시 학교에서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업중단 당시의 학교급, 복학이나 검정고시 등 학업중단 이후 생활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 학업 성적,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습 부적응, 학교규범 위반, 학교폭력 피해 경험, 비행 경험 등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부모로부터 받는 정서적 및 경제적 지원 정도, 부모 방임 및 학대 수준을 사용하였으며, 학업 중단 이후의 상황과 관련하여 학업을 중단한 친구의 수, 향후의 진로 결정 여부, 진로관련 정보를 획득을 위한 활동, 학업중단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을 의식하는

정도 및 학업중단에 대한 만족 정도를 사용하였다. 각 변수의 측정 방법은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6 독립변인 측정 방법

변 수	측 정 방 법
성별	남=1, 여=0로 코딩
부모 교육정도	무학=1부터 대학원 졸업=7로 측정. 양부모에 대한 응답이 주어진 경우에는 평균 값을 사용하였으며, 한 부모에 대한 값만 주어진 경우에는 해당 값을 사용
가정의 경제적 배경	매우 못 산다=1부터 매우 잘 산다=7로 측정
양부모 동거여부	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1, 기타 0으로 코딩
학교급	학업중단 당시 중학교 재학=0, 고등학교 재학=1로 코딩
정보제공 여부	학업중단 당시 복학절차,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준비, 청소년시설, 진로나 직업 교육 관련 시설, 학업중단속려제에 대한 설명 등에 관한 정보 중 하나라도 제공받은 경우=1, 그렇지 않은 경우=0로 코딩
학업성적	학교를 그만 둘 당시의 성적에 대해 최하위권=1부터 최상위권=7로 측정
교사관계	①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었다, ②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었다, ③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었다의 3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친구관계	①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었다, ②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했다, ③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냈다, ④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친구들이 도와주었다의 4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학습 부적응	①학교 수업내용은 내 관심, 흥미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②학교 수업내용은 내 수준에 맞지 않았다, ③학교 수업을 알아듣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다의 3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학교규범 위반	지각, 무단결석, 두발·복장 등 규정위반, 숙제를 하지 않음, 수업을 몰래 빼 먹음, 선생님께 대들었음, 잘못된 행동을 하여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감의 7개 항목에 대한 응답값(1=전혀 없었다~5=거의 매일)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을 사용
학교폭력 피해경험	학업 중단 이전 집단 따돌림, 성적인 놀림, 문자나 메신저로 일방적으로 음란물 받기,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기, 폭행, 성폭력의 6개 문항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1, 그렇지 않은 경우=0로 코딩
문제행동	흡연, 음주, 절도, 폭행, 뺑뺑기, 음란물 보기, 도박, 자살 시도, 공공 기물 파손의 9개 문항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1, 그렇지 않은 경우=0로 코딩
부모의 정서적 지원	①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②나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③고민을 들어 주신다, ④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⑤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의 5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부모의 경제적 지원	①부모님은 나에게 용돈을 주신다, ②부모님은 내 공부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사 주신다, ③부모님은 내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의 3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부모 방임	①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으셨다, ②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셨다, ③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았다, ④내가 아플 때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의 4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부모 학대	①화를 낼 때는 주위에 아무거나 손에 닿는 대로 들고 때리셨다, ②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때리려고 하셨다, ③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때린 적이 많다, ④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는 4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학업중단 친구 수	친한 친구 중 학업중단한 친구의 수
향후 진로 결정	향후 진로에 대하여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1, 그 외의 경우=0로 코딩
진로정보 획득 활동	진로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①진로에 대해 부모님(또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②인터넷을 검색하였다, ③공공기관(교육, 복지, 공관련 기관 등)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는 3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학업중단에 대한 주변 의식	①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었다), ②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주위사람들이 문제가 취급을 하는 것 같(었다), ③학교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으니 불안하다는 3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학업중단 만족	①내가 선택한 결과이니 현재 생활에 만족한(했)다, ②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한(했)다(역코딩), ③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3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 3) 분석방법

학업중단 청소년 중 무업형 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무업형 여부를 중심으로 각 독립변수를 대상으로 측정 수준에 따라 t-검증이나 교차분석 등의 이변량분석(bivariat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무업형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단계별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우선 배경 요인의 3개 변수를 먼저 회귀식에 투입하였고, 2단계로 학업중단 시 상황을 나타내는 9개 변수, 3단계에서는 부모와의 관계를 위해 사용한 4개 변수, 마지막으로 중단 이후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5개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이러한 통계분석은 SPSS for Windows(Version 18)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 4. 분석 결과

### 1) 이변량 분석(bivariate analysis)

학업중단 이후 무업형의 생활을 하는 청소년들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있어 부모의 교육정도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7 무업형 청소년과 비무업형 청소년의 가정배경의 차이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부모 교육정도	비무업형	434	4.57	1.18	2.44*
	무업형	249	4.35	1.10	
가정의 경제적 수준	비무업형	475	3.80	1.22	1.00
	무업형	301	3.71	1.22	

\* p<.05, \*\* p<.01, \*\*\* p<.001

〈표 7〉에 따르면 학업중단 이후 무업형 청소년들의 부모의 교육정도는 평균 4.35인 반면 비무업형 청소년 부모의 경우는 4.3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무업형 청소년들 부모의 교육정도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의 부모 교육정도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8 양부모와 동거여부와 무업형 여부의 교차분석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명)	양부모 동거 여부		$\chi^2$
		양부모와 동거	기타	
비무업형	475	55.3	46.7	1.67
무업형	301	48.5	51.5	

\* p<.05, \*\* p<.01, \*\*\* p<.001

양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무업형 청소년들 가운데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48.5%인 반면, 비무업형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55.3%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미치지 않았다.

무업형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무업형 청소년들 간에 학업 중단 당시의 경험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학업중단 시 학교급, 학업중단 당시 중단 후 생활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 학업중단 당시 성적, 학업중단 전 교사와의 관계 및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학습 부적응, 학교규범 위반 정도, 학교폭력 피해 경험 및 비행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1〉에 따르면, 비무업형 청소년들 가운데 중학교 때 학업을 중단한 비율 고등학교 때 중단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무업형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 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이는 학업중단 시기가 늦을수록 학업중단 이후 생활을 상대적으로 더 무기력하게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를 그만 둔 당시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의 여부에 있어서는 무업형 청소년들과 비무업형 청소년들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비무업형 청소년들 가운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제공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무업형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제공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중단 이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학업 중단 당시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경우 무업형 청소년들과 비무업형 청소년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비행 경험에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무업형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 중단 전에 비행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비무업형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비행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무업형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비행에 노출된 경험이 더 많다는 것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학업중단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에서 상대적으로 삶의 방향을 제대로 정하지 못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 9-1 학업중단 당시 상태에 있어서의 무업형 청소년과 비무업형 청소년의 차이

(단위 : %)

	사례수 (명)	비무업형	무업형	$\chi^2$
학업중단 시 학교급				
중학교 때	177	68.4	31.6	4.94*
고등학교	599	59.1	40.9	

학업중단 당시 정보제공 여부	제공 받지 않음	270	55.6	44.4	5.58*
	제공 받음	506	64.2	35.8	
학교폭력 피해 경험	없음	566	59.5	40.5	2.46
	있음	210	65.7	34.3	
비행 경험	없음	192	71.9	28.1	12.22***
	있음	584	57.7	42.3	

\* p<.05, \*\* p<.01, \*\*\* p<.001

〈표 9-2〉은 학업중단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무업형 청소년들과 비무업형 청소년들 간의 차이에 대한 t-검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학업중단 당시 성적을 살펴보면, 비무업형 청소년들의 성적이 무업형 청소년들의 성적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즉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학업중단 이후라도 학업이나 취업 등 보다 적극적인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학교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무업형 청소년과 비무업형 청소년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교사와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비무업형 청소년들은 무업형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 중단 전에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교사와의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부적응의 경우 무업형 청소년들이 비무업형 청소년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즉, 비무업형 청소년들에 비해 무업형 청소년들은 학업 중단 당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었다. 또한 학교 규범 위반 정도에 있어서도 학습 부적응의 경우와 유사한 형태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무업형 청소년들의 학교규범 위반 정도가 비무업형 청소년들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앞서 학업성과 연관시켜 고려하면, 학업 중단 당시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다가 학교를 그만 둔 경우에 중단 이후 생활에 적응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9-2 학업중단 당시 상태에 있어서의 무업형 청소년과 비무업형 청소년의 차이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
학업중단 당시 성적	비무업형	475	3.52	1.63	3.76 <sup>***</sup>
	무업형	301	3.08	1.56	
교사와의 관계	비무업형	475	2.57	.87	2.36 <sup>*</sup>
	무업형	301	2.42	.83	
학교 친구와의 관계	비무업형	475	3.07	.75	.64
	무업형	301	3.04	.68	
학습 부적응	비무업형	475	2.47	.73	-4.16 <sup>***</sup>
	무업형	301	2.69	.76	
학교 규범 위반	비무업형	475	2.36	1.07	-4.07 <sup>***</sup>
	무업형	301	2.68	1.03	

\* p<.05, \*\* p<.01, \*\*\* p<.001

학업중단 이후 무업형 청소년과 비무업형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의 정서적 및 경제적 지원 정도, 부모 방임, 부모 학대를 중심으로 t-검증을 실시하였다(〈표 9〉 참조). 이에 따르면 비무업형 청소년들의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정서적 지원의 정도가 무업형 청소년들 부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즉 부모의 정서적 지원 정도가 높을수록 학업중단 후 학업이나 취업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부모의 경제적 지원 정도는 두 유형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0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무업형 청소년과 비무업형 청소년의 차이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	
부모의 정서적 지원	비무업형	475	3.05	.67	4.20***
	무업형	301	2.83	.75	
부모의 경제적 지원	비무업형	475	2.98	.75	1.52
	무업형	301	2.90	.75	
부모 방임	비무업형	475	1.73	.65	-3.63***
	무업형	301	1.90	.62	
부모 학대	비무업형	475	1.74	.77	-3.28***
	무업형	301	1.93	.80	

\* p<.05, \*\* p<.01, \*\*\* p<.001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부모 방임과 학대에 있어서는 무업형 청소년들의 부모와의 관계가 비무업형 청소년들보다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업형 청소년들에 대한 부모 방임 정도는 비무업형 청소년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이었으며, 부모 학대의 경우에도 유사한 형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부모 방임과 부모 학대에 있어서의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청소년 자녀들이 학업을 중단한 이후라도 보다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업중단 이후의 상황에서 무업형 청소년과 비무업형 청소년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향후 진로계획 결정 여부, 학업중단 친구 수, 진로정보 획득 활동 정도, 학업중단에 대한 주변의 시선 의식 정도, 학업중단 만족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향후 진로계획 결정 여부와 관련하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비무업형 청소년들 가운데 향후 진로계획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무업형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향후 계획을 설정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었다.

표 11 향후 진로계획 결정 여부와 무업형 여부와의 교차분석

(단위 : %)

	사례수 (명)	비무업형	무업형	$\chi^2$
향후 진로계획 결정 여부				
결정	631	65.5	34.5	25.57***
미결정	145	42.8	57.2	

\* p<.05, \*\* p<.01, \*\*\* p<.001

표 12 현재 상황에 있어서의 무업형 청소년과 비무업형 청소년의 차이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
학업중단 친구 수				
비무업형	475	2.74	3.92	3.61***
무업형	301	1.95	2.18	
진로정보 획득 활동				
비무업형	475	2.69	.63	5.56***
무업형	301	2.42	.65	
학업중단 후 주위 시선 의식				
비무업형	475	2.44	.63	2.41*
무업형	301	2.32	.67	
학업중단 만족 정도				
비무업형	475	2.72	.70	-4.50***
무업형	301	2.95	.68	

\* p<.05, \*\* p<.01, \*\*\* p<.001

비무업형 청소년들의 경우 친한 친구 가운데 학업중단을 한 친구의 수가 평균 2.74명이라고 응답한 반면, 무업형 청소년들은 1.95명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비무업형 청소년들의 친구 중 본인과 마찬가지로 학업중단을 한 친구의 수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비록 학업을 중단한 친구이더라도 많은 친구들과 교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취업이나 학업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볼 때, 학업 중단 이후의 생활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친구의 수가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비무업형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 진로와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한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중단 이후 진로정보 획득 활동 정도에 있어 비무업형 청소년들의 평균값은 2.69인 반면, 무업형 청소년들의 평균값은 2.42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었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바라보는 일반인의 시선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학업중단의 사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비행 등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편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낙인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의 정도는 학업중단 이후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업형 청소년들과 비무업형 청소년들 사이에 학업중단 후 사회적 인식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표 12>에 따르면, 무업형 청소년들은 비무업형 청소년들에 비해 사회적 시각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무업형 청소년들은 학업중단에 따른 사회적인 시각에 대해 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학업중단 사실을 가능한 알리고 싶어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더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학업중단에 대한 만족 정도를 살펴보면, 무업형 청소년들은 비무업형 청소년들에 비해 자신들이 학교를 그만 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업중단 만족 정도에 있어 비무업형 청소년들이 무업형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만족 정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배경 요인 가운데 부모의 교육정도에 있어 무업형과 비무업형 청소년들 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학업중단 당시의 상황 변수 가운데에는 학업중단 당시의 학교급 및 학업중단 이후 생활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학교 성적, 교사와의 관계, 학습 부적응 및 학교규범 위반, 비행 경험 등에 있어 무업형과 비무업형 청소년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의 정서적 지원 정도와 부모 방임 및 학대에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중단 이후의 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들 가운데에는 학업중단 친구 수, 진로정보 획득 활동, 주위의 사회적 시선에 대한 인식, 학업중단에 대한 만족 정도에 있어서 무업형과 비무업형 청소년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2)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의 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응답자 성별을 비롯한 배경변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사용된 변수들과 더불어 학업중단 당시의 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함께 투입하였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부모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들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세 번째 단계에서 사용된 변수들과 함께 학업중단 이후의 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투입하였다.

먼저 배경 변수들을 중심으로 독립변수를 구성한 1단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모교육정도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은 무업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이에 비해 부모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이 비무업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dds ratio = .887,  $p < .05$ ).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자녀가 학업중단 이후 특별한 목표 없이 생활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배경변수들을 비롯하여 학업중단 당시의 상황을 함께 투입한 2단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던 부모의 교육정도는 더 이상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갖지 않았으며 여타의 배경변수들도 무업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학업 중단 이후의 생활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의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학업중단 당시 상황과 관련한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즉, 이변량분석 과정에서 학업중단 이후의 삶의 유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변수들 가운데 학업중단 시의 상황과 관련한 변수들의 대부분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갖지는 않았다(〈표 13〉 참조). 이러한 결과는 해당 변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상황에서 각 변수들이 갖고 있는 독립적인 효과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학업중단 이후 정보 제공 여부의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비무업형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odds ratio = .629,  $p < .01$ ). 이 결과는 학업중단 당시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것은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 유형을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무업형 결정요인 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	1단계		2단계	
	B(SE)	exp(B)	B(SE)	exp(B)
상수항	.11(.16)	1.119	-.13(.73)	.381
배경변수				
성별(남=1)	.15(.07)	1.153	.05(.18)	1.052
부모교육정도	-.16(.07)*	.850	-.12(.08)	.887
가정의 경제적 배경	.02(.17)	1.002	.03(.07)	1.031
양부모 동거여부(동거=1)	-.07(.10)	.934	-.03(.17)	.968
학업중단당시 상황				
학교급(고등학교=1)			.33(.21)	1.392
정보제공 여부(제공=1)			-.46(.17)**	.629
학업성적			-.05(.06)	.955
교사관계			-.06(.10)	.943
친구관계			-.13(.13)	.880
학습부적응			.14(.13)	1.147
학교규범 위반			.11(.09)	1.111
폭력피해			-.20(.20)	.819
비행경험			.20(.22)	1.220
N	683		683	
-2Log-Likelihood	889.37		864.23	
Cox & Snell의 R <sup>2</sup>	.010		.046	
Nagelkerke의 R <sup>2</sup>	.013		.062	
Homer & Lemeshow 검증	$\chi^2(df) = 6.23(8)$		$\chi^2(df) = 4.28(8)$	
분류정확도(%)	63.5		64.7	

<sup>a</sup> p<.10, \* p<.05, \*\* p<.01, \*\*\* p<.001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언급한 변수들과 더불어 부모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들을 함께 투입하였다(표 14 참조). 그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던 부모의 교육정도는 무업형 여부에 영향을 주지만, 그 효과는  $\alpha <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두 번째 단계에서 무업형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학업중단 당시 정보 제공 여부는 여기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odds ratio = .653,  $p < .05$ ).

표 14 무업형 결정요인 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	1단계		2단계	
	B(SE)	exp(B)	B(SE)	exp(B)
상수항	-.144(.99)	.866	1.09(1.20)	2.891
배경변수				
성별(남=1)	.07(.18)	1.074	.03(.19)	1.032
부모교육정도	-.13(.08) <sup>a</sup>	.876	-.12(.08)	.884
가정의 경제적 배경	.03(.08)	1.029	.06(.08)	1.056
양부모 동거여부(동거=1)	-.01(.17)	.994	-.01(.18)	.986
학업중단당시 상황				
학교급(고등학교=1)	.31(.21)	1.368	.41(.23) <sup>a</sup>	1.512
정보제공 여부(제공=1)	-.43(.18) <sup>*</sup>	.653	-.52(.19) <sup>**</sup>	.593
학업성적	-.05(.06)	.953	.01(.07)	1.010
교사관계	-.04(.10)	.966	-.04(.11)	.964
친구관계	-.10(.13)	.904	-.02(.14)	.980
학습부적응	.11(.13)	1.117	.12(.14)	1.123
학교규범 위반	.08(.09)	1.081	.12(.10)	1.132
폭력피해	-.25(.21)	.776	-.20(.22)	.822
비행경험	.18(.22)	1.193	.29(.23)	1.335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정서적 지원	-.30(.17) <sup>a</sup>	.743	-.22(.18)	.801
부모의 경제적 지원	.21(.16)	1.228	.19(.16)	1.210
부모 방임	.08(.16)	1.085	.04(.17)	1.035
부모 학대	.11(.13)	1.117	.08(.13)	1.086
중단이후 상황				
학업중단 친구 수			-.19(.04) <sup>***</sup>	.828
향후 진로 결정(미결정=1)			.82(.23) <sup>***</sup>	2.262
진로정보 획득 활동			-.21(.15)	.812
주변 의식			-.05(.15)	.9955
학업중단 만족 정도			-.42(.14) <sup>**</sup>	.660
N	683		683	
-2Log-Likelihood	856.36		799.61	
Cox & Snell의 R <sup>2</sup>	.057		.132	
Nagelkerke의 R <sup>2</sup>	.077		.180	
Homer & Lemeshow 검증	$\chi^2(df) = 8.40(8)$		$\chi^2(df) = 6.02(8)$	
분류정확도(%)	65.9		70.0	

<sup>a</sup> p<.10, \* p<.05, \*\* p<.01, \*\*\* p<.001

부모와의 관계와 관련한 변수들 가운데에는 부모의 정서적 지원 정도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는  $\alpha < .10$  수준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삶의 유형 가운데 무업형 여부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배경변수나 부모와의 관계보다는 보다 현실적으로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었는가의 여부가 의미있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4번째 단계에서는 학업중단 이후 상황과 관련한 변수들을 함께 투입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표 14〉 참조), 부모의 교육정도가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학업중단 당시의 학교급 변수는  $\alpha < .10$  수준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중단 당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의 여부는 학업중단 이후의 상황과 관련한 변수들을 함께 고려하는 상황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dds ratio = .593,  $p < .01$ ).

학업중단 이후의 상황과 관련한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친한 친구들 가운데 학업을 중단한 친구가 많을수록 무업형의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odds ratio = .828,  $p < .001$ ). 이러한 결과는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들이 많을수록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동시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학업이든 취업이든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친구들과 접촉하면서 그러한 친구들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향후 진로에 대해 결정하지 못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무업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dds ratio = 2.262,  $p < .001$ ). 즉 학업을 중단한 이후에도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일수록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며 생활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로정보를 얻기 위한 활동 정도와 학업중단과 관련한 사회적 시선에 대한 인식 정도는 학업중단 이후의 무업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학업중단에 대한 만족 정도도 무업형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업중단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을수록 비무업형의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았다(odds ratio = .660,  $p < .001$ ). 즉 학업중단에 관한 자신의 결정에 대해 만족하는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배경변수나 학업중단 당시의 상황, 부모와의 관계 등과 관련한 변수들보다는 학업중단 이후의 상황이 무업형 여부와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이후 생활 유형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무업(NEET)형 청소년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무업형 청소년들과 비무업형 청소년들의 차이를 살펴보고 무업형 생활양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특정 시설이나 기관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해 온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중학교와 고등학교로부터 최근 1년간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들의 명단을 수집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물론 당초 계획한 표본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기관으로부터도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와는 달리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에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조사 시점으로부터 1년 전까지의 실제 생활 양상에 대해 응답한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그들의 생활 유형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학업중단 시점에서 학교를 그만 둔 이후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았는지의 여부가 무업형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들 가운데 일부는 분명한 계획을 갖고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 다른 일부는 단순히 학교 적응에 실패하거나 비행 등으로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학업중단 이후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고, 전자의 경우에도 비록 계획은 있으나 그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준비 없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무업형의 생활양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본 연구 결과는 지적하고 있고, 따라서 무업형 청소년들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개입방법은 학업을 중단하려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특히 학업중단숙려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숙려 기간을 갖도록 하는 수동적인 접근을 넘어서 그 기간 동안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에 대비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인 개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배경변수나 학업중단 당시의 상황,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보다는 학업중단 이후의 상황이 무업형 여부에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우선 친한 친구 중 학업을 중단한 친구의 수가 무업형 여부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비록 학업을 중단한 경우라 하더라도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에 적절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원을 갖는 것과 적절한 역할모형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생활이나 미래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에 학교 교사에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보원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은 중요한 정보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무업형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개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은 기존에 접근이 가능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통하여 비슷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들로 구성된 자조 모임 등을 조직하고 적극적인 충원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비교적 접근하기 어려운 무업형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무업형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제공해 줌으로써 비록 학업은 중단하였지만,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업중단 청소년 가운데 무업형 양상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다 심도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 조건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학업이나 취업이든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학교를 그만 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주어진 현실에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학업중단을 합리화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업중단 만족의 정도와 무업형 여부와와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학업중단을 설명하는 요인과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 양상을 설명하는 요인이 각기 다른 맥락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 유형을 설명하는데 있어 학업중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중요한 요소로 작동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학업중단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주요 설명변수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연구에서 학업중단의 원인으로 밝혀진 요인들의 대부분은 학업중단 이후 무업형 생활 양식을 갖는가의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학업중단

이후의 여건이 주요 설명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중단과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 양식을 설명함에 있어 보다 정교화된 이론적 틀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학업중단 연구의 방향과 관련하여 중요한 출발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 유형을 유목화하기 위해 조사시점부터 1년 전까지 어떤 생활을 하였는지에 대해 월별로 수집한 구체적인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 비해 학업중단 청소년을 유형화하는데 있어 진일보한 측정방식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목화 방법이 갖는 한계는 당초 설정한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및 비행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다. 물론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에 대한 계획이나 행동 등과 관련한 소수의 문항에 기초하여 생활 유형을 분류해 오던 기존의 연구에 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로 인해 발생하는 장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 유형을 위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다. 따라서 향후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생활을 보다 면밀하고 정확하게 밝혀내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구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이 이론적 근거임을 감안할 때,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생활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태훈·박주호 (2013).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조사 결과 분석.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2013. 10. 16)
- 교육부·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3. 11. 28).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수립
- 김범구 (2012). 청소년 학업중단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19(4): 315-337
- 김범구 (2013).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한국청소년연구**, 24(3): 5-31
- 김선아 (2012). 학업중단 청소년 중 비행과 일반청소년이 개인사회적 요인과 중단 후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0): 216-226
- 김지혜·안치민 (2006).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 영향 요인과 대책. **한국청소년연구**, 17(2): 133-157
- 남기곤 (2011). 고등학교 단계 학업 중단의 경제적 효과 추정. **시장경제연구**, 40(3): 63-94
- 문용린·구본용·이은경·김영운·방재우·방승호·손성호·장맹배·김홍준 (2009).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 손충기·배은자·김영태 (2012). 청소년 학업중단의 가족 및 사회환경적 요인 분석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6): 2504-2513
- 오혜영·지승희·박현진 (2011).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까지의 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9(2), 125-154
- 윤철경·김영지·유성렬·강명숙 (2013). **학업중단 학생 중단정책 연구** (연구보고 12-R56)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류방란·김선아 (2010). **학업중단 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연구보고 10-R33). 서울: 교육과학기술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 유성렬 · 김신영 · 임지연 (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연구보고 13-R18).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 · 조혜영 (2005).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설정 및 준비실태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 연구**, 18(2), 41-64
- 이숙영 · 남상인 (1997).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이자영 · 강석영 · 김한주 · 이유영 · 양은주 (2010).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중단의 위험 및 보호요인 탐색: 개념도 연구법의 활용. **청소년상담연구**, 18(2): 225-241
- 조규필 · 박현지 · 김래선 · 김범구 · 양대희 · 이현진 · 황수진 (2011).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 재적응 과정 연구. **중등교육연구**, 59(4), 969-1000

## 〈부 록 : 학업중단 이후 삶의 경로 측정〉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이후 삶의 경로를 4가지 -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비행형 -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이 전체 분석대상자 776명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였다(〈표 5〉 참조). 그러나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 유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데 있어서 이 4가지 유형은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중복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 유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감안하여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이 4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조합이 가능한 유형은 모두 16가지가 있는데, 분석의 명확성을 위해서 이 16가지 유형을 학업형, 직업형, 니트형, 비행형, 혼합형의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의 기준은 우선 각각의 유형 중 한 가지만 경험한 경우는 해당 유형으로 구분하고, 학업형과 직업형 또는 학업형과 니트형이 동반하는 경우는 학업형으로 구분한다. 또한 직업형과 니트형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직업형으로 구분하며, 비행형은 경험의 성격상 다른 유형과의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비행형으로 구분한다. 각각의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도 이 학업중단 기간의 절반 이상에서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그 반대로 적어도 3개 이상의 유형이 절반 이상의 기간 동안 발생한 경우는 모두 혼합형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혼합형은 학업중단 이후 조사 시점까지 기간 동안 4개의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도 절반 이상의 기간에서 경험하지 않은 경우와 절반 이상의 기간에서 3개 유형 이상의 경험을 한 경우를 포함하는데, 이는 특별한 목표를 갖고 생활하였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경험을 탐색하면서 시간을 보냈거나 적어도 3개 이상의 경험을 동시에 집중적으로 하면서 시간을 보낸 청소년들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분류 기준을 사용하였을 경우 학업중단 이후에 나타나는 생활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학업중단 이후 학교에 다니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 학업에 초점을 두어 생활한 청소년들은 전체 응답자의 4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가운데 10명 중 4명 정도는 비록 학교를 그만두기는 했지만 학업까지 그만 둔 것은 아니며 환경을 바꾸어 다시 학업을 지속하고 있었다. 또한 학업중단 이후 비록 학업을 지속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낸 청소년들도 18.9%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체 응답자 중 15.1%는 학업중단 이후 학업을 계속하거나 직업과 관련된 활동도 하지 않은 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표 1〉 참조).

부록표 1 학업중단 이후 경로 분포

학업중단 이후 경험 유무	경로 유형	사례수(명)	비율(%)
학업형	학업형	343	44.2
학업형 + 직업형			
학업형 + 니트형			
직업형	직업형	147	18.9
직업형 + 니트형			
니트형	니트형	117	15.1
비행형	비행형	92	11.9
비행형과 다른 하나의 유형			
비행형과 다른 두 개의 유형			
4개 유형 모두 해당 없음	혼합형	77	9.9
학업형 + 직업형 + 니트형			
합계		776	100

# 토론 1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학업중단 후 학습을 지속하는 청소년들: 특성과 경험, 의식

이 글은 학업중단 후에도 학습을 지속하는 청소년의 특성과 경험, 의식을 확인함으로써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시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1. 보호관찰 청소년의 학업 연구 필요

최종 표본수가 총 996명인데 최종 분석 대상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220명은 제외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 이유로 “이 연구가 학업을 지속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분석하는 것인데, 보호관찰 청소년은 학업 지속과 관련하여 제약이 있어 다른 청소년과 함께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호관찰소’를 통해 자료를 조사했다는 것 때문에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특정 장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 아닌가 싶다. 보호관찰이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가석방을 하는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를 하는 것으로서 해당자를 교도소와 같은 특정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일정한 사항을 준수토록 하는 형법상 조치이다. 보호관찰소란 보호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법무부 소속기관일 뿐 보호관찰 청소년을 수감하기 위한 시설은 아니다. 따라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에 있어서는 보호관찰 대상자도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률은 2006년부터 2013년 8월까지 10.1%로서 성인(4.3%)의 2배가 넘는다. 2012년에는 3배에 육박했다(김진태, 2013, 국정감사자료). 2010년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32,295명 중 무직·비진학 청소년은 13,752명(42.6%)이었고 2012년에는 47,000여명의 보호관찰 청소년 중 절반이 무직·중퇴 상태였다. 보호관찰 청소년이야말로 학업을 통해 어두운 삶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보호관찰관 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협조 하에

상담사, 교사 등 사회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상담과 진로지도 등을 하고 있다. 또한 학원들과 협약을 맺고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보호관찰 청소년의 검정고시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 중에서도 비행의 유혹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이다. 이들에게 학업을 지속하게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업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표> 사이버 검정고시 학습권 지원자 검정고시 합격 현황**

구분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010년	1,168	417	35.7%
2011년	1,450	1,207	83.2%

출처: 법무부(2012). '보호관찰 청소년 학습지원으로 새로운 도약'. 보도자료

## 2. 학업중단 후 학습을 지속하게 된 '계기' 에 대한 연구 필요

발표자의 연구는 학업중단자가 다시 학업에 복귀한 경우 그것이 어떤 개인적 특성이나 환경적 특성, 학업중단 이후 경험과 인식과 관련되는지를 통계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학업중단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관련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나아가 추가적인 연구를 부탁 드리고자 한다.

“학력주의에 대한 인식정도는 학업지속 집단이 좀 더 높게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라든가 “청소년 개인의 심리 정서적 변인들은 개별적으로 볼 때는 학업지속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나 다른 변인들과 함께 투입될 때는 그 영향력이 감소하거나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라는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 학업중단 후 다시 학업에 복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이나 배경요인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개인특성이나 배경요인과 같은 요인은 매우 정적인 요인일 뿐 학업복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다.

‘학업중단 이후의 경험과 인식’도 진로탐색, 학력에 대한 인식, 자기 미래에 대한 낙관성 등을 변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인들도 사실은 개인 인식 상의 특성일 뿐 학업복귀에 직접적 영향을 준 동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다. 학업중단자가 학업중단상태를 중단하고 학업에 복귀하게 되는 데에는 이러한 정적 요인보다는 어떤 사건이나 경험이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음을 느껴왔다. 예컨대, 상담이나 대안학교 체험, 학업복귀 프로그램 등이 학업복귀에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학업복귀의 요인이 중단자의 내적 요인과 관련되는 면이 있겠지만 그것은 주로 학업중단과 관련이 깊고, 학업에 복귀하게 하는 것은 외적 요인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학업복귀의 계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추가적으로 연구자의 높은 통계적 기술력을 빌어 좀 더 깊이 있는 조사를 부탁하고자 한다. 발표자는 “친구 관계에서는 또래 애착이 학업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 애착이 높은 학생들이 학업지속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라고 진술했었는데, 집단 간 차이 검증에서도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애착이 어떤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형성되는가가 중요하지 또래 애착 그 자체가 학업지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래 애착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고 학업복귀에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부탁 드린다.

### 3. 학업중단 숙려제 효과 분석 필요

정부에서는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나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에게 숙려기간을 두어 상담이나 체험을 통해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학생의 학업지속율이 전국 평균 37.7%이다. 이러한 제도가 없었으면 그냥 학교를 그만 두었을 학생들이다. 물론 숙려제는 아직 중단하지 않은 상태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학업중단으로부터 학업에 복귀토록 하는 프로그램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숙려제가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효과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아직 없다. 또한 이틀만 상담을 받고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도 2주간의 출석을 인정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있다. 학업중단 숙려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요인에 의해 학업중단이 예방되는지, 혹은 왜 실패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학업중단자의 학업복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토론 2



이 상 균  
(가톨릭대학교 교수)

## 학업중단 후 취업형 청소년들, 특성과 경험, 의식

토론에 앞서,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해 대상자 수가 적고, 관련문헌 역시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다양하면서도 신선한 분석을 시도하여 의미있는 결과들을 찾아낸 연구자의 노력을 치하하고 싶다.

연구자가 서두에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학업중단 학생의 비율은 1% 초반에 머물고 있으며, 중단율이 높은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도 재적학생기준으로 1.82%다(교육부, 2013). OECD(2011) 자료에서도, 25세-34세 사이 국민 중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비율은 우리나라가 2.5%로 가장 낮다. OECD국가 평균 18.5%에 비교해 거의 1/8 수준이다. 참고로, 스웨덴 8.8%, 핀란드 9.6%, 미국 11.7%, 독일 14.0%, 프랑스 16.1%, 영국 18.4%, 스페인 35.9%, 멕시코 58.1%, 터키 58.4% 등이다.

우리나라의 낮은 학업중단율은 높은 교육열과 학력과 학벌을 중시하는 문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그러다보니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미미하고, 지원정책 역시 다른 정책에 비해 우선순위가 뒤쳐지고 있다. 길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려는 선한 목자보다는 품 안의 아흔아홉 마리를 지키려는 모양새다.

하지만 또다른 추정방법으로 보면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무시못할 규모로 나타난다. 패널연구보고서(윤철경 외, 2013)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학령인구(7,126,098명)와 기간학제 학생 수(6,721,176명)의 차이로 본 학업중단청소년의 규모는 기타 학제학생수와 중도입국학생수를 고려하더라도 361,605명에 달한다. 이는 학령인구대비 5.1%에 달한다. 아울러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는 청소년의 수는 278,260명(학령인구대비 3.9%)에 달한다. 세종신도시(10만 3천명) 3개 반 정도의 인구에 해당되며, 그 중 77%는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파악조차 안된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학령인구(2,102,835명)로 좁혀 보더라도 대략 15~16만명의 학교밖 청소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해당 학령인구대비 비율은 7.5%에 달한다. 결국 학업중단 또는 학교밖 청소년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양 한 마리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포함해 오늘 열린 세미나의 분석자료가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보다 많은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토론자로서 연구자의 꼼꼼하고 세심한 분석결과와 해석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다만 연구자의 분석결과가 갖는 의미를 풍부하게 하고, 향후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보여준 학업중단 청소년의 취업선택과 관련해 뚜렷하게 보여주는 특성 중 하나가 가정환경이었다. 가족구조, 부모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대표되는 요인이다. 이러한 점은 학업실패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유사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문해력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실패를 초래할 상대적 위험도는 3.49로 OECD 평균 2.37, 영국 2.31, 미국 2.43, 일본 2.02, 스웨덴 2.61에 비해 월등히 높다. 또한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업실패를 초래할 상대적 위험도 역시 3.7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OECD국가 평균 2.27, 영국 2.03, 미국 1.90, 일본 2.16, 스웨덴 2.10의 수준이다(OECD, 2010). 학업실패가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때, 자신이 속한 계층과 부모의 학력에 의해 학업실패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은 학업중단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임을 시사한다고 여겨진다.

이에 향후 학업실패 또는 학업중단과 관련되어 보다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설계와 자료수집이 완료된 본 패널연구에서는 힘들 수 있지만, 향후 많은 연구들에서는 학교수준, 또는 지역수준에서의 변인을 포함시켜 볼 필요가 있다. 학업실패 또는 학업중단 연구의 대부분은 개인적 특성과 가족배경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체계의 구조와 특성, 학교수준에서의 교육정책, 청소년과 관련된 노동시장조건 등 비유컨대 수면 밑으로 뻗어있는 빙산의 보다 큰 부분인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변인의 영향력을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OECD, 2010).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 중 취업형이 갖는 의미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취업은 단순히 일을 한다는 것으로만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취업형의 이름은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이에게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마치 학업중단 청소년이 선택한 취업이 최종적이고 긍정적인 선택의 결과처럼 비춰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업형의 일자리를 살펴보면, 아르바이트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즉, 학업중단 청소년은 이른바 프리터(freeter)와 니트(NEET)족 사이를 오고가는 형태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취업형이란 명명은 마치 해당 일자리를 위한 취업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고, 전일제 정규직에 취업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온다. 이에 취업형이란 명명을 좀 더 고민해 보거나, 취업형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취업의 질을 고려할 때, 학업중단 청소년이 선택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라기 보다는

괜찮은 일자리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본 연구에서 학업중단 이후 기간이 늘어나면서 취업형 비율이 줄어드는 것에서도 미루어 짐작된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학업(학교가 아니라)이 아니라 단지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한다.

또한 널리 알려진 연구 중 하나지만, 미국의 검정고시에 해당하는 GED 취득자의 임금수준이 GED 미취득 학업중단자와 별다르지 않으며, 고졸 취업자와는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가 있다. 단순히 말하자면, 학력보다는 학교가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는 학업을 전수하는 공간으로서만 아니라 성인기에서의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기술과 특성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사회생활과 직업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또다른 형태의 학교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비교적 사소하지만 궁금한 것을 제시하며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취업형 학업중단 청소년이 보고한 주관적 경제수준과 학교성적이다. 경제수준을 ‘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36.4%로 이는 학업중단의 상대적 위험과 취업선택에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생각보다 낮은 비율이라 생각된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 부족은 청소년의 취업선택을 증가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에, 이러한 응답율이 주관적 보고라는 질문의 특성 때문인지, 혹은 학업중단과 이후 취업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실재적 특성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학교성적 역시 주관적 보고라는 한계가 있지만, 취업형 학업중단 청소년 중에서 학업성적이 ‘상’에 해당하는 이가 23.8%, ‘중’에 해당하는 비율이 17.9%에 달하고 있다. 이는 학업실패가 학교중단으로 이어진다는 통념 또는 기존연구와는 일치되지 않는다. 만약 주관적 성적의 현황이 객관적인 학업성취도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면, 이는 학업중단의 일차적 요인이 학업실패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그럴 경우 이는 학업중단의 문제가 개인적 차원에서의 적응, 능력, 노력의 문제로 보는 개인의 실패, 학업의 실패가 아니라 어쩌면 학교, 사회의 실패를 의미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종속변인은 학업중단직후를 상정한다. 하지만 독립변인 중정서적, 심리적 특성변인은 최근의 시점을 전제로 하여 측정된 변인이다. 이에 시간적 선후관계를 고려하여 모형설정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접하기 힘든 청소년의 생활, 경험, 의식 등을 담고 있는 귀중한 자료를 외부 연구자들과 공유, 활용하여 그 성과를 발표, 토론하는 오늘의 자리는 집단지성의 힘과 잠재력을 보여주는 자리라 생각한다. 공개와 공유를 기다리는 다른 많은 자료들이 청소년정책연구원에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세미나를 기획, 운영한 연구진의 노고와 개방적 태도에 감사를 보낸다.

## 참고문헌

- 윤철경·유성렬·김신영·임지연(2013). **학업중단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OECD(2010). *Overcoming Social Background: Equity in Learning Opportunities and Outcomes*, Paris: OECD.
- OECD(2011), *Education at a Glance 2011: OECD Indicators*, Paris: OECD.



## 토론 3



채혜영

(인지어스 서울희망리본사업 본부장)

# ‘서울 희망리본사업’ 참여 저학력 취약계층 청년들의 취업 경험과 의식

## □ 희망리본사업 특성

- 희망리본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근로연계복지서비스(workfare) 정책으로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한 취업형 자활사업으로 2009년 시작되었으며, 서울 지역은 2013년부터 시행되었음.
- 참여 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65세까지 최저생계비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등 취업 취약계층임.
- 참여기간은 1년이며, 취업에 대한 동기 부여, 취업 관련 교육훈련 연계 등을 통해 근로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과 취업 후 사후관리가 주요 서비스 내용임.

## □ 고졸 이하 청년 참여자의 특성

- 2013년과 2014년 현재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청년 참여자는 전체 참여자의 약 14%에 이르며, 청년 참여자 중 약 70%가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지고 있음.
- 사업 참여 시 특성
  - 중학교와 고등학교 중퇴 및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청년들은 사업 참여 당시 유사한 공통된 특성을 가짐
  - 사업 참여 전 취업 이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편의점, 베이커리, 커피숍, 패밀리 레스토랑 등에서 시간제 알바를 단기적으로 하였을 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은 취업이력이 참여 시점 1년 내에는 거의 없음.
  - 타부처의 고용지원서비스(예: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였으나 취업에 성공하지

\* (유)인지어스는 서울지역 중 9개 구청이 사업구역이며 2013년 593명, 2014년 8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본 자료는 서울의 9개 구청 사업 참여 청년층의 특성을 근거로 작성되었음.

못하였는데 이는 취업능력과 의지가 낮다는 것을 의미함.

- 희망리본사업은 취업이 아닌 '생계비 수급' 유지를 목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참여함.

○ 취업에 대한 이중적 태도

- 취업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실제 구직활동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음. 직업에 대한 정보 및 그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접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여 자신의 구직 욕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그 이유는 우리사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도 저학력자이며 능력이 낮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따라서 스스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취업 또는 사무직 등으로의 취업을 할 수 없거나 또는 취업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음.

- 이는 초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청년층이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준비를 하거나 특정 직업군을 정해놓고 취업 정보, 알선을 상담사에게 요청하면서 자발적 구직활동을 병행하는 것과는 대조적임.

○ 구직활동 및 채용에 임하는 자세

- 취업 지원에서 고졸 학력을 가진 참여자는 이력서를 작성하여 서류면접에 응할 수 있으나 고졸 미만의 학력자는 서류전형에 통과하기 어려움. 구인처의 채용 담당자는 '요즘 세상에 고졸 학력도 가지지 못하였다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면접 기회도 가지지 않으려고 함. 이는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고졸 미만의 학력자는 '중퇴'라는 학력 때문에 스스로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구직활동에 소극적으로 응하게 됨. 면접 시 면접관이 중퇴 학력에 대해 질문한 경험은 위축감이 높아지고, 면접 불참, 일시적인 연락두절 등 구직활동을 회피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함.

- 채용에 합격하더라도 출근하지 않거나 1~2 주 내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1개월 이상 근속자는 '취업-퇴사'를 2~3회 반복한 후 유지되는 경우가 다수임. 잦은 입퇴사는 '업무능력 부족(pc 활용능력 등)', 직장부적응 등이 주된 이유이나 그 이면에는 자신감 부족, 직장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어려움에 대해 극복하려고 하기 보다는 그만두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고졸 미만 참여자에 대한 취업 지원

- 구인처에는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면접 후에는 채용하여 업무능력을 직접 살핀 후 결정할 수 있도록 설득하여 취업기회를 가짐.
- 참여자에게는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 학력을 획득하도록 하며, 기술교육훈련을 연계하여 자격증을 얻도록 권유함. 검정고시는 대부분의 참여자가 참여 당시부터 준비하고 있지만 실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사업 참여 청년층의 특성<sup>1)</sup>

- 청년층의 범위를 만 18세에서 29세까지로 하였으며, 그 이유는 20대 저학력 청년층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위에서 기술한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 2014년도 참여자

- 2014년 1월부터 신규로 참여하여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청년층은 2014년 6월 30일 현재 서비스 550명 중 86명으로 11.6%를 차지함.
- 청년층 중 고졸 이하 학력자는 63명으로 73%, 대졸 이상 학력자는 23명으로 27%로 고졸 이하 학력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고졸 이하 청년층의 성별은 여성이 36명(57%), 남성이 27명(94%)임.
- 검정고시자를 포함한 고졸은 59명(94%), 고퇴, 중퇴 등 고졸미만은 4명(6%)임.

○ 취업자

- 20대 청년층의 경우 취업자 수는 23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26.7%를 차지하며, 이 중 고용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이상의 취업으로 1개월 이상 유지자는 15명이며, 1개월 미만자는 8명임.
- 고용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이상 조건에서 1개월 이상 유지자 15명 중 7명이 고졸 미만자로 46.7%를 차지함.
- 경과적일자리<sup>2)</sup>(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최저임금 미만) 취업자 8명 중 1명이 전문대졸자이며, 나머지 7명은 고졸이하 학력자임.

1) 사업 참여 후 취소, 중도탈락(중단) 한 인원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실제 지속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만 대상으로 하였음.

2) 희망리본사업에서 인정하는 취업은 특수고용직종을 외에는 고용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이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 두가지 요건 중 한가지라도 부족한 취업일 경우 '경과적일자리'라고 함.

## □ 2013년 참여자의 특성

- 2013년도 참여자 중 청년층 비율은 593명 중 95명으로 16%를 차지함.
  - 95명 중 고졸 이하 학력자는 61명으로 전체 청년참여자의 6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61명 중 51명(83.6%)이 고졸이며, 10(16.4%)명이 고졸 미만의 학력자임
  - 61명 중 여자는 32명(52.4%), 남자는 29명(47.6%)임.
  
- 청년층 95명 중 청년 취업자는 62명으로 청년층 중 65.2%가 취업하였는데 이 중 고졸이하 학력자는 45명으로 72.5%를 차지함.
  - 청년 취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이상 조건의 일자리에 취업한 수는 49명(79%)이며, 경과적 일자리 취업자(21%)는 13명을 차지함.
  - 고용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이상 조건의 일자리에 취업한 수는 49명 중 32명(65%)가 고졸 이하의 학력자임.
  - 경과적일자리 취업자 13명은 모두 고졸 이하 학력의 소유자임.



## 세션 3



# 비행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생활

좌장 : 전영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표 1

.....

# 학업중단 이후 비행경로에 대한 일반학업중단 청소년과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비교

박 성 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전 영 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학업중단 이후 비행경로에 대한 일반학업중단 청소년과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비교

## I. 서론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소년범죄의 발생추세는 2001년 이후 2010년까지 감소-증가-감소 추세를 반복하고 있으나, 전체 소년범죄에서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3.6%에서 2010년 4.4%로 증가하였고, 재산범죄 역시 2001년 35.6%에서 2010년 57.8%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폭력범죄는 2001년 58.7%에서 2010년 33.2%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소년범죄는 전체 발생건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심각성의 증가, 재범률의 증가, 14-15세 연령층의 증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학업중단과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한 대상은 소년범죄자 중에서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sup>1)</sup> 학업중단 청소년이다. 이들은 형사처분을 받은 소년범죄자에 비해 죄질이나 범죄경력의 정도는 낮으나, 일반청소년에 비해서는 심각한 수준의 비행이나 범죄경험이 있는 청소년이다. 이들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재비행 혹은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이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비행 혹은 범죄에 이르게 되는지를 장기적 관점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소년범죄자 혹은 비행청소년 중에서도 학업중단 청소년은 범죄친화적인 위험환경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속한다. 뚜렷한 목표의식이나 계획 없이 문제행동 혹은 보호·형사처분으로 인한 낙인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할 경우 보호요인은 감소하는 반면, 위험요인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윤철경 등(2010)은 학업중단 이후의 경로를 학업중단 요인에 따라 학습지향형, 취업/알바형, NEET형(은둔형, 배회형, 소일형), 비행형 등으로 구분한 바 있다.

1)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달리 보호사건 처리와 형사사건 처리로 나누어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2008년 소년법 개정이후부터 보호사건의 절반가량이 1호처분(보호자감호위탁처분)과 4호처분(단기보호관찰) 혹은 1호처분과 5호처분(장기보호관찰)의 병합처분으로 처리되고 있다(최수형, 2011: 120).

범죄학 이론의 관점에서도 비행 혹은 범죄경험이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은 청소년에게 중요한 보호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요인이 없을 뿐 아니라 비구조화된 활동(unstructured activity)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많아 재비행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sup>2)</sup> 예를 들어, 양중국·김충기(2002)의 연구에서는 소년보호처분 대상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최초결석시작 학년이 재비행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송순용·양철호(2009)의 연구에서는 비록 비행에 노출된 적은 있지만 재적응하게 된 청소년의 중요한 요인은 학교에 남아 있음으로써 재사회화가 용이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교생활에의 적응이 재사회화와 관련되는 반면, 학교생활 부적응, 더 나아가 학업중단이 재비행과 관련됨을 시사해 주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전영실·김지영·박성훈, 2013: 3).

따라서 위험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학업중단 이후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재비행경로 혹은 사회적응(재사회화) 경로를 밝히는 것은 학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에서는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매우 드문 편이었다.<sup>3)</sup>

이 연구는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학업중단 청소년 1차패널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학업중단 청소년과 비행학업중단(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이 비행에 이르는 경로를 비교함으로써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논의

### 1) 사회유대이론과 학업중단 이후의 비행

학업중단과 비행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론은 사회통제이론과 긴장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통제이론에 의하면, 학업중단이 비행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학교는 효율적인 사회통제기관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은 더 이상 학교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게 되므로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교에 남아 있는 다른 청소년들보다 비행율이 증가할 수

2) McHale, Crouter and Tucker(2001)는 실외에서 노는데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이 문제행동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들은 이러한 결과가 성인에 의해 감시되지 않는 환경에서 동료와 어울리기 때문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3) 최근 10년간 학업중단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학업중단에 관련되는 요인을 다루었을 뿐 학업중단 이후 사회적응에 관련 되는 요인을 제시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김범구, 2012).

있기”(김준호, 이동원, 박미성, 1993: 36) 때문이다.

사회통제이론에 따르면, 학교는 교사나 다른 학생들과의 유대를 통하여 긍정적 가치와 목표를 전하는 중요한 사회제도로써 기능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학업중단 청소년은 이러한 유대가 끊어져 범죄를 더 저지르게 될 것이다(Rumberger, 2012: 98). 사회통제이론은 타인에 대한 애착, 인습적인 것에 대한 노력과 투자와 관련되는 관여, 인습적 활동에의 참여가 비행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Hirschi, 1969; Akers and Sellers, 2009: 202). 학업중단을 하는 청소년은 교사나 학교친구에 대한 애착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는 만큼 사회통제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기 위한 노력과 투자를 하는 관여가 사라지게 되는 만큼 관여도 줄어들 수 있다. 학업중단을 하는 경우 학교생활을 비롯한 인습적 활동에의 참여가 줄어들면서 그만큼 사회통제가 감소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통제이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학업중단으로 학교와 관련된 유대가 단절됨으로써 비행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학업중단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학업중단 이후 사회유대, 역할, 정체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근로자로서 긍정적 역할을 취하는 사람은 범죄를 감소시키는 긍정적 경험을 가지게 되는 반면, 본인이 실업상태인 경우 혹은 실업상태인 친구와 어울려 다니는 것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Rumberger, 2012: 98). 따라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 둔 이후 경험하는 사회유대의 정도에 따라 비행은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 있다.

## 2) 긴장이론과 학업중단 이후의 비행

학업중단이후 비행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또 다른 입장으로는 아노미/긴장이론이 있다. 긴장이론의 논리는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은 중간계층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학교에 적응하거나 중간계층의 학생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며, 자신이 살고 싶은 문화적 환경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므로 비행유발동기가 감소되어 비행이 줄어들게 된다”(김준호 외, 1993: 36)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경험이 비행을 초래하는 실패와 긴장으로 가득 차있다면 학교에서의 중퇴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하는 긴장과 동기를 감소시켜 주게 된다(Akers and Sellers, 2009: 292).

긴장이론 입장에서 볼 때, 학교에서 학업의 실패 혹은 관계의 실패를 경험한 청소년은 학교를 떠날 경우 긴장의 근원이 사라지므로 비행이나 범죄를 덜 저지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Agnew, 1992). 예를 들어, 학교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등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 부정적 긴장의

근원이 사라지게 되므로 비행이나 범죄가 감소할 수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긍정적인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긴장이 증가할 수 있고, 이는 또 다른 범죄나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Rumberger, 2012: 98).

### 3) 연구모형의 설정

사회통제이론과 긴장이론을 통해서 학업중단과 비행 또는 범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전자는 학업중단이 비행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반면, 후자는 학업중단이 긴장의 부정적 근원을 감소시킴으로써 비행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학업중단 이후 경험하게 되는 유대나 긴장에 따라 그 관계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관심의 대상인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가능성은 학업중단 이후의 사회통제요인과 긴장요인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사회통제요인과 긴장요인이 범죄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학업중단 청소년과 비행학업중단 청소년 간에 달리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인습적 활동에의 참여, 친구와의 애착정도, 부모와의 애착정도 등 사회유대요인과 학업중단과 관련해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낙인), 학업중단 이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 학업중단 이후의 긴장요인이 학업중단 이후의 비행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사회유대요인과 학업중단 이후의 긴장요인이 학업중단 이전 혹은 학업중단 당시의 요인(최초의 학업중단 시점, 학업중단 이전의 학교성적, 학업을 중단하게 된 이유)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가정하여, 사회유대요인과 긴장요인의 매개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성별, 연령,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는 통제요인으로 모형에 추가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주된 관심은 일반학업중단과 비행학업중단 청소년 모두를 포함한 전체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경로에 사회유대요인과 긴장요인이 학업중단 이후의 비행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못지않게 이러한 비행경로가 일반학업중단 청소년과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 만일 차이가 있다면, 주로 어떠한 비행경로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 어떠한 개입이 필요한지를 경험적 자료를 통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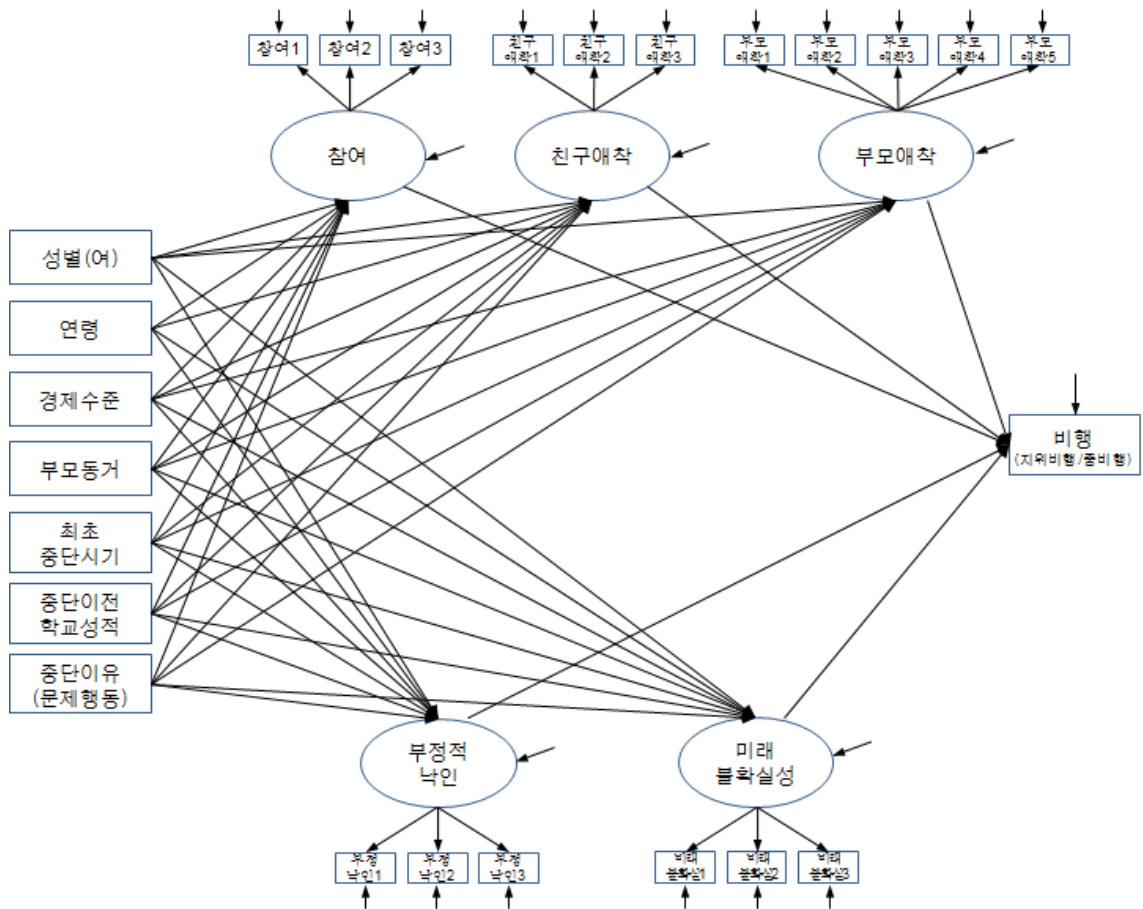


그림 1. 학업중단 이후 비행경로에 대한 연구모형

### Ⅲ. 연구방법

#### 1. 자료수집

이 연구의 자료는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학업 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에서 수집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은 학업중단기간이 1년 미만인 중고등학교 학령기 청소년으로,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은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으로 한정되었다.<sup>4)</sup> 특히 조사패널 유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장기 보호관찰 대상자(최대

4)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을 보호관찰 대상으로 한정된 이유는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조사하

2년) 중에서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보호관찰 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 학령기 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윤철경 · 유성렬 · 김신영 · 임지연, 2013: 89).<sup>5)</sup>

## 2. 변인의 정의

### 1) 종속변인

이 연구의 종속변인은 ‘학업중단 이후’ 저지른 비행으로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음란물 보기’(이상 지위비행),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 ‘돈내기 도박 해보기’,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이상 중비행) 등 8개의 항목에 대한 경험여부(있음/없음)로 측정을 하여, 지위비행과 중비행에 해당하는 각각의 비행경험을 합산하여 지위비행과 중비행 변인으로 나누었다.

### 2) 독립변인

이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을 크게 통제변인, 선행변인, 매개변인으로 구분하였다. 통제변인으로는 성별(‘0’ 남자, ‘1’ 여자), 연령, 경제수준(‘1’ 매우 못 산다 ~ ‘7’ 매우 잘 산다), 부모님과 동거여부(‘0’ 다른 사람과 산다, ‘1’ 부모님과 함께 산다)<sup>6)</sup>를 사용하였다.

선행변인은 주로 학업중단과 관련된 것으로 최초로 학업을 중단한 시점(‘1’ 중학교 1학년 ~ ‘6’ 고등학교 3학년), 학업을 중단하기 이전의 학교성적(‘1’ 최하위권 ~ ‘7’ 최상위권), 학업을 중단하게 된 이유(‘0’ 그 밖의 다른 이유, ‘1’ 학교규칙위반 · 보호처분 · 형사처분 · 가출 · 학교폭력 · 임신 등 비행문제로 인한 이유)를 사용하였다.

매개변인은 가운데 사회통제요인으로는 참여, 친구애착, 부모애착을<sup>7)</sup>, 긴장요인으로는 부정적

---

기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이 연구가 패널조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특정한 시설 내에 수용되어 있는 3년 동안 큰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시설 내에 수감되어 나타나는 효과를 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반면, 학업을 그만둔 청소년 중에서 법적으로 문제행동을 저지른 비행청소년과 접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시설에 수용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접촉이 가능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게 되었다.

5) 조사설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학업중단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1)’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6) 부모님과 동거는 친아버지, 친어머니는 물론 새아버지, 새어머니까지 모두 포함하였다.

7) 교사와의 애착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학교를 그만둔 상황에서 교사와의 애착은 시간적으로 과거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낙인, 미래불확실성을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참여는 ‘하루 24시간 중 학교나 대안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지내는 시간’, ‘하루 24시간 중 숙제, 시험준비,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하루 24시간 중 운동, 취미, 동아리, 교회, 성당에 가는 시간’으로 측정하였고, 각 문항마다 평일과 주말에 보내는 시간을 합산하였다.

친구애착은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등 3개 문항(‘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으로 측정을 하였다.

부모애착은 부모님 혹은 보호자가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고민을 들어 주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등 5개 문항(‘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으로 측정을 하였다.

학업을 그만둔 것에 대해 스스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로서의 부정적 낙인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주위 사람들이 문제가 취급을 하는 것 같다’, ‘학교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으니 불안하다’ 등 3개 문항(‘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으로 측정을 하였다.

학업중단 이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나는 내가 원하면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 등 3개 문항(‘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을 역코딩하여 측정하였다.

### 3. 분석 방법

학업중단 이후 비행에 이르는 경로를 설명하는 모형을 검증하는데 적합한 통계방법은 구조방정식모형(SEM)이다.<sup>8)</sup> 그리고 이러한 경로모형이 일반학업중단 청소년과 비행학업중단 청소년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적용함으로써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Kline, 2011; 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분석을 위한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으로는 SPSS 19.0과 AMOS 19.0를 사용하였다.

---

8) 구조방정식은 경로분석(path analysis)의 비현실적 가정에 비해 보다 현실적인 가정을 통해 변인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이론변인의 타당성까지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순목, 1990; 배병렬, 2002; Kline, 2011).

## IV. 분석 결과

### 1. 표본의 특성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을 변인을 중심으로 일반학업중단 청소년과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을 비교한 결과, 성별에 있어서는 일반학업중단 여학생의 비율이 43.0%, 비행학업중단 여학생의 비율이 24.0%로 전체 평균(39.0%)과 비교해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여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연령별로는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이 평균 16.83세,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이 평균 16.92세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1.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기술통계 (N=996)

구 분	전체 학업중단 청소년 (N=996)				일반학업중단 청소년 (N=776)		비행학업중단 청소년 (N=220)		t-Test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별(여자)	0	1	0.39 (0.49)	0.43 (0.50)	0.24 (0.43)	0.43 (0.50)	5.085 <sup>***</sup>		
연령	13	19	16.83 (1.10)	16.83 (1.09)	16.92 (1.11)	-1.109			
경제수준	1	7	3.68 (1.22)	3.77 (1.22)	3.35 (1.19)	4.577			
부모동거(동거)	0	1	0.87 (0.34)	0.88 (0.33)	0.84 (0.37)	1.316 <sup>*</sup>			
최초중단시기	1	6	3.72 (1.18)	3.86 (1.15)	3.26 (1.19)	6.684 <sup>***</sup>			
중단이전 학교성적	1	6	3.12 (1.52)	3.31 (1.54)	2.44 (1.25)	7.753 <sup>***</sup>			
중단이유(문제행동)	0	1	0.12 (0.33)	0.11 (0.32)	0.15 (0.36)	-1.524 <sup>**</sup>			
지위비행	0	3	1.45 (1.02)	1.37 (1.05)	1.75 (0.85)	-5.025 <sup>***</sup>			
중비행	0	5	0.52 (1.05)	0.39 (0.90)	0.99 (1.38)	-7.658 <sup>***</sup>			

\* p<.05; \*\* p<.01; \*\*\* p<.001

경제수준역시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의 평균이 1.22,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평균이 1.19로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없었다. 재혼한 가정을 포함해 현재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비율은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일반학업중단 청소년(88.0%)이 비행학업중단 청소년(84.0%)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학업중단과 관련한 요인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최초로 학업을 중단한 시기의 경우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의 평균이 3.86,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평균이 3.26으로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일수록 더 빨리 학업을 중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단이전의 학교성적을 살펴보면,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성적은 평균 3.31인 반면,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평균은 2.44로 역시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학교규칙위반이나 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분 등 문제행동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경우를 비교한 결과, 비행학업중단 청소년(15.0%)이 일반학업중단 청소년(11.0%)에 비해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흡연, 음란물로 측정된 지위비행의 경우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평균(1.75)이 일반학업중단 청소년(1.37)에 비해 통계적 수준에서 더 높았고, 폭력·재산비행으로 측정된 중비행의 경우에도 비행학업중단 청소년(0.99)이 일반학업중단 청소년(0.39)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위비행에 비해 그 차이도 더 크게 나타났다.

## 2. 전체 집단에 대한 비행경로 분석

〈표 2〉는 이 연구에서 설정한 비행경로를 전체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성별, 연령, 경제수준, 부모동거여부, 최초 학업중단시기, 중단이전 학교성적, 학업중단 이유가 사회통제요인(참여, 친구애착, 부모애착) 및 긴장요인(부정적 낙인, 미래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위비행과 중비행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2. 학업중단 이후 비행에 대한 경로모형 결과 (N=996)

Regressed on	지위비행			중비행				
	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준오차	t값	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준오차	t값		
참여								
성별(여자=1)	0.29	0.14	4.61	***	0.24	0.15	3.99	***
연령	-0.14	0.06	-2.46	*	-0.03	0.07	-0.48	
경제수준	0.24	0.05	4.12	***	0.32	0.06	4.85	***
부모동거(동거=1)	0.07	0.14	1.58		0.00	0.18	0.07	
최초중단시기	-0.06	0.05	-1.14		0.05	0.06	0.80	
중단이전학교성적	0.41	0.05	5.37	***	0.49	0.06	6.05	***
중단이유(문제행동=1)	-0.16	0.17	-3.23	**	-0.14	0.20	-2.62	**
친구애착								
성별(여자=1)	-0.06	0.03	-1.68		-0.06	0.03	-1.67	

연령	0.05	0.02	1.33		0.05	0.02	1.30
경제수준	0.05	0.01	1.52		0.05	0.01	1.50
부모동거(동거=1)	-0.03	0.05	-0.92		-0.03	0.05	-0.89
최초중단시기	0.01	0.02	0.18		0.01	0.02	0.12
중단이전학교성적	0.08	0.01	2.29	*	0.08	0.01	2.26*
중단이유(문제행동=1)	0.00	0.05	-0.06		0.00	0.05	-0.07
<b>부모애착</b>							
성별(여자=1)	-0.12	0.04	-3.72	***	-0.12	0.04	-3.72***
연령	0.03	0.02	0.79		0.03	0.02	0.79
경제수준	0.18	0.02	5.55	***	0.18	0.02	5.56***
부모동거(동거=1)	0.14	0.06	4.44	***	0.14	0.06	4.44***
최초중단시기	-0.12	0.02	-3.28	**	-0.12	0.02	-3.28**
중단이전학교성적	0.08	0.01	2.51	*	0.08	0.01	2.51*
중단이유(문제행동=1)	-0.04	0.06	-1.38		-0.04	0.06	-1.37
<b>부정적낙인</b>							
성별(여자=1)	0.01	0.03	0.14		0.01	0.03	0.27
연령	0.08	0.02	1.73		0.07	0.02	1.52
경제수준	-0.11	0.01	-2.59	**	-0.12	0.01	-2.78**
부모동거(동거=1)	0.03	0.04	0.61		0.03	0.04	0.69
최초중단시기	0.03	0.02	0.54		0.03	0.02	0.69
중단이전학교성적	-0.09	0.01	-2.21	*	-0.10	0.01	-2.41*
중단이유(문제행동=1)	0.07	0.05	1.67		0.07	0.05	1.73
<b>미래불확실성</b>							
성별(여자=1)	0.04	0.04	1.16		0.04	0.04	1.15
연령	-0.06	0.02	-1.52		-0.06	0.02	-1.51
경제수준	-0.17	0.02	-4.85	***	-0.17	0.02	-4.84***
부모동거(동거=1)	0.01	0.06	0.17		0.01	0.06	0.17
최초중단시기	0.04	0.02	0.91		0.04	0.02	0.90
중단이전학교성적	-0.24	0.01	-6.81	***	-0.24	0.01	-6.81***
중단이유(문제행동=1)	0.10	0.06	2.90	**	0.10	0.06	2.90**
<b>지위비행</b>							
참여	-0.51	0.09	-5.57	***			
친구애착	0.13	0.09	3.06	**			
부모애착	-0.02	0.07	-0.52				
부정적낙인	0.11	0.11	2.77	**			
미래불확실성	-0.01	0.06	-0.11				
<b>중비행</b>							
참여					-0.31	0.06	-4.98***

친구애착							0.10			0.09		2.63**
부모애착							-0.02			0.06		-0.49
부정적낙인							-0.03			0.12		-0.66
미래불확실성							0.01			0.06		0.11
모형적합도	$\chi^2$	<i>df</i>	<i>p</i>	CFI	TLI	RMSEA	$\chi^2$	<i>df</i>	<i>p</i>	CFI	TLI	RMSEA
	655.79	223	<.001	.947	.929	.044	642.88	223	<.001	.948	.930	.044

\*  $p < .05$ ; \*\*  $p < .01$ ; \*\*\*  $p < .001$

분석 결과, 참여에 대해 성별, 경제수준, 중단이전 학교성적, 중단이유가 지위비행과 중비행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지위비행의 경우에는 연령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 주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여자 청소년일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중단이전의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공부, 취미, 종교 등 인습적 활동에의 참여가 높은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문제행동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일수록 인습적 활동에의 참여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친구애착의 경우에는 지위비행과 중비행 모두 중단이전의 학교성적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학업중단 이전의 학교성적이 좋은 청소년일수록 친구에 대한 애착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부모애착의 경우에는 지위비행과 중비행 모두 성별, 경제수준, 부모동거여부, 최초 학업중단시기, 중단이전 학교성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여자청소년보다는 남자청소년일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 함께 사는 청소년일수록, 최초로 학업을 중단한 시기가 빠를수록, 학업중단 이전에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부정적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위비행과 중비행 모두 경제수준과 중단이전 학교성적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학업을 중단하기 이전의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학업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스스로 부정적 낙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는 경제수준과 중단이전 학교성적, 중단이유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중단이전의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학업을 중단한 이유가 문제행동으로 인한 경우일수록 자신의 미래에 대해 더 불안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참여, 친구애착, 부모애착, 부정적 낙인, 미래불확실성과 같은 요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위비행에 대해서는 참여, 친구애착, 부정적 낙인이, 중비행에 대해서는 참여, 친구애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즉 공부나 취미활동, 종교생활 등 인습적 활동에의 참여가 낮을수록, 친구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학업을 중단한 자신에 대해 스스로 부정적 낙인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음주·흡연·음란물과 같은 지위비행을 더 많이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폭력비행이나 재산비행 등 중비행의 경우에도 인습적 활동에의 참여가 낮을수록, 친구와의 애착정도가 클수록 중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중비행의 경우 부정적 낙인이나 미래불확실성 등 긴장요인과의 관련성은 보이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 친구애착의 경우 사회통제이론에서 주장하듯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타인과의 관계가 비행을 억제하기보다는 사회학습이론에서 설명하듯이 청소년의 경우 친구들 간의 친밀한 관계가 오히려 비행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3. 집단별 비행경로의 차이 분석

#### 1) 집단별 측정모형의 비교

이 연구에서는 앞서 분석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경로모형이 일반학업중단 청소년과 비행학업중단 청소년 간에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경로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여 두 집단을 비교하였다.

잠재평균분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측정모형의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이 모두 성립해야 한다(Hong, Malik, and Lee, 2003). 이 세 가지 동일성에 대한 가정을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형태동일성 → 측정동일성 → 절편동일성’의 순서로 검증이 필요하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203).<sup>9)</sup>

〈표 3〉은 일반학업중단 청소년 집단과 비행학업중단 청소년 집단에 대한 동일성 검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측정모형의 형태동일성 검증을 위해 잠재변인을 사용하지 않은 변인을 제외한 참여, 친구애착, 부모애착, 부정적 낙인, 미래불확실성에 대한 측정모형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 모형적합도의 기준치가 허용하는 수준에서 받아들일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일반학업중단 청소년 CFI=0.978 TLI=0.972, RMSEA=0.038; 비행학업중단 청소년 CFI=0.959 TLI=0.949, RMSEA=0.056).<sup>10)</sup>

9)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 요인분산동일성 모형은 각각 상위모형에 내재된 모형(nested model)으로 볼 수 있다.

10)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는 CFI와 TLI의 경우 0.90이상(Bentler, 1990)이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본다. RMSEA의 경우에는 0.05이하(Steiger, 1990)이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0.05에서 0.08사이이면 적당한 수준으로 본다(Browne and Cudeck, 1993).

표 3. 집단 간 비교를 위한 동일성 검증의 합치도 지수

	$\chi^2$	자유도	CFI	TLI	RMSEA
모형1: 형태동일성(기저모형)	416.572	218	0.973	0.966	0.030
모형2: 측정동일성	440.117	230	0.972	0.966	0.030
모형3: 절편동일성	670.118	247	0.943	0.937	0.042
모형4: 요인분산동일성	676.081	252	0.943	0.938	0.041

다음으로 측정동일성의 검증을 위해 형태동일성(기저모형)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후 두 모형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자유도의 차이( $\Delta\chi^2=23,545$ ,  $p < .05$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CFI나 TLI, RMSEA 등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지수에는 큰 변화가 없어 형태동일성 모형에 제약을 가한 측정동일성 모형은 기각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김민규·김주환, 2006: 22). 마찬가지로 측정동일성 모형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절편동일성 모형의 검증 결과, 자유도의 차이( $\Delta\chi^2=230.00$ ,  $p < .01$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TLI와 RMSEA 값 역시 측정동일성 모형과 비교해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차이( $\Delta TLI=-0.029$ ,  $\Delta RMSEA=0.012$ )가 동일성을 기각할 정도로 현저하게 나빠졌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절편동일성 역시 기각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요인분산동일성 모형을 절편동일성 모형과 비교한 결과, 자유도의 차이( $\Delta\chi^2=5.96$ ,  $p=0.310$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CFI와 TLI의 변화는 없었으며, RMSEA의 변화량 역시( $\Delta RMSEA=-0.001$ )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 요인분산동일성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 2) 지위비행

이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의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후 지위비행과 중비행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여 두 집단의 경로계수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로 대부분이 비행학업중단 청소년보다는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지위비행에 대한 다집단 경로모형 결과

Regressed on	일반학업중단청소년 (N=776)			비행학업중단청소년 (N=220)			경로동일성결과	
	경로계수	표준오차	t값	경로계수	표준오차	t값	$\chi^2$ 변화량	TLI 변화량
<b>참여</b>								
성별(여자=1)	0.28	0.13	3.39***	0.38	0.17	2.36*	0.042	0.000
연령	-0.11	0.05	-1.64	-0.12	0.06	-0.75	0.140	0.000
경제수준	0.24	0.05	3.28**	-0.09	0.05	-0.66	8.432**	0.001
부모동거(동거=1)	0.11	0.14	1.98*	0.08	0.16	0.60	0.657	0.000
최초중단시기	-0.17	0.05	-2.44*	0.04	0.06	0.27	3.250	0.000
중단이전학교성적	0.36	0.05	3.78***	0.25	0.05	1.73	1.667	0.000
중단이유(문제행동=1)	-0.19	0.16	-2.85**	-0.07	0.17	-0.54	2.513	0.000
<b>친구애착</b>								
성별(여자=1)	-0.03	0.04	-0.87	-0.11	0.07	-1.51	0.851	0.000
연령	0.04	0.02	0.93	0.02	0.03	0.20	0.109	0.000
경제수준	0.08	0.02	1.95	-0.02	0.03	-0.26	1.432	0.000
부모동거(동거=1)	-0.04	0.06	-1.04	-0.03	0.08	-0.35	0.079	0.000
최초중단시기	0.03	0.02	0.72	0.01	0.03	0.09	0.101	0.000
중단이전학교성적	0.08	0.01	2.01*	0.13	0.03	1.71	0.434	0.000
중단이유(문제행동=1)	-0.01	0.06	-0.32	0.02	0.09	0.27	0.160	0.000
<b>부모애착</b>								
성별(여자=1)	-0.09	0.05	-2.57**	-0.17	0.10	-2.61**	1.551	0.000
연령	0.01	0.03	0.19	0.05	0.05	0.67	0.226	0.000
경제수준	0.19	0.02	5.12***	0.18	0.04	2.73**	0.000	0.000
부모동거(동거=1)	0.17	0.07	4.70***	0.04	0.12	0.62	3.539	0.000
최초중단시기	-0.11	0.02	-2.59**	-0.07	0.04	-0.96	0.237	0.000
중단이전학교성적	0.08	0.02	2.29*	0.11	0.04	1.67	0.376	0.000
중단이유(문제행동=1)	-0.02	0.07	-0.47	-0.13	0.12	-1.92	1.951	0.000
<b>부정적낙인</b>								
성별(여자=1)	0.02	0.03	0.45	0.12	0.07	1.42	1.147	0.000
연령	0.03	0.02	0.60	0.01	0.03	0.10	0.042	0.000
경제수준	-0.10	0.01	-2.17*	-0.02	0.03	-0.28	0.586	0.000
부모동거(동거=1)	0.01	0.05	-0.06	0.07	0.08	0.83	0.530	0.000
최초중단시기	0.14	0.02	2.45*	-0.06	0.03	-0.62	3.153	0.000
중단이전학교성적	-0.10	0.01	-2.13*	0.16	0.03	1.83	6.438*	0.001
중단이유(문제행동=1)	0.09	0.05	1.98*	-0.06	0.09	-0.68	2.575	0.000
<b>미래불확실성</b>								
성별(여자=1)	0.05	0.05	1.21	0.03	0.11	0.42	0.003	0.000

연령	-0.07	0.03	-1.48	-0.09	0.05	-1.09	0.102	0.000
경제수준	-0.14	0.02	-3.70***	-0.22	0.04	-2.97**	1.349	0.000
부모동거(동거=1)	-0.01	0.07	-0.10	0.03	0.13	0.37	0.139	0.000
최초중단시기	0.07	0.02	1.45	0.01	0.05	0.04	0.368	0.000
중단이전학교성적	-0.23	0.02	-5.90***	-0.20	0.04	-2.72**	0.212	0.000
중단이유(문제행동=1)	0.13	0.07	3.43***	0.02	0.14	0.23	1.860	0.000
지위비행								
참여	-0.57	0.19	-3.99***	-0.30	0.29	-1.98*	0.177	0.000
친구애착	0.16	0.12	2.88**	0.01	0.18	0.12	1.980	0.000
부모애착	0.02	0.10	0.32	0.05	0.12	0.55	0.043	0.000
부정적낙인	0.07	0.13	1.61	0.16	0.20	1.86	0.464	0.000
미래불확실성	0.02	0.07	0.60	-0.02	0.10	-0.30	0.291	0.000

\* p<.05; \*\* p<.01; \*\*\* p<.001

먼저 지위비행을 종속변인으로 한 모형을 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경제수준, 부모동거여부, 최초 학업중단시기, 중단이전 학교성적, 문제행동으로 인한 학업중단(이유)으로 나타난 반면,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친구애착에 대한 영향력에서는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은 중단이전 학교성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면,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착에 대해서는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성별, 경제수준, 부모동거여부, 최초 학업중단시기, 중단이전 학교성적이,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별, 경제수준이 부모애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낙인에서는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경제수준, 최초 학업중단시기, 중단이전 학교성적, 문제행동으로 인한 학업중단(이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불확실성에 대한 영향력에서는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은 경제수준, 중단이전 학교성적, 문제행동으로 인한 학업중단(이유)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에서는 경제수준, 중단이전 학교성적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지위비행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은 참여와 친구애착이,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에서는 참여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일반청소년의 경우에는 인습적 활동에 참여가 낮을수록, 친구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에는

참여가 낮을수록 지위비행을 더 많이 저지른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두 집단의 지위비행을 설명하는 각각의 경로계수 중에서 경로동일성 제약을 기각하는 경로계수는 ‘경제수준 → 참여’( $\Delta\chi^2=8.432$ ,  $\Delta TLI=0.001$ ), ‘중단이전 학교성적 → 부정적 낙인’( $\Delta\chi^2=6.438$ ,  $\Delta TLI=0.001$ )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해서 지위비행에 있어 두 집단 간의 실질적 차이를 나타내는 경로계수는 경제수준이 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학업중단이전의 학교성적이 부정적 낙인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위비행을 설명하는 모형에서 두 집단 간 경로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 중비행

다음으로 중비행을 종속변인으로 한 모형을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성별, 경제수준, 최초 학업중단시기, 중단이전 학교성적, 문제행동으로 인한 학업중단(이유)으로 나타난 반면,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중비행에 대한 다집단 경로모형 결과

Regressed on	일반학업중단청소년 (N=776)			비행학업중단청소년 (N=220)			경로동일성결과	
	경로계수	표준오차	t값	경로계수	표준오차	t값	$\chi^2$ 변화량	TLI 변화량
<b>참여</b>								
성별(여자=1)	0.20	0.16	2.57**	-0.09	0.06	-0.70	4.080 *	0.000
연령	0.14	0.08	1.65	-0.05	0.04	-0.27	2.614	0.000
경제수준	0.41	0.08	4.41***	0.13	0.02	1.12	18.447 ***	0.003
부모동거(동거=1)	0.02	0.22	0.23	0.00	0.05	0.01	-0.097	0.000
최초중단시기	-0.27	0.09	-2.89 **	0.16	0.08	0.37	0.303	0.000
중단이전학교성적	0.53	0.07	5.05***	0.05	0.02	0.38	9.936 **	0.001
중단이유(문제행동=1)	-0.21	0.26	-2.70 **	-0.05	0.07	-0.40	8.425 **	0.001
<b>친구애착</b>								
성별(여자=1)	-0.04	0.04	-0.90	-0.11	0.07	-1.51	0.796	0.000
연령	0.04	0.02	0.89	0.02	0.03	0.20	0.008	0.000
경제수준	0.08	0.02	1.94	-0.02	0.03	-0.26	1.493	0.000
부모동거(동거=1)	-0.04	0.06	-1.00	-0.03	0.09	-0.35	0.046	0.000

최초중단시기	0.03	0.02	0.68	0.01	0.03	0.09	-0.030	0.000			
중단이전학교성적	0.08	0.01	1.95	0.13	0.03	1.72	0.365	0.000			
중단이유(문제행동=1)	-0.01	0.06	-0.33	0.02	0.09	0.27	0.233	0.000			
<b>부모애착</b>											
성별(여자=1)	-0.09	0.05	-2.54	*	-0.17	0.10	-2.60	**	1.549	0.000	
연령	0.01	0.03	0.18	0.05	0.05	0.63			0.046	0.000	
경제수준	0.19	0.02	5.11	***	0.18	0.04	2.72	**	-0.037	0.000	
부모동거(동거=1)	0.17	0.07	4.70	***	0.04	0.12	0.62		3.381	0.000	
최초중단시기	-0.11	0.03	-2.57	**	-0.07	0.04	-0.95		0.230	0.000	
중단이전학교성적	0.08	0.02	2.29	*	0.11	0.04	1.68		0.328	0.000	
중단이유(문제행동=1)	-0.02	0.07	-0.47		-0.13	0.12	-1.92		1.930	0.000	
<b>부정적낙인</b>											
성별(여자=1)	0.02	0.03	0.53	0.11	0.07	1.32			0.868	0.000	
연령	0.03	0.02	0.47	0.00	0.03	0.01			-0.068	0.000	
경제수준	-0.11	0.01	-2.27	*	-0.03	0.03	-0.34		0.520	0.000	
부모동거(동거=1)	0.00	0.05	-0.03	0.08	0.08	0.88			0.485	0.000	
최초중단시기	0.15	0.02	2.58	**	-0.06	0.03	-0.66		3.430	0.000	
중단이전학교성적	-0.11	0.01	-2.23	*	0.15	0.03	1.70		6.022	*	0.001
중단이유(문제행동=1)	0.09	0.05	2.00	*	-0.05	0.09	-0.56		2.299	0.000	
<b>미래불확실성</b>											
성별(여자=1)	0.05	0.05	1.24	0.03	0.11	0.43			-0.086	0.000	
연령	-0.07	0.02	-1.50	-0.09	0.05	-1.08			0.090	0.000	
경제수준	-0.14	0.02	-3.72	***	-0.22	0.04	-2.96	**	1.400	0.000	
부모동거(동거=1)	-0.01	0.07	-0.11	0.03	0.13	0.37			0.041	0.000	
최초중단시기	0.07	0.02	1.47	0.01	0.05	0.04			0.340	0.000	
중단이전학교성적	-0.23	0.02	-5.90	***	-0.20	0.04	-2.71	**	0.149	0.000	
중단이유(문제행동=1)	0.13	0.07	3.44	***	0.02	0.14	0.23		1.825	0.000	
<b>중비행</b>											
참여	-0.20	0.05	-3.33	***	-1.52	19.72	-0.49		6.986	**	0.001
친구애착	0.14	0.08	3.43	***	0.20	2.68	0.24		-0.103	0.000	
부모애착	-0.08	0.06	-1.66	0.96	4.44	0.46			1.931	0.000	
부정적낙인	-0.01	0.12	-0.18	-0.16	0.32	-1.89			2.918	0.000	
미래불확실성	-0.03	0.06	-0.77	0.10	0.16	1.38			2.023	0.000	

\* p<.05; \*\* p<.01; \*\*\* p<.001

친구애착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이 없었고, 부모애착에 대한 영향력에서는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성별, 경제수준, 부모동거여부, 최초 학업중단시기, 중단이전 학교성적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별, 경제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낙인에서는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경제수준, 최초 학업중단시기, 중단이전 학교성적, 문제행동으로 인한 학업중단(이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불확실성에 대한 영향력에서는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은 경제수준, 중단이전 학교성적, 문제행동으로 인한 학업중단(이유)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에서는 경제수준과 중단이전 학교성적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중비행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은 참여와 친구애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면,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이 없었다.

두 집단의 중비행을 설명하는 각각의 경로계수 중에서 경로동일성 제약을 기각하는 경로계수는 ‘성별 → 참여’( $\Delta\chi^2=4.080$ ), ‘경제수준 → 참여’( $\Delta\chi^2=18.447$ ,  $\Delta TLI=0.003$ ), ‘중단이전 학교성적 → 참여’( $\Delta\chi^2=9.936$ ,  $\Delta TLI=0.001$ ), ‘중단이유 → 참여’( $\Delta\chi^2=8.425$ ,  $\Delta TLI=0.001$ ), ‘중단이전 학교성적 → 부정적 낙인’( $\Delta\chi^2=6.022$ ,  $\Delta TLI=0.001$ ), ‘참여 → 중비행’( $\Delta\chi^2=6.986$ ,  $\Delta TLI=0.001$ )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면, 여자청소년일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중단 이전의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문제행동으로 학교를 중단하지 않을수록 인습적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학업중단 이전의 학교성적이 좋지 않을수록 부정적 낙인에 대한 인식이 높으며, 인습적 활동에의 참여가 낮을수록 중비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두 집단 간 실질적 차이를 보여주는 경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위비행에 비해 중비행을 설명하는 경로가 일반학업중단 청소년과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차이를 더 잘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이 중비행에 이르는 경로를 이론이 예측하는 대로 비교적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쉽게도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이 중비행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참여, 친구애착, 부모애착 등 사회통제요인과 부정적 낙인, 미래불확실성 등 긴장요인이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고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요인을 찾기 위해 비행경로모형을 수정하여 비행학업중단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재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 4.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경로 분석

이 연구에서는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경로를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비행경로 모형에 두 가지를 수정하였다. 첫째로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모집단이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관과의 관계<sup>11)</sup>를 잠재변인으로 추가하였다. 둘째로 선행변인으로 설정한 성별, 연령, 경제수준, 부모동거여부, 최초 학업중단시기, 학업중단 이전의 학교성적, 문제행동으로 인한 학업중단(이유)가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여 경로를 추가하였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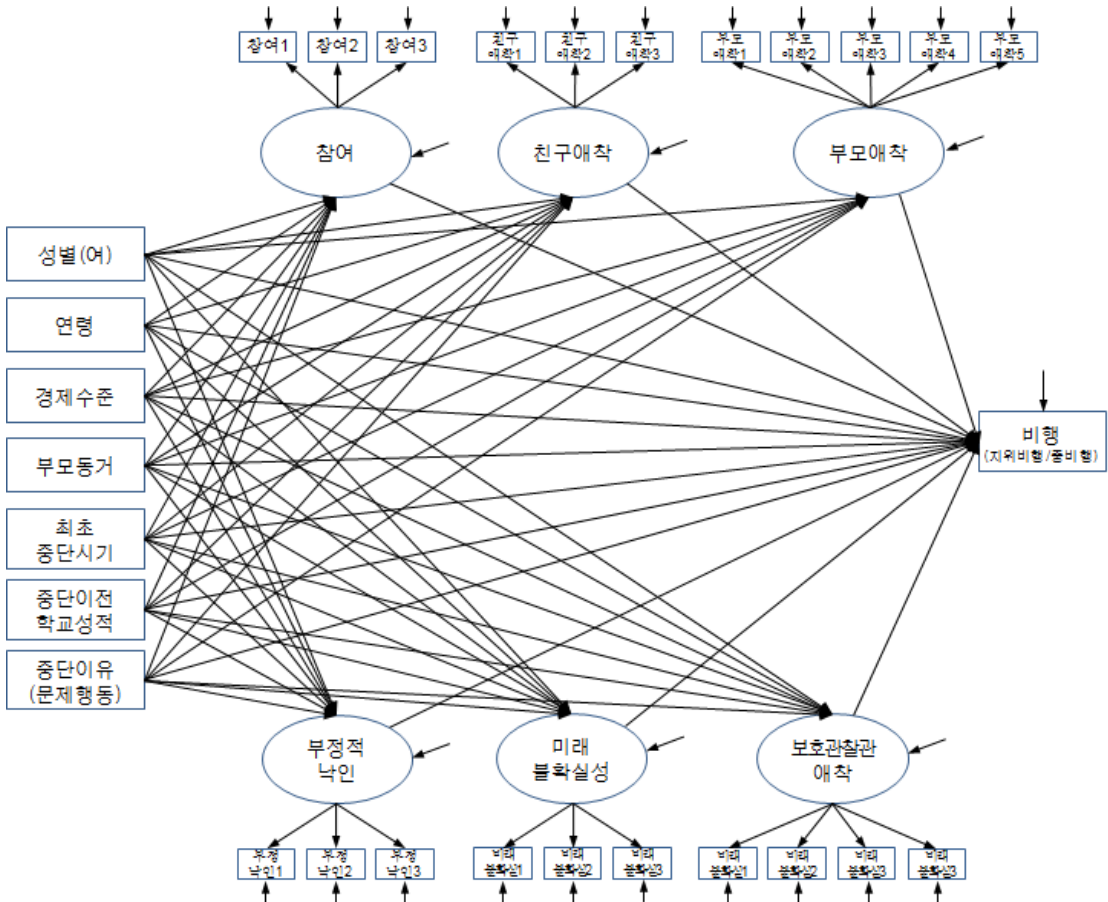


그림 2. 학업중단 이후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경로모형

11) 보호관찰관과의 관계는 ‘보호관찰관 선생님은 나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신다’, ‘보호관찰 선생님은 내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 알고 하신다’, ‘보호관찰 선생님은 나를 잘 도와신다’, ‘보호관찰 선생님에게 내 문제를 의논한다’ 등 4개 문항을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척도로 측정을 하였다. 이론적 측면에서 보호관찰관과의 관계는 사회유대(social bond)로 볼 수 있다.

〈표 6〉은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수정모형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지위비행모형(CFI=0.936, TLI=0.916, RMSEA=0.048)과 중비행모형(CFI=0.935, TLI=0.914, RMSEA=0.049)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참여의 경우 지위비행과 중비행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애착에 대해서는 지위비행의 경우 중단이전 학교성적이 친구애착에 영향( $p < 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중단이전에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친구들과의 애착정도도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중비행의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친구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학업중단 이후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경로모형 결과 (N=220)

Regressed on	지위비행			중비행		
	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준오차	t값	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준오차	t값
<b>참여</b>						
성별(여자=1)	0.09	0.21	0.59	0.29	0.19	0.50
연령	0.02	0.02	0.33	0.05	0.02	0.35
경제수준	-0.03	0.01	-0.05	-0.04	0.02	-0.32
부모동거(동거=1)	0.17	0.04	0.27	0.03	0.04	0.26
최초중단시기	-0.07	0.02	-0.38	-0.04	0.02	-0.29
중단이전학교성적	0.09	0.04	0.58	0.25	0.06	0.49
중단이유(문제행동=1)	-0.08	0.07	-0.49	-0.10	0.09	-0.45
<b>친구애착</b>						
성별(여자=1)	-0.12	0.08	-1.61	-0.12	0.08	-1.61
연령	0.05	0.03	0.24	0.02	0.03	0.24
경제수준	-0.04	0.03	-0.17	-0.01	0.03	-0.17
부모동거(동거=1)	-0.16	0.09	-0.36	-0.03	0.09	-0.36
최초중단시기	0.00	0.03	0.03	0.00	0.03	0.03
중단이전학교성적	0.21	0.03	1.75 <sup>†</sup>	0.13	0.03	1.74 <sup>†</sup>
중단이유(문제행동=1)	0.01	0.09	0.19	0.01	0.09	0.20
<b>부모애착</b>						
성별(여자=1)	-0.01	0.11	-2.59 <sup>**</sup>	-0.17	0.11	-2.59 <sup>**</sup>
연령	0.07	0.05	0.66	0.05	0.05	0.66
경제수준	0.03	0.04	2.74 <sup>**</sup>	0.19	0.04	2.74 <sup>**</sup>
부모동거(동거=1)	0.03	0.13	0.62	0.04	0.13	0.62
최초중단시기	-0.01	0.04	-0.95	-0.07	0.04	-0.95
중단이전학교성적	0.01	0.04	1.65 <sup>†</sup>	0.11	0.04	1.65 <sup>†</sup>

중단이유(문제행동=1)	-0.18	0.13	-1.92 <sup>†</sup>	-0.13	0.13	-1.92	†
<b>부정적낙인</b>							
성별(여자=1)	0.06	0.06	1.84 <sup>†</sup>	0.16	0.07	1.93	†
연령	-0.09	0.02	-0.94	-0.05	0.03	-0.58	
경제수준	0.12	0.02	0.62	0.02	0.02	0.26	
부모동거(동거=1)	-0.07	0.06	-0.54	-0.01	0.08	-0.08	
최초중단시기	0.11	0.02	0.13	-0.01	0.03	-0.14	
중단이전학교성적	0.13	0.02	1.25	0.12	0.03	1.47	
중단이유(문제행동=1)	-0.04	0.06	-1.14	-0.07	0.08	-0.94	
<b>미래불확실성</b>							
성별(여자=1)	0.07	0.11	0.46	0.03	0.10	0.47	
연령	-0.01	0.05	-1.01	-0.08	0.05	-0.99	
경제수준	-0.04	0.04	-2.92 <sup>**</sup>	-0.22	0.04	-2.91	**
부모동거(동거=1)	0.10	0.12	0.42	0.03	0.12	0.42	
최초중단시기	-0.13	0.04	-0.01	-0.01	0.04	-0.02	
중단이전학교성적	-0.02	0.04	-2.77 <sup>**</sup>	-0.21	0.04	-2.78	**
중단이유(문제행동=1)	0.22	0.13	0.29	0.02	0.13	0.30	
<b>보호관찰관애착</b>							
성별(여자=1)	-0.84	0.08	-1.33	-0.09	0.08	-1.32	
연령	0.88	0.04	0.86	0.07	0.04	0.86	
경제수준	-0.92	0.03	-0.78	-0.06	0.03	-0.79	
부모동거(동거=1)	-0.36	0.09	-1.00	-0.07	0.09	-1.01	
최초중단시기	-0.91	0.03	-1.48	-0.12	0.03	-1.45	
중단이전학교성적	0.77	0.03	1.23	0.09	0.03	1.22	
중단이유(문제행동=1)	-0.91	0.10	-0.19	-0.01	0.10	-0.18	
<b>지위비행</b>							
성별(여자=1)	-0.22	0.24	-1.75 <sup>†</sup>				
연령	0.18	0.06	2.23 <sup>*</sup>				
경제수준	0.05	0.05	0.72				
부모동거(동거=1)	-0.02	0.16	-0.25				
최초중단시기	-0.05	0.06	-0.64				
중단이전학교성적	0.03	0.06	0.30				
중단이유(문제행동=1)	-0.04	0.17	-0.59				
참여	0.04	1.84	0.59				
친구애착	0.05	0.16	0.58				
부모애착	-0.22	0.11	-0.22				
부정적낙인	0.12	0.17	1.83 <sup>†</sup>				
미래불확실성	0.28	0.10	0.37				

보호관찰관애착	-0.25		0.16		-2.92**							
<b>중비행</b>												
성별(여자=1)					-0.16	0.44	-1.20					
연령					0.12	0.10	1.46					
경제수준					-0.02	0.09	-0.20					
부모동거(동거=1)					0.05	0.27	0.07					
최초중단시기					-0.31	0.10	-3.69					***
중단이전학교성적					0.18	0.11	0.18					
중단이유(문제행동=1)					-0.04	0.29	-0.56					
참여					0.22	2.49	0.69					
친구애착					0.02	0.27	0.18					
부모애착					-0.06	0.18	-0.67					
부정적낙인					-0.11	0.27	-1.42					
미래불확실성					0.12	0.17	1.60					
보호관찰관애착					-0.12	0.26	-1.31					
모형적합도	$\chi^2$	<i>df</i>	<i>p</i>	CFI	TLI	RMSEA	$\chi^2$	<i>df</i>	<i>p</i>	CFI	TLI	RMSEA
	462.124	307	<.001	0.936	0.916	0.048	466.468	307	<.001	0.935	0.914	0.049

† p<.1; \* p<.05; \*\* p<.01; \*\*\* p<.001

부모애착에 대한 영향에서는 지위비행과 중비행 모두 성별, 경제수준, 중단이전 학교성적, 중단이유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면,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중단 이전에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이 높은 반면, 여자청소년일수록, 문제행동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할수록 부모와의 애착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부정적 낙인에 대해서는 지위비행과 중비행 모두에서 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 $p<0.1$ ), 여학생일수록 부정적 낙인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래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지위비행과 중비행 모두 경제수준과 중단이전 학교성적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학업중단 이전에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역시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수정된 모형에서 추가된 보호관찰관의 경우에는 지위비행과 중비행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선행변인과 매개변인이 지위비행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성별, 연령, 부정적 낙인, 보호관찰관과의 애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남자청소년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학업중단으로 인해 스스로 부정적 낙인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지위비행을 더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다른 변인을 모두 통제하고도 보호관찰관과 유대가 높을수록 지위비행의 정도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비행의 경우는 지위비행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어떤 변인도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비행을 설명하지 못하는 반면, 최초 학업중단시기만이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어떤 요인보다 이른 시기에 학업을 중단했다는 사실이야말로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폭력비행이나 재산비행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V. 결론 및 논의

김혜영(2005)은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스스로가 학업중단의 맥락에 따라 이른바 ‘찢린 아이’와 ‘때려친 아이’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연구에서 주목한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은 ‘때려친 아이’보다는 ‘찢린 아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비행경로를 사회유대이론과 긴장이론을 중심으로 모형을 설정하고, 이러한 요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동시에 일반학업중단 청소년과 비행학업중단 청소년 간의 비행경로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로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우 사회유대이론 중에서는 참여와 친구애착, 긴장요인 중에서는 부정적 낙인이 지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습적 활동에의 참여정도가 낮을수록, 친구와의 애착정도가 높을수록 지위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애착의 경우 사회유대이론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학습이론의 주장에 보다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학업을 중단한 이후 새롭게 사귀 친구들과 ‘유유상종’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가 비행을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낙인과 같은 긴장요인이 학업중단 이후 지위비행을 증가시킨다는 점 역시 학교에서의 긴장요인이 제거됨으로써 비행이 감소하기보다는 학업중단 이후 부정적 낙인과 같은 새로운 긴장요인으로 인해 비행이 증가할 가능성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 낙인과 같은 긴장요인은 음주·흡연·음란물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지위비행에는 영향을 미치나, 폭력·재산비행과 같은 심각한 비행에는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둘째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비행경로모형을 일반학업중단 청소년과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으로

나누어 차이를 확인한 결과, 이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은 대체로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을 보다 잘 설명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지위비행보다도 중비행에서 두 집단의 비행경로에 있어 차이가 더 뚜렷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비행을 설명하는 비행경로 중에서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에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참여를 매개로 한 경로였으며, 부정적 낙인을 매개로 한 경로도 다른 경로에 비해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최초 학업중단 시점이 빠르고, 학업중단 이전의 성적이 낮으며, 문제행동 때문에 학교에서 ‘짜린’ 청소년일수록 참여의 정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낮은 참여는 인습적 활동보다는 비구조화된 활동에 노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심각한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비행경로는 비행학업중단 청소년보다는 주로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에서 나타나는 경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경로를 설명하기 위해 모형을 수정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비행학업중단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지위비행의 경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보호관찰관과의 유대관계가 낮을수록 지위비행을 더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비행의 경우에는 매개요인으로 설정한 어떤 요인도 통계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행요인으로 설정한 최초 중단시기만이 유일하게 중비행에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지위비행은 보호관찰소의 지속적인 관심과 미래에 대한 계획 혹은 비전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지만, 심각한 비행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중비행의 경우에는 오히려 학업중단 시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도 학업중단 시점이 빠를수록 더 일찍 좋지 못한 환경에 처함으로써 비행이나 범죄에 쉽게 이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훙 안제넨트·안톤 드 만, 1999: 182).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무엇보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서는 조기에 학업중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최초 중단시기가 인습적 활동에 대한 참여를 매개로 하여 지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초 중단시기가 빠를수록 학업중단 이후 인습적 활동에 대한 참여가 적으며, 참여가 적을수록 지위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에도 최초 중단시기가 중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 시기에 학업중단을 하는 것은 건전한 대안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학교생활에의 부적응의 결과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무단결석, 장기결석 등 학교생활 부적응의 징후를 보이는 학생들에 대한 조기개입 등을 통해 이들이 일찍부터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학교생활의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는 부모의 관심, 전문가의 상담이나 지원 등 학교에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수준의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시기가 빠를수록, 학업중단 이전 성적이 나쁠수록, 부정적 이유로 학교를 중단할수록 학업중단 이후 인습적 활동에 대한 참여가 적으며, 이는 다시 중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면, 일차적으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대한 조기개입이 필요한 동시에, 이러한 개입이 효과적이지 못할 경우 이차적으로는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와 국가가 나서서 부적응 학생의 약화된 유대가 다시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습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일반학업중단 청소년과 비행학업중단 청소년 모두 인습적 활동에의 참여가 지위비행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에는 인습적 활동에의 참여가 중비행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학업중단 이후 학교를 대신할 수 있는 인습적 활동에 참여할수록 비행이 억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비구조화된 활동(쇼핑센터 등 서성거리기, 동네 배회하기 등)이 비행증가와 관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Fleming, Catalano, Mazza, Brown, Haggerty and Harachi, 2008), 실외에서 노는데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시간이 많을수록 문제행동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McHale et al., 2001).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특히, 학교생활의 부적응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이들이 구조화된 활동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보호관찰 중인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이 건설적인 대안 활동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sup>12)</sup>

넷째로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보호관찰관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학업중단 이후 지위비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중단 이후의 유대가 비행을 억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학업을 중단한 비행청소년에 대해 보호관찰관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준다면 이들의 비행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년담당 보호관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도 마련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보호관찰관의 업무경감을

---

12) 실제로 연구진이 안양보호관찰소에서 심층면접을 한 남자청소년은 의무적으로 실시한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취미활동(연극, 스키, 요리)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취미활동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전에 사귀던 비행친구들과의 접촉도 줄어들게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떨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이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친구와의 애착이 비행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친구관계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친구와의 좋은 유대관계가 항상 사회통제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비행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행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부정적 친구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 이후의 긴장요인보다는 사회통제요인이 학업중단 이후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보다 더 설득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사법기관이 사회유대요인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학업중단 청소년에 초점을 맞춰 이들의 학업중단 이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향후에도 학업중단 청소년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서 이들의 적응이나 비행과 관련될 수 있는 요인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민규, 김주환. 2006. “잠재적 사용자의 성향이 DMB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보』38(5): 7-36.
- 김범구. 2012. “청소년 학업중단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19(4): 315-337.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준호, 이동원, 박미성. 1993. 『중퇴와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혜영. 2005.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삶과 문화』,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 배병렬. 2002. 『(Lisrel) 구조방정식모델: 이해와 활용』. 대전: 대경출판사.
- 송순용, 양철호. 2009. “보호관찰청소년의 재사회화 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사회연구』 17: 61-82.
- 양종국, 김충기. 2002. “비행청소년의 비행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재비행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10(2): 101-121.
- 윤철경, 류방란, 김선아. 2010.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과제 보고서.
-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순목. 1990. 『공병량구조분석』. 서울: 성화사.
- 전영실, 김지영, 박성훈. 2013. 『비행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수형. 2011. “소년범죄”, pp. 110-12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홉 안제넌트, 안톤 드 만 저. 노성호, 김지선, 이동원, 김지선 역. 1999. 『청소년비행의 이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Agnew, Robert.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47-87.
- Akers, R. L. and Sellers, C. S. 2009. *Criminological Theories: Introduction, evaluation, and application* (한국어판: 민수홍, 박기석, 박강우, 기광도, 전영실, 최병각 공역, 범죄학 이론, 나남출판, 2011).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Browne, M. W. and Cudeck, R. 200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Bollen, K. A. and Long, J. S.(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CA: Sage.
- Fleming, C. B., Catalano, R. F. , Mazza, J. J., Brown, E. C., Haggerty, K. P. and T. W. Harachi, 2008. "After-school activities, misbehavior in school, and delinquency from the end of elementary school through the beginning of high school: a test of social development model hypothese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8(2): 277-303.
- Hirschi, T. 1969. *The causes of delinquenc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ng, S., Malik, M. L., and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 63: 636-654.
- Kline. Rex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Y: The Guilford Publications, Inc.
- McHale, S. M., Crouter, A. C. and Tucker, C. J. 2001. "Free-time activities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6): 1764-1778.
- Rumberger, W.R. 2012. *Dropping out: Why students drop out of high school and what can be done about it*, Harvard University Press.
- Steiger, J. H.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 173-180.



## 발표 2

.....

# 학업중단 전후의 문제행동 변화에 따른 유형분류와 특성 :

보호관찰 중인 학업중단 청소년을 중심으로

강 지 현

(울산대학교 교수)

# 학업중단 전후의 문제행동 변화에 따른 유형분류와 특성

## : 보호관찰 중인 학업중단 청소년을 중심으로

### 1.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필요성

학업중단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관련용어와 명칭에 대한 검토를 비롯해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거나 관련요인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과 특성파악,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예방대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어 왔다(김범구, 2012; 김영희, 허철수, 2012; 금명자, 2008; 조성연, 이미리, 박은미, 2009). 그러나 학업중단 이후의 삶이나 학업중단과 범죄 및 비행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며, 학업중단 상태인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도 일반청소년과의 개인 사회적 요인에 대한 비교(김선아, 2012)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수행된 적이 없다. 학업중단 상태인 비행청소년들은 학교에 재학 중인 비행청소년 및 학업중단 상태인 일반 청소년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고 이들의 재비행 억제요인에 대한 연구필요성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상태인 비행청소년들에 주목하여 이들의 문제행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학업중단과 문제행동의 상관관계에 주목하여 학업중단 전후의 문제행동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를 통해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기존 연구결과에서 일관되지 않게 나타난 학업중단과 문제행동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청소년의 학업중단과 비행이나 범죄, 일탈행위 등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긴장이론과 통제이론을 토대로 많이 설명된다. 전통적인 긴장이론에 따르면 학업중단을 통해 학교를 떠나게 됨으로써 긴장의 원인을 제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학업중단이 범죄억제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Elliott & Voss, 1974)고 보는 반면 일반긴장이론에서는 학업중단과 관련한 긴장발생 환경에 따라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부분적으로 학업중단이 범죄억제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긍정하였다. 즉 학교 부적응 등의 목표달성 실패로 인한 긴장 또는 학교에서의 왕따 등의 부정적 자극을 경험한 청소년에게는 학업중단 및 학교로부터의 이탈이 오히려 범죄발생억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적응에 문제가 없던 청소년이 가정문제나 경제적 이유

등 외부적 이유로 학업중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학업중단 이후의 긴장유발과 이에 따른 반사회적 행동의 증가를 예상할 수도 있다고 보아(Sweeten, Bushway & Paternoster, 2009), 학업중단과 범죄의 인과관계를 세분화하여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통제 이론에서는 학교가 가지는 긍정적 가치 및 목표전수 기능을 고려하여 학업중단이 범죄행동 및 반사회적 행동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학업중단 이후의 청소년들이 가족과 강한 전통적 유대를 형성하거나 사회인 혹은 부모 등의 역할을 통해 오히려 강한 전통적 유대를 형성할 수도 있음을 고려한다면 학업중단이 반드시 범죄행동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학업중단이 이후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Sweeten 등(2009)은 정체성 이론을 차용하였는데, 동 이론에서는 자아 개념이 개인이 내포하고 있는 다중정체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개인의 자기관점이 각기 다르고 이에 따라 타인과의 상호작용 시에 초래되는 부조화 및 불일치에 순응하거나 대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학업 중단자들이 다양한 자기관점에 따라 학업중단 이후 범행여부에 다른 방향성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업중단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학업중단 이전에 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학업중단의 이유, 그리고 중단이후의 삶 등 매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 보다 복잡한 인과관계를 내포하고 있고, 학업중단과 범죄, 혹은 문제행동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적 선행연구들 또한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교를 이탈한 청소년들의 비행 및 문제행동이 증가하였음을 근거로 학업중단이 비행 및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내리는 연구들이 있는 반면, 학업중단이 비행 및 문제행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먼저 학업중단이 문제행동의 증가와 관련있다는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고등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을 20세 이후까지 추적조사하여 고등학교 졸업생들과 범죄율을 비교한 결과, 고등학교 초기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의 20대 범죄율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난 차이가 있음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Bachman & O'Malley, 1978; Hathaway, Reynold & Monachesi, 1969). 단순히 학업중단자들과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의 범죄율을 추적하여 비교하는 방식 이외에도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검증한 연구들에서도 학업중단과 범죄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가 있는데, 1945년 필라델피아 코호트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된 Thornberry, Moor, 그리고 Christenson (198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직후에는 학업중단 학생들의 비행 및 범죄행동에 변화가 없었으나, 이들을 25세까지 추적조사한 결과에서는 학업중단과 범죄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중단 학생들은 20대의 경찰체포 기록으로 측정된 범죄율이 졸업학생

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학업중단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조사자의 연령과 인종,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학업중단 이후의 취업여부 및 혼인상태 등을 통제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이후 범죄행위에 더 많이 연루된다는 연구결과들과는 달리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범죄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였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비행율은 학교를 그만두기 직전에 가장 높고 학교를 그만 둔 이후에는 매우 급격히 낮아진다는 점을 밝힌 연구(Elliott & Voss, 1974)가 대표적인데, 학업중단 이후 이들의 비행율이 급격히 낮아진다는 특성은 학업중단 시기 및 학업중단 시의 연령을 통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Phillips와 Kelly(1979)가 검토한 선행연구들도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 수준은 학업중단 이후에 급격히 낮아졌음을 밝혔다.

이처럼 학업중단이 청소년의 범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비일관적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와 함께 기존의 연구들이 학업중단 청소년을 매우 동질성이 높은 집단으로 이해해 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학업중단의 이유 및 학업중단 시기 등을 중심으로 보다 세분화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연구로 Jarjoura(1993 & 1996)이 있다. 두 연구에서는 학업중단의 이유와 범죄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는데, 학업중단이 반드시 이후 범죄율을 높이는 것은 아니며, 학교관련 혹은 개인적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 절도범행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차이가 있었다. 이를 통해 Jarjoura(1996)은 학업중단 이유에 따라 학업중단이 범행촉진 혹은 범행억제의 기능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학업중단과 범죄의 상관관계는 학업중단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학업중단과 범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실증적 선행연구들은 학업중단과 범죄의 상관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여러 관련변수들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관계성을 가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학업중단과 범죄 및 문제행동 가능성의 복잡한 관계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이 학업중단 전후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특히, 학업중단과 범죄의 상관관계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과 학업 중단자는 개인적 특성은 물론 학업중단의 이유 등에서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 특성을 지닌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학업중단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행동 변화가 어떤 유형들로 나타나는지에 따라 문제행동 변화양상에 따른 유형을 구분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문제행동 변화가 어떤 유형을 가지는지를 이해하고 다양한 유형에

다른 차별적인 접근과 개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이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파악하여 문제행동 변화양상에 따른 분류를 실시하고, 학업중단 전후의 문제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분류된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문제를 가진다.

첫째, 학업중단 전후의 문제행동 변화양상에 따른 잠재계층은 몇 개로 구분되며 그 형태는 각각 어떠한가?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을 둘러싼 개인적 요인 및 가족요인, 학교체계, 친구또래체계 및 학업중단 관련 요인들 가운데, 이러한 잠재계층의 결정요인으로 유의한 변수는 무엇인가?

셋째, 문제행동의 경중에 따라 구분한 범죄행동과 비행의 변화양상에 따른 잠재계층의 수 및 유형은 유사한가? 잠재계층의 결정요인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은 범죄행동과 비행의 변화양상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에 차이가 있는가?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과 분석자료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의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장기보호관찰대상자(최대 2년)이면서 조사시점(2013년 7-8월) 기준으로 보호관찰 1년 미만인 보호관찰 중인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은 수도권 6곳을 포함한 총 11개 보호관찰소에서 이루어졌고, 관련자료의 누락이 없는 190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조사는 보호관찰 담당직원이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조사대상자에게 패널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실시하였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비행관련 내용은 보호관찰 담당직원이 기입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조사대상 청소년에게 고지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학업중단의 실태 및 복교 경험 등 학업중단 관련 문항, 자아존중감 등을 포함하는 개인의 심리정서적 특성, 부모관계 및 친구관계, 학교생활, 지역사회 등을 포함하는 환경적 특성, 그리고 학업중단 이후의 경험과 진로계획 등과 가치관, 보호관찰 관련사항 등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의 문제행동 가·피해 경험 또한 포함하고 있다.

## 2. 주요 변인과 자료분석 방법

먼저 학업중단 전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자료가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행동 경험여부에 대한 항목들을 활용하였고, 청소년 비행은 지위비행과 범죄행동 혹은 그 경중에 따라 구분한 선행연구를 참고하고(김준호, 이동원, 박미성, 1993; 노성호, 2007) 비행의 경중에 따른 학업중단 전후 변화양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문제행동을 비행과 범죄행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범죄행동은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남의 돈이나 물건 빼앗기 등의 세 문항에 대해 경험여부를 묻는 이항변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에 대해 각각 질문하는 총 6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비행은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보기, 돈 내기·도박해 보기(인터넷 포함)의 네 문항을 포함하는데 각각에 대해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의 경험여부를 묻는 총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론적 모형의 검증에 있지 않고, 학업중단 전후 문제행동 변화에 따른 유형을 구분해 보고 구별되는 유형들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학업중단 전후 문제행동 변화양상에 따라 구분되는 집단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개인요인과 부모, 친구관련 요인, 그리고 학교관련 요인 등을 포함하여 계층 간의 구별되는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관련 요인들은 선행연구들에서 밝힌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및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구성하였고, 학업중단의 이유 및 시기에 따라 학업중단이 범죄 및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학업중단 관련요인을 포함하였다.

개인관련 요인으로는 성별과 연령대(중학교 학령기와 고등학교 학령기로 구분), 자아존중감을 포함하였고, 부모요인과 친구요인은 각각 부모애착과 방임, 또래애착과 친구비행성에 해당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학교관련 요인은 학습 부적응과 학교규정 위반, 전학여부를 묻는 이동성을 포함하며, 학업중단 관련요인은 이유와 시기, 중단이후 만족감을 포함하였고, 보호관찰관과의 관계 또한 영향요인으로 포함되었다. 성별과 연령대, 이동성, 학업중단의 시기와 이유는 이항변수이며,

학교규정 위반은 빈도를 기준으로 5점척도(전혀 없었다, 연1-2회, 월1-2회, 주1-2회, 거의 매일)항목이다. 이외의 모든 항목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요인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표 1. 측정문항의 내용과 평균, 표준편차 및 신뢰도

요인	변수	문항내용	평균	표준 편차	Chronbach's $\alpha$
개인	성별	남자(0) 여자(1)	0.242	0.429	-
	연령대	초·중학교 학령(0) 고등학교 학령(1)	0.889	0.314	-
	자아 존중감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한다	2.984	0.477	0.872
부모	부모애착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나에게 따뜻하게 해주신다 고민을 들어주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3.107	0.549	0.949
	방임	다른 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으셨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셨다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아플 때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셨다	1.926	0.661	0.767
친구	또래애착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때 친구들에게 말할수있다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3.182	0.379	0.839
	친구 비행성	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잘 괴롭힌다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잘 때린다 내 친구들은 물건을 잘 훔친다	1.746	0.510	0.816
학교	학습 부적응	학교 수업내용은 내 관심,흥미와는 상관이 없었다 학교 수업내용은 내 수준에 맞지 않았다 학교 수업을 이해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다	2.686	0.789	0.678
	학교규정 위반	지각 무단결석 두발·복장 등 규정위반 숙제를 하지 않음 수업을 몰래 빼먹음 선생님에게 대들었음 잘못된 행동을 하여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감	3.198	2.118	0.833
	이동성	이사등의 이유로 전학 경험 없음(0) 있음(1)	0.40	0.491	-
학업 중단	시기	초·중학교(0) 고등학교(1)	0.568	0.497	-
	이유	개인사정/기타(0) 학교 부적응/품행문제(1)	0.700	0.459	-

	중단이후 만족감	내가 선택한 결과이니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2.397	0.677	0.678
보호 관찰	보호관찰 관계	나의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려고 노력하신다 내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 알려고 하신다 나를 잘 도우신다 내 문제를 의논한다	3.222	0.321	0.856

®역코딩 문항

### 3. 자료분석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의 다양한 문제행동에 대한 응답한 패턴을 토대로 범주화하여 유형구분을 시도하고, 그 계층에 속할 확률을 찾아내어 귀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sup>1)</sup>을 실시하였고, 분석을 위해 Mplus 5.2, SPSS18.0을 활용하였다. 학업중단 전후 문제행동 변화양상에 따라 구분되는 집단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변수들을 포함한 다항로지분석결과를 실시하였고, 다항로지 분석에 관련 변인들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학업중단 전후 문제행동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 구분

먼저, 보호관찰 중인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전후 문제행동 변화양상에 대한 잠재계층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학업중단 전후 문제행동 변화와 관련한 잠재계층을 구분하는데 적합한 모형을 찾기 위해 잠재계층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a)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a)<sup>2)</sup>, Entropy값<sup>3)</sup>과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BLRT)값<sup>4)</sup> 등을

- 1)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을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학업중단 이전의 문제행동 여부와 학업중단 이후의 문제행동여부를 각각 나누어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의 잠재계층 분석방식이 타당하며 안정적으로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의 잠재계층을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잠재전이 분석방식이 활용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자료에서는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의 문제행동양상의 잠재계층이 안정적인 형태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아, 잠재전이 분석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다.
- 2) AIC와 BIC 그리고 adjusted BIC를 포함하는 IC(information criteria)는 흔히 정보기반적합도 지수로 불리는데(선택수, 2010),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모수의 수와 표본수에 따라 서로 다른 패널티값을 부과하는 것으로 적합도 지수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모수를 이용하여 높은 로그우도 수치를 만들어 내는 모형을 선호하여, IC값이 작을수록 최적의 잠재모형으로 평가된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하였다.

먼저 범죄행동의 경우를 살펴보면, 잠재계층이 2개인 모형의 BIC 값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AIC값은 잠재계층이 4개인 모형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잠재계층이 4개인 모형에서는 BLRT값이 유의미하지 않아 잠재계층이 4개인 모형이 3개인 모형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의 경우에는, BIC값이 잠재계층의 수가 3개인 모형에서 가장 작았고, BLRT값을 보면 잠재계층이 4개인 모형이 3개인 모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과 함께 잠재계층을 통해 분류되는 각 계층의 수를 고려하여, 범죄행동과 비행 모두에서 잠재계층이 3개인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2. 잠재계층의 수와 IC, 계층간 BLRT 검증결과

범죄행동		2 classes	3 classes	4 classes
	AIC	1243,111	1195,594	1174,745
BIC	1330,781	1351,451	1398,790	
adj. BIC	1245,256	1199,407	1180,227	
Entropy	0.822	0.869	0.887	
BLRT	160,777***	89,517***	65,778	
분류결과	c1=59.16% c2=40.84%	c1=28.11% c2=22.70% c3=49.18%	c1=28.95% c2= 8.42% c3=20.50% c4=42.13%	
비행		2 classes	3 classes	4 classes
	AIC	1241,738	1162,674	1145,866
BIC	1342,396	1338,013	1395,887	
adj. BIC	1244,201	1166,964	1151,983	
Entropy	0.835	0.908	0.934	
BLRT	168,071***	125,159***	107,370	
분류결과	c1=23.27% c2=76.73%	c1=23.66% c2=51.68% c3=24.65%	c1=24.24% c2=30.58% c3=22.29% c4=22.88%	

\* p<0.05, \*\* p<0.01, \*\*\* p<0.001

- 3) Entropy는 0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지는데, 하나의 잠재적인 하위집단에 속할 확률이 1에 가까울수록 증가하는 값이므로 이 값이 클수록, 즉 1에 가까울수록 그 모형에 포함된 집단수가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홍세희, 2009).
- 4) Lo-Mendell-Rubin(LMR)이나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BLRT)는 통계검증을 이용한 적합도 지수로 우도에 기초한 카이제곱 검정의 대안을 사용될 수 있으며(Muthén, 2004; 김범구, 조아미, 2013), k-1 집단 모형과 k 집단 모형 간의 로그최대우도 차이에 대한 분포추정을 이용한다. 결과에 대한 확률이 유의미하다면, k 집단 모형이 k-1 집단 모형보다 적합도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 범죄행동의 잠재계층 분류결과

학업중단 전후의 범죄행동 변화양상을 토대로 분류한 3개 잠재계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업중단 전후에 변화가 없고 저수준의 범죄행동을 유지하는 집단, 변화가 없이 고수준의 문제행동을 유지하는 집단, 그리고 학업중단 이후에 범죄행동이 급격히 감소하는 변화집단의 3개로 구분하고 각각 ‘범죄행동 저수준 유지집단’ ‘범죄행동 고수준 유지집단’ ‘범죄행동 감소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190명 보호관찰 중인 학업 중단 청소년 가운데 가장 많은 44.9%가 ‘범죄행동 저수준 유지집단’으로 나타났고, 31.2%가 ‘범죄행동 고수준 유지집단’, 그리고 23.8%가 ‘범죄행동 감소집단’으로 나타났다. 범죄행동 감소집단은 학업중단 이전에 매우 높은 범죄행동 수준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범죄행동 고수준 유지집단보다 심하게 때리기 등의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업중단 이후에는 범죄행동을 거의 하지 않는 수준으로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특성이 있었다(표3, 그림1).

표 3. 범죄행동 잠재계층의 조건부 응답확률

학업중단 전후 범죄행동	경험 여부	잠재계층		
		범죄행동 고수준 유지집단	범죄행동 감소집단	범죄행동 저수준 유지집단
돈, 물건 훔치기 -학업중단 이전	없다	0.403	0.356	0.729
	있다	0.597	0.644	0.271
심하게 때리기 -학업중단 이전	없다	0.479	0.092	1.000
	있다	0.521	0.908	0.000
돈, 물건 빼앗기 -학업중단 이전	없다	0.338	0.234	0.929
	있다	0.662	0.766	0.071
돈, 물건 훔치기 -학업중단 이후	없다	0.251	1.000	0.883
	있다	0.749	0.000	0.117
심하게 때리기 -학업중단 이후	없다	0.432	0.948	0.974
	있다	0.568	0.052	0.026
돈,물건 빼앗기 -학업중단 이후	없다	0.348	1.000	0.988
	있다	0.652	0.000	0.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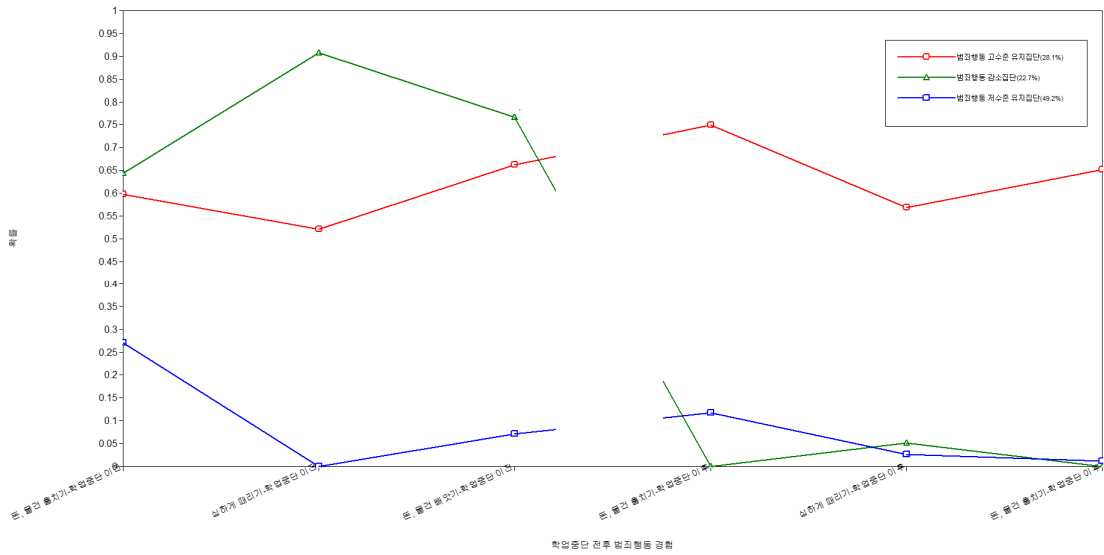


그림 1. 학업중단 전후 범죄행동 변화유형

## (2) 비행의 잠재계층 분류결과

다음으로 학업중단 전후 비행변화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결과를 살펴보면, 비교적 높은 수준의 비행을 유지하는 집단과 음주·흡연만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집단, 그리고 비교적 낮은 수준의 비행을 학업중단 전후로 유지하며 학업중단 이후 비행감소를 보이는 집단으로 구분되는데, 이들을 각각 ‘비행 고수준 유지집단’ ‘음주·흡연 고수준 유지집단’ ‘비행 저수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전체 190명 가운데 약 23.7%가 비행 고수준 집단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학업중단 이전에 음주와 흡연, 그리고 음란물 보기의 세 가지 비행의 수준이 매우 높았고 돈 내기에서도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경험한 비중이 높은 특성이 있었다. 비행 고수준 유지집단은 학업중단 전후로 음주, 흡연, 그리고 도박경험에서는 변화가 없었으나 음란물 보기는 학업중단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특성이 있었다. 가장 많은 약 51.7%는 음주·흡연 고수준 집단으로 이들은 음주와 흡연의 수준은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에 변화없이 매우 높았으나 음란물 보거나 돈내기 도박의 경험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특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약 24.6%는 비행 저수준 집단으로 이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저수준의 비행을 학업중단 전후에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학업중단 이후 전체적인 비행의 경험수준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특성이 있었다(표4, 그림2).

표 4. 비행 잠재계층의 조건부 응답확률

학업중단 전후 비행	경험 여부	잠재계층		
		비행 고수준 유지집단	음주·흡연 고수준 유지집단	비행 저수준 집단
담배 피우기 -학업중단 이전	없다	0.047	0.009	0.277
	있다	0.953	0.991	0.723
술 마시기 -학업중단 이전	없다	0.139	0.084	0.588
	있다	0.861	0.916	0.412
음란물 보기 -학업중단 이전	없다	0.141	1.000	0.800
	있다	0.859	0.000	0.200
도박하기 -학업중단 이전	없다	0.572	0.881	0.913
	있다	0.428	0.119	0.087
담배 피우기 -학업중단 이후	없다	0.000	0.010	0.491
	있다	1.000	0.990	0.509
술 마시기 -학업중단 이후	없다	0.047	0.000	0.873
	있다	0.953	1.000	0.127
음란물 보기 -학업중단 이후	없다	0.333	1.000	1.000
	있다	0.667	0.000	0.000
도박하기 -학업중단 이후	없다	0.666	0.949	1.000
	있다	0.334	0.051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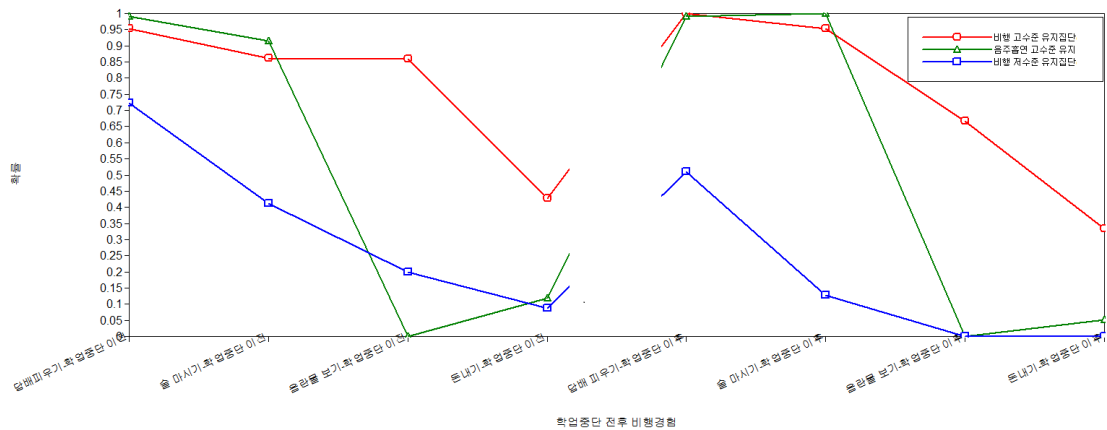


그림 2. 학업중단 전후 비행 변화유형

잠재계층 분류결과를 요약하면, 학업중단에 따른 범죄행동은 변화가 없이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고수준 유지와 저수준 유지집단, 그리고 학업중단 이후에 범죄행동 경험이 급격히 감소하는 감소집단의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범죄행동 경험의 잠재계층 분류결과가 크게 유지집단과 급감을 나타내는 감소집단으로 구분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비행의 잠재계층 분류결과는 학업중단

전후로 큰 변화를 보이는 집단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변화폭이 큰 집단으로 구별되기 보다는 비행의 수준에 따라 구별되는 것으로 나타나 고수준 유지집단과 음주흡연 고수준 유지집단, 그리고 비행 저수준집단의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비행 고수준 유지집단의 경우, 학업중단 이전과 비교하여 학업중단 이후의 음주 및 흡연수준과 돈내기 도박 경험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음란물 보기는 크게 감소하였다는 특성이 있었다.

## 2. 학업중단 전후 문제행동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

### (1) 범죄행동 변화의 잠재계층 분류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

앞서 살펴본 학업중단 전후 범죄행동 변화양상에 따라 구분되는 3개의 집단이 어떻게 다른지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개인요인(성별, 연령대, 자아존중감), 부모 요인(애착과 방임), 친구 요인(애착과 비행성), 학교관련 요인(학습 부적응, 규정위반, 이동성) 그리고 학업중단 관련요인(시기와 이유, 중단이후의 만족감), 보호관찰관과의 관계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범죄행동을 저수준으로 유지하는 집단과 비교하여 범죄행동을 고수준으로 유지하는 집단이 될 확률을 높이는 변수들은 친구의 비행성과 학업중단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의 비행성이 높을수록, 학업중단의 시기가 초·중학교의 빠른 시기에 일어날수록 학업중단 이후에 범죄행동 저수준 유지집단보다는 고수준 유지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업중단 전후 변화없이 범죄행동을 저수준으로 유지하는 집단과 비교하여 학업중단 이후에 범죄행동을 감소하는 집단이 될 확률을 높이는 변수들로는 성별과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이 범죄행동 저수준 유지집단보다는 범죄행동 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범죄행동 저수준 유지집단 보다는 범죄행동 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요인별로 비교해 보면, 개인적 요인은 학업중단 이후 범죄행동 감소집단에 속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요인과 학업중단 관련요인은 학업중단 이후 범죄행동 고수준 유지집단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애착이나 방임은 어떤 잠재계층분류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학습 부적응 및 학교규정위반 등의 학교변인, 그리고 보호관찰관과의 관계 또한 범죄행동 잠재계층분류에 유의하지 않았다.

표5. 학업중단 전후 범죄행동 변화 잠재계층 분류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

	변수	고수준 유지(vs. 저수준 유지)		범죄행동 감소(vs. 저수준 유지)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개인	성별	-0.477	0.596	1.534**	0.569
	연령대	0.115	0.616	-0.050	0.811
	자아 존중감	0.294	0.431	-0.992*	0.423
부모	부모 애착	-0.507	0.454	0.461	0.518
	부모 방임	-0.466	0.622	0.065	0.444
친구	또래 애착	-0.218	0.499	0.359	0.496
	친구 비행성	0.928*	0.378	0.203	0.399
학교	학습 부적응	0.398	0.329	0.569	0.382
	학교규정 위반	0.337	0.262	0.124	0.230
	이동성	-0.141	0.443	0.932	0.519
학업중단	학업중단 시기	-1.563**	0.549	-0.279	0.561
	학업중단 이유	-0.280	0.495	-0.721	0.495
	중단이후 만족감	-0.200	0.341	0.670	0.430
보호관찰	보호관찰 관계	-0.300	0.506	-0.891	0.560

\*p<0.05, \*\*p<0.01, \*\*\*p<0.001

(2) 비행 변화의 잠재계층 분류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

학업중단 전후 비행변화에 따라 구분되는 잠재계층 3개 집단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범죄행동 변화 모형과 동일한 요인을 적용하여 개인요인(성별, 연령대, 자아존중감), 부모 요인(애착과 방임), 친구 요인(애착과 비행성), 학교관련 요인(학습 부적응, 규정위반, 이동성) 그리고 학업중단 관련요인(시기와 이유, 중단이후의 만족감), 보호관찰관과의 관계의 영향력을 검증하였고, 결과는 <표 6과> 같다.

비행 저수준 집단과 비교하여 학업중단 전후 동일하게 비행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집단이 될 확률을 높이는 변수들로는 성별과 보호관찰관과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 청소년이 비행 고수준 유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호관찰관과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비행 저수준 집단보다는 비행 고수준 유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 저수준 집단과 비교하여, 학업중단 이후 음주·흡연 고수준 유지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들로는 보호관찰관과의 관계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보호관찰관과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음주·흡연 고수준 유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개인요인 가운데 성별만이

학업중단 이후 비행 고수준 유지집단에 속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요인이나 친구요인, 그리고 학습 부적응 및 학교규정 위반 등의 학교변인, 학업중단 시기와 이유, 만족도 등은 모두 비행 잠재계층분류에 유의하지 않았다. 보호관찰관과의 관계만이 비행잠재계층 분류에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보호관찰관과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비행저수준 집단보다는 비행 고수준 집단이나 음주·흡연 고수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학업중단 전후 비행변화 잠재계층 분류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

	변수	고수준 유지(vs. 저수준)		음주·흡연 고수준(vs. 저수준)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개인	성별	-3.631**	1.203	-0.384	0.472
	연령대	25.038	0.000	-0.144	0.615
	자아 존중감	0.581	0.529	0.075	0.369
부모	부모 애착	-0.580	0.516	-0.015	0.407
	부모 방임	-0.866	0.625	0.116	0.442
친구	또래 애착	0.347	0.526	0.310	0.425
	친구 비행성	0.492	0.540	-0.208	0.546
학교	학습 부적응	0.246	0.380	0.088	0.308
	학교규정 위반	0.188	0.304	0.195	0.226
	이동성	-0.791	0.632	-0.477	0.450
학업중단	학업중단 시기	0.340	0.645	0.142	0.479
	학업중단 이유	0.065	0.568	0.131	0.473
	중단이후 만족감	0.814	0.539	0.559	0.372
보호관찰	보호관찰 관계	-1.793**	0.615	-1.205**	0.460

\*p<0.05, \*\*p<0.01, \*\*\*p<0.001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학업중단 전후의 문제행동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을 분류해보고 잠재계층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이는 선행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학업중단과 범죄 및 비행 등의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이질적인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는 학업중단 이후의 문제행동 증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이었다. 연구결과, 학업중단 전후 범죄행동의 변화는 고수준 유지, 저수준 유지, 범죄행동 감소의 세 집단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의 비행성과 학업중단 시기는 범죄행동 고수준 분류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과 성별은 범죄행동 감소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의 경우에는, 고수준 유지,

음주·흡연 고수준 유지, 그리고 저수준 집단으로 구별되었고 보호관찰관과의 관계와 성별이 비행 고수준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학업중단 전후의 문제행동 변화 및 영향요인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학업중단 및 학교로부터의 이탈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이후에 범죄행동의 증가 및 비행증가를 경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처럼 학업중단 전후의 문제행동 변화양상을 통해 중단이전과 이후의 문제행동 경험을 모두 고려하여 살펴본 결과, 다수의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에 범죄수준을 학업중단 이전과 유사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특성이 있었다. 범죄행동의 변화에 따른 분류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의 약 45%가 학업중단 전후 변화없이 문제행동 저수준 유지집단으로 나타났고, 23.8%는 범죄행동이 학업중단 이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은 잠재유형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단전후의 비행변화에 따른 유형분류를 하지 않고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학업중단 전후 흡연경험을 비교하였을 때 학업중단 이전 91.6%이던 흡연율이 중단이후 87.4%로 감소하였고, 술을 마신다는 대상자의 비율은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 각각 77.9%, 77.4%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비행 저수준 집단의 음주 및 흡연은 학업중단 이후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두 집단의 경우 음주 및 흡연율이 학업중단 이후 오히려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학업중단 전후 문제행동 변화양상은 범죄행동과 비행 간에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범죄행동의 변화양상에서는 학업중단 이전 범죄행동의 수준이 매우 높았으나 중단이후 범죄행동이 급감하는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문제행동이 학업중단 이후에 급격히 감소하는 유형은 비행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비행에서 학업중단 이후에 비행수준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집단은 비행 저수준 집단으로 학업중단 이전에도 비행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이 있었다. 즉, 학업중단 이후 범죄행동이 감소한 집단은 중단 이전 매우 높은 수준의 범죄행동을 한 집단이라는 특성이 있는 반면, 학업중단 이후 비행이 감소한 집단은 학업중단 이전부터 비행의 수준이 낮은 집단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를 토대로 학업중단이 범죄와 비행에 달리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학업중단이 범죄 및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때 범죄와 비행의 구분 필요성을 제시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학업중단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범죄의 종류에 따라 구별하여 살펴보고자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업중단 시기 및 이를 고려한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최초 학업중단 시기가 초·중학교 등으로 빠른 경우, 학업중단 이후에 범죄행동 저수준 유지집단보다는 고수준 유지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중단의 시기가 빠른 청소년들의 경우 이미 범죄행동 관련한 위험요인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대상자들일 수 있어 학업중단이 이들의 범행억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고, 이와 반대로 학교 등의 교육시스템으로부터의 조기에 이탈한 이들의 범행을 조장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조기에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이들을 위한 지원책의 차별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호관찰관과의 긍정적 관계는 비행 저수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데는 유의미하였으나 범죄행동의 집단구별 가능성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호관찰관과의 긍정적 관계가 주는 일종의 보호효과를 긍정하는 연구결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보호관찰의 긍정적 효과는 범죄 행동의 집단구별가능성이 아닌 비행의 집단수준의 집단구별 가능성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보호관찰관의 보호효과에 대한 고민과 함께 범죄와 비행의 차이에 대한 후행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단 이후의 기간을 통제하거나 중단연구를 통해 보다 정교하게 학업중단 전후의 문제행동 변화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업중단 이후의 범죄행동 감소가 중단직후에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학업중단 이후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중단 이후 문제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양식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이들의 영향력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보호관찰소를 통해 설문이 이루어진 점과 편향의 결과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체포기록이나 입건기록 등 공식자료를 통해 범죄행동 여부를 연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학업중단 전후의 범죄행동에 대한 시간 순서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여 살펴본다면, 학업중단 전후의 범죄 및 비행변화를 살펴보는 데서 나아가 학업중단과 범죄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 또한 가능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범구 (2012). 연구논문: 청소년 학업중단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19(4), 315-337.
- 김범구, 조아미. (2013). 잠재계층분석을 이용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한국청소년 연구, 24(3), 5-31.
- 김성곤 (2005). 비행청소년의 가정·학교·사회 환경·개인 심리적 변인과 재비행과의 관계. 소년보호연구, 8, 165-217.
- 김선아 (2012). 학업중단 청소년 중 비행과 일반청소년의 개인사회적 요인과 중단 후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0), 216-226.
- 김준호, 이동원, 박미성 (1993). 중퇴와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금명자 (2008). 우리나라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이해.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지, 14(1), 299-317.
- 노성호 (2007). 청소년비행에 대한 생애과정이론과 잠재적특성이론의 경험적 비교. 형사정책연구, 18(4), 243-275.
- 신태수 (2010). 중단프로파일 분석과 군집분석을 이용한 잠재집단연구: 성장혼합모형과 비교를 통하여. 교육평가연구, 23(3), 641-664.
- 조성연, 이미리, 박은미 (2009). 학업중단 청소년. 아동학회지. 30(6), 391-401.
- 홍세희(2009). Program 3 구조방정식 모형: 고급. 서울: S&M 리서치그룹
- Bachman, J. G., & O' Malley, P. (1978). *Youth in Transition*, Volume VI: Adolescence to Adulthood: Change and Stability in the Lives of Young Men.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Elliott, D. S., & Voss, H. L. (1974). *Delinquency and Dropout*. Lexington, MA:

D.C. Heath.

- Hathaway, S. R., Reynolds, P. C., & Monachesi, E. D. (1969). Follow-up of the later careers and lives of 1,000 boys who dropped out of high schoo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370-80.
- Jarjoura, G. R. (1993). Does dropping out of school enhance delinquent involvement? Results from a large-scale national probability sample. *Criminology*, 31, 149-72.
- Jarjoura, G. R. (1996). The conditional effect of social class on the dropout-delinquency relationship.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3, 232-55.
- Muthen, B.(2004). Latent variable analysis: Growth mixture modeling and related techniques for longitudinal data. In D. Kaplan (ed.),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social sciences* (pp.345-368). Thousand Oaks, CA: Sage.
- Sweeten, G., Bushway, S. D., & Paternoster, R. (2009). Does Dropping Out of School Mean Dropping into Delinquency? *Criminology*, 47(1), 47-91.
- Thornberry, T. P., Moore, M., & Christenson, R. L. (1985). The effect of dropping out of high school on subsequent criminal behavior. *Criminology*, 23, 3-18.
- Phillips, J. C., & Kelly, D. (1979). School failure and delinquency: Which causes which? *Criminology*, 17, 194-207.



발표 3

비행청소년의 학업중단 전후  
문제행동, 자기통제력, 비행친구  
: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의 비교

민 수 흥  
(경기대학교 교수)

# 비행청소년의 학업중단 전후 문제행동, 자기통제력

## 비행연구 :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의 비교

### I. 서론

#### 1. 문제제기

청소년비행을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경우에 대부분 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학교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연구하게 되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협동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2013년에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중단 조사”를 실시한 것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비행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김준호, 이동원, 박미성, 1993, 최영신, 2000)가 매우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 때에 이 연구의 초점을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탐색적 수준의 연구로 잡을 수 있다. 청소년 비행에 대한 대표적인 탐색적 연구로는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비교 연구하여 1950년에 출간한 글루크부부(Glueck and Glueck, 1950)를 꼽을 수 있다. 이번 학업중단 청소년자료도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으로 나누어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이 두 집단 간의 차이를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탐색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감추어진 사실이나 현상 따위를 알아내기 위하여 더듬어 찾다”<sup>1)</sup>로 향후 연구가 필요한 주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기능은 있지만 국가기관이 추진해야 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비교 연구를 통해 탐색적으로 파악된 요인이 학업중단 청소년 비행의 원인인지 여부도 알지 못한 채 정책제언을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어떤 현상에 대해 그 이유를 부여하는 설명적 수준의 분석이 정책제언을 위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Barbbie,

1)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268403&q=%ED%83%90%EC%83%89>, 2014년 6월 26일 검색

2014).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현상을 인과관계의 형태로 설명하려면 이론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다행스러운 사실은 글록부부 이후로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 이론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 2. 연구의의

이 논문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비행이 주요 범죄이론들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려 한다. 이번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이론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용된 설문지 문항들에 의해 제한된다. 이론으로부터 출발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기에는 이론의 주요 개념들이 설문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다. 주어진 설문지 안에서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이론의 주요 개념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문항들을 선별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론적 맥락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택하려 한다. 이번 분석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친구의 비행성향, 가정의 경제적 수준, 학업중단 당시의 학교성적 수준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이들의 비행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론과 연결 지어 설명해 보겠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을 경험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가 매우 적다는 사실로부터 이번 연구의 일차적 의의를 찾을 수 있겠고, 더 나아가 이론적 시각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한다는 의의도 발견할 수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 중에는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비행 청소년집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비행을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다는 면에서 일반 청소년과는 상당히 다른 집단으로 볼 수 있다. 과연 기존의 청소년 비행이론이 보호관찰 중인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도 적용될 것인지 여부는 기존 이론의 입장에서는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즉 기존의 이론(들)이 보호관찰 중인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한다면 그 이론의 일반성이 입증되는 것이고, 반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 특수 집단의 비행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의 개발이 필요하게 된다는 면에서 이번 연구가 기존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검증하는 의미도 가진다.

## II. 연구방법

### 1. 자료 및 분석방법

이번 연구를 위해 2개의 자료를 사용한다. 하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13년도에 수집한 자료이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위치한 정규 중·고등학교 학업중단자를 대상으로 조사대상을 확보하고, 여기에서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소개(스노우볼링)나 웹 홍보, 상담지원센터를 통해서 추가로 확보한 조사대상자들로부터 일대일대면면접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엄아람, 최은희, 2013). 이번 논문의 분석대상이 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은 모두 776명이다.

다른 하나의 자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13년에 수집한 자료이다. 중고생 연령대의 장기보호관찰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전국의 11개 보호관찰소에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번 연구에 포함된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은 모두 220명이다. 이상의 두 자료 모두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종단조사이며, 2013년에 수집한 자료는 1차년도 자료(1st wave)에 해당한다(전영실, 김지영, 박성훈,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각기 수집한 두 자료 모두 SPSS for Windows(Version 21.0)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이번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각 변수의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알아보았다.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사이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하고,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저지른 비행과 이를 설명하기 위해 선정된 변수들 사이의 이변인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단순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독립변수들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비행을 설명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2. 주요변수의 측정

#### (1) 종속변수: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의 비행

비행은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각기 9가지 비행경험의 유무를 통해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

로는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 음란물 보기, 돈내기 도박, 자살 시도, 공공장소의 기물/물건 파손의 9가지이다.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이전의 비행 지수의 신뢰도는 .77이고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은 .68로 나왔다. 학업중단 이후의 비행지수 신뢰도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이 .70이고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은 .71이다.

## (2) 독립변수

### 가.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은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and Hirschi)가 1990년에 출간한 범죄의 일반이론(A General Theory of Crime)에 근거한 개념이다. 자기통제이론은 고전주의 범죄학이 그리고 있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기본가정 위에 확립되어 있다. 즉 인간은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합리적인 선택자로 그려진다. 동시에 범죄는 이기적인 인간의 욕구를 손쉽게 즉각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가정되어 모든 인간은 범죄에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시각이다. 갓프레드슨과 허쉬에 따르면, 범죄에의 동기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어려서 가정을 중심으로 한 훈육을 통해 스스로의 욕구충족을 통제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비행과 범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자기통제력의 측정은 태도적 측정과 행위적 측정으로 나뉜다. 그래스미크 등(Grasmick, Tittle, Bursik and Arneklev, 1993)은 자기통제력의 6개의 하위영역을 측정하는 태도적 측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허쉬와 갓프레드슨(Hirschi and Gottfredson, 1993)은 자기통제력을 태도적으로 측정하는 것보다 행위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더 선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의 태도적 측정 문항 5개를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와 여기다 행위적 측정문항 2개를 추가하여 모두 7개의 문항으로 측정할 것을 함께 사용하여 어느 측정이 더 설명력이 높은지 비교하고자 한다.

먼저 자기통제력의 태도적 측정을 위해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의 5개 문항을 사용하여 역순으로 리코딩한 다음 지수로 측정하였다. 자기통제력의 지수값이 클수록 응답자의 자기통제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자기통제력의 태도적 측정이 갖는 신뢰도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은 .71이고,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은 .79이다.

이상의 5가지 문항에다가 행위적 측정문항으로 학교를 그만 두기 전에 숙제를 하지 않는 일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를 묻는 문항<sup>2)</sup>과 “학교를 나가기 싫어서 결석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학교를 나가기 싫어서 결석하기 시작한 일은 언제 처음 있었습니까?)”<sup>3)</sup>의 2문항을 추가하여 모두 7문항으로 구성된 자기통제력을 최종적으로 측정하였다. 위에서 열거한 7개 문항으로 태도적 측면과 행위적 측면을 통합하여 측정한 자기통제력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의 alpha값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은 .67이고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은 .70으로 나타났다.

#### 나. 비행친구 성향

비행친구 성향은 “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잘 괴롭힌다,”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잘 때린다,” “내 친구들은 물건을 잘 훔친다”의 3문항을 합하여 지수화 하였다. 비행친구 성향은 서덜랜드 (Sutherland and Cressey, 1980)의 차별교제이론의 명제 중에서 “범죄행위의 학습에서 중요한 사항은 친밀한 인격적 집단에서 이루어진다.”와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인 정의가 비우호적인 정의보다 클 때, 개인은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와 관련이 있다. 서덜랜드는 범죄를 배우는 친밀한 집단으로 친구집단을 가정하고 특별히 법위반에 우호적인 정의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행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운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비행친구 성향은 차별교제이론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친구 성향의 신뢰도는 .87이고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은 .82로 나왔다.

#### 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이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성별, 연령, 가정의 결혼여부, 가정의 주관적 경제수준, 학업중단 당시의 학교성적을 사용하였다. 먼저, 성별은 여자를 ‘0’, 남자를 ‘1’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연령은 응답자가 제시한 출생년도를 가지고 계산하였다. 가정의 결혼여부는 부모님의 결혼상태를 묻는 질문에서 ‘결혼’을 온전가정으로, 나머지(재혼, 별거, 이혼, 사별, 부모님이 안 계심)는 결손가정으로 묶어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가정의 주관적 경제수준은 ‘매우 못산다’부터 ‘매우 잘산다’까지 7단계로 측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학업중단 당시의 학교성적은 ‘최하위권,’ ‘하위권,’ ‘중하위권,’ ‘중위권,’ ‘중상위권,’ ‘상위권,’ ‘최상위권’의 7 등급 응답범주를

2) 응답범주를 역순으로 리코딩한 다음 ①‘거의 매일,’ ②‘주 1-2회,’ ③‘월 1-2회,’ ④‘연 1-2회’와 ‘전혀 없었다’의 4단계로 묶어서 지수구성에 사용하였다.

3) 학교에 나가기 싫어서 결석하기 시작한 연령이 빠를수록 손쉽고 즉각적인 욕구충족의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없다’의 4단계로 재구성하여 지수구성에 사용하였다.

사용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운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긴장이론(Merton, 1938)에서 주장하는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과의 접근성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간접적으로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모든 계층의 사회구성원들이 사회가 제시한 목표를 수용하지만 하위계층은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합법적 수단으로서의 좋은 교육과 직업에 접근하기 어려워 타 계층 구성원보다 높은 수준의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 머튼은 높아진 긴장을 줄이기 위한 적응양식 가운데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혁신(innovation)적 적응을 통해 범죄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 문항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긴장이론의 적용가능성을 간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 학업중단 당시의 학교성적은 기대와 가능성 간의 괴리라는 고전적 긴장의 개념을 넘어서 사회심리적 관점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시킨 애그뉴(Agnew, 1992, 2006)의 일반긴장이론에서 주장하는 요인 중 ‘긍정적 목표성취의 실패’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낮은 학업성적을 개인의 능력부족으로 생긴 실패로 여기고 이것으로부터 긴장이 생겨난다고 볼 수 있겠다.

### III.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분포와 평균은 <표 1>과 <표 2>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표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 포함된 학업중단 청소년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았고, 이것은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보다 학업중단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전영실 외, 2013). 성차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보다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서 남자 청소년이 75.9%, 여자 청소년이 24.1%를 차지했다. 2012년에 소녀범죄자가 소년범죄자 가운데 16.9%를 차지한 것에 비추어 보면(범죄분석, 2013),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에게서 발견되는

<표 1> 성별, 결혼가정, 주관적 경제수준, 학교성적의 분포

변수	내용	일반 학업중단		보호관찰 학업중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별	0. 여자	332	42.8	53	24.1
	1. 남자	444	57.2	167	75.9
가정의 결혼여부	0. 온전가정	426	54.9	81	37.0
	1. 결손가정	350	45.1	138	63.0
가정의 주관적 경제수준	1. 매우 못 산다	30	3.9	18	8.2
	2.	93	12.0	37	16.8
	3.	156	20.1	47	21.4
	4. 보통수준	307	39.6	93	42.3
	5.	136	17.5	20	9.1
	6.	45	5.8	4	1.8
	7. 매우 잘 산다	9	1.2	1	0.5
학업중단 당시의 학교성적	1. 최하위권	103	13.3	54	24.5
	2. 하위권	170	21.9	81	36.8
	3. 중하위권	153	19.7	40	18.2
	4. 중위권	168	21.6	30	13.6
	5. 중상위권	95	12.2	10	4.5
	6. 상위권	57	7.3	3	1.4
	7. 최상위권	30	3.9	2	0.9

<표 2> 비행, 연령, 비행친구성향, 자기통제력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수		일반 학업중단	보호관찰 학업중단	t	p
학업중단 이전 비행	평균	2.53	3.80	-7.69	.000
	표준편차	2.23	1.97		
학업중단 이후 비행	평균	1.84	2.81	-6.88	.000a
	표준편차	1.68	1.90		
연령	평균	16.83	16.92	-1.11	.268
	표준편차	1.09	1.11		
비행친구성향*	평균	4.90	5.24	-2.33	.020
	표준편차	1.90	1.92		
자기통제력-태도*	평균	15.12	15.33	-.92	.359
	표준편차	2.90	3.10		
자기통제력-태도+행위*	평균	20.45	19.53	3.15	.002
	표준편차	3.84	3.73		

※ 위 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각 변수의 지표들의 단순합산을 기초로 산출됨

a: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값

성차는 청소년 비행에 대한 공식통계에서의 성비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일반학생들보다 결혼가정 출신비율이 높게 나타나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45.1%와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63.0%가 결혼가정 출신이었다. 가정의 구조적 결손이 자녀의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가정의 경제수준은 보통이 가장 많았다. 두 학업중단 청소년집단을 비교하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에, 36.0%가 보통수준보다 못 살고, 24.5%가 보통보다 잘 산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46.4%가 보통보다 못 살고 11.4%만이 보통보다 잘 산다고 응답하여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가정의 경제수준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들의 학업중단 당시의 학교성적은 전체적으로 중위권 미만이 많았다.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54.9%가 중하위권 이하의 성적을 받았고 23.4%만이 중상위권 이상의 성적을 받았다.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성적은 더 낮아서 79.5%가 중하위권 이하의 성적을 받았고 6.8%가 중상위권 이상의 성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연령은 16세 후반으로 일반 청소년과 보호관찰 청소년 간의 차이가 없었다. 비행은 학업중단 이전이나 이후 모두에서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높게 나타났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표 2〉). 비행친구성향에서도 비슷한 관계가 나타나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보다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친구에게서 더 높은 비행성향이 나타났다. 〈표 2〉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사실은 학업중단 청소년 두 집단 모두에서 학업중단 이후의 비행평균값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특별히 보호관찰 청소년에게서 발견되는 감소의 폭이 크다. 학업중단 이후에 비행이 줄어든 현상에 대해서는 논의부문에서 가능한 설명을 제시해보겠다.

두 집단 간의 자기통제력 차이는 태도적 측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태도와 행위를 함께 사용한 측정에서는 일반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자기통제력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집단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집단의 주요 변수들 간의 Pearson의 단순상관관계수가 〈표 3〉과 〈표 4〉에 각기 제시되어 있다.

**<표 3>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집단 주요 변수들 간의 단순상관계수 (N=776)**

	(1)	(2)	(3)	(4)	(5)	(6)	(7)
(1) 학업중단 이전 비행							
(2) 학업중단 이후 비행	.717***						
(3) 연령	.154***	.146***					
(4) 가정의 경제수준	-.112**	-.103**	-.063				
(5) 학업중단 당시 학교성적	-.208***	-.205***	-.056	.170***			
(6) 비행친구 성향	.267***	.239***	-.076*	.004	-.095**		
(7) 자기통제력-태도	-.383***	-.341***	.046	.079*	.152***	-.320***	
(8) 자기통제력-태도+행위	-.493***	-.445***	.012	.122**	.273***	-.328***	.883***

\*: p<0.05, \*\*: p<0.01, \*\*\*: p<0.001

**<표 4>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집단 주요 변수들 간의 단순상관계수 (N=220)**

	(1)	(2)	(3)	(4)	(5)	(6)	(7)
(1) 학업중단 이전 비행							
(2) 학업중단 이후 비행	.450***						
(3) 연령	-.011	.060					
(4) 가정의 경제수준	.058	-.040	-.142*				
(5) 학업중단 당시 학교성적	-.032	.046	.152*	.022			
(6) 비행친구 성향	.172*	.266***	-.058	.116	.050		
(7) 자기통제력-태도	-.334***	-.316***	-.010	.004	.055	-.431***	
(8) 자기통제력-태도+행위	-.356***	-.285***	.014	.065	.148*	-.408***	.991***

\*: p<0.05, \*\*: p<0.01, \*\*\*: p<0.001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집단을 보면, 먼저, 학업중단 이전의 비행경험이 이후의 비행경험과 매우 높은 정(+)의 상관관계( $r=.717, p<0.001$ )를 보여서 학업중단 이전에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일수록 중단 이후에도 비행을 저지르기 쉬운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비행이 높게 나타났고,

가정의 경제수준과 학업중단 당시의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각각 비행이 높게 나타났다(〈표 3〉).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친구(선후배 포함)들의 비행성향이 높을수록 응답자의 비행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태도적 측정과 태도와 행위의 통합한 측정 모두에서 비행과 부(-)의 관계를 보여서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비행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 이전의 비행과 이후의 비행 간에 정(+)의 상관관계( $r=.450, p<.001$ )가 나타났지만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보다는 현저히 낮은 상관계수값이다(〈표 4〉).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과 다르게, 연령, 가정의 경제수준, 학업중단 당시의 학교성적은 모두 비행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가정의 경제수준과 학업성적에서 각기 비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오지 않은 것은 표본의 크기가 작고, 가정의 경제수준과 학업성적의 변량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정의 경제수준의 경우에 보통수준 이하가 전체의 88.7%를 차지하고 학교성적에서는 중위권 이하가 93.1%에 달한다.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비행친구 성향과 비행 사이에 정(+)의 관계가 나타나서 친구의 비행성향이 강할수록 비행이 높게 나타났다. 두 가지 형태의 자기통제력도 모두 비행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통제력을 태도로만 측정한 경우보다 태도와 행동을 통합적으로 측정한 경우에 비행과의 상관계수값이 더 컸다.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정리하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모두에서 비행친구 성향은 비행과 정(+)의 관계를 갖고 있어서 친구의 비행성향이 강할수록 비행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자기통제력은 두 집단 모두에서 비행과 부(-)의 관계를 보여서 조사대상자의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비행을 저지르기 쉬운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자기통제력을 통합적으로 측정한 경우에 태도적으로 측정한 경우보다 비행과의 관계에서 상관계수값이 더 크게 나타났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검증하기 위해 다변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전의 비행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자기통제력의 태도적 측정을 사용한 분석결과를 보면, 성별, 연령, 결손가정 여부, 학교성적, 비행친구성향, 자기통제력이 학업중단 이전의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표 5〉). 구체적으로 여자보다 남자의 비행이 높고, 온전가정보다 결손가정 출신의 비행이 높았다. 연령과 친구의 비행성향이 높을수록 각기 비행이 높게 나타났고, 학교성적과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비행이 높게 나왔다. 분석에 사용된 7개의 독립변수들이 학업중단 이전의 비행을 설명한 결정계수는 .271이고 독립변수들 중에서 자기통제력의 태도적 측정이 갖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 $\beta = -.316, p<.001$ )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자기통제력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전의 비행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분석에서 자기통제력의 태도적 측정대신에 태도와 행위를 통합한 측정으로 분석했을 때, 7개의 독립변수 가운데 성별, 연령, 비행친구성향, 자기통제력이 비행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쳤고, 그 중에서도 자기통제력의 통합적 측정변인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이  $-.425(p<.001)$ 로 가장 높았다. 자기통제력의 통합적 측정을 사용했을 때의 결정계수는  $.332$ 로 자기통제력의 태도적 측정을 사용했을 때보다 결정계수가  $.061$  증가하였다.

**<표 5> 학업중단 이전의 비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beta$	t	$\beta$	t	$\beta$	t	$\beta$	t
성별	.211	6.75***	.205	6.83***	.058	.91	.063	.99
연령	.145	4.66***	.140	4.67***	.009	.13	.012	.19
가정의 결손여부	.069	2.12*	.049	1.58	.187	2.84**	.166	2.54*
가정의 주관적 경제수준	-.050	-1.52	-.039	-1.24	.094	1.39	.111	1.66
학업중단 당시 학교성적	-.098	-3.06**	-.038	-1.23	-.024	-.37	.011	.17
비행친구성향	.144	4.40***	.113	3.58***	.020	.27	.018	.25
자기통제력-태도	-.316	-9.62***			-.327	-4.62***		
자기통제력-태도+행위			-.425	-13.08***			-.350	-4.94***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	.271(.265)		.332(.326)		.150(.122)		.161(.133)	
F비	40.864***		54.635***		5.323***		5.793***	
사례수	776		776		219		219	

\*:  $p<0.05$ , \*\*:  $p<0.01$ , \*\*\*:  $p<0.001$

다음으로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전의 비행을 분석하였다. 자기통제력의 측정방식과 무관하게 가정의 결손여부와 자기통제력만이 학업중단 이전의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온전가정보다 결손가정 출신일 때 비행이 높게 나타났고,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비행이 높게 나타났다.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들 중에서 자기통제력이 가장 큰 베타값을 나타냈다(태도적 측정일 때  $\beta = -.327$ , 태도와 행위의 통합적 측정일 때  $\beta = -.350$ ). 자기통제력의 통합적 측정을 사용할

때의 결정계수가 .161로 태도적 측정을 사용할 때보다 결정계수가 .011 증가하여서 통합적 측정의 설명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전의 비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자기통제력만이 유일하게 두 학업중단 청소년집단의 학업중단 이전의 비행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고, 자기통제력의 태도 및 행위의 통합적 측정이 태도적 측정보다 더 큰 설명력을 보였다.

<표 6> 학업중단 이후의 비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beta$	t	$\beta$	t	$\beta$	t	$\beta$	t
성별	.197	6.11***	.191	6.13***	.091	1.41	.092	1.42
연령	.133	4.16***	.128	4.14***	.041	.62	.045	.67
가정의 결손여부	.103	3.09**	.086	2.66**	.000	-.00	-.015	-.22
가정의 주관적 경제수준	-.033	-.98	-.023	-.71	-.066	-.98	-.057	-.83
학업중단 당시 학교성적	-.103	-3.13**	-.050	-1.54	.060	.92	.080	1.22
비행친구성향	.127	3.78***	.098	3.01**	.177	2.46*	.193	2.69**
자기통제력-태도	-.278	-8.23***			-.248	-3.48**		
자기통제력-태도+행위			-.377	-11.18***			-.223	-3.09**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	.232(.225)		.281(.275)		.139(.111)		.129(.100)	
F비	33.161***		42.960***		4.873***		4.475***	
사례수	776		776		219		219	

\*: p<0.05, \*\*: p<0.01, \*\*\*: p<0.001

다음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였다. 먼저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후의 비행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자기통제력의 태도적 측정을 사용한 분석결과를 보면, 성별, 연령, 결손가정 여부, 학교성적, 비행친구성향, 자기통제력이 학업중단 이후의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표 6>). 구체적으로 여자보다 남자의 비행이

높고, 온전가정보다 결손가정 출신의 비행이 높았다. 연령과 친구의 비행성향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비행이 높게 나타났고, 학교성적과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비행이 높게 나타났다. 분석에 사용된 7개의 변수들이 학업중단 이후의 비행을 설명한 결정계수는 .232이고, 독립변수들 중에서 자기통제력의 태도적 측정이 갖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 $\beta = -.278, p < .001$ )이 가장 크게 나타나서 자기통제력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후의 비행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분석에서 자기통제력의 태도적 측정대신에 태도와 행위를 통합한 측정으로 분석했을 때, 7개의 독립변수 가운데 성별, 연령, 결손여부, 비행친구성향, 자기통제력이 비행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쳤고 그 중에서도 자기통제력의 통합적 측정변인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이  $-.377(p < .001)$ 로 가장 높았다. 자기통제력의 통합적 측정을 사용했을 때의 결정계수는 .281로 자기통제력의 태도적 측정을 사용했을 때보다 결정계수가 .049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후의 비행을 분석하였다. 자기통제력의 측정방식과 무관하게 친구의 비행성향과 자기통제력만이 학업중단 이후의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친구의 비행성향이 강할수록 비행이 높게 나타났고,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비행이 높게 나타났다.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들 중에서 자기통제력이 가장 큰 베타값을 나타냈다(태도적 측정일 때  $\beta = -.248$ , 태도와 행위의 통합적 측정일 때  $\beta = -.223$ ). 자기통제력의 통합적 측정을 사용할 때의 결정계수가 .129로 태도적 측정을 사용할 때보다 결정계수가 .010 감소하여서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이후의 비행을 설명할 때는, 앞의 분석과 다르게, 태도적 측정의 설명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후의 비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비행친구성향과 자기통제력만이 두 학업중단 청소년집단의 학업중단 이후의 비행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고, 측정방식과 무관하게 자기통제력이 독립변수들 중에서 가장 큰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을 보였다.

#### IV. 논의 및 결론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이 주요 비행이론들로 설명될 수 있는지가 이 논문의 출발점이었다. 설문지로 부터 이론의 주요 개념을 직·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선별한 결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친구의 비행성향, 가정의 경제적 수준, 학업중단 당시의 학교 성적수준 등의 변인들이 비행을 설명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집단의 경우에, 이변인관계 분석인 단순상관관계분석에서 위의 4변인은 학업중단 전·후의 비행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학업중단 전·후의 비행에 대한 다변인분석 결과, 비행친구성향과 자기통제력만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 중에서도 태도와 행위를 통합한 자기통제력 측정이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집단의 경우에, 단순상관관계분석에서 비행친구성향과 자기통제력이 학업중단 전·후의 비행 모두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나타냈다. 다중회귀분석결과, 학업중단 이전의 비행에는 자기통제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학업중단 이후의 비행에는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성향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결국, 자기통제력만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 전·후의 비행 모두를 설명할 수 있었고, 비행친구성향은 학업중단 이후의 비행에서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으나 그 설명력은 자기통제력보다 약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정리해보면, 자기통제력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 전·후의 비행을 모두 설명하여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자기통제이론의 일반성 주장이 경험적 지지를 얻었다.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전·후 비행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이전 비행의 설명에서는 태도와 행위를 통합하여 측정한 자기통제력 측정의 설명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후의 비행에서만 자기통제력의 태도적 측정이 가장 큰 설명력을 보였다. 비행친구성향은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이전의 비행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나머지(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전·후 비행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이후의 비행) 비행에는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차별교제이론은 제한된 지지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행친구성향은 차별교제이론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변수여서 이 분석의 결과가 차별교제이론을 지지한다는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범죄학에서 비행친구가 비행의 원인인지에 대한 논쟁은 근묵자흑(近墨者黑) 대 유유상종(類類相從)으로 간략히 표현된다. 착하던 아이가 비행친구의 영향으로 비행을 배워 저지르게 된다면 차별교제이론의 주장이 지지를 받겠지만, 원래부터 문제가 있던 아이가 문제가 있는 또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비행의 상승효과가 나타난다면 나쁜 친구는 원인이라기보다 기회의 성격을 더 갖는다. 이 논쟁에 대한 기존의 논의 가운데는 나쁜 친구가 자신의 비행을 투사(projection)한 결과라는 주장도 있고(Meldrum, Young, and Weerman, 2009), 청소년 비행이 단독으로 수행되는 경우보다

두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함께 지지르는 집단적 성격이 강한만큼 원인보다는 공범관계를 반영한다는 주장도 있다. 채플과 호프(Chapple and Hope, 2003)는 경찰에 잡힌 경험이 있는 친구를 범죄기회를 조작화하기 위한 한 문항으로 사용하기도 한 만큼 비행친구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치밀한 설계에 의해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예방 정책의 방향을 제안한다면, 청소년들의 자기통제력을 높이는 것이다. 자기통제력의 형성이 일차적으로 가정에서의 훈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다음으로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을 때 정부는 가정과 학교가 훈육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민수홍, 2014).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해 신분상의 불이익 없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와 어린 아이들이 즉각적인 욕구충족을 참아내는 능력을 키우도록 가르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이 필요하겠다. 학교 교육도 지식의 전달에 앞서 학생들의 자기통제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겠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겠다.

비행친구성향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근거해서 정책제안을 하자면, 그 인과관계가 근목자혹이든 유유상종이든 비행성향이 강한 청소년들끼리 어울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학업을 중단하기 이전에 이들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문제학생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32조의 준수사항 중에서도 2항 2호인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미국 일부지역에서 선별된 교사들이 보호관찰관과 같은 감독을 하기도 하고, 보호관찰관이 학교에 배치되어 학교현장에서 감독을 강화하는 시도를 참고하여 보호관찰관이 학교 담임교사와의 정보교환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민수홍, 2006).

앞의 <표 2>의 분석에서 학업중단 이후에 비행의 평균값이 줄어들었고 그 감소폭이 보호관찰 청소년에게서 크게 나타났었다. 우선, 왜 두 집단 모두에서 학업중단 이후에 비행의 평균값이 줄어들었을까? 첫 번째 설명은 학업중단 이전의 기간과 학업중단 이후 현재까지의 시간 간격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즉 학업중단 이전에 학교를 다니던 기간이 중단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보다 더 길기 때문에 비행을 저지를 기회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설명은 긴장의 근원인 학교를 그만둠으로써 긴장이 감소하여 비행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긴장이론은 사회·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성공을 하려면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 하지만 누구나 좋은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하위계층의 청소년일수록 높은 수준의 긴장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비행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학업중단으로 성공의 목표를 낮추거나 좋은 교육에의 접근성이 높아지지 않는 한 긴장이 낮아질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 부분은 중단연구를 통해서 검증해볼 필요가 있겠다. 머튼 이후에 기대와 가능성 사이의 괴리로 인한 긴장을 넘어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포함하도록 개념을 확대한 애그뉴(Agnew, 1992)의 관점에서 보면, 학업중단은 교사로부터의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Akers and Sellers, 2011). 그러나 학업중단이 학교에서 받던 스트레스는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가정에서의 스트레스와 호구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새로운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될 수 있어서 명확히 학업중단이 비행감소로 이어진다는 예측을 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왜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 감소폭이 더 큰 것일까? 첫 번째 설명은 이들 청소년이 정기적인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비행이 줄어들었을 수 있다. 두 번째 설명은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추가적인 비행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소년분류심사원 유치나 소년원 위탁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때 실제와 다르게 축소보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중단조사가 진행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마손율(attrition rate)이다. 조사대상자들의 생활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들을 추적하여 조사하기가 어렵고, 이들 중에는 범죄를 저질러 기관에 수용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어서 마손율이 낮게 유지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청소년들만 조사에 응하게 되는 문제가 예상된다. 또 다른 우려사항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조사방법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일대일대면 면접 방식을 사용한 일반 청소년과 달리 보호관찰 청소년은 자기기입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특별히 보호관찰 청소년이 보호관찰을 종료한 이후에 이들을 조사할 때 조사방법이 달라진다면 중단자료의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김준호, 이동원, 박미성. 1993. 『중퇴와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민수홍. 2006. “비행청소년을 위한 전환처우 프로그램: 미국의 예,” 청호 남상철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법문사, 279-290.
- 민수홍. 2014. “통제이론의 관점에서 본 범죄자의 배우자학대 가해경험” 한국범죄학 8(1): 195-224.
- 범죄분석. 2013. 『범죄분석』 대검찰청.
- 전영실, 김지영, 박성훈. 2013. 『비행학업중단 청소년 종단조사 및 지원방안 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엄아람, 최은희. 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영신. 2000. 『비행청소년의 학교 재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외국문헌〉

- Akers, R. and C. Sellers/민수홍, 박기석, 박강우, 기광도, 전영실, 최병각 역. 2011[2009]. 「범죄학 이론」 제5판, 나남출판.
- Agnew, Robert.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47-88.
- Agnew, Robert. 2006. “General strain theory: current status and directions for further research,” pp. 101-123 in Francis T. Cullen, John Paul Wright, and Kristie R. Blevins(eds.), Taking Stocks: The Status of Criminological Theory. Advances in Criminological Theory. Volume 15.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 Barbbie, Earl./고성호, 김광기, 김상욱, 문용갑, 민수홍, 유흥준, 이성용, 이정환, 장준오, 정기선, 정태인 역. 2014[2013]. 「사회조사방법론」 제13판, Cengage Learning.
- Chapple, Constance and Trina Hope. 2003. "An analysis of the self-control and criminal versatility of gang and dating violence offenders." *Violence and Victims*, 18(6): 671-690.
- Glueck, Sheldon and Eleanor Glueck. 1950.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New York, The Commonwealth Fund.
- Gottfredson, M and T. Hirschi,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 Stanford Univ. Press.
- Grasmick, H., C. Tittle, R. Bursik, and B. Arneklev. 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5-29.
- Hirschi, T. and M. Gottfredson. 1993. "Commentary: Test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Crime and Delinquency* 30:47-54.
- Meldrum, Ryan, Jacob Young, and Frank Weerman. 2009. "Reconsidering the effect of self-control and delinquent peers: implications of measurement for theoretical significanc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56(3): 353-376.
- Merton, Robert. 1938.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 672-682.
- Sutherland, Edwin and Donald Cressey. 1980. *Criminology*. Philadelphia: Lippincott.



# 토론 1



정혜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 학업중단 이후 비행 경로에 대한 일반학업중단 청소년과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비교

최근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매년 7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몇 년간 그 수는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체 재학생 대비 학업중단자 비율도 2006년 0.7%에서 2007년 0.9%, 2012년에는 1.1%로 증가했습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업중단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비행이나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학교중단 이후 비행 경로를 밝히는 것은 학술적 측면에서나 실천적 측면에서나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이며 흥미롭고 의미 있는 주제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주제를 고민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발표문 중심으로 몇 가지 궁금한 점과 고민 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연구의 목적은 학업중단 이후 일반학업중단 청소년과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이 비행에 이르는 경로를 비교함으로써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할까? 고민이 됩니다. 단순히 일반학업중단 청소년과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및 원인은 비교할 수 있겠지만, 같은 경로를 구성하여 다집단분석을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고민이 됩니다.

조사대상을 살펴보면 일반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중단기간이 1년 미만인 중고등학교 학령기 청소년입니다. 즉, 일반학업중단 청소년들에는 중단요인에 따라 예를 들면 학습지향형, 취업/알바형, NEET형, 비행형 등 다양한 형태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큼니다. 또한 비행도 학업중단 이후 처음 경험하는 청소년들도 있고 상습적으로 비행을 경험하는 청소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비행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장기보호관찰대상자 중 보호관찰기간이 1년미만에 해당되는 중고등학교 학령기 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기보호관찰대상자라는 것은 과거 상습적인 비행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고 비행 때문에 학업을 중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비행 또한 학업중단 이후 재비행하거나 오히려 형사사법체계를 거치면서 비행이 감소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행과 관련하여 서로 이질적인 집단에 대해 같은 이론적 과정을 가지고 경로를 구성하여 다집단분석을 한다는 것에 대해 고민이 됩니다. 특히, 비행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 그들의 현재에서 가장 중요한 비행과 관련된 변인은 형사사법체계일 것입니다. 때문에 모형을 구성할 때 이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며, 일반학업중단 청소년과는 다른 비행경로모형이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사려 됩니다.

또한 만약 이 연구의 목적이 일반학업중단 청소년과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 경로를 비교하기 위한 연구라면 비행경로를 중심으로 모형을 구성해야 하는 데 너무 원인론 중심으로 이론과 모형을 구성하고 있어서 본래의 연구목적이 흐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학업중단이후 청소년들에게는 새로운 의미의 긴장(스트레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어디에도 소속되어있지 않다는 불안감 등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긴장 가운데 하나로 '부정적 낙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업중단이후 다른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낙인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부정적 낙인이라는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낙인을 측정하고 있는 문항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를 통제요인으로 모형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제변인들은 비행을 통제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비행을 통제한다기보다는 참여, 친구애착, 부모애착, 부정적 낙인, 미래의 불확실성만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비행의 측정과 관련해서 일반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중단이후 비행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경험유무가 중요하다면, 비행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중단이후 비행의 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모형을 구성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학업중단이후의 비행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변인을 구성을 할 때 '학업중단'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시간의 흐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학업중단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변인과 변화가 없는 변인들을 정교하게 구분하고, 그 시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는 1차년도 횡단자료이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은 문항안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변수를 사용할 때 좀 더 세심한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토론 2



황 성 현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 학업중단 전후의 문제행동 변화에 따른 유형분류와 특성

이 연구는 보호관찰중인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에 범죄와 비행행위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만약 행위의 변화가 발생한다면 그런 변화에 영향을 미친 독립변인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한 연구로 평가된다. 특히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각 집단별로 향후 범죄 및 비행행위를 줄이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익한 연구로 평가된다. 이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 1) 선행연구에서 학업중단과 범죄와의 관계에서 학업중단이 범죄억제효과가 있다는 연구와 범죄촉발요인이라는 연구가 상반된다. 이런 상반된 결과의 원인파악을 위해 학업중단의 이유와 시기를 고려한 Jarjoura의 두 가지 연구를 제시하였는데, 학업중단과 범죄와의 관계를 밝히는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본다. 즉, Jarjoura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교 및 개인적 요인으로 학업을 중단한 아이는 중단이후 폭력범죄율이 증가하는 반면, 경제적 이유로 중단한 아이는 절도범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도 학업중단의 이유를 가장 중심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를 들면, 1차 설문지에서 학업중단의 이유를 묻는 24개의 문항을 크게 3-4가지(ex, 개인적 이유, 경제적 이유, 학교관련 이유, 가정적 이유 등)로 나누어 이런 이유와 학업중단 이후의 범죄성향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분석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2) (첫 번째 지적과 관련하여) 학업중단이 보호처분(형사처분)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이후에 이루어졌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연구는 학업중단을 한 일반청소년이 대상이 아니라 보호관찰 중인 학업중단 청소년이기 때문에 보호처분과 학업중단과의 관계 파악은 물론 보호처분과 그 이후의 범죄성향과의 관계 또한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이 데이터를 사용한 다른 연구에 따르면, 보호관찰청소년은 학업중단 이전에 비해 학업중단 이후에

범죄피해율이 줄어들었으나 범죄 및 비행율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보호관찰 처분이 비행 및 범죄율을 높이는지? 아니면 학업중단이 비행 및 범죄율과 관련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는 것이 차후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학업중단아이들의 범죄예방 정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3) 연구문제 part에서 세 번째 연구문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예를 들면, 범죄행동을 고위험집단, 감소집단, 저위험집단으로 나누고, 비행행동은 고위험집단, 음주/흡연 고위험집단, 저위험집단으로 분류했는데, 이런 분류는 단지 잠재계층분석이라는 분석기법의 결과로 나타난 집단분류이다. 잠재계층분석에서 추출된 계층의 수는 이론에 입각한 것인지 아니면 탐색적, 기술적 차원에서 데이터에 근거한 계층분류인지? 탐색적 차원의 계층분류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더 더욱 세 가지 계층분류가 연구문제에 탑재될 만큼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4) 연구결과에서 (첫 번째 지적사항에서 언급했듯이) 응답자들의 학업중단 이유를 빈도표를 제시하면 좋겠다. 학업중단의 이유는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므로 24가지 중단 이유 중에서 어떤 이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5) (지엽적인 사항이지만) 표3에서 잠재계층의 3가지 집단 비율을 표에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지문설명에는 “가장 많은 44.9%가 범죄행동 저수준 유지집단 으로 나타났고 ...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표에는 없으므로 표에 집단별 %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 6) 표3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면 좋겠다. 연구자는 전체 3가지 집단의 비율만 설명하고 있는데, 각 범죄행동별로 설명하든지, 아니면 잠재계층별로 어떤 집단의 응답자들이 어떤 형태의 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를 가능성(확률)이 있는지를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고위험 범죄집단에서 학업중단 이전에는 돈, 물건 빼앗기에 응답할 확률이 66.2%(0.66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돈, 물건 훔치기(0.597), 심하게 때리기(0.521) 순이지만, 학업중단 이후에는 돈 물건 훔치기에 응답할 확률이 74.9%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돈, 물건 빼앗기(0.652), 심하게 때리기(0.568) 순이다.”처럼 각 집단별로 어떤 범죄행동에 속할 확률이 있는지를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 7) 표4도 표3과 동일하게 각 집단별 비율표를 표에 제시하고, 각 집단별로 어떤 비행행동에 속할 확률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 8) 표5와 표6은 어떤 통계기법의 결과표인지? 연구방법에서 다항로지트를 언급했으므로 다항로지트의 결과로 예상된다. 만약 다항로지트의 결과표라면 표에 나타난 계수는 베타계수인지? 만약 그렇다면, 기대계수(Exp B)를 같이 제시해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대계수를 봐야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개인관련 독립변수에서 성별과 자아존중감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두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물론 성별의 신뢰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더 영향력이 강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Exp B 계수를 통해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9) 연구결과해석 또는 결론부분에서 3가지 연구문제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즉, 이 연구를 통해 3가지 연구문제는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해결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 10) 이 데이터를 이용한 다른 분석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보호관찰청소년과 보호관찰관의 관계는 긍정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거나 상담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관의 보호효과에 대한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연구와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지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미세한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제외하면, 본 연구는 보호관찰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이후에 범죄 및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3가지 집단별로 나누어서 깊이 있게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를 가진다.

## 토론 3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비행청소년의 학업중단 전후 문제행동, 자기통제력, 비행친구: 일반학업중단 청소년과의 비교

지금까지 널리 알려져 있는 범죄학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이라는 경험은 청소년 비행에 있어 여러 가지 보호요인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위험요인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을 구성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는 점은 청소년 비행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에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 전후의 비행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시도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비행예방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결과, 즉,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모두에게 있어서 자기통제력 정도와 비행친구 성향이 학업중단 이후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발견은 향후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에 커다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의 방향성이나 발견된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실 때에 조금 더 고려했으면 하는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재미있는 발견 중 하나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모두에게서 학업중단 이전과 비교하여 학업중단 이후의 비행이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학업중단이라는 경험은 비행행위를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증가하고,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증가할 수 있으며, 교사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등 비행을 증가시키는 가능성을 높인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의 결과가 나타났고, 이에 대해서 “학업중단 이전의 기간과 학업중단 이후 현재까지의 시간 간격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는 설명과 “긴장의 근원인 학교를 그만둠으로써 긴장이 감소하여 비행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는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번째 설명은 학업중단이 비행을 중단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향후 연구를 통해 학업중단 이후의

비행 평균값이 이전보다 감소했다는 것의 함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는 작업이 보완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학업중단이라는 경험이 청소년들의 비행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방법론적인 질문을 드리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사이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t검증>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데, 서로 다른 방법으로 표집된 두 집단의 평균비교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집단 모두 편의표집의 성격이 강하고, 이는 집단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일대일 대면면접 방법으로,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 수집되었기 때문에 비행의 측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두 집단에 대한 비교보다는 두 자료의 성격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통해 분석결과를 보다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두 집단을 같은 데이터 셋에서 상관분석이나 회귀분석을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t-test의 결과가 전체 논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호관찰 학업중단 학생들의 자료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추가적인 비행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소년분류심사원 유치나 소년원 위탁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때 실제와 다르게 축소보고 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학업중단 이전의 비행 보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표 2>에 따르면 학업중단 이전 비행 점수 평균이 3.8(표준편차 1.97)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수치를 근거로 어렵짐작해보면 꽤 높은 비율의 보호관찰 학업중단 학생들이 비행경험을 보고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 이전에 비행 또는 범죄 경험이 있다는 것과 다름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역시도 단일한 집단은 아닐 것이라 생각되며(이에 대해서는 다른 세션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표집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료에 대한 평가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결과의 해석도 이를 고려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토론문에서 제시한 것들은 현재 연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차년도 자료만이 수집되어 있는 상황이며, 2차년도, 3차년도 자료가 수집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 종합 논의

좌장 :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종합 논의



조사패널 구축방법에 따른  
결과 해석 및 한계

이 기 재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조사패널 구축방법에 따른 결과 해석 및 한계

## 조사패널 구축방법에 따른 해석 및 한계

2014. 7. 1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보통계학과  
이기재 교수

### 목차

- 1 **학업중단 청소년 중단조사 개요**
- 2 비확률표본의 활용과 한계
- 3 현행 조사데이터 분석과 해석
- 4 결론 및 제언

## 1장 학업중단 청소년 종단조사 개요 (1)

### ▪ 문제제기

- 조사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비확률표집을 사용해서 실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예: 표본추출틀이 없거나 조사협조율이 대단히 낮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
- 비확률표본으로부터 얻은 데이터의 분석에 대한 시각?
  - \* 확률표본이 아니기 때문에 무의미함
  - \* 비확률표집의 한계를 인정, 가능한 유용한 정보의 도출이 가능함
- 학업중단 종단조사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해석은?

## 1장 학업중단 청소년 종단조사 개요 (2)

### ▪ 그 동안의 학업중단 청소년 조사

- 연구대상자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10~20명의 학업중단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나 학업중단자들이 있는 시설이나 기관을 중심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음
- 조사대상자의 선정부터 선택편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학업중단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웠음
- 학업중단 이후 어떤 행로를 경험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웠음

## 1장 학업중단 청소년 종단조사 개요 (3)

### ▪ 학업중단 청소년 종단조사의 필요성

- 학업중단자의 삶은 정형화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이 때문에 학교 중단시점부터 추적조사를 하는 종단연구가 필요함
- 장기간의 추적조사가 유용하지만, 학업중단자의 극심한 유동성으로 조사패널 유지가 어려움
- 학업중단 초기, 3개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종단조사를 시도함. 학업중단 직후 이들의 생활과 경험은 급변할 것이라 예측됨

## 1장 학업중단 청소년 종단조사 개요 (4)

### ▪ 본 조사의 특징

-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업중단의 발생시점부터 대상자를 추적 조사하는 종단연구를 시도함
- 심터, 대안교육기관 등 특정 기관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자를 구했던 기존 학업중단자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를 통해 학업중단자 정보를 구함으로써 학업중단자의 실제에 보다 근접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 학업중단자 대상의 조사는 특성상 비확률표집을 통해서 조사될 수밖에 없지만 확률표집 요소를 강화하고자 하였음

## 1장 학업중단 청소년 종단조사 개요 (5)

### ▪ 조사패널 구축

- 학업중단 발생시점부터의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1년 이내 학업중단자를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으로 하였음
- 학업중단이 발생하는 학교에서 조사대상자 명부를 확보하는 방법 활용
- 고위기 비행 청소년의 누락을 막기 위해서 보호관찰소에서 별도의 학업중단 청소년패널 확보

## 1장 학업중단 청소년 종단조사 개요 (6)

### ▪ 1차년도 학업중단자 패널 구축 당초안 및 수정안

구분		당초안	수정안	학업중단기간
학교명부	중학생	202명	100명	1년 미만 학업중단자
	고등학생	398명	200명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200명	200명	
스노우볼링 웹 홍보	중고생학령의 정규 중고등학교 중단자	-	최대치	1년 미만, 1-2년 미만, 2년 이상 동일비율 확보
상담복지센터		-	100명	
직업훈련기관		-	100명	
검정고시학원 대안교육기관		-	100명	
총 표본		800명	800명	

## 1장 학업중단 청소년 종단조사 개요 (7)

### ▪ 1차년도 학업중단자 패널 구축 결과

구분		일반(개인)	일반(기관)	학업중단기간
학교명부	중학생	52명	0명	1년 미만 학업중단자
	고등학생	297명	0명	
상담복지기관	중고생학령의 정규 중고등학교 중단자	154명	0명	1년 미만, 1-2년 미만, 2년 이상 동일비율 확보
직업훈련기관		0명	57명	
검정고시학원		0명	148명	
대안학교		0명	19명	
스노우볼링 리스트		49명	0명	
총 표본		552명	224명	

## 1장 학업중단 청소년 종단조사 개요 (8)

### ▪ 주요 쟁점 1: 조사모집단의 정의

- 2012년 현재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수는 초등학교 19,163명(0.6%), 중학교 17,811명(0.9%), 고등학교 37,391명(1.9%)임
- 학업중단자의 학교급별 복귀 현황: 초등학교는 70~80% 수준, 중학교는 50% 수준, 고등학교는 18% 수준의 복귀율을 나타냄
- 학업중단사유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구체적인 중단사유가 없이 유예와 면제로만 구분함. 고등학교에서는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 등으로 학업중단 사유를 구분함

## 1장 학업중단 청소년 종단조사 개요 (9)

### ▪ 주요 쟁점 1: 조사모집단의 정의 (2)

구분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	합계
일반계	1,485	7,668	141	1,478	6,847	17,619
	8.4%	43.5%	0.8%	8.4%	38.9%	100.0%
특성화계	462	7,805	289	1,279	2,967	12,802
	3.6%	61.0%	2.3%	10.0%	23.2%	100.0%
합계	1,947	15,473	430	2,757	9,814	30,421
	6.4%	50.9%	1.4%	9.1%	32.3%	100.0%

출처: 윤철경 등(2013) p21 표 II-4를 재구성하여 작성

## 1장 학업중단 청소년 종단조사 개요 (10)

### -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 밖 존재 유형(추정)

유형	인원	출처	유형	인원	출처
평생교육시설	18,738	(기준일: '13.4.1)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직업훈련기관재학자	2,500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7,399	(기준일: '13.4.1) 교육부 학생복지과	보호관찰
유학/이민자	16,515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통계팀	소년원
		해외이주/파 견동행자	11,628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통계팀
장기입원자	5,358			건강보험공단 자료	
			소계	83,345	
			취업/아르바이트	?	
			무업자(은둔/배회형)	?	
			학원 (검정고시, 직업훈련 등)	?	

출처: 윤철경 등(2013) p24 표 II-8을 재구성하여 작성

## 1장 학업중단 청소년 중단조사 개요 (11)

### ▪ 주요 쟁점 1: 조사모집단의 정의

- 2002년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2003년 개정된 「청소년 기본법」제 42조에서 '학업중단'을 공식 용어로 규정한 이후에 용어가 통일되었다(이현주, 김용남, 2012: 152).
- 그렇지만 이 조사의 조사모집단인 학업중단 청소년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음. **조사설계와 분석결과의 해석 측면에서 볼 때 조사모집단과 조사대상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함**

## 1장 학업중단 청소년 중단조사 개요 (12)

### ▪ 주요 쟁점 2: 비확률표본 이용

-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완벽한 표본추출틀을 구축하여 확률표집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비확률표집을 써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임
- 비확률표집을 이용할 때 중요한 것은 추정결과의 편향(bias)을 어떻게 줄여 줄 것인가의 문제임
- 비확률표집법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조사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임

## 2장 비확률표본의 활용과 한계 (1)

- 확률표집(probability sampling)
  - 모집단의 모든 조사단위는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가능성)이 0보다 크고, 추출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표본추출법을 말함
  - 확률표집은 추정, 가설검정, 회귀분석 등의 통계분석에서 기본적인 전제조건임
  - 확률표집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조사모집단에 대한 명확한 정의, 추출틀 마련, 표본설계 등의 절차를 거치야 가능함

## 2장 비확률표본의 활용과 한계 (2)

- 비확률표집 활용에 대한 AAPOR 권고(AAPOR, 2013)
  - Unlike probability sampling, there is no single framework that adequately encompasses all of non-probability.
  - Transparency is essential. (표본추출, 실사과정, 통계적 추론 방법에 대하여 투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Making inferences for any probability or non-probability survey requires some reliance on modeling assumptions.

## 2장 비확률표본의 활용과 한계 (3)

- 비확률표집 활용에 대한 AAPOR 권고(AAPOR, 2013)
  - The most promising non-probability methods for surveys are those that are based on models that attempts to deal with challenges to inference in both the sampling and estimation stages. ([Model-based approaches typically assume that responses are generated according to a statistical model.](#))
  - Non-probability samples may be appropriate for making statistical inferences, but the validity of the inferences rests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assumptions underlying the model and how deviations from those assumptions affect the specific estimates.

## 2장 비확률표본의 활용과 한계 (4)

- 비확률표본을 이용할 때 추론 상의 한계(AAPOR, 2013)
  - 모집단의 상당부분은 표본으로 뽑혀 조사될 확률이 0임 (exclusion bias)
  - 비확률표본의 대부분은 자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입가능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조차 만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 비확률표집에서 협조율(participation rates)은 대단히 낮은 수준임 (협조율은 비확률표본의 quality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
  - 비확률표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조사된 데이터와 모집단의 관계 (relation)에 대한 강한 가정에 기초함

## 2장 비확률표본의 활용과 한계 (5)

### ▪ 비확률표집의 한계

(<http://www.surveygizmo.com/survey-blog/significant-differences-and-convenience-samples/>)

.... **always be cautious about inferences made from convenience samples since there could be a hidden systematic bias in the data.** It is always important that whenever you use convenience samples you consider the following when analyzing the results:

1. Who is systematically excluded from the sample?
2. What groups are over or under represented in the sample?
3. Have the results been replicated with different samples and data collection methods?

If testing for significant difference gives you peace of mind, even when using convenience samples, **do it to confirm the "direction" of the data, but restrain yourself from doing inferences to a larger population.**

## 3장 현행 조사데이터 분석과 한계 (1)

### ▪ 패널수집방법에 따른 응답자 현황: **성별 분포**

구분	패널수집방법(세부)						전체
	학교명부	상담복지기관	직업훈련기관	검정고시학원	대안학교	스노우볼링	
남학생	201	86	40	80	11	26	444
	57.6%	55.8%	70.2%	54.1%	57.9%	53.1%	57.2%
여학생	148	68	17	68	8	23	332
	42.4%	44.2%	29.8%	45.9%	42.1%	46.9%	42.8%
전체	349	154	57	148	19	49	776

### 3장 현행 조사데이터 분석과 한계 (2)

▪ 패널수집방법에 따른 응답자 현황: 가정 경제수준

구분	패널수집방법(세부)						전체
	학교명부	상담복지기관	직업훈련기관	검정고시학원	대안학교	스노우볼	
상	78	24	15	60	1	12	190
	22.3%	15.6%	26.3%	40.5%	5.3%	24.5%	24.5%
중	145	59	19	50	13	21	307
	41.5%	38.3%	33.3%	33.8%	68.4%	42.9%	39.6%
하	126	71	23	38	5	16	279
	36.1%	46.1%	40.4%	25.7%	26.3%	32.7%	36.0%
전체	349	154	57	148	19	49	776

### 3장 현행 조사데이터 분석과 한계 (3)

▪ 패널수집방법에 따른 응답자 현황: 학업성적

구분	패널수집방법(세부)						전체
	학교명부	상담복지기관	직업훈련기관	검정고시학원	대안학교	스노우볼	
상	85	25	10	44	1	17	182
	24.5%	16.1%	17.5%	29.7%	5.3%	34.7%	23.5%
중	84	25	10	38	4	7	168
	24.1%	16.2%	17.5%	25.7%	21.1%	14.3%	21.6%
하	180	104	37	66	14	25	426
	51.6%	67.5%	64.9%	44.6%	73.7%	51.0%	54.9%
전체	349	154	57	148	19	49	776

### 3장 현행 조사데이터 분석과 한계 (4)

#### ▪ 패널수집방법에 따른 응답자 현황: 학업중단 사유

구분	패널수집방법(세부)						전체
	학교명부	상담복지기관	직업훈련기관	검정고시학원	대안학교	스노우볼	
개인 사정으로	44	21	7	21	1	6	100
	12.6%	13.6%	12.3%	14.2%	5.3%	12.2%	12.9%
학교 사유	187	95	35	53	13	27	410
	53.6%	61.7%	61.4%	35.8%	68.4%	55.1%	52.8%
대안교육을 원해서	79	26	9	58	2	5	179
	22.6%	16.9%	15.8%	39.2%	10.5%	10.2%	23.1%
문제행동으로	39	12	6	16	3	11	87
	11.2%	7.8%	10.5%	10.8%	15.8%	22.4%	11.2%
전체	349	154	57	148	19	49	776

### 3장 현행 조사데이터 분석과 한계 (5)

#### ▪ 패널수집방법에 따른 응답자 현황: 학업중단 후 경로

구분	패널수집방법(세부)						전체
	학교명부	상담복지기관	직업훈련기관	검정고시학원	대안학교	스노우볼	
혼합형	40	13	4	16	2	2	77
	11.5%	8.4%	7.0%	10.8%	10.5%	4.1%	9.9%
학업형	155	73	21	70	4	20	343
	44.4%	47.4%	36.8%	47.3%	21.1%	40.8%	44.2%
직업형	59	31	14	25	8	10	147
	16.9%	20.1%	24.6%	16.9%	42.1%	20.4%	18.9%
니트형	53	19	9	22	3	11	117
	15.2%	12.3%	15.8%	14.9%	15.8%	22.4%	15.1%
비행형	42	18	9	15	2	6	92
	12.0%	11.7%	15.8%	10.1%	10.5%	12.2%	11.9%
전체	349	154	57	148	19	49	776

### 3장 현행 조사데이터 분석과 한계 (6)

#### ▪ 패널 수집방법별 응답자 특성 분석 결과

- 패널수집방법에 따라 응답자 특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직업훈련기관, 검정고시학원, 대안학교 등은 각각 고유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 현재 패널수집 유형별 조사모집단 규모를 알 수 없고, 추출확률도 알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전체를 통합해서 분석할 때는 추정의 편향(bias)이 발생할 수 있고, 편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전혀 알 수 없음
- 결국 조사데이터와 모집단 간의 모형 가정을 통해서 분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3장 현행 조사데이터 분석과 한계 (7)

#### ▪ 응답자 특성과 주요 변수와의 관계

- 우울증(합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성별, 경제적 수준, 학업중단 사유, 학업중단 후 경로, 패널수집방법(세부)**
- 자아존중감(합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성별, 학업성적, 가정경제수준, 학업중단사유**
- 자아탄력성(합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성별, 학업성적, 학업중단 사유**
- 충동성(합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학업성적**

### 3장 현행 조사데이터 분석과 한계 (8)

#### ▪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결과 제시 방안 (1)

- 응답자의 세부 특성에 따른 분석이 필요함. 즉 학업중단자 전체로 통계표를 작성하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불명확함
- 분석의 시작은 세부적인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차이가 없다면 묶어서 전체 학업중단자에 대한 통계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임

### 3장 현행 조사데이터 분석과 한계 (9)

#### ▪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결과 제시 방안 (2)

- 데이터 분석에서 '학교명부+상담복지기관+스노우볼링', '검정고시학원', '직업훈련학교+대안학교' 등으로 구분되어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패널수집방법에 따른 분석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음
- 따라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독립변인은 '학업성적', '가정경제사정', '학업중단 사유', '학업중단 후 경로' 등임
- 전체 표본크기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학업중단 사유'와 '학업중단 후 경로' 등이 통계표를 작성할 때 중요하게 살펴볼 독립변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이와 같은 분석이 의미 있게 하는 가정은?)

### 3장 현행 조사데이터 분석과 한계 (10)

#### ▪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결과 제시 방안 (3)

구분	학업중단 사유				전체
	개인 사정으로	학교 사유	대안교육을 위해서	문제행동으로	
혼합형	8	44	18	7	77
	8.0%	10.7%	10.1%	8.0%	9.9%
학업형	53	178	75	37	343
	53.0%	43.4%	41.9%	42.5%	44.2%
직업형	15	83	29	20	147
	15.0%	20.2%	16.2%	23.0%	18.9%
니트형	14	57	31	15	117
	14.0%	13.9%	17.3%	17.2%	15.1%
비행형	10	48	26	8	92
	10.0%	11.7%	14.5%	9.2%	11.9%
전체	100	410	179	87	776

### 3장 현행 조사데이터 분석과 한계 (11)

#### ▪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결과 제시 방안 (4)

- 학업중단 사유와 중단 후 경로와의 연관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는 현행 학업중단 사유 구분 방법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는 뜻으로 보임
- 현행의 학업중단자와 일반 학생의 응답결과의 비교는 참고자료로 가치만 있음. 가설검정은 기본적으로 확률표집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단간의 비교는 큰 의미가 없음

## 4장 결론 및 제언 (1)

### ▪ 결론

- 비확률표본에서 얻은 데이터의 분석에서 전체 모집단으로의 추론, 추정량의 오차 계산, 가설검정 등은 큰 의미가 없으며, 가능한 조사된 데이터에 대한 기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비확률표본에 의한 조사는 선택적 편향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가능한 동질적인 특성을 갖는 세분화된 집단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분석하여 해석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사유'와 '학업중단 후 경로' 등을 구분변수로 하는 분석이 의미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학업중단 사유에 대한 분류 방식에 대한 검토도 제안하였음

## 4장 결론 및 제언 (2)

### ▪ 제언

- 유용한 정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업중단 사유와 학업중단 후 경로를 적절하게 분류하여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학업중단 사유 분류에 대한 검토와 다른 모집단 정보에 표준화된 학업중단 사유 이용)
-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모집단 및 조사대상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
- 비확률표본의 불가피성,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데이터 수집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 데이터 분석 및 해석의 한계 등을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적 차원에서 학업중단자에 대한 기초조사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초로 향후 추적조사를 기획할 수 있을 것임



종합 논의

.....

# 학업중단(위기) 청소년을 위한 정책 현황 및 방향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학업중단(위기) 청소년을 위한 정책 현황 및 방향

## 1. 연구결과로부터의 시사점

### 1) 일반학생과 학업중단 청소년 집단 비교와 시사점

학생 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이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를 질문한 결과, 개인적 특성인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그리고 우울감 등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의 정서적 지원에서도 차이는 없었다. 다만 부모의 경제적 지원 면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핵심적인 차이는 학습 부적응과 학교규정 위반경험, 친한 친구 수 등 학교생활과 게임중독, 문제행동 등이었다. 학업중단학생은 학습부적응이 높았으며 학교규정 위반경험이 많은데 특히, 무단결석이나 수업 빼먹기 등의 규범 위반 행위는 일반학생은 거의 하지 않는 행동인데 비해 학업중단 청소년은 빈번히 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친한 친구수가 더 많았으며 일반학생에 비해 흡연, 음주 등의 지위비행이 더 많았다. 그러나 돈이나 물건 훔치기,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음란물 보기, 기물파손 등의 비행은 일반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은 학업중단위기 청소년을 빨리 발견하는 것은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이다. 학습부적응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무단결석, 무단결과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기발견 및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2) 학업중단 사유와 중단 후 경로의 연관성과 시사점

본 연구는 학업중단자의 경로를 어떤 형태로든 학업을 지속하는 학업형, 직업훈련을 받거나 전일제 알바나 취업 등의 취업형, 학업도 일도 하지 않는 무업형, 비행형으로 구분하였다.

학업중단 사유와 중단 후 경로를 보면 대안교육 사유로 중단하는 경우 학업형, 문제행동을 사유로

하는 경우 비행형, 학교사유로 하는 경우 취업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무업형은 현재의 중단 사유 구분과 어떤 관련성을 찾기가 어려웠다.

시사점은 학업중단 사유가 그 이후 경로와 연관성이 예측되는 만큼 중단 시 이에 따른 맞춤형 정보제공과 진로지도 등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 3) 중단 후 경로와 시사점

#### (1)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학업지원 필요

학업중단 후 경로가 개인적, 환경적 특성과 중단 이후 경험과 인식 등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학업형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자아존중감, 충동성, 게임중독, 부모의 경제적·정서적 지원, 친구의 폭력성향, 진로탐색, 낙관성 등에서 더 긍정적이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2.6%(2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졸이상의 교육을 받고자 하였다. 학교는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학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취업형 청소년을 위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관연계 필요

취업형 청소년들은 중단 사유를 학교부적응이나 불필요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취업형 청소년은 부모가 안계시거나 경제적 지원이 적은 청소년들이며 중요한 차이는 학업중단 시 진로나 직업에 대한 정보제공이다. 학업중단 기간이 길수록(동일 연령에서) 취업형 경로를 선택할 확률은 낮아진다. 취업형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즉 동일 연령 집단에서는 중단기간이 길수록 취업형 경로를 선택할 확률이 낮아진다. 학업중단 시 가장 필요한 도움이 진로정보 탐색이며 직업훈련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평균 1단위 높아질 때 14.1% p 취업형 경로 참여율이 나타났다.

#### (3) 무업형 예방을 위해 중단이후 생활에 대한 진로계획과 다양한 정보제공 필요, 또래관계망 형성 지원

무업형 청소년들에 대한 분석에서 의미 있는 결과는 역시 학업중단 당시 정보제공을 받은 경험 유무가 대단히 중요한 변수라는 점이다. 학업중단 이후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할수록

무업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의미 있는 결과는 중단 이후 친한 친구들이 많을수록 무업형 생활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들이 많을수록 중단이후 생활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무업형이 되느냐 그렇지 않은가는 배경변수나 부모와의 관계보다는 진로결정을 했는 지 여부, 중단 후 만족도 등 중단 이후 상황이 무업형 여부와 더 밀접하다는 사실은 학업을 중단했더라도 이들에 대한 지속적 개입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 (4) 조기학업중단 예방 및 긍정적 활동 지원,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

보호관찰 학업청소년에 대한 분석에서 학업중단 시기와 중비행과 관련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강지현, 박성훈·전영실). 다른 어떤 요인보다 이른 시기에 학업중단 하는 것이 폭력이나 재산비행 등 중비행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른 시기에 학업중단을 하는 것이 대안적 학업활동 등 긍정적 활동보다 비구조화된 활동에의 노출을 증가시켜 심각한 비행으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조기 학업중단의 예방이 우선적이며 학교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차원의 개입, 또한 조기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긍정적 활동의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호관찰관과의 관계 지원을 위한 인력과 예산의 확대, 부정적 친구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 지역사회에서 사회유대요인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 2. 국내 정책 현황

학업중단대책의 정책유형은 크게 ①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정책, ② 학업중단자, 즉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③ 이를 위한 전달체계 구축 및 강화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윤철경 외, 2013: 276).

2013년 11월 학업중단 관련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이라는 합동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교육부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업중단예방체제 구축에,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대책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부의 주요 대책은 ① 학업중단 위기 징후의 조기발견, ②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③ 학업중단 후 학업복귀를 위한 사후관리·지원, ④ 공교육 내 대안교육 기회 확대, ⑤ 학교의 학업중단예방 역량강화, ⑥ 전달체계 및 법적 기반 강화이다. 교육부는 총 309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하여 이러한 정책집행을 뒷받침하고 있다.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가족부의 주요 대책은 ① 학교밖 청소년 조기발견 및 접근 강화, ② 두 번째 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 및 자립지원, ③ 취약청소년 생활, 의료, 주거지원 확대 등이다.

여성가족부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며 입법, 공포함으로써 학교밖 청소년지원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확고히 하였다. 동 법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집행하도록 하는 것, ②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를 설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③ 학교 등에서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청소년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순조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전국 50여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설치되어 그 기능을 수행해왔지만 동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또한 학업중단 발생 시 학교밖 지원센터와의 학교와의 연계 고리를 마련함으로써 학업중단 청소년이 사회에 방치되는 기간을 가능한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이러한 법 제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학교교사연수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교육부·여성가족부의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정책 주요내용

구분	정책과제	소요 예산	정책대상	주관기관 /관련기관	
학업중단 예방정책	중단위기 조기발견 및 대응	학업중단 예방 매뉴얼 및 진단 도구 개발	1.9억	학교/센터	교육부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80억	학교/센터	교육부/교육청
		꿈키움 멘토단 운영	8.5억	학교/센터 등	교육부/교육청
	학교 대응능력 강화	학업중단 예방 컨텐츠개발	6억	학교	교육부/교육청
		학업중단 다수 발생학교 지원 및 선도모델 개발	41억	학교	교육부/교육청
	대안교육 활성화	대안교실 지원	68.8억	학업 중단자	교육부/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원	13억	위탁기관	교육부/교육청
		공립 대안학교 지원	17억	대안교육기관	교육부/교육청
		기타 대안교육 지원 사업	25.3억	대안학교	교육부/교육청

학교밖 청소년 지원정책	복귀지원	학업중단 이력 정보시스템 구축	12억	학업 중단자	교육부/교육청
		학교복귀 지원	25.5억	학업 중단자	교육부/교육청
	학교밖 청소년 조기발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적시대응	-	학업 중단자	여가부/상담복지개발 원
		학업중단시 개인정보 제공을 통한 연계	비예산	학업 중단자	여가부/상담복지센터
	서비스 지원	교육 및 자립지원	-	학업 중단자	여가부/상담복지센터
		생활·의료·주거지원	-	학업 중단자	여가부/상담복지센터
법/전달체계	법	학교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학업 중단자	여성가족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 학업중단 숙려제 기회 제공	-	학업중단 위기학생	교육부
	전달체계	학업중단예방센터 운영	10억	센터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중앙/지역)	-	지역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합계			309억		

본 대책이 나오기 이전에 각 부처가 추진하던 정책을 일람하면 <표 II-13>과 같다. 각 부처의 지원사업 내용을 분류하여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크게 ① 상담·멘토링·동반자와 같은 인적 지원 서비스, ② 당장의 생활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 ③ 직업훈련 및 학업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지원, ④ 거주할 곳을 지원하는 주거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교육부는 Wee 프로젝트를 통해 Wee Class, Wee Center, Wee School 등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위기학생들을 위한 상담지원을 강화하여왔다.

여성가족부는 기존에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지원(해밀)과 자립지원(두드림존)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으며 청소년동반자와 같이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인적 지원, 청소년특별지원 과 같은 경제적 지원 사업을 펼쳐왔으며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와 같은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지원<sup>1)</sup>을 하고 있다. 내일배움카드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년에 2백만원(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1) 2012년도에 14,629명에 대해 연 200만원 한도 지원.

취업사관학교를 통해 15세 이상 24세 미만의 학교밖 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무료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기계가공, 특수용접, 커피 바리스타, 피부미용 등 4개 분야, 4개 기관을 지원하였다(여성가족부, 2013b: 431)<sup>2)</sup>.

보건복지부는 청소년이 진로를 찾고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멘토링을 제공하기 위한 멘토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법무부는 소년원을 나온 청소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관을 제공하고 있다.

**표 2 범부처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서비스 현황**

지원서비스	정책과제	2013년 집행액	정책대상	주관기관 / 관련기관
인적 지원	Wee 프로젝트 인프라 확대	173억	학업중단위기학생	교육부/교육청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70억	위기 청소년	여성가족부/지자체
	청소년 진로·자립지원 멘토링 네트워크	10.6억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보건복지부
경제적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4억	한부모 청소년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7억	위기청소년	여성가족부/지자체
교육훈련지원	내일배움카드제	-	학업중단청소년	고용노동부
	취업사관학교	20억	학업중단 청소년	고용노동부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 학업중단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33억	학업중단 청소년	여성가족부/지자체
주거지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81억	가출청소년	여성가족부/지자체
	소년원 출원생 자립생활관 운영	11.7억	소년원출원생	법무부
합계		407.7억		

\* 출처: 여성가족부(2014), 2014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pp.476-575를 기초로 작성함.

### 3. 외국의 정책 현황

<표 3>에서 주요국의 관련정책을 개관하였다.

2) 2012년도에 4개 기관에서 127명의 훈련생 중 96명이 수료하였으며, 74명이 취업함(여성가족부, 2013b: 431).

표 3 주요국의 학업중단 대책 개관

국가	특징
프랑스	학업능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제공(Relay Classes, Relay Workshop) 중퇴자의 경우 별도의 2년제 훈련 과정을 제공하여 직업인으로 전환
영국	의무교육연수 확대, 학업장려용돈제공, 다양한 고등학교 교육
독일	근로 및 학업문화 발전 및 위기청소년을 돕기 위한 지역연합체 발족
스위스	개별 학생 진로지도 및 사례관리, 전환학년제 시행
핀란드	전환학년제, 의료진/상담교사/사회복지사/기업체 연합의 통합 청소년 고용촉진 프로그램 제공
노르웨이	중학교→고등학교 전환기에 학업중단 고위험군 학생 개별상담과 진로지도 중학교 3년간 진로교육의무화 작업장 수의 혁신적인 증가로 직업교육의 기회확대
미국	양극화, 사회계층별 소득격차가 가장 심한 국가로 사회개혁과 학교개혁이 동시에 필요함. 차터스쿨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 및 개별사례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의 성공적 개입은 미비
캐나다	Ontario 정부의 Student Success Strategy 가 성공적인 사례: 진로교육, 학생 참여확대, 작업장 훈련 등의 통합모델
호주	학업장려용돈제공 진로상담 사례관리 의무화

\* 자료: Stephen Lamb 외 (2011), *School Dropout and Completio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ies in Theory and Policy*, Heidelberg: Springer.

프랑스의 경우, Relay Classes, relay workshops (part-time)은 중고등학생 중, 학교중퇴의 징후가 보이는 학생들이 약 3개월간 거치는 과정( 법무부, 교육부, 지방정부, NGO 등이 연합)으로 교육/진로지도 등을 하고 있다 (Blanchard & Sinthon, 2011:95). 또한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는 1년간 개별지도, 직업경험, 기초 literacy & numeracy 교육을 전일제로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는 고등학교 졸업시험에 통과해야 졸업장이 나오는데 이 시험을 이미 2차례 이상 통과하지 못한 학생, 학업능력이 뒤처지는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졸업시험 통과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Blanchard & Sinthon, 2011:95). 이미 학교를 이미 중퇴한 경우에는 “Second Chance School” (전국 36개 학교, 약 4,000명의 학생을 수용가능)을 두고 있다. 학교를 중퇴한 지 2년이 넘은 16-25세의 청소년의 경우 입학이 가능하며 기초학업능력 증진과 직업훈련을 병행하여, 직업인으로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국비지원으로 학생부담이 없다 (Blanchard & Sinthon, 2011:96)

영국의 경우, 의무교육 기간을 만 18세까지 연장함으로써 학업중단을 예방하면서 그 형태도 다양하게 개발해 왔다. 영국의 교육법은 점진적으로 의무교육 기간을 확대해 왔다 (Sullivan &

Unwin, 2011: 117). 의무교육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full-time education 뿐 아니라, work-based learning(apprenticeship, apprenticeship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만,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으로 작동하며 동일한 커리큘럼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인턴십과 차이가 있다. 또한 일과 학업을 계속하는 Part-time education with continuous education (주당 20시간 일을 하면서 수업을 듣는 과정)도 지원하고 있다(Sullivan & Unwin, 2011: 118).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의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만 18세 학생 중 보호자의 연간소득이 30,000 파운드이하인 경우, 주당 30파운드의 용돈(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 교육지속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Sullivan & Unwin, 2011: 124). 이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일을 할 수 밖에 하는 학생들을 위한 배려를 정책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학업중단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학업중단자의 수를 측정하는 방법이나 학업중단자를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 지원이 미비하며 및 학계의 이론적 논의도 초기단계로 진단하고 있다(Reupold & Tippelt, 2011, 166). 독일의 경우, 지역별로, Learning Regions, 위기청소년 및 저소득계층 청소년을 위한 상담, 학습문화/근로문화 조성 및 학습/근로지원을 위한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 있으며 또한, 학교 내에서는 상담가와 사회복지사, 고용주가 협력하여 학생들의 학교- 직업장 연계가 원활하도록 돕고 있다(School-to-Work transition) (Reupold & Tippelt, 2011, 166). 학업중단자들이 주로 선택하는 경로는, 성인교육센터(Adult Education Center)에서 제공하는 검정고시프로그램이다(Reupold & Tippelt, 2011: 167-168)

**스위스**의 경우, 전환학년 프로그램(Transitional Programs)를 실시하고 있다. 스위스는 중학교 졸업자의 약 70%가 직업교육을 선택한다. 직업교육은 Apprenticeship 위주의 실무교육이기 때문에 작업장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작업장을 찾지 못한 학생들이 1년간 유예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해 전환학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기초학력증진, 외국어 교육 및 진로교육 등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적성에 적합한 작업장을 찾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Pagnossin, 2011: 202-203).

또한 사례관리-직업교육(Case management- Vocational training)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스위스 현지인과 이민자 그룹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이들을 위한 국가적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만 13-18세의 청소년들 중 학업이나 직업교육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이를 추적,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직업교육을 받도록 도와주는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Pagnossin, 2011: 206).

**핀란드**의 경우, 다양한 페다고지, 대안교육, 진로교육 등에 관한 논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별히 직업교육 교과과정에서 직접 일을 해보면서 배우는 학습 (work-based learning) 강화했으며 저소득층 및 이민자등과 같은 잠재적 취약청소년에 대한 개별상담 및 진로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Rinne & Jarvinen, 2011: 224-225).

또한 핀란드 역시 스위스 전환학년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10학년(Grade 10) 때 학업성적이 부진하거나 중학교이후의 상급학교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전환학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직업학교, 지역 내 산업체와 협력하여 수업을 제공하며 지역 내 산업체와 협력하여 개별진로지도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Rinne & Jarvinen, 2011: 225). 청소년워크숍 (Youth Workshop Activity)은 사회복지, 교육, 노동부의 연합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로 제도적으로 정착된 프로그램이다. 만 25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미래설계, 생애설계, 개별상담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워크숍에는 사회복지사, 상담가, 의료전문가 등으로 통합적 지도력으로 구성되며 특별히, 직접 체험을 통해 배운다는 철학 (Learning by doing)을 바탕으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 3개월 이상 NEET(무업형)(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소년들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되고 있다(Rinne & Jarvinen, 2011: 226-227).

**노르웨이**의 경우, 타 북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apprenticeship 을 할 작업장이 부족한 것이 단점이었으나, 작업장 수를 혁신적으로 늘려서 성공적인 개혁을 했다. Reform 94가 1994년에 이루어진 이후로 모든 학생들이 중등교육을 마치고 연속적으로 고등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Markussen, Fr øseth, Sandberg, L ødding & Borgen, 2011: 225, 259)

노르웨이에서는 2003년부터는, 조기학업중단자 예방계획 (Plan of Action against Early Leaving in Upper Secondary Education)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중학교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초기 몇 달간 학업부진 학생을 포함하여 학업 중단 고위험군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상담과 진로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Markussen, Fr øseth, Sandberg, L ødding & Borgen, 2011: 267-268). 2006년부터 중학교 3년간 의무 진로상담 및 진로과목 이수(Reform 2006)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충분한 정보가 더 나은 선택으로 이끈다는 신념에 기초한 것이다(Markussen, Fr øseth, Sandberg, L ødding & Borgen, 2011: 268)

**미국**의 경우, 학업중단율이 높은 편이라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학업중단 문제가 학계 및 정치계의 관심을 끌어왔으나, 학업중단이 발생하는 원인에 있어 사회경제적 계층과 학업중단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진행되었을 뿐, 여러 차원의 정책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Rumberger, 2011: 275-276, 288-289)

미국의 경우, 공교육 붕괴가 심각하여 학교개혁에 대한 논의가 크며, 근본적으로는 사회경제적 계층, 소득격차 완화 등 사회개혁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umberger, 2011: 291). 교육개혁 조치로 차터스쿨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차터스쿨의 효과성에 있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는 입장이다. 그 밖에 직업교육, work-based learning, project-based learning 등과 같은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Rumberger, 2011: 289).

**캐나다**의 경우, Second-Chance Program or Adult Education Program이 있는데 한국의 검정고시학원 같은 곳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주로 찾는 프로그램이다 (Janosz, Bisset, Pagani & Levin, 2011:300). Ontario 주의 Student Success Strategy, 가 성공적인 사례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 정책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율이 68%에서 75%로 증가하였다(Janosz, Bisset, Pagani & Levin, 2011:314). 이 정책의 특징은 학업중단학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동시에 실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간 학생들에게 매년 새 학년 시즌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내 학생자치제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교내참여(School Engagement)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교장-교사-상담가의 협력을 통해 개별학생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정규수업을 직업장 훈련으로 대체하는 과정(apprentice certificate)이 있으며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는 동시에 대학과정의 일부를 이수하는 과정, 기업체 내 파견근무 또한 학점으로 인정하는 유연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특징적인 것은 Youth Allowance이다. 가정형편이 좋지 못한 청소년에게 교육/진로훈련 장려금을 제공하고 있다 (Lamb, 2011:333).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in Schools (VETiS)을 실시하고 있는데 만 15세 이상의 모든 청소년들은 진로계획 수립을 위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Case-management model인데 진로교사의 활용을 통해 학교 내 직원과 학생의 유대가 강화되고 중도탈락율이 감소하고 있다(Lamb, 2011:333-334)

주요국의 관련대책을 종합하면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학교차원 (Individual & School Level)의 대책**으로 미국에서 연구가 활발한데 저소득층 및 부모의 교육수준과 학업중단을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의 규모가 작고, 학생과 교사간의 적극적인 소통 및 교육이 이루어질수록 학업중단율은 감소하고 있다. 초기 학습습관과 학업성취도와 학업중단율간의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Markussen & Sandberg, 2011:393).

**둘째, 교육체계 차원 (System Level)의 대책**으로 노르웨이는 Reform 94를 통해 모든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며, 작업장에서 도제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장 수를 혁신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직업교육을 강화시켰다(Markussen & Sandberg, 2011:394-395).

**셋째, 상담과 진로교육 (Counselling & Career Guidance) 강화**이다. 노르웨이에서는 중학교에서 진로교과목 2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으며 호주에서는 만 15세 이상의 모든 학생은 진로상담을 받고, 진로상담사는 모든 학생을 개별 사례로 관리하고 있다 (Markussen & Sandberg, 2011:395-396)

**넷째, 용돈제공 (Income Support) 이다.** 호주와 영국, 스코트랜드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중 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청소년에게 용돈을 제공하고 있다. 스코트랜드 파일럿조사에 의하면 용돈제공 유무에 따라 7%에서 9% 로 학업/훈련참여율이 증가했다 (Markussen & Sandberg, 2011:396).

**다섯째, 의무교육 연수확대 (Raising the Compulsory School-leaving Age)**이다. 영국의 경우 만 18세까지 의무교육을 받도록 법제화,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의무교육기간이 차이가 있는데, 이 기간이 길수록 중도탈락율이 낮다는 보고되고 있다(Markussen & Sandberg, 2011:396-397).

**여섯째, 직업교육 (Vocational Education)**이다. 학업중단자 및 학업부진학생에게 제공되는 가장 보편적인 대안교육으로 스위스, 독일, 스코트랜드, 프랑스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프랑스의 경우, 과거 20-30년간 고등학교 졸업율을 높인 주요 요인으로 직업교육 및 직업교육 자격증의 제도화가 지적되고 있다(Markussen & Sandberg, 2011:398-399)

**일곱째, 다양한 졸업요건과 교육제공(Diversified Qualification & Extended Schooling)**이다. 미국의 경우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 (GED), 노르웨이의 경우 Competence at a lower level, 호주의 경우, Victorian Certificate of Applied Learning 등이 제공되고 있다. 이는 정규고등학교 과정이나 정규직업과정에서 충분한 기술을 연마하지 못한 학생에게 제공되는 최소한의 자격증으로 일반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기술자격증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발휘하는 가치는 낮다(Markussen & Sandberg, 2011:399-401)

#### 4. 결론 : 정책 방향

- 1) 학업중단 조기발견과 대한 대응체계 : 사례관리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학업성적, 무단결석 및 결과 등 진단지표를 통해 조기발견을 한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대응체계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 진단지표를 통해 숙려제 신청 학생뿐만 아니라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이들에 대한 사례관리와 다양한 활동과 상담 등을 가미한 학교 내외 대안교육 및 직업훈련, 상담치료 등 학생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이 많이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상담과 사례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이러한 학교에 대한 상담전문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하여 현재보다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

## 2) 학업중단 사유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중단 이후 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필요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 사유를 세밀하고 정확하게 파악, 조사하며 중단 이후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당사자 뿐 아니라 학교교사, 전문상담가, 학부모 모두 학업중단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후 진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

학업지속방법, 직업 및 진로 찾기, 다양한 긍정적 활동 정보 제공과 더불어 또래관계, 성인멘토 등과 사회관계망 확대와 유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한다.

## 3) 학교와 직업훈련기관(또는 작업장)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자원 발굴

학업중단의 주요 이유는 학습부적응으로 현재의 학교에 의미를 못느끼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이들을 직업체험을 하며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훈련기관 또는 작업장이 발굴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를 중단하지 않으면서 진로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4) 청소년 자조모임 및 긍정적 청소년활동 연계 필요

학업중단 이후 긍정적 또래관계를 맺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단 이후 경로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자조모임등을 통해 인간관계망에서 고립되지 않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참여를 통해 동기화 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 카페,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종교기관 등과 연계하는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 5) 경제적 지원 필요

학업중단 사유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고단하여 잦은 지각과 결석이 누적되어 중단위기에 빠지는 학생들이 많아. 이러한 학생이 교육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특별지원의 제도개선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 뿐 아니라 중단 위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6) 무업형 청소년의 발굴과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무업형 청소년은 잘 드러나지 않기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이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공간 및 핀란드 청소년워크숍과 같이 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의료전문가 등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이들을 발굴하고 지역사회로 유인해 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 7) 작고 유연한 학교, 교사-학생 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의 학교개혁 필요

작은 학교는 교사-학생간 관계를 강화하며 관계망을 통해 학생들의 안정감, 소속감이 강화된다. 작고 유연한 학교, 교사-학생 소통의 활성화 등 학교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 새 학년 진급 시 학업중단이 많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모든 학생을 위한 적응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 8) 다양한 형태의 학업지원과 졸업자격 부여 필요

학교를 그만둔다 하여도 청소년들은 어떤 형태로든 학업을 지속하려고 한다. 이들이 학력취득을 돕기 위해서 전일제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이 필요하다.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학력취득 지원을 위한 전일제 대안학교 뿐 아니라 기초학업 능력과 직업훈련을 병행하는 학교, 임금을 받는 전일제, 또는 파트타임형 도제식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

인 쇄 2014년 7월 10일

발 행 2014년 7월 1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

---